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추정수영

글·사진

황의호·황의천·민병선

 보령 문화원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 저자소개 }

황의호_黃義虎_보령문화원 부원장

-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 주요저서
『보령의 地名』(1998), 『보령의 고인돌』(2000), 『보령의 洞祭』(2002), 『보령의 烽燧臺』(2004, 공저), 『보령의 水利梗』(2007), 『보령의 金石文』(2010, 공저), 『保寧市誌』(2010, 편저), 『보령 石공업 300년』(2012), 『효자도리』(2013), 『보령의 喪輿』(2016), 『보령 구룡리』(2017).

황의천_黃義千_대천고 교사

- 공주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졸업
- 공주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수료(교육학 석사)
- 주요저서
『병오 홍주의병과 흥경일기』(2004), 『보령의 烽燧臺』(2004, 공저), 『집성당지』(2007 공저), 『보령의 金石文』(2010, 공저), 『保寧市誌』(2010, 편저), 『마지막 보부상 6군상무사』(2012), 『남포 대천장과 주변의 문화』(2013), 『보령의 인물』(2015), 『보령의 漢詩』(2015 공저)

민병선_閔丙善_보령시청

- 중앙대학교 사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수료(문학석사, 한국사 전공)
- 논문
『충청수영의 설치배경』(2007)
『19세기 忠清水營의 運營과 機能』(2012).

충청슈영

글·사진

황의호·황의천·민병선

 보 령 문 화 원

 충 청 남 도 문 화 원 연 합 회

보령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충청수영을 전국에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령문화원장 황 의 호

충청수영은 조선시대 충청도 해안 지역 최고 수군 기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 휘하에는 마량진, 소근진, 안흥진, 평신진, 서천포, 당진포, 파지포, 등 여러 곳의 수군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휘하 수군진을 지휘하며 충청해안의 왜구 침입 방어 및 조운선 안내 역할을 하였고,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국가 대변란을 당하여는 국가 방어의 일선에 섰던 충청수영이 우리 보령의 오천에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최고의 군사 도시로 유명했던 오천의 충청수영이었지만 또한 영보정을 중심으로 한 절승은 우리나라 유명 시인 묵객들의 선망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충청수영은 갑오개혁과 함께 훼손되어 약간의 흔적만이 남아왔고 우리 보령 시민들은 항상 아쉬움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사적 501호로 지정되면서 다시 한 번 충청수영의 역사 문화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충청수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금까지 연구되지



나 조사된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충청수영의 연혁이나 역사 그리고 수영 내에 있었던 여러 건물, 수영이 거느렸던 여러 속진 등의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자료를 찾으며 연구에 노력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 집필에 힘써 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책이 우리 보령의 문화적 정체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충청수영을 전국에 더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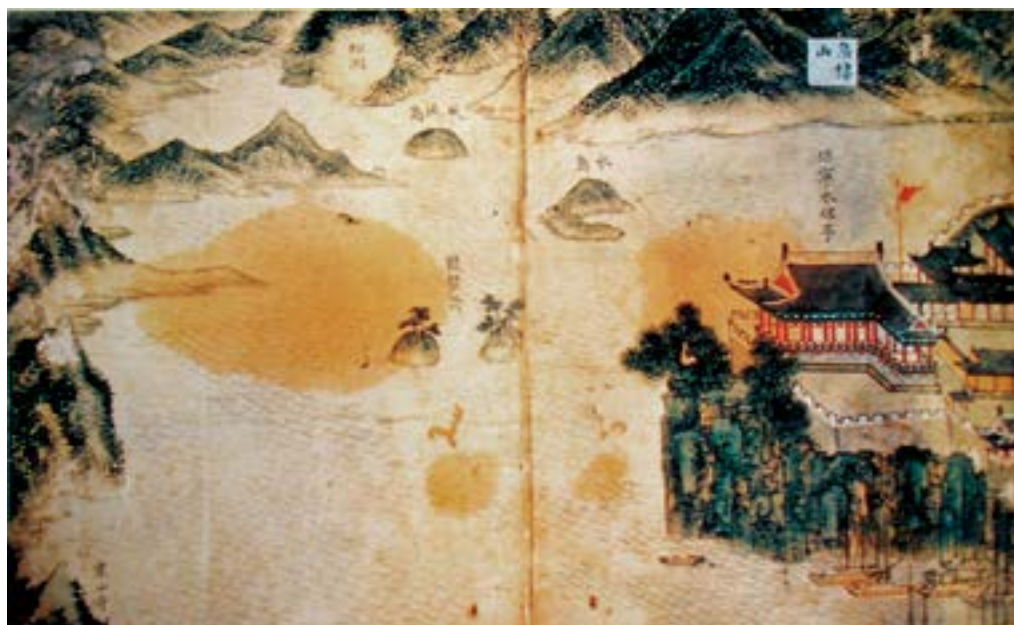
해동지도(18세기 중엽)



지승(19세기 후반)



보령부지도의 충청수영(1872년)



영보정 - 이돈중(1765~?)



영보정 - 하백원(1842년)



황학루 - 하백원(1842년)



충청수영(1967년, 국토지리정보원)



충청수영(2016년)



남문 부근(1910년대, 김철두 님 제공)



서문 부근(1910년대, 김철두 님 제공)



오천군청과 객사 부근(1910년대, 김철두 님 제공)



면사무소자리로 옮겨진 객사(일제초기)



영보정 상량식(2015. 6. 10.)



영보정(2017년)



객 사(2017년)



삼 문(2017년)



진흠청(2017년)



진흠청 상량문



서문 - 외부(2017년)

서문 영건기록(1558년)



서문 - 내부(2017년)



동문지(2003년)



동문지(2017년)



성 안의 우물(2017년)



충청수영 비석군(2017년)



충청수영의 건물지(2015년)



충청수영의 건물지(2016년)



옛 건물의 장초석(2017년)



동쪽 성벽(2017년)



성벽의 단면 - 동쪽(2010년)



남동부 성벽의 치(2017년)



남문 서쪽 성벽(2017년)



남쪽 성벽 발굴(2017년)



남쪽 성벽 - 외부(2017년)




남쪽 성벽 - 내부(2017년)



원산도 봉수대(2003년)



계급 장군 후손 방문(2014년)



차례

사진으로 보는 충청수영(忠淸水營) · 04

1. 충청수영의 창설과 변화 · 27

- 1) 조선 초기 수군제도의 정비 · 28
- 2) 고려말 충청 해안의 왜구 침입 · 30
- 3) 충청수영의 설치 · 32
- 4) 조선의 수군 편제의 정비와 조선초기 충청도 수군진 편제 · 36
- 5)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 중기 충청도 수군진의 편제 · 39
- 6) 양란 이후의 충청도 수군진의 변화 · 42

2. 충청수영 본영(本營) · 45

- 1) 지리적 배경 · 46
 - (1) 지형 · 46
 - (2) 해양 · 49
 - (3) 교통 · 51
 - (4) 고만(古巒)과 회이포(回伊浦, 현 오천)의 입지 비교 · 55

2) 충청수영의 연혁 · 57

- (1) 충청수영의 이설 논의 · 57
- (2) 안흥행영(安興行營) 설치와 혁파 · 60
- (3) 충청수영과 보령현의 합속 운영 · 66
- (4) 충청수영의 폐영 · 70
- (5) 폐영지의 양주 조씨 선영(先塋) 조성 · 72
- (6) 오천군 신설 · 76
- (7) 일제시기 오천 발전 노력 · 84
- (8) 충청수영 연혁 맺는 말 · 88

3) 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 90

- (1) 축조시기 · 90
- (2) 규모와 성곽시설 · 91
- (3) 성벽(城壁) · 92
- (4) 성문(城門) · 108
- (5) 연못[池] · 120
- (6) 우물 · 122

4) 충청수영 영사(營舍) · 125

- (1) 주요 건물의 위치 변천 · 125
- (2) 충청수영의 영사(營舍) 변화 · 139

- (3) 영보정(永保亭) 영역 · 145
 - (4) 객사(客舍) 영역 · 159
 - (5) 동헌(東軒) 영역 · 168
 - (6) 진혈청(賑恤廳) 영역 · 176
 - (7) 장교청(將校廳) 영역 · 178
 - (8) 중영(中營) 영역 · 182
 - (9) 관청(官廳) 영역 · 185
 - (10) 군기(軍器) 화약고(火藥庫) 영역 · 186
 - (11) 선소(船所) 영역 · 188
 - (12) 한산사(寒山寺) 영역 · 190
 - (13) 충청수영의 명승 · 197
 - (14) 원산진(元山鎭) · 201
- 5) 충청수영의 운영 · 202
 - 6) 충청수영의 옛 비석 · 208
 - 7)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 · 235
 - (1) 임진왜란과 최호(崔湖) · 235
 - (2) 병자호란과 강진흔(姜晉昕) · 244
 - (3) 수군절도사 명단 · 260
 - 8) 충청수영의 봉수망 · 267

9) 병인박해와 선교사의 순교·순교자 이외의 처형 상황 · 274

3. 충청수영의 속진 · 277

1) 마량진(馬梁鎭) · 278

- (1) 마량진의 설치 · 278
- (2) 마량진의 이설(移設) · 282
- (3) 마량진성 · 285

2) 소근진(所斤鎭) · 289

- (1) 소근진의 설치와 기능 · 289
- (2) 소근진성 · 293

3) 안흥진(安興鎭) · 295

- (1) 안흥진의 설치와 기능 · 295
- (2) 안흥진성 · 301

4) 평신진(平薪鎭) · 304

- (1) 평신진의 설치와 운영 · 304
- (2) 평신진지(平薪鎭址) · 309

- 5) 서천포영(舒川浦營) · 313
 - (1) 서천포영의 설치 · 313
 - (2) 서천포영성 · 314

- 6) 파지포영(波知浦營) · 317
 - (1) 파지포영의 설치 · 318
 - (2) 파지포영성 · 321

- 7) 당진포영(唐津浦營) · 323
 - (1) 당진포영의 설치 · 324
 - (2) 당진포영성 · 327

4. 충청수군진의 위치 변화와 입지의 특징 · 332

- 1) 위치 변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 332
- 2) 성벽축조와 입지의 특징 · 336
- 3) 오늘날 지명의 흔적 · 338

1. 충청수영의 창설과 변화



- 1) 조선 초기 수군제도의 정비
- 2) 고려말 충청 해안의 왜구 침입
- 3) 충청수영의 설치
- 4) 조선의 수군 편제의 정비와 조선초기 충청도 수군진 편제
- 5)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 중기 충청도 수군진의 편제
- 6) 양란 이후의 충청도 수군진의 변화



1. 충청수영의 창설과 변화

1) 조선 초기 수군제도의 정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역사적으로 관방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육지 방어체제 못지 않게 해안 방어체제 구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지방의 육지 방어체제로 각 도에 병마절도사영(兵馬節度使營 - 兵營)을 설치하고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兵使)를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해안 방어체제로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 - 水營)을 설치하고 정3품직의 무관인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 水使)를 파견하여 해안 방어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 수군절도사영의 휘하에는 해안의 각 요해처(要害處)에 속진(屬鎭)을 설치하여 군선(軍船)과 주사(舟師)를 배치하고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지방의 해안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조선 초기의 방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방군은 크게 육수군(陸守軍)과 기선군(騎船軍)으로 구분된다. 육수군의 거점은 영(營)·진(鎭)이고, 기선군의 거점은 포(浦)였다. 각 병마도(兵馬道)에는 고려 말부터 전임(專任)의 도절제사(都節制使)가 파견되었는데, 그 도절제사의 거점이 영(營)이다. 한편 연해지역의 거점인 요새에는 진(鎭)이 설치되었는데 그 진에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었다.

그리하여 도절제사의 영에 배속된 영군(營軍)과 첨절제사의 진에 배속된 진군(鎭軍)은 ‘영진군(營鎭軍)’으로 합칭되었다.¹⁾

이와 같은 육수군의 정비와 함께 해상방어를 위해 기선군의 정비도 이루어졌다. 기선군은 해안 요새인 포(浦)를 거점으로 삼았다. 기선군이란 배를 타고 싸우는 군사를 말하는데, 흔히 선군(船軍)으로 칭해지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 기선군이나 선군이라는 명칭은 아직 수군에 대비되는 해전(海戰)전문의 수군으로서의 독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²⁾이며, 이 기선군과 선군이 『경국대전』에 와서야 ‘수군’으로 명명되어 육수군과는 별개로 파악하여 제도화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 선군이 확장되고 각 포가 증설되는 것에 대한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기선군의 정확한 군액 통계나 각 포(浦)의 위치 등은 현재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선초기의 선군 군액의 확장은 시위패(侍衛牌)에서 충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종이 집권하면서 사병이 혁파되고 갑사(甲士)가 복설되면서 농민변상병인 시위패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태종 12년 1월에 각도의 시위군으로서 선군에 윤대(輪代)하도록 조치가 내려졌다. 이와 같이 시위패를 이루는 병력의 일부가 기선군으로 편입됨으로써 기선군의 확장이 이루어졌다.³⁾

세종대 선군의 군액은 49,337명인데, 이는 세종대의 군정 총계인 96,259명의 약 반액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적 특수지대인 평안도 함길도를 제외한 6도의 군정 총계인 77,734명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의 군액은 영진군의 군액 10,802명 보다 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선군이 전체 지방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⁴⁾

성종대에는 여러 차례 군액 조정이 있었는데, 성종 6년의 군정수를 보면

1) 閔賢九, 『朝鮮初期의 水軍制度和 政治』, 韓國研究員, 1983, 181~191쪽.

2) 방상현,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1991, 19쪽.

3) 閔賢九, 앞의 책, 214~218쪽.

4) 李載堯, 『朝鮮初期 社會構造 研究』, 일조각, 1984, 117~118쪽.

양인층의 병종으로 정병이 72,109명, 수군이 48,800명이다. 정병은 세조대에 시위군 영진군 수성군 익군이 합속하여 이루어진 병종인데, 그 군액이 세종대의 46,824명에서 72,109명으로 약 배액(倍額) 가까이 증액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수군은 48,800명으로 거의 비슷한 군액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병 중에서 번상정병이 27,620명이고, 유방정병이 44,484명이다. 그러므로 지방군으로서의 정병과 수군의 군액은 비슷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⁵⁾

이와 같이 조선시대 수군은 세종대에 정비되었는데, 성종초 이후에도 양인층의 주된 병종이었다.

2) 고려말 충청 해안의 왜구 침입

왜구는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말기인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한반도와 중국연안에서 활동한 일본의 해적집단을 말한다.

이 시기 왜구의 침입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왜구침입(倭寇侵入) 지역표(地域表)⁶⁾

道別	침입횟수	침입지역	道別	침입횟수	침입지역
咸南	8	5	忠北	17	8
平北	6	5	忠南	78	38
平南	8	5	全南	36	22
黃海	28	15	全北	42	23

5) 李載堯, 앞의 책, 119~120쪽.

6) 羅鍾宇, 위의 책, 397쪽. 민병선, 「19세기 忠淸水營의 運營과 機能왜구침입」 2012에서 재인용.

道別	침입횟수	침입지역	道別	침입횟수	침입지역
江原	32	17	慶北	55	32
京畿	65	27	慶南	97	29
			合計	472	226

위의 표에서 볼 때 침입지역은 평북과 강원도를 비롯해 평남 등 전국에 걸쳐 침입하였고, 특히 3南(忠淸·全羅·慶尙道) 지방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경상도지방은 지리적으로 왜구의 근거지와 가깝기 때문이며, 서해안의 전라·충청도지역은 곡창(穀倉)지대와 조운선(漕運船)의 통로라는 점 때문에 약탈의 대상지역이 된다. 왜구의 가장 큰 침구 목적이 양곡(糧穀)의 탈취(奪取)⁷⁾에 있었던 만큼 충청도 서해안 지역은 호남 곡창지대에서 산출된 미곡을 서울로 운반하는 조운선이 통과하던 중간지점인 까닭에 왜구침탈의 중요 목표로 설정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태조실록 1권, 총서 66번째 기사를 통해 보령 지역과 가까운 고려말 우왕 때의 금강하구의 왜구 침입 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신우(辛禰) 6년(1380) 경신 8월, 왜적의 배 5백 척이 진포(鎭浦)에 배를 매어 두고 하삼도(下三道)에 들어와 침구(侵寇)하여 연해(沿海)의 주군(州郡)을 도륙하고 불살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인민을 죽이고 사로잡은 것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시체가 산과 들판을 덮게 되고, 곡식을 그 배에 운반하느라고 쌀이 땅에 버려진 것이 두껍기가 한 자 정도이며, 포로한 자녀(子女)를 베어 죽인 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서 지나간 곳에 피바다를 이루었다. 2, 3세 되는 계집아이를 사로잡아 머리를 깎고 배(腹)를 쪼개어 깨끗이 씻어서 쌀·술과 함께 하늘에 제사지내니, 삼도(三道)

7) 이재범, 「고려 후기 倭寇의 성격에 대하여」, 『史林』 第19號, 2001, 62~65쪽.

연해(沿海) 지방이 쓸쓸하게 텅 비게 되었다. 왜적의 침구(侵寇)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은 일찍이 없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에 의하면 오늘날 보령 지역인 남포현에 왜구가 침입하여 지역을 유린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홍무(洪武) 13년 경신에 왜구(倭寇)로 인하여 인물(人物)이 사방으로 흩어졌으므로, <공양왕(恭讓王) 2년> 경오에 비로소 진성(鎭城)을 설치하고, 유리(流離)해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안집(安集)시켰다. 본조(本朝) 태조(太祖) 6년 정축에 비로소 진병마사(鎭兵馬使)를 두고 판현사(判縣事)를 겸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여말 선초에 우리나라에 왜구의 침입이 심해졌고 특히 충청도 해안은 조운선의 통로여서 많은 왜구가 침입했으며, 그 대표적인 곳이 금강하구인 진포와 보령의 남포현 등지였다. 이러한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보령에 충청수영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3) 충청수영의 설치

충청수영이 언제부터 현재의 위치인 보령시 오천 소성리에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수군도안무처치사는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帶回伊浦)에 머무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에 이미 보령 오천에 수영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청도 지역의 나머지 수군기지 7군데는 만호(萬戶)가 머무른다고 기록하고 있어 오천은 15세기인 이 당시에 이미 가장 격이 높은 수영(水營)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충청수영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오천이 회이포(回伊浦)로 불렸음을 알 수 있지만, 군사적 기능이나 또는 어떤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1983년 발간된 『내 고장 보령』에는,

오천은 백제 때부터의 항구로, 백제 때는 회이포라 불렸고, 백제 때부터 신라까지는 어항이었으며 때때로 당나라와 교역하는 항구 구실을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문헌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고려시대는 오천의 남쪽에 있는 고만(高巒: 현재의 솔섬)이 대외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 세가 문종 31년 8월조에,

나주도(羅州道)의 제고사(祭告使) 대부 소경(大府少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조(中朝)의 사신(使臣)들이 고만도(高巒島)의 역정(驛亭)으로 왕래함은 수로(水路)에서 다소 떨어져서 배 당기가 불편하오니 청컨대 홍주(洪州) 관할 하의 정해현(眞海縣) 땅에 정(亭) 하나를 창치(創置)하여서 영송(迎送)하는 장소로 삼으소서.”

라고 하여 고려시대는 고만이 중국과 통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곳 고만에 처음으로 수영이 설치되는 것도 이곳이 고려시대는 오천보다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忠淸水營事例集(충청수영사례집)』⁸⁾과 이를 근거로

8) 『충청사례집』 필사본. 조선 말기 필사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나 작자는 미상이다. 64장으로 구성되었다.

1915년에 작성된 『鰲川郡誌』에는 〈洪武二十八年丙子洪自海爲僉使古巒〉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태조 5년(1396) 홍자해를 고만에 첨사로 임명한 것을 충청수영의 시초로 보고 있다. 결국 최초의 충청수영은 고만에 설치되었다가 회이포 즉 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고만(高巒)은 수영이 있던 오천면 소성리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현재의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솔섬(松島)이 있는 곳의 지명이다. 지금도 고만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 지금은 보령화력발전소 건설 관계로 육지로 연결되었지만,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섬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곳은 고려시대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교통요지였고 현재 인근 해역은 고려청자 매장구역의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니, 고려·조선초기에는 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기능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곳이 태조 때 처음 충청수영의 역할을 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 태종 때 현재의 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⁹⁾

이곳 고만은 바다 쪽으로 내민 지형인 곳에 있는 조그만 섬이어서 완전히 바다에 노출되어 왜군의 침입시, 또 조운선 안내시 유리한 점도 있으나 불리한 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 첨사영(僉使營)에서 격이 낮은 만호영(萬戶營)으로 되고, 도안무처치사영은 회이포(回伊浦) 즉 오천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만 만호영은 오천의 수영과는 약 9km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세조 6년(1460) 만호영이 혁파되고 선군(船軍)은 처치사영(수영)과 좌도 도만호영(소근진)으로 분속되어진다.¹⁰⁾ 따라서 오천이 충청수영으로서 역사에 부각되는 시기

9)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2년(1402)에 고만량만호가 왜적과 싸우는 내용이 나오고, 세종 1년(1419)에 다시 고만량 만호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태조 5년(1396) 이후에 고만에 첨사가 파견되었다가 태종대에 회이포(오천)로 수영이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10) 『조선왕조실록』 세조3년 1월 16일조
충청도(忠淸道)·전라도(全羅道)·경상도(慶尙道)의 도순찰사(都巡察使) 박강(朴薑)과 부사(副使) 구치관(具致寬) 등이 경상도·전라도·충청도의 여러 진(鎭)과 여러 포(浦)를 순심(巡審)하고… “충청도 보령(保寧)의 고만포(高巒浦)는 처치사영(處置使營)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별도로 만호(萬戶)를 두는 것은 적당치

는 도안무처치사영이 설치되는 태종 때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고만이 충청수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천의 수영은 태종 9년(1409)에 李龜鎮을 병사겸 수군도절제사로 임명해 홍주목 관하에 두게 하였고, 1421년(세종 3)에는 元胤을 도안무처치사로 임명하였으며, 1447년(세종 29)년에는 도안무처치사 朴培가 영사건립을 시작하였고, 1464년(세조 10) 도안무처치사 鄭得蕙 재임시에 처음으로 우후(虞侯)를 두었다. 1467년(세조 13)에는 金奉元으로 처음으로 수군절도사를 삼았다.¹¹⁾

그리고 수군절도사와 우후체제가 갖추어진 후인 1510년(중종 5) 비로소 돌로성을 쌓았는데, 성의 규모는 주위가 3,174척, 높이가 11척, 그 안에 4개의 우물과 한 개의 연못이 갖추어졌다.¹²⁾ 이 축성작업을 지휘하여 1년여 만에 완성한 인물은 수사 이장생(李長生)이었다.¹³⁾ 이리하여 수사와 우후 그리고 수영성이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충청수영의 체모가 보령 오천에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위의 내용을 『충청수영사례집』에 의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永樂 七年 乙丑(1409년, 太宗 9) 李龜鎮 兵馬兼水軍都節制使領洪州牧使
- 永樂 十九年 辛丑(1421년, 世宗 3) 元胤 都按撫處置使(改號都按撫處置使)
- 正統 十二年 丁卯(1447년, 世宗 29) 都按撫處置使 朴培 始營舍建成
- 天順 八年 甲申(1464년, 世祖 10) 都按撫處置使 鄭得蕙 始置虞侯

못합니다. 지금 만호를 혁파하고 그 선군(船軍)을 처치사영(處置使營)과 좌도(左道) 도만호영(都萬戶營)에 분속(分屬)하게 하소서.”

11) 『충청수영사례집』

12)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현 관방조

13) 『충청수영사례집』

수사 李長生에 대하여는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그 후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장생(1467~1522년)의 본관은 加平이고 1490년(성종 21) 무과에 급제한 후 선전관 함경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고 1509년(중종 4) 43세의 나이에 충청수사로 부임하여 수영성을 축조하였다. 묘소는 논산시 연산면에 있다. 후손과 지역민의 뜻을 담아 2005년에 수영성내에 필자가 비문을 짓고 종중의 노력으로 水使李長生永世不忘碑를 건립하였다.

- 成化 三年 丁亥(1467년, 世祖 13) 金奉元 始水軍節度使(改號水軍節度使)
- 弘治 十七年 甲子(1504년, 燕山君 10) 咸川君 李良 新建永保亭
- 正德 四年 己巳(1610년, 中宗 4) 李長生 始築長城

4) 조선의 수군 편제의 정비와 조선 초기 충청도 수군진 편제

수군은 태조 때부터 각 도별로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등에 의하여 통솔되었다. 수군도절제사·수군첨절제사는 정확히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군도절제사 첨절제사의 직명이 각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과 4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¹⁴⁾ 수군도절제사 첨절제사는 태조 초에 이미 설치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세종 2년 10월에는 수군도절제사가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로 개칭되었다.¹⁵⁾ 수군도절제사 수군첨절제사 휘하에는 태조 7년에 만호(3품 이하), 천호(4품 이상), 백호(5품 이상) 등을 두었으나 태종 13년에 만호(3품), 부만호(4품), 천호(5품), 부만호(6품)로 개칭되었는데 이때에 백호는 사라졌다. 그런데 세종 25년에는 다시 3·4품을 만호로, 5·6품을 천호로 개칭하였다.¹⁶⁾

이와 같이 정비된 우리나라 전국 수군의 편제는 『세종실록지리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4) 『朝鮮王朝實錄』 태조 2년 3월 갑자

『朝鮮王朝實錄』 태조 4년 7월 기해

15) 『朝鮮王朝實錄』 세종 2년 10월 임술

16) 李載堧, 앞의 책, 122쪽.

『세종실록지리지』의 수군편제

道名	水軍編制		
경기도	수군첨절제사 2員	×	만호 4員
충청도	수군도안무처치사 1員	도만호 2員	만호 5員
경상도	수군도안무처치사 2員	도만호 2員	만호 17員
전라도		도만호 2員	만호 13員
황해도	수군첨절제사 1員	×	만호 6員
강원도	×	×	만호 6員
평안도	수군첨절제사 3員	×	
함길도	×	×	만호 2員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초기 우리 나라 수군의 편제는 각 도마다 통일된 것이 아니었다. 각 도에는 수군도안무처치사 수군첨절제사 등을 두어 다스렸는데 경기도, 경상도에는 각각 2원(員)이며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에는 각각 1원(員)이며, 강원도, 함길도에는 그 직임이 없고 평안도에는 첨절제사만 있고 만호는 없다. 그리고 국방상의 요새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는 도만호가 각각 2원씩 배속되어 있으며 경상도, 전라도에는 많은 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만호 수가 많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충청도 선군(船軍) 즉, 수군의 배치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선군의 배치상황

편제단위	官名	정박처 (현재위치)	中 大 船	中 孟 船	兵 船	無 軍 中 大 船	無 軍 船	快 船	別 船	追 倭 別 孟 船	船 軍 (명)	船 直 (명)
수군도안무 처치사		보령현 서쪽 帶回伊浦 (보령 오천 소성리)	6	18		6		4		6	1,766	114
좌 도	도만호	朽斤 伊浦			11		2			2	1,400	

편제단위	官名	정박처 (현재위치)	中大船	中孟船	兵船	無軍中大船	無軍中船	快船	別船	追倭別孟船	船軍(명)	船直(명)
좌도	만호	波治島			13		1		2		790	
	만호	당진			13						790	
	만호	대진	신평현 북쪽 대진 (당진 신평 한진리)			13					794	
우도	도만호	龜井			16		1		2		1,302	
	만호	서천	서천 장암포 (서천 장항 장암동)			16					797	
	만호	高巒梁	보령현서쪽 송도포 (보령 주교 송학리)			10					661	

위 표는 조선초기 충청도 수군진 편제에 대한 최초의 상황을 알려준다. 여기에 의하면 충청도의 경우 수군 편제는 수군도안무처치사 1원이 수군을 통솔하였는데, 그 휘하에 좌도·우도 도만호 2원이 있고, 좌도도만호 휘하에 만호 3원이 있고, 우도도만호 휘하에 만호 3원이 배치되어 있다. 즉 보령의 도안무처치사영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좌·우도 만호에 각 만호 3원씩 배치한 균형있는 배치를 통하여 충청도 연안 요지에 수군이 두루 배치되어 사실상 해안 방어의 체제가 최초로 정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군도안무처치사영이 있는 보령의 오천에 가장 큰 규모의 병선과 수군이 배치된 것을 보면 조선초기부터 보령 오천이 충청서해안 지역의 수군 방어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후 조선 500년 동안 변함없이 충청도수군절도사영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좌·우도의 배치가 남북으로 균형을 이룬 가운데 고만량 만호가 규모가 가장 적었던 요인은 도안무처치사영이 있는 오천이나 우도도만호영이 있는 보령 웅천과 아주 가까운 데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

며, 한편 이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만호영이 설치된 것은 조선 초기에 보령 지역 해안 방어가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5) 진관체제의 확립과 조선 중기 충청도 수군진의 편제

조선초기의 지방군제는 세조 원년(1455)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루어졌다. 즉 평안도 함길도에 설치된 군익도체제(軍翼道體制)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이 군익도체제는 세조 3년(1457)에 진관체제로 바뀌어 정비되었다. 즉 중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익·좌익·우익의 편성을 갖던 종래의 체제는, 중요한 지역은 거진(巨鎭)으로 하고 나머지 주변 지역을 제진(諸鎭)으로 하여 제진이 거진의 휘하에 소속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는 각각의 제진에 독자성을 부여하고, 일원적인 군사체제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러한 진관체제에서는 각관(各官)의 수령이 각 진관의 절제사 이하의 군사직(軍事職)을 겸임하였다.¹⁷⁾

한편 세조 12년 1월에는 각도 각 진관의 병마·수군직제의 명칭이 개편되었다. 도절제사는 절도사로, 도절제사진무는 우후로, 단련사는 첨절제사로, 단련부사는 동첨절제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수군도안무처치사는 수군절도사로, 도만호는 수군첨절제사로 개편하였다.¹⁸⁾

세조 3년에 확정된 진관체제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 『經國大典』(성종 16년, 1485)에 기재된다. 경국대전에서 수군의 조직은 수군절도사, 수군첨절제사, 만호, 우후 등으로 정비되었다.¹⁹⁾

17) 閱賢九, 앞의 책, 243~252쪽.

18) 『조선왕조실록』 세조 12년 정월 무오

19) 『經國大典』권4, 兵典 外官職

수군절도사는 흔히 ‘수사(水使)’로 약칭된다. 수사는 정3품으로 각 도의 수군 최고 지휘관이었는데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에는 관찰사나 병사가 겸임하는 1인 내지 3인의 수사가 있었으며 경기도, 충청도에는 1인의 전임(專任)수사와 관찰사가 겸임하는 1인의 겸수사(兼水使)가 있었고, 경상도와 전라도에는 각각 2인의 전임수사와 관찰사가 겸임하는 1인의 겸수사가 있었다. 수사의 임기는 720일이다. 충청도에 배치된 전임수사 1인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에 설치된 충청수영의 충청수사이며, 겸수사 1인은 충청관찰사이다.

수사 아래로는 그 부직(副職)으로 우후가 있었는데, 수군우후는 정4품으로 전임의 수사에는 1원이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충청수영은 1464(세조 10)년에 처음으로 우후를 두었다고²⁰⁾ 알려져 있어 도안무처치사 시기에 우후가 있었다.

수군첨절제사는 종3품으로 해안 요지에 설치된 거진에 전임의 수군직으로 배치되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첨사’라고 약칭되었다. 수군첨절제사는 거진의 장수로서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면서 그 아래의 제진의 만호를 지휘하였다. 수군 첨절제사의 임기는 900일이었다. 충청도에 배치된 수군첨절제사(첨사)는 조선 초기는 2인이었는데, 조선 후기는 4인으로 되었다. 조선 초기의 2인은 마량진첨사와 소근포진첨사이며, 조선 후기 4인은 이들 마량·소근과 함께 안흥진첨사, 평신진첨사이다.

만호는 종4품으로 수군지휘체제에 있어서 수군절도사·수군첨절제사의 지휘를 받는 일선 지휘관으로서 각포의 제진을 실질적으로 통솔하였다. 만호의 임기는 900일이었다. 충청도에 배치된 만호는 조선 초기에는 서천포만호, 당진포만호, 파지포만호의 3인이었고, 조선 후기는 서천포만호 1인만이 존재하였다. 첨사영이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상과 같은 직제로 정비된 충청도 수군의 진관체제를 『경국대전』과 『신

20) 충청수영사례집(작자미상, 연대미상), 오천면사무소 소장

『증동국여지승람』에 의거하여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와 같이 정비된 충청수영의 편제는 조선중기 즉 임진왜란 이전의 편제이다.

조선중기 충청도 수군의 진관편제(『경국대전』)

<p>【수사·우후】 수영(보령) ↳ 요아량수(수군절도사의 분병수지)</p>	<p>(현)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현)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병술안(?) 안면읍 고남리 영목(?)</p>
<p>【첨절제사】 소근포진관(소근포첨사) (태안) ↳ 안흥량수(소근포첨사의 분병수지) 【만호】 당진포만호(당진) ↳ 난지도수(당진포만호의 분병수지) 파지도만호(서산) ↳ 고파지도수(파지도만호의 분병수지)</p>	<p>(현)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2리 (현)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현)충남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리 (현)충남 당진군 석문면 (대)난지도리 (현)충남 서산군 팔봉면 호리 (현)충남 서산군 팔봉면 고파도리</p>
<p>【첨절제사】 마량진관(마량진첨사)(남포) ↳ 도두음곶수(우도첨절제사의 분병수지) 【만호】 서천포만호(서천)</p>	<p>(현)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현)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현)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p>

위 표를 보면 조선 중기는 조선초기 세종 때의 수군진 편제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그 위치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관체제에 의한 지휘체계의 확립과, 좌도의 대진(大津) 만호와 우도의 고만량(高巒梁) 만호가 폐지되었고, 당진포만호의 위치가 옮겨졌다. 그리고 이 시기 또 하나의 특징은 각 진영에서는 전진기지 성격의 분병수지(分兵戍地)를 두어 방어체제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양란 이후의 충청도 수군진의 변화

임진왜란 이전에는 왜구의 방어가 해상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기유약조(1609년)에 의해 일본과의 국교가 열리고 사실상 왜구의 침입에 대한 경계심은 사라졌다. 반면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청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대륙 쪽에 대한 방어체제를 강화하면서 특히 수도권 방어체제 구축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군진의 위치와 수군제도상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 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의 설치였다. 임진왜란 중에 남쪽에서 올라오는 왜군을 총력 방어하기 위해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을 설치하고 그 지휘소를 여수의 전라좌수영에 설치하기도 하고 경남 통영에 설치하기도 하면서 전라 좌수사가 삼도수군통제사를 겸하면서 충청·전라·경상도의 수군을 통합 지휘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왜군과 대적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인조 때에는 경기도 수영 관할의 교동도에 삼도통어영을 설치하고 황해·경기·충청도의 수군을 지휘하게 하였으니, 충청도 수군은 삼도통제영 휘하에서 삼도통어영 휘하로 옮기게 되었다.²¹⁾ 이는 충청도 수군의 역할이 남방으로부터 올라오는 왜군방어 중심에서 수도권 방어 체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편승하여 조선 후기 숙종대까지 충청도 수군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지도서』, 『충청도읍지』, 『만기요람』, 『대동지지』 등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양란 이후의 변화된 조선 후기 충청수영과 속진의 위치를 정리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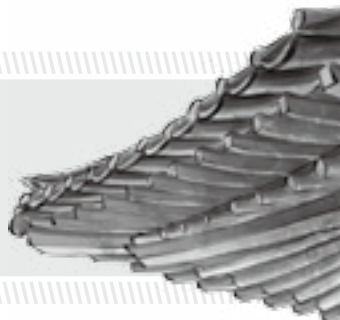
21) 송기중, 「17~18세기 통제영 방어체제와 병력 운영」, 『한국문화』 73, 2016.에서는 충청수영이 통제영과 통어영에 속하기도 한다 하였음.

조선 후기 충청도 수군진 위치 편제

【수사·우후】 수영(보령)	(현)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첨절제사】 소근포첩사(태안) 안흥진첩사(안흥) 평신진첩사(서산)	(현)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2리 (현)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현)충남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
【첨절제사】 마량진첩사(비안) 【만호】 서천포만호(서천)	(현)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현)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

위 표를 보면 조선 후기에는 조선 중기 때의 바다를 감시하면서 전방기지 역할을 하던 분병수지(分兵戍地)가 모두 없어졌고, 대신 안흥량수 자리에 안흥진 신설, 도둔곶수 자리에 마량진의 이설, 당진포영과 파지도영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신하는 평신진의 신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수도권의 강도(江都)와 순치(唇齒)관계에 있는 서산·태안반도에 2개의 첩사영이 신설된 것을 보면 조선후기 충청도 수군기지 개편에 있어 수도권 방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충청수영 본영(本營)



- 1) 지리적 배경
- 2) 충청수영의 연혁
- 3) 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 4) 충청수영 영사(營舍)
- 5) 충청수영의 운영
- 6) 충청수영의 옛 비석
- 7)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
- 8) 충청수영의 봉수망
- 9) 병인박해와 선교사의 순교·순교자 이외의 처형 상황



2. 충청수영 본영(本營)

1) 지리적 배경

(1) 지 형

충청수영의 본영(本營)이 있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는 대략 북위 36° 24′ 동경 120° 32′로 장항에서 평택에 이르는 충청도 해안의 중심 지역에 위치한다. 홍성에서 서천 방향으로 21호 국도를 따라가다 주포에서 서쪽으로 612번 지방도를 따라 약 9km쯤 가면 도착한다.

이곳은 충남 서부 해안과 안면도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수심 20여m의 비교적 깊은 바다인 천수만에서 내륙 쪽인 광천으로 향하여 갈라진 폭 0.5km ~2.5km, 길이 12.5km의 좁고 긴 오천만(鰲川灣)²²⁾ 연안이다. 이러한 좁고 긴 만은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졌을 때, 하천에 의해서 깊이 파여진 골짜기가 후빙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물에 잠긴 형태의 만으로, 보통의 하천보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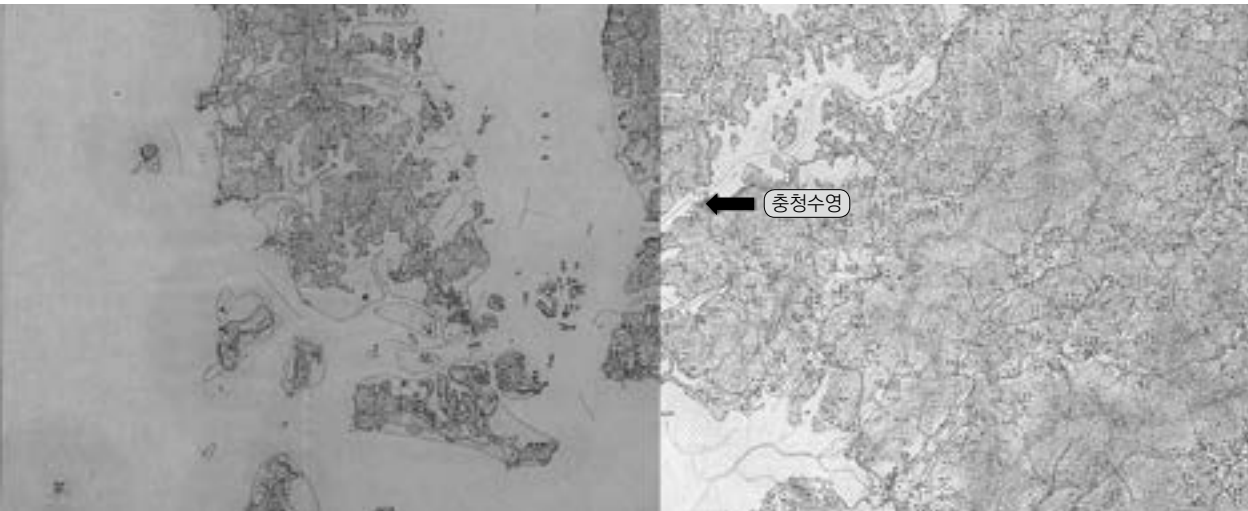
22) 천수만에서 오천을 통과하여 광천에 이르는 이 만(灣)은 아직 이름이 없다. 주민들도 부르는 이름이 없으며, 해도에도 없고 지형도에도 없다. 그러나 이 만 주변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특히 오천에는 많은 문화유적이 있으며 어업과 관광업이 발달하고 있어 오천만(鰲川灣)으로 부르기를 제안하면서 지명으로 사용한다.

심이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 골짜기가 오랜 세월동안 메워지지 않은 것은 골짜기의 규모에 비해 유입되는 하천의 규모가 작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퇴적물의 퇴적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의 규모에 비해 수심은 상당히 깊어 썰물 때에도 6.2m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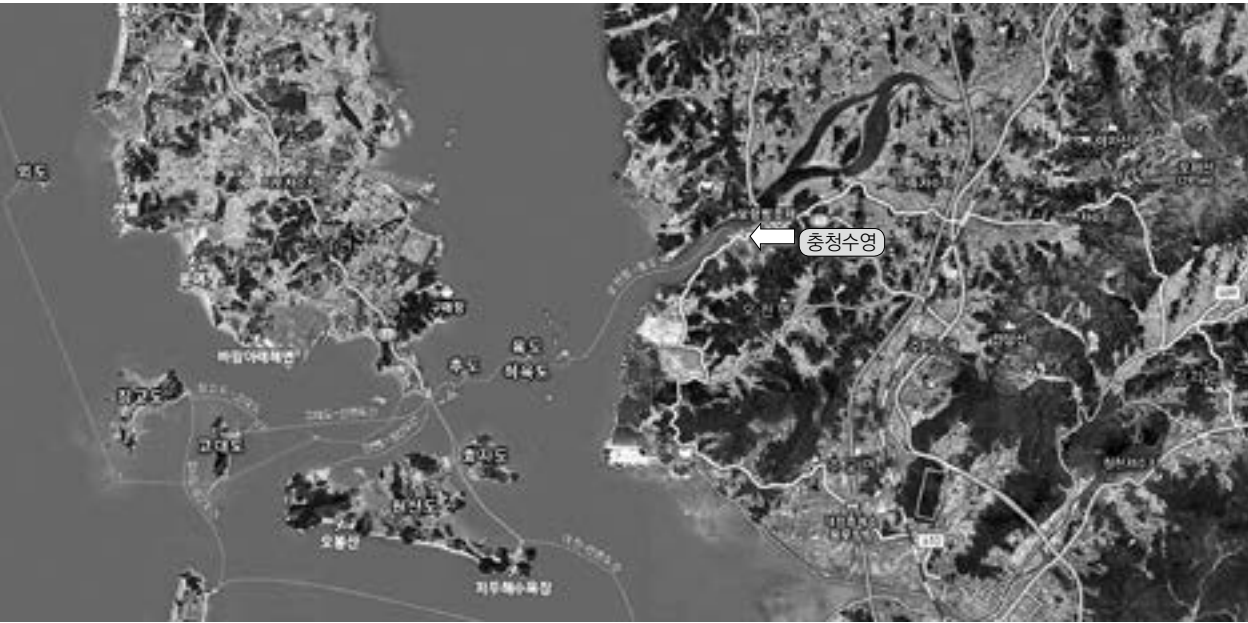
오천만 안에는 빙도(氷島)와 쌍오도(雙鰲島)가 있다. 빙도에는 큰 마을이 들어서 있고, 쌍오도는 아주 작은 자라 같은 섬으로 오천(鰲川)의 어원이 되었다.

이곳의 배후 산지는 오서산(791m)인데, 해안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도 보이고, 특히 산 정상 부분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 다른 산과 뚜렷이 구별되어 충청도 해안을 향해하는 선박에게는 위치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오서산에서 발원하는 산지들은 남남서 방향으로 달려 충청수영이 있는 오천만에 이른다.

오천만을 경계로 남쪽은 오서산에서 발원한 중생대 퇴적암층의 높은 산지가 이어져 상사봉을 이루고 계속 바다로 뻗어 망해정 봉수대에 이른다. 북쪽은 천북면 지역으로 낮은 구릉지를 이룬다. 충청수영은 남쪽에서 뻗어온 비



〈그림 1〉 충청수영의 위치(1915년 측도, 1:50000 지형도)



〈그림 2〉 충청수영의 위치(daum 지도)

교적 높은 산줄기와 오천만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두 산줄기의 정상 부분과 계곡을 연결하여 성을 축조하였다. 성 밑에는 오천만과 산줄기가 만나 급경사를 이루어 썰물 때에도 큰 배를 접안할 수 있다.

오천만으로 흘러드는 광천천·진죽천도 모두 오서산에서 발원하고 수원도 풍부하나 충청수영이 있는 소성리는 오천만 쪽으로 열려있는 작은 만이기 때문에 하천이 흐르지 않는다. 따라서 물을 얻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충청수영과 가까운 안면도는 지형이나 토질·기후가 소나무가 자라는데 적당하여 우리나라 최대의 소나무산지이다. 수군을 운영하는 데는 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나무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나무의 안정적인 공급지인 안면도와 가까운 것도 충청수영의 한 입지 조건이었고, 소나무를 잘 길러 군선을 만드는 것은 충청수영의 중요한 임무였다. 1676년 11월에는 ‘충청수영에서 군선 30척을 제작하여 강화도로 보내

도록 했다.²³⁾ 는 기록도 있고, 정조의 수원 화성 건립에 필요한 많은 재목을 안면도에서 공급하였다.²⁴⁾

안면도의 소나무 관리와 관련하여 『오천군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서기 1666년(顯宗 7년, 康熙 5년)에 設置安眠山直하고 松田을 관리하다.
- 서기 1681년(肅宗 7년, 康熙 20년, 辛酉) 韓侃이 安眠山直 50명을 定界 設置하다.
- 서기 1688년(肅宗 14년, 康熙 27년, 戊辰)에 金益勳이 安眠山直 20명을 加設 하니 畝 75명이라. 每名의 畝 2斗落과 田 10 斗落式 給與하다.

위 기록에 의하면 안면도에는 소나무를 관리하는 산지기(山直)가 75명이나 임명되어 충청수영 뿐만아니라 국가에서 필요한 소나무를 공급하였다.

(2) 해 양

충청수영이 위치하는 보령지방에는 조석간만의 차가 소조승 5.4m, 대조승 7m에 이르러 상당히 크다.²⁵⁾ 이러한 대조차 환경은 안면도·원산도·장고도·고대도·추도·육도·허육도·월도 등의 지형과 어우러져 아주 복잡하고 빠른 조류를 형성하여 밀물 때 4¾노트(시속 8.9km) 썰물 때 5노트(시속 9.3km)에 이른다. 이러한 환경 때문에 외적(外敵)은 섬과 섬 사이의 조류 방향이나 속도를 예측할 수 없고, 자칫하면 조류에 휘말려 곳곳에 산재한 암초에 부딪칠 수

23) 『비변사등록』, 현종 9년 11월 4일, 장학근 2009, 「해양 방위정책과 충청수영」, 45쪽.

24) 이해준, 2009, 「충청수영의 역사문화사적 가치」, 87쪽.

25) 대한민국 수로국, 1981, 해도(천수만 부근) NO. 322.

도 있다. 충청수영의 길목인 천수만 입구는 이렇게 험난한 곳이다.

충청수영이 있던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는 천수만 안쪽의 깊은 곳에 위치한다. 이곳은 안면도, 원산도 등 큰 섬으로 둘러싸인 천수만에서도 광천쪽으로 들어간 오천만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조류의 속도는 크나 방향이 일정하고 만 안에 암초가 없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특히 육지와 섬으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방파제 시설이 없어도 안전하게 배를 정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자연적인 방어선(防禦線) 안쪽에 있는 고요한 항구에 충청수영이 있었다.

충청수영 앞의 오천만의 중심부는 썰물 때에도 수심이 깊어 6.2m에 이르고, 깊은 수심의 축은 충청수영 앞을 지나기 때문에 큰 전함도 성 근처에 정



〈그림 3〉 충청수영 부근의 해도

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충청수영에서부터 광천까지는, 바다는 이어지지만 만의 폭이 넓어지면서 수심이 낮아 큰 배가 항해하기는 부적당하다. 오천의 충청수영은 큰 전함이 접안할 수 있는 최상류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의 깊은 수심을 이용하여 1980년대까지 호남정유의 석유저장탱크가 운영되었고 큰 배로 기름을 운반하였다.

이러한 환경들은 주변 환경을 잘 아는 아군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주변 환경을 잘 모르는 외적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었다. 다만 너무 육지 안쪽에 들어가 있어 외적을 감시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청도 - 외연도 - 녹도 - 원산도 - 망해정으로 이어지는 봉수대를 운영하여 극복하였다. 특히 망해정 봉수대는 충청수영의 인후부(咽喉部)를 내려다보면서 외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선박의 운항에는 조류나 파도와 더불어 안개가 중요한데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안개일수가 현저하게 적다. 충청수영과 13km쯤 떨어진 보령기상관 측소의 통계를 보면 1978~1987년까지 10년간 평균 안개발생일수가 15.1일로 서산 42.5일, 군산 38.1일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²⁶⁾ 충청수영을 설치할 때 이런 조건까지 고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충청수영은 항구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교 통

충청수영의 입지조건 중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접근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조운로(漕運路)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경상도·전라도에서 출발하여 한강을 향해 올라오는 조운선은 반드시 충청수영 앞에 있는 원

26) 손미연, 1989, 대전지방의 안개발생 특징, 공주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쪽.

산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해상교통의 요지였다. 특히 안흥량은 조운 해로 중 가장 험난한 곳으로 조운선의 난파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여 충청수영에서 조운선 관리에 노력하였다. 수영의 부사령관인 우후는 하절기에 원산도에 나가 조운선을 관리하였다.

과거의 육상교통은 역원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충청수영과 통하는 도로는 홍주 용곡(현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에 찰방(察訪)을 둔 금정도(金井道)이다. 금정도에 속한 역은 광시(光時), 해문(海門), 청연(靑淵), 세천(世川), 용곡(龍谷), 몽웅(夢熊), 하천(下川), 풍전(豐田), 창덕(昌德), 일흥(日興), 시흥(時興), 급천(汲泉), 순성(順城), 흥세(興世), 장시(長時), 화천(化川) 등 16역이었고 이 중 충청수영과 접한 역은 청연역으로 현재의 위치는 보령시 주포면 관산리 역말 마을이다.

충청수영에서 청연역까지는 남문 - 솟재(오천면 영보리) - 하고개(주포면 연지리) - 청연역으로 통하는 길로 이어졌다. 이 길가에는 인조 때의 공신으로 이조·호조·공조 판서를 지낸 이시방의 신도비가 있고, 오천향교도 있어 충청수영과 내륙을 연결하는 가장 큰 길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1915년 토지조사사업과 함께 만든 1:50000 지형도에도 큰 길로 표시되어 있다.

충청수영사례집의 찰방(察訪) 기록에는 ‘표봉(票峯) 270리 청주지, 연원(連原) 400리 충주지, 성환(成歡) 230리 직산지, 이인(利仁) 170리 공주지 유본영좌마2필(有本營座馬二匹), 금정(金井) 50리 홍주지 유본영좌마2필(有本營座馬二匹)’ 이라고 충청도에 있는 5개의 찰방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정도와 이인도에는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가 이용하는 좌마(座馬)가 2필씩 준비되어 있었음과 충청수영과 관련 있는 도로가 금정도와 이인도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충청수영 주변의 원(院)은 보령현 관내에 위수현원(渭水峴院, 현 청라면 장현리 명대마을), 갈두원(葛頭院, 현 대천동 갈머리)이 있어 충청수영과 연결되어 있었고, 충청수영 북쪽 바닷가에 대주원(待舟院, 현 천북면 하만리 나룻개)이 있었다.

『충청수영사례집』에 보면 상경노정(上京路程, 420리), 사행노정(私行路程, 360리), 강진병영관로정(康津兵營官路程)이 나와 있는데, 상경노정은 충청수영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공식 통로이며, 사행노정은 비공식적인 지름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사행노정의 거리가 60리나 가까운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강진 병영까지의 노정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잡아놓은 것으로 보인다. 각 노정(路程)은 다음과 같다.

상경로정(上京路程)

광천(廣川, 40리) - 홍주(洪州, 30리) - 대흥(大興, 30리) - 예산(禮山, 30리) - 신창(新昌, 40리) - 아산(牙山, 40리) - 평택(平澤, 40리) - 진위(振威, 40리) - 수원(水原, 50리) - 시흥(始興, 50리) - 경중(京中, 30리) 합 420리.

사행로정(私行路程)

광천(廣川, 40리, 結城) - 대교(大橋, 40리, 洪州) - 인후원(仁厚院) - 차돌백이(次剎白二, 20리, 大興) - 신례원(新禮院, 10리, 禮山) - 용후원(用厚院) - 신창(新昌, 30리) - 곡교(曲橋, 10리, 牙山) - 신탄막(新炭幕, 10리, 牙山) - 요로원(要路院) - 별악암(別岳巖, 20리, 天安) - 평택(平澤, 20리) - 통화포(通化浦, 10리, 振威) - 칠원(七院, 10리, 振威) - 소골(小骨, 10리, 振威) - 진위(振威, 10리) - 오산(烏山, 10리, 水原) - 중저(中底, 10리, 水原) - 병전괘(餅塵掛, 10리, 水原) - 하류천(下柳川, 10리, 水原) - 승방(承房, 10리, 果川) - 경중(京中, 30리) 합 360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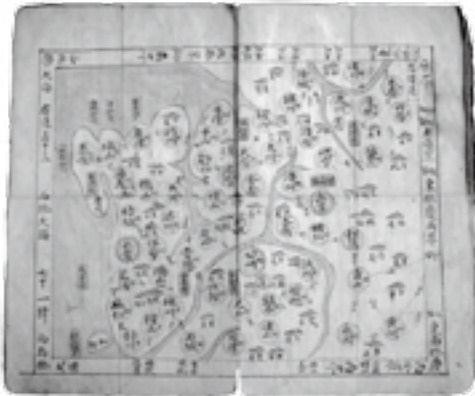
강진병영관노정(康津兵營官路程)

남포(藍浦, 40리) - 홍산(鴻山, 50리) - 부여(扶餘, 30리) - 은진(恩津, 상동) - 여산(礪山, 30리) - 삼례(參禮, 40리) - 전주(全州, 30리) - 금구(金溝, 30리) - 태인(泰仁, 40리) - 천원(川原, 50리, 井邑) - 장성(長城, 50리) - 선암(仙巖, 50리, 光州) - 나주(羅州, 30리) - 대수원(大澗院, 靈巖) - 강진병영(康津兵營, 30리) 합 600리.

〈해동지도(18세기 중엽)〉에 의하면 충청수영의 도로망이 그려져 있는데 홍주목과 보령현은 동문, 남포현은 남문, 원산도와는 서문을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 이런 충청수영의 입지조건은 숙종 때의 공조판서 조태구의 글에 잘 나타나



〈그림 4〉 충청수영의 도로망(해동지도)



〈그림 5〉 충청도 지도에 그려진
충청수영과 속진(조선 후기)

있다.

... 수영의 위치는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 비록 한 산등성이가 바다 물목을 가로막았다 해도 연대(煙臺)가 그 위에 있어 그곳에 올라가 보면 서남쪽으로 대해가 모두 눈

밑에 있고, 연대는 수영의 성 밖 가까운 곳에 있어 항상 바다 밖을 감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원산도와 안면도가 모두 수영 앞에 있어 바람이 자는 6개월 간 우후가 원산도를 지키러 들어가니 옛날 정한 규칙이

우연히 정한 것이 아닙니다. ... 또 호서 수군이 위치하고 있는 7읍이 있는데, 수영은 이수로 계산하면 한 가운데 있어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면 제때 병력을 징발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안흥으로 옮길 경우 임천과 한산 등 고을 배는 먼 바다를 돌아서 와야 하므로 기일에 늦을 우려가 있고, 그 위치가 외롭게 떨어져 있어 수군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²⁷⁾

(4) 고만(古巒)과 회이포(回伊浦, 현 오천)의 입지 비교

충청수영은 1396년(태조 5) 고만에 처음으로 들어서고 이어 회이포(오천)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세종실록지리지』에,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는 보령현(保寧縣) 서쪽 대회이포(帶回伊浦)에 머무르며’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종실록지리지가 만들어진 1432년까지는 오천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고만과 회이포(오천)의 입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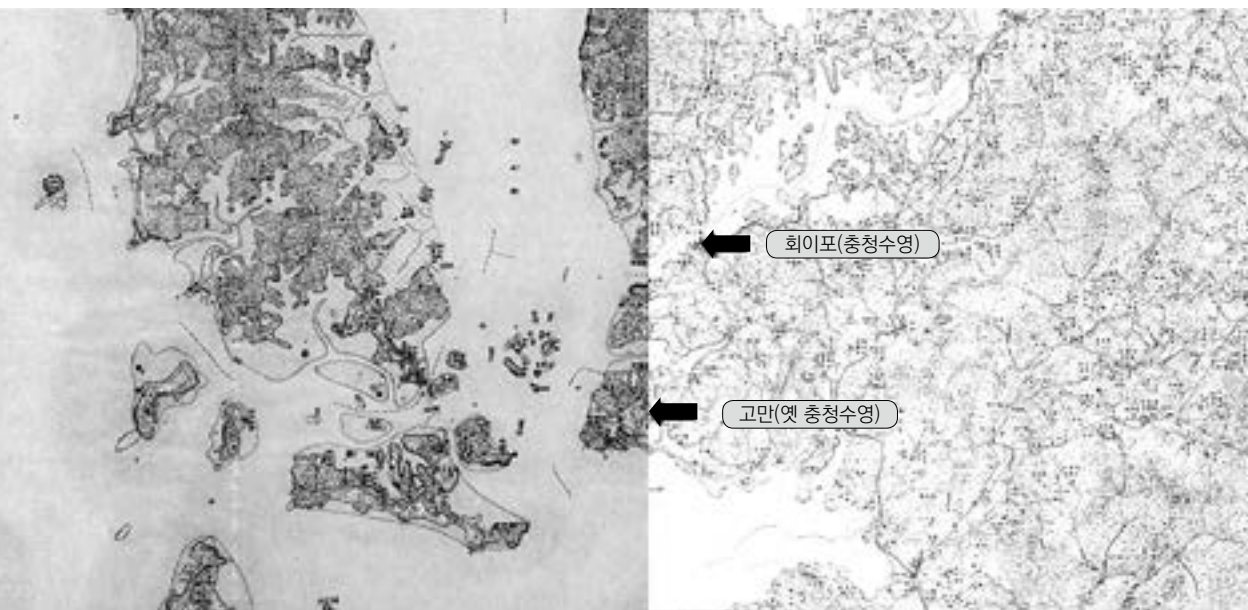
우선 고만에 충청수영이 들어선 것은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포구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 송나라의 사신을 접대하는 객관을 고만도에 두었다가 1077년 안흥정으로 옮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나주도제고사(羅州道祭告使) 대부소경(大府小卿) 이당감(李唐鑑)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들을 영송(迎送)함에 있어 고만도의 정(亭)은 수로가 점점 떨어

27) 『비변사등록』, 숙종 38년 5월 25일. 장학근, 2009, 『해양 방위정책과 충청수영』에서 인용.

저 배가 정박하기 불편합니다. 청컨대 홍주 관하 정해현 땅에 정각을 창건하여 영송의 장소로 삼도록 하소서” 하니 제서(制書)를 내려 그 말에 따랐으며 정의 이름은 ‘안흥(安興)’이라 하였다. (『고려사』9, 문종 31년 8월 신묘)²⁸⁾

여기서 고만도는 현재의 고만 포구 앞에 있는 섬인 송도로 추정할 수 있는데, 송도 안쪽에 있는 포구인 고만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고만 포구와 송도 사이의 바다는 섬으로 둘러싸여 별도의 방파제 시설이 없어도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송도 밖으로 나가면 섬으로 가로막히지 않



〈그림 6〉 충청수영 부근의 해도

28) 윤용혁, 2010,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김성우장군」, 『고려질신 김성우장군 재조명』, 105쪽.

아 바로 외해(外海)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고려사의 지적과 같이 퇴적이 진행되어 큰 배는 들어올 수 없는 단점이 있고, 왜적이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1396년 홍자해가 진을 설치할 때까지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큰 포구로서 이점과 바로 외해로 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하였으나 점차 퇴적이 진행되어 불편한 점이 대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고만으로부터 9km정도 떨어진, 섬으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방어선 안에 있는 고요하고 깊은 포구인 회이포(回池)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회이포(回池)는 내륙 깊숙한 곳에 있고 작은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광천까지 배로 통행할 수 있어 유사시에 육지로부터 보급도 용이한, 방어기지로서는 아주 좋은 위치였다.

2) 충청수영의 연혁

(1) 충청수영의 이설 논의

1396년에 고만에 처음 수영이 설치되고 15세기에 어느 때인가 오천으로 옮겨진 충청수영은 휘하의 첨사영과 만호영을 지휘하면서 충청해안을 방어해 왔다. 1510년에는 수영성을 축성하고 휘하 수군진의 이설과정을 겪으며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는 외적 방어에 적극 나섰다.

그러나 조선 후기 숙종대에 이르면 남해안의 왜적 방어보다도 청과의 전쟁을 치른 후 수도권 방어가 중시되면서 강도(江都)와 순치(脣齒)관계에 있는 태안의 안흥(安興)으로 수영을 옮기자는 논의에 이르게 된다. 수영을 안흥으로 이설해야 하는 이유로 “위치한 곳이 외지고 앞 바다와의 거리가 아주 먼 데다가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멀리 망을 보는 데 방애로움이 있으며 선창(船倉)이

불리하다.”²⁹⁾는 내용이 대두되는데, 이는 침입해오는 왜구의 방어를 위한 군향으로서의 유리한 점보다는, 강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대륙 쪽을 경계하면서 수도권 방어체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천에 있는 충청수영이 유리하지 못한 점이 부각된 것이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이르면 오천 충청수영 본영의 중요성은 입지 조건으로서의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 방어체제의 재편 과정의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한때는 수사의 행영(行營)이 안흥에 설치되어³⁰⁾ 운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오천에 충청수영의 본영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유리한 입지 조건 때문이었다. 『비변사등록』의 다음과 같은 논의를 보면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오천의 수영은 앞에서 지적한 조건들 때문에 적지(適地)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변사등록』에,

공조판서 조태구가 아뢰기를 …… 수영의 위치는 그 편의함을 얻어서 비록 하나의 산등성이가 해문(海門)을 가로막았다 하여도 연대(煙臺)가 그 위에 있어 이에 올라 바라보면 서남 대해가 모두 눈 밑에 있고, 연대(煙臺)는 수영성 밖 가까운 곳에 있어 항상 감시하는 곳입니다. 또 원산도와 안면도가 아울러 수영 앞에 있으므로 바람이 잔잔한 6개월은 우후가 원산도에 방수(防守)하러 들어갔으니 옛날 설치한 규례는 반드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 또 호서의 수군의 남쪽에 7읍이 있는데, 수영은 이수(里數)로 따져 가운데에 위치하여 급박한 사태가 있을 경우 모두 제때 징발할 수 있습니다. 영을 안흥으로 옮기는 경우 임천 한산 등 고을의 배는 큰 바다를 돌아서 와야 할 형편이므로 반드시 기일에 뒤질

29)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 4월 14일조.

『비변사등록』, 숙종 37년(1711) 5월 20일조.

30) 『충청수영사례집』에 의하면 정조3년(1779)년부터 약 10여 년 간 안흥에 행영(行營)이 설치되었다.

우려가 있고, 또 그 위치가 외롭게 툇 떨어져 있어서 수군이 웅거할 곳이 아닙니다.³¹⁾

또 『비변사등록』에,

수영은 안면도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어 평소 별채를 금하는 일이 사정으로 보아 매우 쉬운 일이나, 안흥의 경우 거리가 꽤 멀어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크게 길러놓은 선재(船材)를 모두 잃게 되어 있으니 계속 수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는 것이 착실합니다.³²⁾

라고 하여 오천의 수영 입지가 옹호되고 있다. 충청수영의 입지가 외양에서 떨어진 천수만 안쪽에 위치하는 불리함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천수만 입구 원산도의 조운선 점검 기능과 충청도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안면도 소나무 보호의 이점, 그리고 수영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망해정 봉수대 등이 있다.

충청수영 운영에 있어 원산도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원산도는 수영이 있는 오천에서 서남방의 바다로 8.7km 떨어진 곳으로 조선초기부터 목장(牧場)이 설치되어 수사의 책임 하에 말을 기르던 곳이었고, 현종 10년(1669) 이후에는 우후(虞侯)가 전선을 이끌고 나가서 진주하면서 풍화한 계절의 변란에 대비할 터전이 되게 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목장의 말을 서산의 대산곶 목장으로 옮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후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조운선을 점검하였다.³³⁾

31) 『비변사등록』, 숙종 38년(1712) 5월 8일조.

32) 『비변사등록』, 숙종 38년(1712) 4월 25일조.

33) 『비변사등록』, 현종 10년(1669) 2월 4일조.

『조선왕조실록』, 현종 10년(1669) 2월 3일 병인조.

김좌명이 아뢰기를, “원산도(元山島) 목장의 말을 대산곶(大山串)에 옮겨 두고 충청 수군 우후를 원산에 진

(2) 안흥행영(安興行營) 설치와 혁파

숙종대의 충청수영의 안흥 이설 논의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은 정조 때 왕권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방어체제가 구성되면서 결국 안흥에 수사의 행영(行營)이 설치된다. 행영이 설치되면 수사는 수영 본영인 오천과 행영인 안흥에 번갈아가며 근무해야 하고 병력이나 전선이 행영에 분급되어진다. 수영 본영의 위상이 낮아지고 전력이 약화된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 西紀 1779년(正祖 3년) 己亥에 柳鎭說이 罷安興僉使하고 設安興行營한 過十年己酉에 還罷하다.(西紀 1779년(己亥)에 設安興行營而 西紀 1784년 甲辰水使 趙心泰가 啓罷하다.)
- 西紀 1784년(正祖 8년, 乾隆 49년 甲辰 5월)에 趙心泰가 罷安興行營及水軍 二百名의 減布而水軍四百名이 本以城內防軍으로 依事目減布而二百 名을 散在各邑捧布矣러니 癸巳年分에 保寧縣監文德仁이 報監司李 俊山하여 罷來各邑之軍에 定充營內하고 使之徵布의러니 張志豐이 狀聞減布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1779년(정조 3)에 충청수사 유진열(柳鎭說)이 안흥첨사를 혁파하고 안흥행영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1784년(정조 8)에 수사 조심태(趙心泰)³⁴⁾

주하게 하여 풍화(風和)한 철의 변에 대비할 바탕으로 삼고, 또 조선(漕船)이 올라올 때 점검하여 올려 보내 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34) 조심태(趙心泰, 1740년(영조 16)~1799년(정조 23)) :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평양(平壤). 일찍이 무예에 뛰어나 음보로 선전관이 되었고, 1768년(영조 44)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무관직을 두루 거친 다음, 1784년(정조 8) 10월에 충청도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듬해 3도수군통제사로 승진한 뒤, 1789년에 수원부사로 임명되었다. 이때 수원이 매우 중시되어 현릉원(顯陵園)을 옮겨오는 일,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일 등 어려운 임무가 많았으나 이를 모두 차질없이 처리하여 큰 공적을 남기고, 1791년 훈련대장으로 직을 옮겼다. 그뒤 충용

가 안흥행영을 혁파하고 수군의 포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 3년(1779) 3월 9일자에 의하면 영의정 김상철 등이 강화도에 삼도통어사를 두고 수도권의 해상 방어를 전담시켰으므로 강도의 문호인 안흥에 황해도의 예에 따라 수사의 행영을 설치하고 수사가 본영과 행영을 번갈아 가며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한편 『일성록』 정조 3년(1799) 3월 1일자에도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안흥은 바로 강도의 문호(門戶)로, 첨사(僉使)가 관항사(管餉使)를 겸한 것은 강도에 군량을 운반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호서 수영(湖西水營)에 이르러서는 바다 어귀 안에 치우쳐 있어서, 설사 적의 배가 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많더라도 만일 조수(潮水)가 빠져나가는 때를 당하면 전함(戰艦)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형세상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해서(海西) 소강(所江)의 예(例)처럼 안흥을 수사의 행영(行營)으로 삼고 선박을 본진(本鎭) 포구에 정박해 둔 채 바람이 따뜻한 6개월 동안 머물러서 관찰하게 한다면, 요새지의 방비가 전처럼 소홀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안흥을 혁파하고 수영을 이속하여 군량을 쌓아두고 배를 정리(整理)하여 서로 의지하면서 강화의 지휘를 받는다면, 삼도를 통어하는 모양이 더욱더 원만하고 좋을 것입니다. 만일 이로써 처분하려면 절목(節目)을 만들어 비변사에 보고하고 소상히 바로 잡아 계하한 뒤에 알리도록 하라고 해당 수신(帥臣)에게 분부하소서.”

하여, 내가 훈련대장에게 물으니, 훈련대장 구선복이 아뢰기를,

“홍충 수사(洪忠水使)가 바람이 따뜻한 6개월 동안 안흥진(安興鎭)으로 옮겨 가서 머문다면 해안 방비에 실로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수영 또

사·금위대장·어영대장 등을 역임하였고, 1794년 승격된 수원부유수로 다시 등용되어 수원성 축성, 화성 봉수대 설치 등에 공을 남겼다. 무관으로서는 보기 드문 명필이었으며, 특히 대자(大字)에 뛰어났다. 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한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로써 변통하는 것이 둘 다 원만한 방도 일 것입니다.”

하고, 내가 수어사(守禦使)에게 물으니, 수어사 서명응(徐命膺)이 아뢰기를, “강화와 홍충 수영, 홍충 수영과 안흥이 모두 서로 의지하는 형세입니다. 더구나 지금 홍충 수영이 여지없이 피폐해진 상황인데, 만약 수사로 하여금 용진(甕津) 소강(所江)의 예와 같이 나가 방어하고 들어가 방어하게 한다면, 조정은 재물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잠깐 동안에 쉽게 강성한 진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어 정조 3년(1779) 6월 1일에는 충청수사 유진열이 행영절목(行營節目)을 만들어 비변사에 보고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행영절목에서는 수사가 일정기간 안흥에서 근무함과 동시에 전선 일부를 본영에서 안흥으로 옮겨 정박하고, 원산도의 우후에 의한 조운선 검검을 폐지하며, 수영에서 소요되는 쌀 400석을 반씩 나누어 본영과 안흥에서 소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성록』 정조 3년(1779) 6월 1일에도 충청수사 유진열이 올린 행영절목을 논의하고 이를 허가하고 있다.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홍충 수사 유진열이 행영 절목(行營節目)을 방금 비국(備局)에 보고하였습니다. 첫째, ‘안흥(安興)에는 귀선(龜船), 방선(防船), 병선(兵船) 3척과 사후선(伺候船) 3척이 있으니, 본영(本營)의 전 병선(戰兵船)은 그대로 본영에 정박해 둔다 해도 위급할 때를 만나면 자연 추이(推移)하여 이용하게 되니 옮겨 정박시킬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우선 보고한 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둘째, ‘조선(漕船)에 대한 점검(點檢)은 이미 총찰(總察)하였으니 길을 인도하여 호송(護送)하는 것은 다른 읍의 전례에 따라 직접 지방 관아에서 거행하며, 남북으로 오가는 사선(私船)은 일일이 찰칙(察飭)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지방

관아에서 호송하는 것은 이대로 거행하고, 오가는 사선(私船)에 대한 것은 전에 없었던 예를 만들어서는 안 되니 그대로 두라고 분부하겠습니다. 셋째, ‘삼남(三南)의 조선이 모두 본영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점검하는 중이므로 지척에 있는 원산도(元山島)에는 따로 호송하는 관리를 둘 필요가 없으니, 원산도의 점검은 그대로 혁파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장계에서 청한 대로 혁파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넷째, ‘안흥에 수성장(守城將)을 겸하여 설치하는 것은 이미 본진(本鎭)의 예전 규례가 있으니 수성장을 전례에 따라 그대로 겸대하며, 성조(城操)하는 날을 가리는 일은 본영에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영(水營)의 수미(需米) 400석(石) 가운데 200석은 보령(保寧)에서 본영으로 획송(劃送)하고 200석은 태안(泰安)에서 행영(行營)으로 획송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대로 거행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이후에 수조(水操)를 안흥과 오천의 본영에서 번갈아 거행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친 안흥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조에 참여하는 읍진의 불편함이 고조되어 충청해안의 중앙에 위치한 본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져 갔다.

『일성록』 정조 5년(1781) 2월 24일조에,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홍충 감사 홍병찬(洪秉燦)의 장계에, ‘수사(水使)가 이미 행영을 설치한 뒤로는 수조(水操)를 실로 행영에서 설행해야 하지만, 행영이 대양(大洋)의 가에 있어서 수로(水路)의 험이(險易)와 노정의 원근(遠近)이 본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사(舟師)와 각 읍진(邑鎭)의 민심이 모두 전처럼 본영에서 수조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후로 춘조는 본영에서 설행하고 추조는 행영에서 설행하는 것이 편의에 합당할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니다. 바람이 고요하면 수사가 행영에 있어야 하고 바람이 사나

우면 본영에 있어야 하니, 수사가 본영에 있을 때는 본영의 포구(浦口)에서 수조를 행하고, 행영에 있을 때는 행영의 앞바다에서 수조를 행하는 것이 모두 장소에 상관없이 조련하는 방도에 합당합니다. 장계에서 칭한 대로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5년(1781) 5월 2일조에,

영의정 서명선(徐命善)이 아뢰기를, “청컨대, 충청 감사의 장계에 의거하여 수사(水使)의 춘조(春操)는 본영(本營)에서 행하고 추조(秋操)는 행영(行營)에서 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라고 하여 안흥 행영 설치 후 수조(水操)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후 정조 9년(1785) 수사 조심태가 올린 행영혁파 상소가 비변사에서 논의되고 왕의 윤허를 얻어 안흥행영이 시행 6년 만에 혁파되게 된다. 조심태는 <본영 3조 변통지책(本營三條變通之策)>의 장계를 올려 수군의 감포문제, 안흥행영 운영의 불편성으로 인한 행영 폐지와 우후가 안흥에 대신 근무하는 문제, 안흥행영 봉수대 설치 문제 등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수군 감포 문제와 안흥행영 폐지 문제는 조정에서의 허락이 있었다.³⁵⁾ 이러한 수사 조심태에 의한

35) 『승정원일기』, 정조 9년(1785) 6월 9일조.

乙巳六月初九日卯時, (중략) 左議政洪樂性曰, 卽見洪忠水使趙心泰狀啓, 則備陳行本營三條變通之策, 仍請令廟堂, 稟旨分付矣. 其一, 本營, 設始之初, 減布水軍二百名充定營下, 二百名則散在各邑矣. 伊後各邑, 頃報巡營, 盡移本營, 營底民居, 近漸大縮, 父子兄弟, 無或倖免, 一城嗷嗷, 將有渙散之慮. 各邑有水軍處, 以此二百名, 分排移定後, 只許納布, 以爲自城底給價雇立事也.

其一, 創設行營之後, 歲入不足, 本營代錢之逐朔移劃者, 殆近半干, 至如下屬之來往, 項背相望, 其所爲弊, 已至難支之境. 且安興一鎮, 處在險巖, 作爲要害, 勢將致力於舟師, 而汊港不廣, 本營戰艦, 不得移泊, 舟師邑鎮,

행영혁과 사실은 앞의 『오천군지』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아니라 오천의 수사 비석군 중의 「조존일(趙存一) 수사 영세불망비」에도 나타나 있다.

水軍節度使趙存一永世不忘碑

父兮母兮 惟我趙公 城內蠲布 繼其遺風 募砲受田 方略得中 賴此育愛 頌德無窮 曾於乾隆甲辰公族曾祖心泰莅營時特軫凋弊城內水軍四百名啓請 減布安興行營革罷民乃安業今者公之蠲布事非偶然回感其舊而刻之于後 乙亥四月

지난 건륭 갑진년에 공(조존일)의 족증조 심태(心泰)가 수영에 근무할 당시 성내 수군 4백명의 조폐(凋弊)를 특별히 애석하게 여겨 감포(減布)를 청원하는 계를 올렸고, 행영을 혁파하여 백성들이 이에 편안하게 살게 되었으니 오늘의 공(조존일)이 감포한 일은 우연이 아니다. 옛일을 돌이켜 감동하여 돌에 새겨서 후세에 알린다.

을해년(1875) 4월

그리고 홍양호(洪良浩)의 『이계집(耳溪集)』, 「수원부유수증좌찬성조공시장(水原府留守贈左贊成趙公諡狀)」 즉, 조심태의 시장(諡狀)에서도 확인된다.

拜忠清水使 安興行營在保寧二百里外。每歲春秋。移駐處在一隅。緩急無足恃 而反疲於供給 非計之得。具形便論奏。請罷移駐而代置虞侯。上特允之

相距稍遠。虛擁舟師之營號，而脫有緩急，無以措手，本營則既在諸邑之中，道路惟均，發號招聚之方，絕勝行營。以此較彼，輕重皎然，帥臣則往鎮本營，一如前日，虞侯則替住行營，似合便宜事也。

其一，行營水陸，元無一烽者，極爲疎虞，今於城內，設置南北兩烽，而至於南洋間烽，海路遼闊，無以直報。更設兩烽於近城島中，以爲接續候望之道，而四處新烽，一將一卒合爲八名，一年料下，當爲三十八石零，以該營所在餉米，磨鍊上下事也。

충청수사로 임명되어 안흥행영이 보령에서 2백리 밖에 있어 매년 춘추로 이동하여 주재하니 한쪽 구석에 수사가 있게 되어 완급시에 믿을 수 없으며, 공급하는데 도리어 지치게 하므로 좋은 계책이 아니어서 형편을 갖추어 논주하여 수사가 이주하는 것을 파하고 우후가 대신 가서 지키게 하자고 청하여 왕의 특별한 윤허를 얻었다.

라고 하여 조신태의 행영 혁파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신태에 의하여 행영이 혁파 된 후 오천의 충청수영은 잠시 약화되었던 세력을 다시 회복하였고, 1896년 폐영되는 날까지 정상적인 수영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3) 충청수영과 보령현의 합속 운영

충청수영이 있던 오천은 조선시대 행정 구역상 보령현 관내에 있었다. 좁은 지역에 정3품의 수사가 다스리는 수영과 종6품의 현감이 다스리는 보령현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비효율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양난 이후인 1652년(효종 3)에 수군절도사가 보령현을 함께 통치하도록 보령현을 수영에 합속시키는 조치가 있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9년(1652) 1월 15일조에,

“대개 병사(兵使)와 수사(水使)는 애초에 관공(官供)이 없이 군포(軍布)로 생활해 왔으므로 군졸들이 매우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사를 목사(牧使)와 겸임시켜 자연 관수(官需)가 있게끔 하였으므로 군정(軍情)이 지극히 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수사의 군졸만은 아직도 이런 걱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 김육(金瑬)이 일찍이 탐전(榻前)에서 이미 진달하였습니다. 만약 보령 현감(保寧縣監) 권흥익(權興益)을 청주 판관(淸州判官)으로 삼고 수사로 하여금 보령을 다스리게 한다면, 마침

기회를 맞아 마땅하게 변통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보령을 수영(水營)에 병합하는 것은 변통하는 일에 관계되니, 여러 대신과 다시 의논하여 품처(稟處)하라. 수사로 하여금 백성 다스리는 일을 겸하게 할 경우, 판관 없이도 해낼 수 있겠는가?”

하였다. 비국이 복계하기를,

“보령은 지극히 조그마한 읍이니, 판관이 없더라도 수사가 충분히 아울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에 의논드린 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따랐다.

라고 하여 수사와 현감의 급료를 절약하고 수사 급료를 부담하는 군졸들의 어려움 해결 차원에서 보령을 수영에 합속시키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3품인 수사의 직위에 맞게 보령을 종 6품직의 현에서 종3품직의 도호부로 승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3년 후인 1655년(효종 6)에 다시 원위치되어 보령현으로 복구된다.³⁶⁾ 3년 동안 수사와 현감을 겸임했던 충청수사는 다음과 같다.

이름	부임일	퇴임일	근무기간
구의준(具義俊)	효종 3년(1652) 2월 22일	효종 4년(1653) 3월 29일	1년 7개월
이수창(李壽昌)	효종 4년(1653) 11월 17일	효종 5년(1654) 7월 22일	8개월
김한문(金漢文)	효종 5년(1654) 7월 19일	효종 6년(1655) 4월 22일	9개월

그러나 고종 때인 1871년에 다시 수영과 보령현이 합속되기에 이른다. 『고종실록』 1871년(고종 8) 9월 15일조에,

36) 『대동지지』 보령현조 : 효종 3년(1652)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서 부사(府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6년에 다시 전처럼 현으로 강등시켰다.

“보령(保寧)을 부사 고을로 승격시키고 본관을 혁파하여 황해 수영처럼 수사로 하여금 그대로 겸임하게 하고, ... (중략) ... 연혁으로 말하더라도 보령을 분리하거나 합속한 때가 이미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지금 이 변통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례(舊例)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관제(官制)에 관계되고 또 변방의 정사에 관련되니, 연석에 오른 대신, 전관(銓官), 장신(將臣)에게 하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 (중략) ... 홍순목이 아뢰기를,

“수영과 보령의 합속은 효종조 임진년에 있었고, 다시 분리한 것은 효종조 을미년에 있었습니다.”

하였다. ... (중략) ... 하교하기를,

“대신의 뜻이 이와 같고 전관과 장신의 뜻도 이와 같으니, 그대로 하라.”

하여 조정에서 효종 때의 예에 따라 보령과 수영을 합속시키는 조치를 결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합속되면서 보령현 지역에서 반발이 나타나고 보령현 복구에 대한 여론이 일어난다.

『고종실록』 1878년(고종 15) 7월 19일조에,

방금 충청우도 암행어사(忠淸右道暗行御史) 이건창(李建昌)의 별단을 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보령(保寧)을 소영(蘇營)에 합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으니, 수사(水使)가 보령 부사(保寧府使)를 없애며 ... (중략) ... 해당 수사로 하여금 전적으로 군정(軍政)에만 힘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보령읍을 소영에 붙인 것은 대개 변경을 굳건히 지키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암행어사의 별단을 보면 합치는 것은 불편하고 나누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확연히 명백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널리 진계(陳啓)를 채택한 후에 품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지방에 내려간 암행어사가 지방의 상황을 의정부에 보고하면서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서 보령유학 구승조가 분리를 청하는 상소³⁷⁾를 올리고 이에 맞서 보령유학 이용구가 분리를 반대하는 상소³⁸⁾를 올리면서 논쟁이 심화되어가지만 결국은 분리되지 않은 채 수영이 폐영되는 날까지 합속이 지속된다. 이 당시의 수사와 부사를 겸한 충청수사는 다음과 같다.

이름	부임일	퇴임일	근무기간
이규안(李奎顔)	고종 8년(1871) 9월 18일	고종 11년(1874) 1월 19일	2년4개월
이태현(李泰鉉)	고종 11년(1874) 2월 27일	고종 13년(1876) 5월	2년 3개월
이희눌(李熙訥)	고종 13년(1876) 6월 10일	고종 15년(1878) 6월	2년
이교복(李教復)	고종 15년(1878) 7월 25일	고종 17년(1880) 5월	1년 10개월
이교필(李教弼)	고종 17년(1880) 7월 10일	고종 19년(1882) 6월	1년 11개월
심의홍(沈宜弘)	고종 19년(1882) 8월 7일	고종 20년(1883) 4월 27일	8개월
양주성(梁柱星)	고종 20년(1883) 4월 27일	고종 21년(1884) 12월 10일	1년 8개월
이정필(李正弼)	고종 21년(1884) 12월 10일		
구연창(具然昌)	고종 22년(1885) 10월 26일	고종 24년(1887) 11월 24일	2년 1개월
오정선(吳正善)	고종 24년(1887) 11월 24일	고종 27년(1890) 6월 6일	2년 7개월
민치일(閔致一)	고종 27년(1890) 6월 6일	고종 29년(1892) 4월 29일	1년 10개월
이상규(李庠珪)	고종 29년(1892) 4월 29일	고종 30년(1893) 12월 20일	1년 8개월
이봉구(李鳳九)	고종 30년(1893) 12월 20일	고종 30년(1893) 12월 28일	8일

37) 「고종실록」, 고종 20년(1883) 6월 8일조.

38) 「고종실록」, 고종 20년(1883) 11월 15일조.

(4) 충청수영의 폐영

조선 정부에서는 을미개혁을 추진하면서 1895년 7월 15일 칙령으로 각도의 수영을 폐지하였다.

『조선왕조실록』 1895년 7월 15일조에,

칙령(勅令) 제139호, <삼도 통제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三道統制營廢止件]>과 칙령 제140호, <각 도의 병영과 수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道兵營水營廢止件]>과 칙령 제141호, <각 진영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鎭營廢止件]>과 칙령 제142호, <각 진보의 폐지에 관한 안건[各鎭堡廢止件]>과 칙령 제143호, <감목관 폐지에 관한 안건[監牧官廢止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頒布)하였다.

라고 하여 각도의 수영·병영 등 조선시대 지방 군사조직이 폐지되는 조치가 행해졌다.

이 칙령에 의해 충청수영은 『오천군지』에 의하면 1년 뒤인 1896년 7월 폐영된다. 결국 1894년의 갑오개혁, 1895년의 을미개혁으로 다른 부문의 개혁과 함께 군사면의 개혁도 이루어져 충청수영도 폐영된 것이다. 『오천군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西紀 1896년(建陽元年 高宗 33年 開國 504年 丙申) 7月 日 節度使 趙羲昌시에 度支部 訓令을 基因하여 洪州觀察使 李承宇의 膽訓으로 廢營한 事
- 越7年 西紀 1901年(光武 5年) 陰 辛丑三月初 6日 軍部訓令을 基因하여 保寧郡守 權聖洙가 諸群屬及 各洞丁數千名을 領率 來到하여 全水營 公廨를 始威撤毀而 其中保存者는 將校廳 禦邊廳 賑撫廳 沙工廳 旗手廳 使令廳 閉門樓 西南北門樓 軍餉庫인마 其時愁慘한 情況은 難可一一枚擧而 當邑內 朝夕 炊煙이 3日 永絶하니 不忍狀況은 省略함.

정부의 칙령을 탁지부(度支部)가 훈령하고, 홍주관찰사가 집행하여 충청수영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갑오개혁 당시 지방행정 제도개편으로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시행되어 충청수영 지역은 홍주부의 관할하에 있게 되어 홍주부 관찰사가 이를 집행한 것이다.

그리고 4년 뒤인 1901년에 보령군수 권성수(權聖洙)가 군부의 훈령을 받고 보령군의 군속 및 장정들을 이끌고 와서 수영의 모든 공해를 파괴하였다. 수영 폐영과 공해 파괴를 지켜보는 수영 지역 주민들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충청수영의 폐영과 연속된 공해의 파괴는 수영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황성신문〉 1901. 5. 21일자에는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잘 기록되어 있다.

民非保寧 - 보령군수 權聖洙氏의 公報를 據한즉, 本郡所管 水營公廨 毀撤事로 군부에서 奉承旨意하여 훈령하였기로 본 군수가 전월 24일에 始撤次로 率願買人及役丁하고 馳到于該營南門外則 所記無賴輩가 堅鎖 城門하고 各持短椎하고 城頭樓上에 作隊列立하여 ○○喊聲에 投石如雨함이 進退猝難에 死生在前이라 군수는 ○免이나 所率官隸及役丁은 頭破身傷에 血流狼藉라 巨魁 全桂恩 등 幾名을 捕縛懲治하였더니 昨日 內部에서 보령군에 捉囚한 죄인 남녀 30여 명을 방송하라고 ○勅하였 다더라.

보령군수 권성수가 수영 공해를 파괴하기 위해 장정들을 거느리고 수영성의 남문으로 들어가려는데 남문 문루에서 무기를 가진 저항자들이 도열하여 소리 지르며 투석으로 저항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주동자 30여 명이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은 역사 속에 묻혀진 수영 폐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뒤로 한 채 충청수영은 폐영되기에 이른 것이다.

(5) 폐영지의 양주 조씨 선영(先塋) 조성

충청수영 폐영 후에 폐영지는 얼마 후 조선후기 우리나라 세력가문 중의 하나인 양주 조씨(楊州趙氏家)의 사패지가 되어 양주 조씨 선영으로 가꾸어졌다. 양주 조씨는 보령 화암서원에 배향된 천휴당 이몽규의 외손인 조존성(趙存性)의 후손들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명문거족의 하나로 대성한 가문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 인물로는 경종 때 신임사화에서 노론 4대신의 한 사람으로 피해를 입었다가 향교에 배향된 이우당 조태채, 고종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조두순 등이 있다.³⁹⁾

조존성 후손 양주 조씨들의 원래 선영은 경기도 양주의 금곡(金谷)에 있었으나 이곳 금곡이 서기 1900년 홍릉(洪陵)⁴⁰⁾ 봉표(封標)가 됨으로 인하여 충청수영 폐영지를 사패지로 받아 선대의 묘소를 이장하게 되었다.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의 부친 조창원, 그의 부친 조존성, 조부 조람, 증조부 조연손, 고조부 조무강, 그리고 조창원의 아들 조윤석 손자 조태상, 조카 조구석 등 많은 묘소가 오천에 옮겨졌다.⁴¹⁾

그러나 아직 수영 공해가 모두 없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천군 설치와 관청 건물 설치 때문에 묘소 이장과 선영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조선왕조실록』 1903년 9월 26일조에,

특진관(特進官) 조병세(趙秉世)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지난 경자년(1900) 가을에 신의 집안의 금곡산(金谷山) 선영에 특별히 사패(賜牌)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충청수영(忠淸水營)의 옛터에 무덤을 이장하였으나 봉분을

39) 황의천, 「보령 죽정동 조대비 가옥과 양주조씨」, 『보령문화』 17집, 2008.

40) 홍릉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능으로 1900년 미리 능을 조성해 놓았다가 1919년 고종이 승하하자 여기에 안장하였다. 오늘날 위치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이다.

41) 양주 조씨 족보

만드는 일을 채 마치지 못하였으니, 관청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영을 이미 없었으니 건물도 마땅히 훼손시킬 것이기에 오직 조정에서 조만간 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봄 과연 군부(軍部)의 훈칙(訓飭)이 있었으나 해영(該營)의 옛 이배(吏輩)들이 소란을 일으킨 탓에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오천(鰲川)에 군(郡)을 설치한 뒤에도 읍의 치소(治所)를 기어이 옛날대로 두려고 한 것도 이 무리들이 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지난번 폐하(陛下)께 외람되어 간절한 심정을 진달하여 다른 곳으로 관청을 옮겨 세우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은(皇恩)이 이르니 온 가문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선영을 확보하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내부에 보낸 충청남도 관찰사(忠濟南道觀察使)의 보고를 보니, 수영(水營)을 안면도(安眠島)로 하게 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수영을 그 자리에 설치하자는 논의도 그 가운데에 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저이기 의아하게 여겼는데, 얼마 후 들으니 해당 군에서 공사를 한창 일으켜 삼문(三門)을 우뚝 새로 세우고, 튼튼한 터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외람되어 생각하건대 신의 집안의 새 선영이 관아의 담장 밖이나 정자의 섬돌 아래쪽에 있어 가까운 것은 5, 6보이고 먼 것은 수십 보 밖에 안 됩니다. 설령 빈 건물로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상 같이 두기 어려운데, 하물며 수령(守令)이 관아에 앉아 안팎에서 호통을 치고 좌우에 형틀을 벌여 놓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대(屢代)에 걸쳐 모아진 유골을 이유 없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귀신의 도리나 인정상 매우 절박한 일입니다. 게다가 사체(事體)로 말하더라도 황상께서 이미 이 땅을 신의 집안에 내리셨으니, 해당 군에서 어찌 이곳에 관아를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 외에 합당한 곳이 없지도 않은데 기필코 이 지역에 지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지를 진실로 알 수 없습니다.”

… (중략) …

하니, 비답하기를,

“사패지(賜牌地)에는 원래 경계가 정해져 있고 또한 규식(規式)이 있다. 읍속(邑屬)들이 시끄럽게 다투고 고집부리는 것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것은 지방(地方)과 관계되므로 내부(內部)로 하여금 편리한 방도를 잘 토의하여 조치하게 할 것이니, 경은 양찰(諒察)하라.” 하였다.

라고 하여 수영 폐영지에 양주 조씨 선영이 조성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선영으로 적합하지 않아 다시 양주 조씨들은 선영을 경기도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러나 옮겨가는 과정에서 지석(誌石)의 일부를 수습하지 못하여 최근 지석의 일부가 발견되어 수영 폐영지에 양주 조씨 선영이 조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 수습된 지석은 2개이다. 그중 하나인 현재 오천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조무강(趙無疆, 1488~1541년)의 지석은 크기가 19×28.5cm이고, 재료는 청석이다. 조무강은 한원부원군 조창원의 고조부이다.

발견된 지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女以成化丙午生嘉靖乙酉六月二十二日卒墓合窆舊在楊州金谷光武庚子月因洪陵封標十月二十七日移葬于鰲川蘇城舊水營廢址賜牌地南選坐合祔是日○值于墓前一男諱連孫贈吏曹判書側室男汝雲汝霖汝舟兼寺僕汝楫庶女李終貞羽林衛
十四代孫重健 泣血謹識

조무강의 부인은 성종대왕의 7녀로 성화 병오에 태어나 가정 을유 6월 22일에 사망하였다.

묘는 합폄했는데, 옛날에는 양주 금곡에 있었으나 광무 경자년(1900)에 홍릉 봉표로 인하여 10월 27일 오천 소성리 옛 수영폐지의 사패지 남쪽 선좌에 이장하여 합부했다.

1남은 휘 연손⁴²⁾으로
증 이조판서이고 측실
소생 남자는 여운, 여
림, 여주, 검사복 여즙
이며, 서녀는 이종정인
데 익림위이다.

또 하나의 지식은 한원
부원군 조창원의 지식인데
1983년 간행된 『내 고장
보령』에 원문 내용이 소개
되어 있고 전 대천문화원
장 윤원석 씨(작고)가 소장
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 고장 보령』에 소개되어 있는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封輔國領敦寧漢原府院君丙戌二月三十日卒贈領相諡惠穆公配完山府夫
人崔氏大司諫鐵堅女癸未十月五日生癸卯十月二十五日卒一男胤錫承旨
三女申翊全參判韓鼎相僉正莊烈王后其季也墓舊在金谷光武庚子因洪陵
封標十月二十七日移葬鰲川舊水營址賜牌地南山選坐合祔是延侑于墓前
世系官歷事行詳載舊誌 十代孫 健 泣血謹識(烏石 陰刻 長 32.5cm, 幅 21cm)

보국승록대부 영돈령부사 한원부원군에 봉해졌고 병술 2월 30일에



조무강의 지식(보령박물관 소장)

42) 조연손은 조무강의 외아들로 일찍 죽어 조람(趙攀)을 계자(系子)했다. 조람은 천휴당 이몽규의 사위이며 조람의 아들이 조존성이고 조존성의 후손들이 조선시대 양주 조씨 별렬가문을 이루었다. 조선 말기 양주 조씨 종손이 죽정동 조대비 가옥으로 조무강의 위패를 모시고 와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졸했으며 영의정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혜목공이다. 부인은 완산부부인 최씨이며 대시간 최철견의 딸이다. 계미년 10월 5일에 태어나 계묘년 10월 25일에 졸했고 1남은 윤석으로 승지이며 3녀는 참판 신익진, 첨정 한정상 그리고 장렬왕후가 막내이다. 묘는 예전에 금곡에 있었으나 광무 경자에 홍릉 봉표로 인하여 10월 27일 오전 옛 수영지 사패지의 남산 선좌에 이장하여 합부했으며 세계와 관력은 옛 지석에 실려 있다. 10대손 중건은 피눈물을 흘리며 삼가 기록한다.

(6) 오천군 신설

수영 폐영 후 오천군(鰲川郡)이 신설되는데, 오천군 설치 노력은 수영의 전이속(吏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수영 폐영 후 수영에서 실무행정 관료로 활동하던 많은 이속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의 신세가 되어 생계가 어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영이 보령군에 속하게 됨으로 인하여 보령군 소속 이속들과의 갈등 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정3품직의 충청수사영이 하루아침에 보령군(保寧郡) 김신면(金神面)으로 전락하여 보령군수의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들의 자존심 또한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러한 요인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이속들이 중심이 되어 군 설치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여지도서』에 의하면 수영내리(水營內里)의 인구가 1,128명⁴³⁾이어서 다른 지역의 리(里)가 일반적으로 기십명(幾十名)의 인구였던 것에 비하면 수영성과 주변에는 아주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었다. 수영 폐영 당시에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었을 것인데, 수영이 폐영되어 보령군에 속하게 된 것에

43) 『보령시지』, 2009 원고

대하여 수영의 주민들은 정서상으로 쉽게 순응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조선시대 수영은 보령현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2번에 걸친 보령현과 수영의 통합시기가 있었음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다. 이러한 통합은 정3품의 수사가 보령현감을 겸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령현이 수영에 통합된 것이다. 효종 3년(1652)에는 보령현을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로서 부사(府使)를 겸하게 하였다가 효종 6년(1655)에 다시 전처럼 현으로 복구시켰다.⁴⁴⁾ 이 시기 보령부사를 겸했던 수사는 具義俊, 李壽昌, 金漢文이었다. 이어서 조선말기인 1871년부터 1893년까지 보령현감을 충청수사가 겸임하였다.⁴⁵⁾ 1871년 조정에서는 수영의 경비와 방어력 강화를 위해 보령부를 설치하고 수사와 우후가 보령부와 수영에 번갈아가며 근무하면서 보령을 수영에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⁴⁶⁾ 이 시기 충청수사는 李圭顏(1871년 부임), 李泰鉉, 李熙訥, 李教復, 李教弼, 沈宣弘, 梁柱宣, 李正弼, 具然昌, 吳正善, 閔致一, 李庠珪, 李鳳九(1893. 12. 28.)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수영이 보령을 통합해 왔는데 거꾸로 수영이 폐영되어 보령군에 통합되는 현실을 수영의 이속과 주민들은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899년 최초로 군 신설건의가 이속 박계영(朴啓榮) 등이 주동하여 있었다, 다음 청의서(請議書)를 통하여 박계영 등이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들어 오천군 설립 소장(訴狀)을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보령군내 폐지한 前 水營 장소에

오천군을 신설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⁴⁷⁾

光武 4年 4月 27日(1900년 4월 27일)

44) 「신증동국여지승람」 보령현조

45) 보령부를 설치하고 수사가 보령부사를 겸임하였을 때 보령부를 다시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했다. (『조선왕조실록』, 『고종실록』 1878. 7월 19일조와 1883년 12월 12일조)

46) 『조선왕조실록』, 고종 8년(1871) 9월 15일조

47) 규장각 『各部請議書案』, 『각사등록』 근대편

발송 : 議政府贊政 內部大臣 李乾夏

수신 : 議政府議政 尹容善 閣下 查照

아래는 충청남도 진 수영에 사는 사람 박계영(朴啓榮) 등의 소장(訴狀)을 받고 살펴본 것입니다. 본 충청수영은 산이 다하고 물로 둘러싸인 땅이어서 처음부터 작은 농토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익힌 것이 다만 영속(營屬)을 업으로 삼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수백년을 해오다가 갑자기 수영을 폐지 하온즉 슬프게도 이 민(吏民)이 의지할 데가 없게 되니 몸 둘 곳을 알지 못하여 노인과 아이들 손을 잡고 먼지 날리는 도로에서 떠돌고 있으니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여기 사는 사람들의 집들은 폐가가 되어 100집에 10집도 남아있지 않으며 혹 무너지고 퇴락하여 성대하던 전각은 달밤에 우뚝 솟아 누런 티끌과 푸른 풀로 덮였은즉 거기에 거주하는 몇 명의 관리들은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나오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또 지형으로 논한다면 충청남도 연해의 모든 군이 구슬을 꿰어놓은 것과 비교할 수 있는 바, 본영이 그 중앙에 위치해서 남쪽으로는 保寧·藍浦·庇仁·舒川·林川·韓山·鴻山·恩津에 접하고, 北으로는 洪州·結城·德山·瑞山·泰安·唐津·沔川·海美에 통해서 皇城往來大路가 三十里 거리이오며, 東으로는 靑陽·定山·大興·公州와 이어져 있고, 西로는 大洋에 임하니 안면도와 호서의 서해 모든 섬이 줄지어 바다 문을 만들고 있어 비록 輪船이라도 어렵지 않게 영보정 아래에 정박할 수 있은즉, 이에 호서의 수로 요충지였던 까닭으로 영락 7년(1409)에 도안무척치사영을 설치하였고, 그후 수영이 설치되어 수백년이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폐지되어 하나의 강촌, 하나의 폐허된 마을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생업을 잃어버린 수천 생령(生靈)도 똑같은 皇民이니 먹고 살며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郡을 설치하는 것만큼

현명한 것이 없습니다.

본영은 인접한 郡들의 사이에 있고, 여러 섬들이 그 앞에 나열하여 있는데, 그 섬들은 현재 각 해당 군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이는 60~70리요 멀리는 500~600리이지만, 본영에서는 가까이는 10~20리요 멀리는 60~70리이니 지도(智島)와 완도(莞島)의 예와 같이 해서 여러 섬을 구역으로 획정하면 족히 한 개의 군을 설치하기가 족하며, 여러 섬의 결호(結戶)를 새롭게 올리면 상납과 군 경비를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 어찌 국가에 이롭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도가 아니겠으며 저희들도 큰 혜택을 입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조사해 본즉 충청수영 폐지 후로 그곳 수영의 이속배(吏屬輩)와 보령군 이민(吏民) 등이 서로 원수처럼 보면서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서 살펴보면 과연 이것은 편치 않은 일입니다.

또한 그 군의 읍지를 살펴보니 이 지방이 수로 요충으로 500여 년간 관방의 중요한 곳이어서 도안무처치사와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명칭이 비록 다르지만 그 실상을 대략 돌아다보면 계속 귀중한 곳이어서 보령군을 폐지하여 수영에 합부함이 그 사이 여러 해였었습니다.

갑오년 이래로 법규를 폐지하고 소홀이 하고, 오랑개가 되고, 중하게 해야 할 것을 도리어 가볍게 하니 성곽과 청사가 황량하게 퇴락하여 호구물산(戶口物產)이 줄어들고 호서보장(湖西保障)이 어찌 흐트러짐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건대 백성과 나라일의 형세가 너무도 개탄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이옵기에 호남의 3島 郡 설치의 예에 의하여 폐지한 전 수영에 별도의 령(令)으로 하나의 군을 설치하되 군명(郡名)은 오천(鰲川)이라 하고, 위치는 전 수영에 그대로 두고 군의 등급은 4등표에 의하고, 구역은 保寧郡 金神面과 洪州郡 用川面 및 安眠島·元山島·荒島·月島·陸島·抽島·蔬島·古代島·孝子島·內長古島·楮島·斗之島·大也島·外長古島·外斂島·插時島·佛母島·鹿島·狐島·外烟島·黃島·於

靑島와 泰安郡 居兒島·佳宜島와 結城郡 竹島와 瑞山郡 看月島와 庇仁郡 烟島·竹島와 舒川郡 開也島를 劃附管轄하게 함이 일에 있어 매우 타당하옵기에 이 칙령안을 회의에 提呈할 일입니다.

내용에 의하면 충청남도 전수영민(前水營民) 박계영(朴啓榮) 등이 소장(訴狀)을 제출하여 수영이 졸지에 폐지되어 거민(居民)들이 생업(生業)을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전수영(前水營)에 하나의 군을 설치하는 것이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책이라며 일군(一郡) 신설(新設)을 청원하였으며, 전수영(前水營)에 일군(一郡)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름을 오천(鰲川)이라 하고 위치는 전수영(前水營)에 두고 군의 등급은 4等表에 의하고 구역은 保寧郡 金神面과 洪州郡 用川面 및 安眠島, 元山島, 荒島, 月島, 陸島, 抽島, 蔬島, 古代島, 孝子島, 內長古島, 楮島, 斗之島, 大也島, 外長古島, 外歛島, 插時島, 佛母島, 鹿島, 狐島, 外烟島, 黃島, 於靑島와 泰安郡 居兒島, 佳宜島와 結城郡 竹島와 瑞山郡 看月島와 庇仁郡 烟島, 竹島와 舒川郡 開也島를 劃付管轄하도록 하는 칙령안(勅令案)을 작성하여 회의(會議)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박계영 등의 소장에 의해 위와 같이 조정의 논의를 거쳐 이듬해인 1901년에 오천군을 설치하는 칙령이 반포되기에 이른다.

勅令 第 號

忠淸南道管下 保寧郡區域內廢止한 前水營에 鰲川郡 新設에 關한 件

第1條 開國505年度 勅令第36號 第1表 忠淸南道37郡을 38郡으로 改正하고 4等木川郡下에 鰲川郡 3字를 添入하고 第2表4等下211郡의 1字는 2字로 改正事.

第2條 郡廳位置는 廢止水營에 仍眞하고 區域은 保寧郡 金神面과 洪州郡 用川面과 安眠島 元山島 荒島 月島 陸島 抽島 蔬島 古代島 孝子島 內長古島 楮島 斗之島 大也島 外長古島 外歛島 插時島 佛母島 鹿島 狐島 外烟島 黃島 於靑島와 泰安郡 居兒島 佳宜島와 結

城郡 竹島와 瑠山郡 看月島와 庇仁郡 烟島 竹島와 舒川郡 開也島
를 該郡에 劃附管轄할 事.

第3條 本令을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議政府贊政內部大臣 李乾夏 議政府議政 尹容善 閣下 查照

光武 4年 4月 27日

칙령 제 호

충청남도 관하 보령군구역내에 폐지한 전 수영에 오천군 신설에 관한 건

제1조 개국 505년도 칙령 제 36호 제1표 충청남도 37군을 38군으로 개
정하고 4등 목천군 아래에 오천군 3자를 삼입하고 제2표 4등 아
래 211군의 1자는 2자로 정정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폐지 수영에 그대로 두고 구역은 보령군 김신면과
홍주군 용천면과 안면도, 원산도, 황도, 월도, 육도, 추도, 소도,
고대도, 효자도, 내장고도, 저도, 두지도 대야도, 외장고도, 외감
도, 삼시도, 불모도, 녹도, 호도, 외연도, 황도, 어청도와 태안군
거야도, 가의도와 결성군 죽도와 서산군 간월도와 비인군, 연도,
죽도와 서천군 개야도를 이 군에 떼어 붙여 관할하게 할 것

제3조 본 령을 반포일로부터 시행하게 할 것

의정부찬정내부대신 이건하(李乾夏) 의정부의정 윤용선(尹容善) 합하 조사
하여 대조함

광무 4년(1901) 4월 27일

이러한 오천군 설치에 앞장 선 사람은 앞에서 말한 이숙 박계영(朴啓榮)이
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에 대한 흔적은 전혀 알 수 없고, 공해관 건물 마당의
수사 비석군에 있는 가장 작은 비석 하나가 박계영의 오천군 설치 노력을 전
하고 있을 뿐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書記朴啓榮永世不忘碑

出類異人 보통 사람보다 남달리 출중하여
 氣宇軒軒 기개와 도량이 뛰어났었다.
 志在設邑 뜻은 고을을 설치하는 데만 있었기에
 誠功蒙恩 성심을 다하여 은혜를 입는 공을 세웠다.
 珠是不夜 이는 야광주가 밤을 밝히듯,
 丹乃還魂 영단이 죽는 자를 살린 격이다.
 難忘者功 공을 이룬 자 잊기 어려워
 片石四言 조각돌에 사언시를 새기노라.

한편 공해관 마당의 수사 비석군에는 수영 폐영 이후부터 오천군 설치 과정 중에 있었던 몇 가지의 상황을 전해주는 중요한 비문이 있다. 오늘날 잊혀져가는 오천군 설치 과정의 어려웠던 사정을 전해주는 유일한 자료들로 잘 보존해야 할 향토자료이다. (충청수영 비석편 참조)



서기박계영영세불망비(書記朴啓榮永世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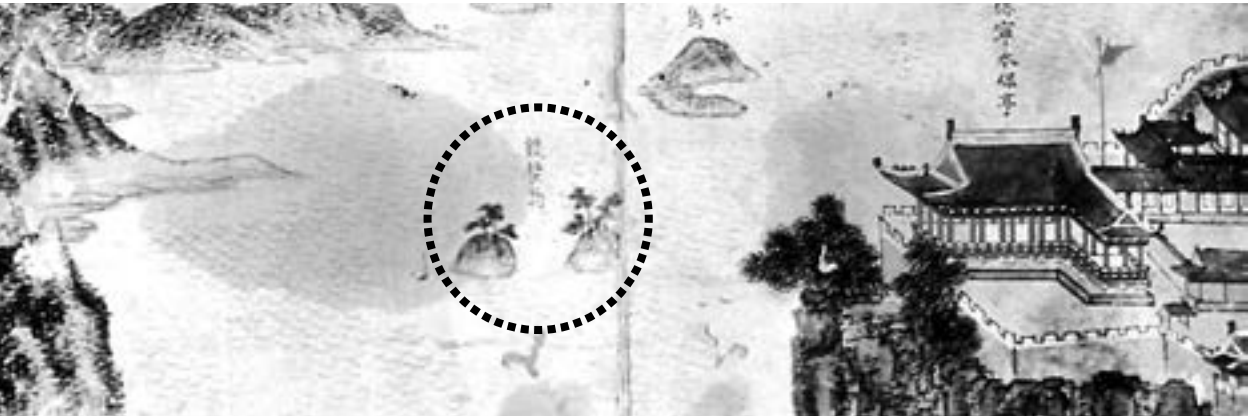
결국 갑오·을미개혁 과정에서 오천에 있던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여기에 1901년 4월에 오천군(鰲川郡)이 신설되었고, 수영 폐지 이후 오천군이 신설된 배경은 수영의 주민과 이속 박계영(朴啓榮) 등이 소장(訴狀)을 올린 데서 발단이 되었음은 앞에서 서술한 대로다.

이에 의하면 충청수영은 산이 다하고 바다로 둘러싸인 지

역이어서 농토가 없는 관계로 여기의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생을 영속(營屬)을 업(業)으로 삼아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폐지되니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충청수영은 원래 충청도의 가운데 위치하여 요충지이기 때문에 과거에 수영이 설치되고, 지금도 영보정 아래에는 어떤 윤선(輪船)이라도 무난히 정박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전라도 완도와 진도의 예에 따라 구획을 획정해서 군을 설치하고 여러 섬을 결호(結戶)로 새로이 올리면 상납과 신설군 경비를 충당할 수 있으니 백성은 편안하고 나라는 이득이다. 그리고 폐지된 수영의 영속(營屬)과 보령의 이민(吏民)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합치기 어려운 정상도 참작하면 군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건의로 군청은 폐지된 수영에 설치하고, 관할구역은 보령군 김신면, 홍주군 용천면, 그리고 안면도, 원산도, 황도(荒島), 월도, 육도, 묘도, 소도, 고대도, 효자도, 내장고도, 저도, 두지도, 대야도, 외장고도, 외감도, 삼시도, 불모도, 녹도, 호도, 외연도, 황도(黃島), 어청도, 태안군의 거야도, 가의도, 결성군의 죽도, 서산군의 간월도, 비인군의 연도와 죽도, 서천군의 개야도를 오천군에 붙였다. 이리하여 충청도 해안의 모든 도서들은 거의 오천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군세(郡勢)가 육지만으로는 부족하여 도서들을 포함시켜서 군경비 충당을 원활하게 하여 군의 기능을 다하게 할 방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오늘날도 오천면에 많은 도서가 딸리게 되었다.

오천군은 충청수영 폐지가 가져온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영역은 과거 충청수영터와 보령현 김신면 지역, 연안 도서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천북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오천군은 4등급의 군으로써 천동면 천북면 하남면 하서면을 관할하였다. 원래 천북은 홍주목 용천면 지역이었고, 도서지역도 홍주목 소속이었지만, 1901년의 오천군 신설로 오늘날의 보령 영역으로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천군이 폐지되고 보령군에 오천면과 천북면으로 편입되었다.



영보정도에 그려진 쌍오도 - 가운데의 2개 섬

〈오천(鰲川) 지명 유래의 추정〉

수영이 폐영되고 나서 군(郡)을 설치하면서 명칭을 오천(鰲川)으로 한 것은 수영 앞에 있었던 쌍오도(雙鰲島)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천 앞바다에서 광천으로 통하는 물길이 바다의 만구임에도 예부터 강으로 인식되어 천(川)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쌍오도는 현재는 홍보지구 간척 사업으로 없어졌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 조그만 바위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전해지는 전설과 함께 주민들은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왔으며, 옛 수영의 지도에도 자주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영 내 주민들의 정서를 상징하는 지형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지도에 표시된 쌍오도는 그 크기에 비해 과장되어 부각되게 그려진 것 등으로 보아 전통적으로 수영 주민들의 정서를 상징하는 지형이었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7) 일제시기 오천 발전 노력

한일병탄 후 행정상의 개혁 필요성을 느낀 일제는 1914년 3월 1일 부군폐

합령(府郡廢合令)을 발표하고 지방행정구역을 대수술하여 폐합 축소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행정구역 정리기준으로서는 군은 면적 약 40방리(方里)인 구 약 1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하의 군은 인접군에 병합하며, 면은 대체로 약 4방리 800호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달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병합하였다. 그리하여 이때의 지방행정구역은 13도 220군 2,521면이 되었다.

그동안 면장(面長)은 군수의 보조기관으로 하등의 직제상 규정이 없던 것을 1917년 군수 하부 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켰다.

1914년의 부군통폐합령에 의한 지방제도 정비에 따라 보령지방에는 보령군과 남포군 그리고 오천군이 합해져서 보령군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보령군의 청사를 현재의 대천(보령군 대천면)에 새롭게 정하면서 대천이 오늘날처럼 보령군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오천군은 오천면과 천북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어서 오천면 소재지를 소성리(蘇城里)⁴⁸⁾에 두었다.

1914년 부군통폐합령에 의해 만들어진 보령군의 하부 행정구역

面名	廢合面名	里數
大川面	保寧郡 于蘿面, 睦忠面 一部	10
周浦面	保寧郡 周浦面, 長尺面, 睦忠面 一部	10
靑所面	保寧郡 靑所面, 長尺面 一部	8
靑蘿面	保寧郡 靑蘿面, 吾三田面	11
熊川面	藍浦郡 熊川面, 古邑面 一部	13
珠山面	藍浦郡 佛恩面, 習衣面	11
藍浦面	藍浦郡 郡內面, 新安面, 北外面	13

48) 충청수영은 수군기지가기도 했지만 그 뛰어난 경치로 인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 칭송의 글을 지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수영의 절승을 상징하는 건물 중에는 영보정과 한산사가 있었는데, 이들 시인 묵객들은 수영의 절승과 한산사를 보고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장계의 한시 '풍교야박'에 나오는 소주의 '고소성 박한산사'에 비유했다. 장계의 풍교야박은 중국과 조선의 선비들에게 회자되던 유명한 시였다. 이리하여 충청수영은 중국 소주의 고소성(姑蘇城)으로 비유되었고, 수영의 별칭으로 고소성 또는 소영(蘇營)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리하여 오늘날도 오천에 소성리(蘇城里)라는 지명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面名	廢合面名	里數
嶺山面	藍浦郡 北外面, 深田面	16
鰲川面	鰲川郡 川東面, 河南面, 河西面 一部	10
川北面	鰲川郡 川北面	8

충청수영에서 오천군으로 그리고 오천면으로 위상이 격하되어 온 오천은 일제시기에도 나름대로 몇 가지의 발전 노력을 전개하면서 옛 수영의 명성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즉 수영의 균형이었던 오천항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균형지였던 오천의 포구는 천연적 항구로는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현재도 주변에 보령 신항 건설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천연적 항구 조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시기의 오천항 건설 운동은 결국 대천항 건설로 인하여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시대 변화에 따라 대천항에 비교우위를 빼앗겼던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보령 신항이 건설되면 충청수영의 역사적 맥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자료는 일제시기 오천항 건설을 중심으로 전개된 오천 발전 노력을 보여주는 신문기사이다.

○ 1925. 11. 25. 시대일보

鰲川 築港운동기성회 조직

【保寧】보령군 오천은 충남에서 몇째 아닌 항만지이므로 지방인사는 금년 夏間에 축항 기성회까지 창립하고 항시 발전상 계획을 강구 중이던바 지난 14일경에 경남철도주식회사 부상 秋本씨의 三氏가 來着하여 제반 상황을 시찰한 후 광천 대천간 철도를 부설하게 될 시에는 반드시 오천까지 連絡케 한다고 明言까지 있었음으로 이로부터 축항문제는 더욱 일반의 열성을 끌게 되어서 기성회장 三宅龜久太 씨와 부회장 尹英重 씨의 열렬한 운동과 동리 진흥회의 열성으로 기성회의 출연금액이 벌써 근 300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 1928. 5. 18. 중외일보

鰲川축항 실지조사 착수

충남 보령 大川과 동군 鰲川은 벌써 수년전부터 개항의 叫題로 몇 번의 實測까지 있었으며 또 그뿐아니라 오천은 현재 鰲川港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仁川 群山행의 정기 出帆의 기선이 출입하여 해상교통의 편의가 있어왔다. 그러므로 總督府 당국에서도 이를 調察하여 수차의 調査와 測地를 하여 왔었던바 이번에 또다시 오천 대천 두 곳 중에 어느 곳을 築港地로 결정함이 가능한 실지조사와 測地에 착수하기 위하여 總督府에서 출장명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토목부사업과 출장원 일행은 지난 14일 오후 5시에 大川에 도착하였는데 조사의 실측을 마치기까지의 기일은 약 50여 일 가량을 요하리라 한다.(洪城)

○ 1931. 7. 3. 동아일보

漁港과 海水浴場, 실지로 측량까지 하여, 保寧 大川에 設置?

【보령】충남 보령군 대천시에는 開港문제로 다년간 현안이던 바, 대천 유지 일반적으로 운동한 결과 지난 26일에 본 도청 토목과장과 경남 철도회사 부사장이 대천에 출장하여 대천면 군입포를 실지 측량하고 2일간 충분한 조사를 한 결과 대천발전을 위하여 우선 어항과 해수욕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일치된 모양이고, 내 3일경에 총독부에서 당지에 출장하여 실지측량에 착수할 예정이라 한다.

○ 1931. 6. 7. 동아일보

충남 수산보습학교 결국 오천항에

다년간 현안이던 충남수산보습학교(忠南水産補習學校)를 서산과 보령 두 곳에서 운동하고 있던 바 도청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20일경 보령군 오천항으로 결정되어 인가까지 근일에 나왔다고 한다. 교실은 아직 오천공보교(鰲川公普校)에 설치하고 불원간 생도를 모집하여 교수에 착수하리라 한다.

○ 1935. 8. 14. 동아일보

前 水營이었던 오천항 개축 진정

충남 보령군 오천항은 충남 서해안에서 굴지의 양항으로 옛날에는 水使營을 두어 군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졌던 곳이던 바 도 수산시험장을 군입리에 이전하여 간 뒤로 쇠퇴하여 가는 현상임에 최근 광산열의 팽창으로 광물수출이 격증하여 불원간 1개월에 1천톤 이상 달하게 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약 30간 쯤 되는 돌 제방으로는 30톤급의 선박계류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개축하여 달라는 진정서가 지난 11일 지방유지수 십 명이 명의로 충남도에 접수되었다 한다.(대전)

1925년 오천지역에서는 대천과 함께 오천항 건설과 이에 연계하여 장항선 철도의 오천 통과 문제 등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대천항이 축항지로 결정되면서 대천항이 크게 발전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충청수영 연혁 맺는 말

충청수영과 오천의 발전과정을 몇 가지의 자료로 구성해 보았다. 고려시대 이전의 오천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고려말 조선 초에는 오천을 회이포(回伊浦)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어 포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기능과 연계된 오천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조선 초기 충청수영이 회이포에 설치되면서 오천은 서해안 방어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굴지의 군사도시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왜구에 대한 경계보다 청나라와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강화도 방어체제가 중시되었다. 이에 따라 오천에 위치한 충청수영의 입지는 태안의 안흥보다 약화되어 수영이 안흥으로 이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오천 지역의 권설봉수대 운영, 충청해

안의 중심지라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 등이 감안되어 이설은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조 때 결국 안흥에 수사의 행영이 설치되면서 오천의 수영의 위상은 낮아지게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사 조신태의 건의로 안흥 행영이 폐지되면서 오천의 수영 위상은 다시 회복되었다.

갑오 을미개혁으로 충청수영이 1896년 폐영되고 나서 모든 공해 건물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양주 조씨의 사패지가 만들어지면서 양주 조씨의 선영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폐영 과정에서 오천 주민과 이속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니 5백여 년 이어온 수영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지역민과 이속들의 노력으로 충청수영에서 오천이라는 지명으로 바꾸어 오천군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오천군은 오천면이 되었다. 일제 시기에는 보령의 중심항구 기능을 대천항에 내주고 면소재지로서 항구의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오천면으로 이어오게 된 것이다. 충청수영 폐영 113년 만에 국가사적 501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묻혀있던 충청수영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본다.

3) 충청수영성(忠淸水營城)

(1) 축조시기

『충청수영사례집』을 참고한 『오천군지』에 의하면 1396년 고만에 설치되었던 충청수영은 늦어도 세종 때인 1432년까지는 회이포(오천)로 옮기고,⁴⁹⁾ 1447년(세종 29) 영사(營舍)를 짓기 시작하여 1504년(연산군 10)에는 영보정까지 지은 후, 1509년 수군절도사 이장생(李長生)이 성곽을 축조하게 된다.⁵⁰⁾ 『오천군지』에 의하면 성곽을 축조하는 데 16년⁵¹⁾이 걸렸다고 한다.

- 서기 1509년(중종 4년, 正德 4년 己巳)에 李長生이 始築 長城하다.(『오천군지』)
- 正德 庚午(1510) 始築 石城 周3174尺 高11尺 內有4井1池.(『신증동국여지승람』)
- 鰲川城의 構造：中型式城郭, 둘레三畵, 高三米, 十六年間建築(築造). (『오천군지』)

수군진(水軍鎭)은 처음부터 성곽을 갖추어 방어한 것은 아니었다. 15세기 말 이전까지는 군사기지로 이용된 포구에서 왜구를 방어하였고, 방어상 중요한 해안가의 일부 지역에는 임시방편으로 목책도니성(木柵塗泥城)을 설치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수군진들이 자체적인 방어시설인 성곽을 갖춘 것은 15세기 중반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전통방식대로 해상에서 왜구를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포구에 수군진성(水軍鎭城)을 축조하여 육지에서 방어할 것인지를

49) 『오천군지』에는 ‘○ 西紀 1467년(세조 13) 水軍節度營을 回伊浦(지금 鰲川)에 둠’ 이라고 하였으나, 수군절도사를 둔 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50)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510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51) 함께 기록된 성곽의 둘레나 높이는 실제와 다르다. 그러나 16년간 축조했다는 것은 당시 전해지던 자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논란 끝에 15세기 말인 1488년(성종 19)부터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왜구의 침입이 쉬운 경상좌·우수영 관내와 전라좌수영 관내의 남해안지역부터 축조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16세기 초인 1522년(중종 17)에는 서남해안지역과 서해안지역까지 성곽을 축조함으로서 체계적인 방어시스템을 갖추게 된다.⁵²⁾ 1509년 이장생이 쌓은 오천의 충청수영성은 남해안의 각 진성에 비해서는 늦게 축성되었으나 충청도 관내에서는 수군절도사가 근무하는 수영성으로써 상당히 일찍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규모와 성곽시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여지도서』 등 문헌을 검토하면 충청수영성의 둘레는 여러 문헌에 일관되게 3,174척이고, 높이는 11척(『신증동국여지승람』) 또는 15척(『여지도서』)이고, 성가퀴는 280첩, 성문이 5곳이고, 치성과 곡성은 없으며 옹성은 5곳이다. 그리고 성 안에는 4개의 우물과 1개의 못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 실측·발굴조사 결과 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몇 개의 치성이 발견되었다. 충청수영의 성곽에 관련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충청수영성의 성곽시설 관련 기록⁵³⁾

문헌명(편찬년도)	내 용	기 록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최초의 축성기록과 성곽의 규모, 높이 11척, 둘레 3,174척	• 「신증」 정덕(正德) 경오년(1510)에 비로소 둘로 성을 쌓았는데, 그 주위는 3,174척에, 높이는 11척이고, 안에 네 개의 우물과 1개의 못이 있다.

5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전라우수영』, 18쪽.

53) 보령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충청수영성 종합중비계획』, 58쪽.

54) 정덕(正德) 5년(1510)의 庚午의 오기로 보인다.

문헌명(편찬년도)	내 용	기 록
여지도서 (1757~1765년)	둘레 3,174척(453장, 559보), 높이 15척(2장, 2보반), 성가퀴 280첩, 옹성 5곳. 문 5, 동·남·서문 층루, 북 서소문 일 합(一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통(正通) 5년(1440, 세종 22) 庚午年.⁵³⁾ 처음 돌로 쌓은 성이다. 둘레는 척의 단위로 재면 3,174척이고, 장의 단위로 재면 453장이며, 보의 단위로 재면 559보이다. 높이는 장의 단위로 재면 2장, 척의 단위로 재면 15척이며, 보의 단위로 재면 2보 반이다. 성가퀴(堞)는 280첩이다. 옹성(甕城)은 5곳이고, 치성(雉城)은 없으며, 곡성(曲城)도 없다. • 동문과 남문, 서문에는 모두 여러 층으로 높게 지은 누각이 있으며, 북문과 서소문은 모두 1층의 건물로 초루(譙樓)는 없다. 포루(樓)도 없다. 해자(核字)는 서소문 성 안에 있는데, 길이는 1백장이고 너비는 50장, 깊이는 반장이다.
증보 문헌비고 (1770년 이후)	둘레 3,174척 높이 11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군절도사영성(水軍節度使營城)」 : 서쪽 20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3,174척이고, 높이가 11척이다.
대동지지 (186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레는 3,174척이며 옹성이 5개이다.
오천군지 (1915년 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기 1509년(중종 4년, 正德 4년 己巳)에 李長生이 始築 長城하다.

(3) 성벽(城壁)

충청수영성의 성벽은 동남쪽의 높은 산지에서 뺏어 나온 산줄기의 능선부분을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두 가닥의 산능선에 의해 대체적인 모습이 결정되었다. 남문 근처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성곽을 축성하여 거의 직선을 이루고 있고, 바다와 맞닿는 곳은 수심을 고려한 듯, 곡선을 이루고 있다. 성의 전체

적인 모습은 원형에 가깝다. 기록에 있는 성의 길이를 환산하면 다음과 같다.

- 3,174척 × 31.24cm(세종 때의 營造尺) ≒ 991.5m
- 3,174척 × 31.21cm(경국대전 기록 척도) ≒ 990.6m
- 3,174척 × 46.73cm(포백척) ≒ 1,483.2m
- 실측치 : 1,650m(1990, 오천성(충청수영성)지표조사보고서)

위와 같이 1990년 새한건축문화연구소에서 측량한 실측치는 1,650m인데, 기록상에 나와 있는 3,174척을 영조척으로 계산하면 약 990m로 실측치와 큰 차이가 난다. 포백척으로 계산했을 경우는 1,483m로 실측치와 비슷하기 때문에 문헌에 기록된 성벽의 길이는 포백척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수영성 성곽의 높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11척, 『여지도서』에는 15척(2장, 2보반)으로 표시되어 있어, 체성의 높이는 11척이고 여장의 높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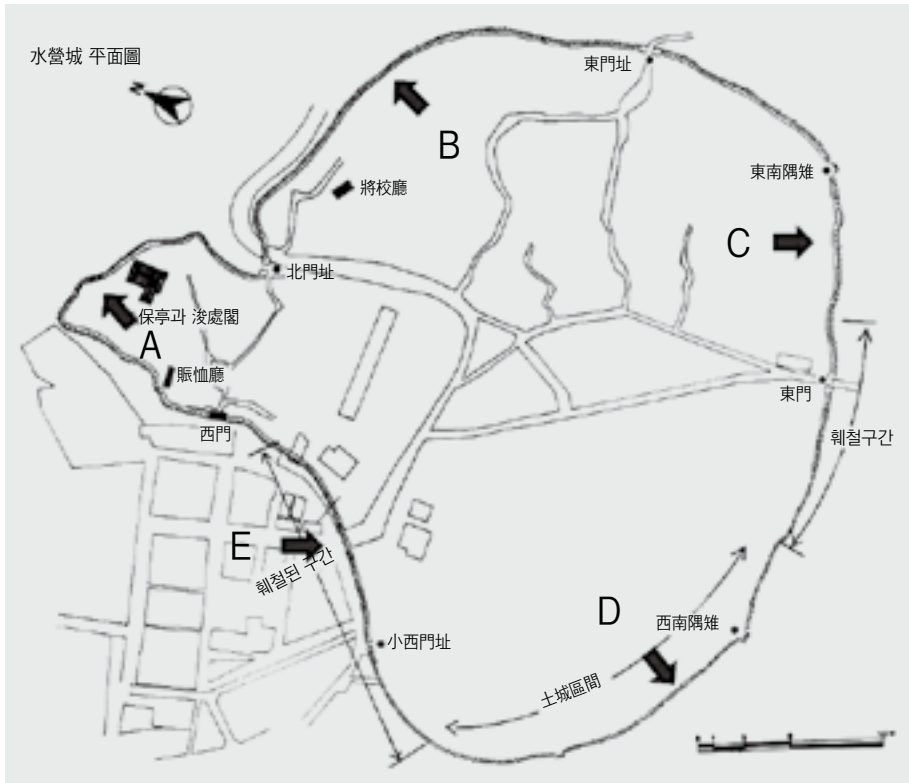


안흥진성의 여장 모습 - 성의 상부(2009년)

4척인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높이를 포백적으로 환산하면, 체성의 높이는 514cm, 여장의 높이는 186.9cm였다. 여장은 280척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남아있는 것은 없다. 충청수영 예하의 수군진성 중 안흥진성에는 여장(성가퀴)의 흔적을 볼 수 있다.

현재 성곽은 일부구간에서는 잘 남아있고, 일부 구간은 복원되었으며, 일부구간은 완전히 훼손되었다.

충청수영성의 성문은 모두 5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만든 지적도에



〈그림 7〉 성문을 중심으로 한 성벽의 구분⁵⁴⁾

54) 보령군,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실측조사보고서』 40쪽에 있는 도면을 활용한 것이다. 남벽의 '토성구간'은 최근 발굴에 의해 석성으로 밝혀졌다.

성문의 위치가 뚜렷하다. 성벽을 성문을 기준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① A구역

서문에서부터 북문에 이르는 구간이고 옛 충청수영의 중요 건물들이 들어선 중심지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다. 원래 바다와 인접되어 있었으나 서쪽 부분은 일제강점기부터 매립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매립되었으며,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 성벽 쪽으로 파 들어와 원형을 상당히 훼손하였다. 고소대라고 불렀던 곳에서부터 북문에 이르는 구간은 옛 모습 그대로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해안선이 파괴되지도 않아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A구역은 바다와 절벽으로 만나기 때문에 급경사지 위에 성벽을 쌓아 성벽의 상부가 성 내부와 평면으로 이어져 성벽 위로 산책로가 나 있다. 바다와 접하는 구간이라 전망이 좋아 관광객이 반드시 거쳐 가는 장소이다. 최근 나무를 제거하여 전망이 좋아졌다.

최근 성 밑의 바다를 매립하여 오천읍내로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충청수영성의 경관을 지키자는 의견이 있어 취소하였다.

성벽의 원형은 거의 훼손된 상태였는데 근래 복원하였다. 복원된 성돌은



A구역 서쪽 부분(2017. 10. 16.)



A구역 북쪽 부분(2017. 10. 16.)

성주산 일원에서 생산된 규격화된 검은 사암으로 되어있어 원래의 성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색깔이나 돌의 모양 등에서 원래의 성돌과 너무 다르다.

A구역에는 적대나 치성이 없다.

② B구역

북문에서부터 동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영보정을 향해 뺀어 나온 산줄기의 능선부분에 축조하였다. 성 너머는 바다였으나 일제강점기에 간척되었고, 주포에서 오천으로 통하는 신작로가 개설되면서 북문도 훼손되고, 경관도 훼손되었다.

최근 성의 동북쪽 모서리부분까지 복원되었는데 A구역과 마찬가지로 정형화된 흑색 사암으로 복원되어 원형을 상실하였다. 동북쪽 모서리는 능선의 정상 부분이고, 성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라 치성(雉城)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에 트렌치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성벽 복원 구간이 끝나는 부분 일원에서 체성의 기저부로 추정되는 성토층이 확인되었으나 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동북쪽 모서리에서 동문에 이르는 구간은 성의 옛 모습이 잘 남아있고, 2010년 성벽을 잘라 발굴조사도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성벽의 축조는 원지형의 최고 능선에서 밖으로 5~6m 떨어진 곳에 L자형으로 굴착하여 지대석을



B구역 북 → 남(2017. 10. 16.)

놓고 그 위에 기단석을 올렸다. 따라서 원 지형의 능선 최 상부는 성벽의 안쪽에 위치하여 평탄지를 이루고 교통로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외벽 안쪽에는 작은 돌을 채워 넣었으며, 성벽의 정상부와 원 지형의 정상부 사



B구역 성벽의 단면(2010. 7. 14.)



B구역 발굴 모습(2010. 7. 20.)

이에는 흙으로 채워 경사면을 만들었다.

동문의 북쪽 구간 중 적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2016년에 시굴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적대로 추정이 가능한 석렬 또는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표토 아래에서 암반이 노출되었다.

③ C구역

동문에서 남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동문에서 산줄기의 능선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급경사지를 내려와 남문에 이르게 된다.

이 구간에서는 2015년 동문지와 적대, 2017년 치성을 발굴 조사하였다.



C구역 북 → 남(2017. 10. 16.)

가. 적대(敵臺)

적대란 성문 좌우측에 성문을 보호하기 위한 치와 같은 시설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서 적대는 성벽에 마련된 치(雉)를 말한다.

『여지도서』와 『대동지지』의 기록에 따르면, 충청수영성은 옹성이 5곳으로



동문 적대의 발굴 모습(2015. 8. 3.)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치 또는 적대를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헌상 충청수영성의 길이는 3,174척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보의 단위로 환산하면 559보로 1백보마다 1개의 대를 쌓도록 하는 축성법을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적대는 동문지에서 남쪽으로 15m 부근에 위치한다. 발굴 전에 적대는 흙으로 덮여 있었으며, 반원형의 석렬이 체성에 덧대어 쌓여 있었다. 조사 결과, 동문치로 인식하고 있던 반원형의 석렬은 후대의 민가 축조 과정에서 쌓은 축대로 확인되었으며, 석렬을 제거하고 표토를 걷어내면서 방형의 적대가 노출되었다.

적대는 최하단석부터 7단까지 약 20~30cm가량 들여쌓기 되어 있으며, 그 위로는 수직으로 쌓았다. 적대의 평면 형태는 방형이고, 잔존하는 상면을 기준으로 길이는 6.8m이고, 너비는 6.2m이다. 특이한 점은 적대는 체성과 맞물려 있지 않고, 적대와 맞닿는 체성부에만 지대석이 없이 쌓인 것으로 보아 후대에 따로 건축한 것으로 판단된다.⁵⁶⁾

56)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지 및 성벽 발굴조사 약식 보고서에서 인용.

나. 체성(體城) - 동벽구간

동벽구간은 자연경사면을 활용한 편축식⁵⁷⁾ 석성 구조로 확인되었으며, 남쪽의 배후산지에서 북쪽으로 진행되는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되었다.

동벽구간의 잔존규모는 내탁부를 포함하여 최대 폭 10m, 최소 폭 8m

가량으로 남쪽의 굴절부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양상이다. 외벽은 기단석의 경우 대형의 활석을 이용하였으며, 지대석 안쪽으로 들여쌓기하여 역학적 안정감을 꾀하였다.

벽석은 거칠게 다듬은 석재를 이용해 일정한 정형성 없이 허술하게 쌓았으며, ‘品’ 자형으로 비교적 정연하게 쌓은 남벽구간의 축조양상과 비교해 볼 때, 초축이 아닌, 붕괴 이후 다시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 체성의 상단부는 대부분 유실되어 여장 등 상부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축조양상은 먼저 체성의 외벽이 위치할 부분은 기반암을 편평하게 정지한 다음, 길이 1m 내외의 지대석을 놓았다. 체성의 내부는 외벽의 기저부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흙을 4~5 차례에 걸쳐 수평 성토하여 기저부 조성을 마무리하였다. 지대석 위로는 약 40~50cm 들여서 기단석을 놓았다. 기단석은 장방형 또는 방형의 형태로 80~90cm 내외의 석재를 이용하였으며, 기단석 사이 사이에는 쇄석과 점토로 보강하였다. 벽석을 기단석과 면을 맞추어 쌓아 올리고, 벽석 사이의 빈틈은 점토와 잡석으로 메웠다.



체성 - 동벽구간(2017. 6. 14.)

57) 성벽의 외부만을 돌이나 벽돌로 쌓고 내부는 비탈진 산이나 언덕을 의지하거나 흙을 경사지게 다져쌓은 성벽.

벽석 내부로는 적심석을 교차하여 맞물리게 놓은 다음 최대 3단으로 각 단마다 들여쌓기하였다. 적심부가 완성된 이후, 점질사토와 사질점토를 반복적으로 다짐하여 적심석 뒤쪽으로 내탁부를 조성하였다. 적심석 상면은 길이 10~15cm 가량의 직상으로 모가 있는 형태의 잡석으로 뒤채움하고 다시 그 상부에는 원마도가 있는 잡석이 혼입된 흙을 다짐하여 체성의 축조를 마무리하였다.

다. 체성(體城) - 남벽구간

남벽구간은 남쪽의 배후산지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가지능선의 서쪽 사면부를 따라 축조되었으며, 동벽구간과 동일하게 편축식의 석성구조로 확인되었다.

남벽구간의 잔존규모는 내탁부를 포함하여 최대 폭 8m, 최소 폭 6m 가량으로 자연 경사면 위에 그대로 지대석을 놓은 사직선 기단⁵⁸⁾의 형태이다. 기



남벽구간(2017. 11. 11.)



체성 - 남벽구간(2017. 6. 14.)

58) 자연 경사를 계단상으로 굴착하지 않고 경사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성을 축조하는 방법을 뜻한다.

단석은 지대석과 면을 맞추거나 안쪽으로 약하게 들여쌓기 하였으며, 벽석은 기단석과 면을 맞추어 쌓아올렸다. 체성의 상단부는 모두 유실되어 적심석이 대부분 노출되었으며, 상부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체성의 밖에서는 많은 수혈유구가 발견되었는데, 방어시설로 추정된다.

라. 치성(雉城)

남동치성은 동벽과 남벽이 만나는 곡절부에 접하여 위치한다. 남동치성은 기단석을 포함하여 3~8단 가량 잔존하며, 상단부 대부분이 유실되어 내부 적심석이 모두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남동치성(2017. 6. 14.)

잔존규모는 정면 6.3m,

측면 4.8m로 정방형에 가깝다. 벽석은 일정한 정형성 없이 허술하게 쌓았으며, 그 축조기법이 체성에 비해 매우 조잡하여 대부분 개축하거나 급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석에서부터 3~5단까지의 벽석은 체성의 외벽과 맞물려 있지 않고 체성의 성벽에 잇대어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충청수영성의 초축(初築) 시기와 다른, 보축하는 시기의 축성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치성은 체성과 동시에 축조된 것이 아니라 체성이 먼저 축조된 다음 이를 수·개축하는 과정에서 후축(後築)된 것으로 추정된다. 축조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치성이 위치할 부분의 기반암을 정지한 다음 암반부스러기가 포함된 암갈색사질토를 약 10cm의 두께로 다짐하여 기초를 보강한다. 다짐층 위로는 길이 30~50cm 가량의 지대석을 놓는다. 지대석 상면에는 기단석을 10cm 내외로 약하게 들여쌓기 하며, 외부로는 3~4 차례에 걸쳐 경사다짐하여 성벽의 배부

른 현상 및 이탈을 방지한다. 기단석 위로는 성벽에 잇대어 벽석을 쌓고, 붕괴된 지점에서부터는 체성의 외벽과 맞물리게 벽석을 쌓아 올린다. 내부에는 거칠게 다듬은 활석을 교차쌓기로 채운 다음 그 위로는 점토를 다짐하여 체성의 축조를 마무리한다.⁵⁹⁾

④ D 구역

가. 체성(體城)

남문과 서소문 사이의 구간이다. 남문 서쪽에서는 평지에 축조하였고, 이어서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 남쪽 산지에서 내려온 능선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하였다. 서쪽 평탄지는 현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표상에서는 성곽의 흔적이 없었으나 지하에서 지대석 위에 비교적 작은 돌로 쌓은 8~9단의 성벽이 발굴되었다.



남문 서쪽 성벽 사진

((재)동방문화재연구원, 2017. 8. 28.)



D구역 성벽, 동 → 서(2017. 10. 16.)

59) (재)동방문화재연구원, 2017, 충청수영성 치성(북동, 남동) 및 동문 적대 문화재발굴(시굴, 정밀발굴)조사 약 식보고서에서 인용.

경사가 급한 능선의 정상부는 접근성이 좋지 않아 훼손이 덜 되었고, 충청수영성 성곽 중 가장 높게 잘 남아있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숲이 울창하고 성곽 위까지 흙으로 덮여있어 토성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조사에 의해 석성으로 밝혀졌다. 지형상 성벽의 외부가 평탄지이고, 내부가 급경사지여서 외부에 해자를 파고, 그 흙으로 내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017년 (재)동방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하여 약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약식보고서를 토대로 기술한다.

성벽은 편축식으로 축조하였으며, 성석을 쌓기 전 먼저 지면을 정지한 후, 정지한 흙으로 기초 성토를 실시하여 면을 조성하였다. 이후 체성 외부는 기단석이 올라갈 부분보다 앞으로 나오도록 기초 흙을 굴토하고 흙 내부에 다량의 잡석을 채우고 다짐한 후 상면에 지대석의 받침석과 지대석을 올렸다. 지대석 위로는 기단석을 30cm 정도 안으로 들여쌓은 후 면석을 쌓았으며, 4단 정도가 남아 있다. 체성 내부는 회갈색점질토 + 잡석과 명갈색사질점토 + 잡석을 수평에 가깝게 약 170cm 성토한 후 그 위로 적심부를 축조하였다. 적심부는 부정형의 할석을 성벽의 중심으로 향하도록 약간 경사지게 쌓았으며,



남서벽 외부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발굴 사진, 2017. 11. 20.)



남서벽 내부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발굴 사진, 2017. 11. 20.)



D구역의 훼손된 부분(2017. 10. 16.)

적심석과 맞물려 흙을 경사지게 성토하여 내탁부를 조성하였다.⁶⁰⁾

D구역의 서쪽에 있는 치성2를 지나면 급경사를 따라 서소문으로 향하는데 근래 오천시까지 매표에 필요한 흙을 파내어 훼손되었다. 훼손된 곳

는 호남정유의 기름탱크가 만들어졌다가 현재는 주차장으로 이용된다.

나. 치성(雉城)

남서 치성은 2곳에 있다. 남문지 서쪽 구릉의 사면을 따라 올라간 성벽이 성의 남쪽 배후산지에서 북쪽으로 내려오는 능선과 만나는 부분에 치성1이 있고, 이곳에서 서쪽으로 달려 능선의 끝부분에 치성2가 있다. 치성1의 시굴 조사에 의한 치성의 축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체성이 위치할 곳의 지면을 정지한 후, 정지한 흙으로 기초 성토를 실시하여 면을 조성하였다. 기초성토는 크게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각 단계의 가장 아래층에는 다량의 잡석을 혼입하였고, 위로 올라가면서 잡석의 양을 줄였으며, 가장 상층에는 평면으로 잡석을 다짐하였다. 이때 기반을 굴토하여 획득한 흙과 여기에 유기물이 혼입된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렸으며, 주로 기반을 굴토한 흙을 사용하였다.

기초 성토층의 상면에는 다량의 잡석이 혼입된 갈색점질토와 회갈색사질 점토를 수평으로 반복 성토하여 기저부 다짐층을 조성하였다. 기저부를 조성

60) (재)동방문화재단연구원, 2017, 보령 충청수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 남서치성1 및 남서성벽 -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한 후, 치성 외부는 기단석과 면석을 축성하였으며, 내부는 적심부를 시설하였다. 체성의 내부는 기저부 위로 적심부를 축조하였는데, 부정형의 할석을 성벽의 중심을 향하도록 약간 경사지게 쌓고, 적심석과 맞물려 흙을 경사지게 성토하여 내탁부를 조성하였다. 적심부 위로는 잡석이 소량 혼입된 황갈색사질토와 회갈색사질점토를 반복 성토하였다. 치성의 내부는 성의 중심을 향하면서 각 단계가 계단식으로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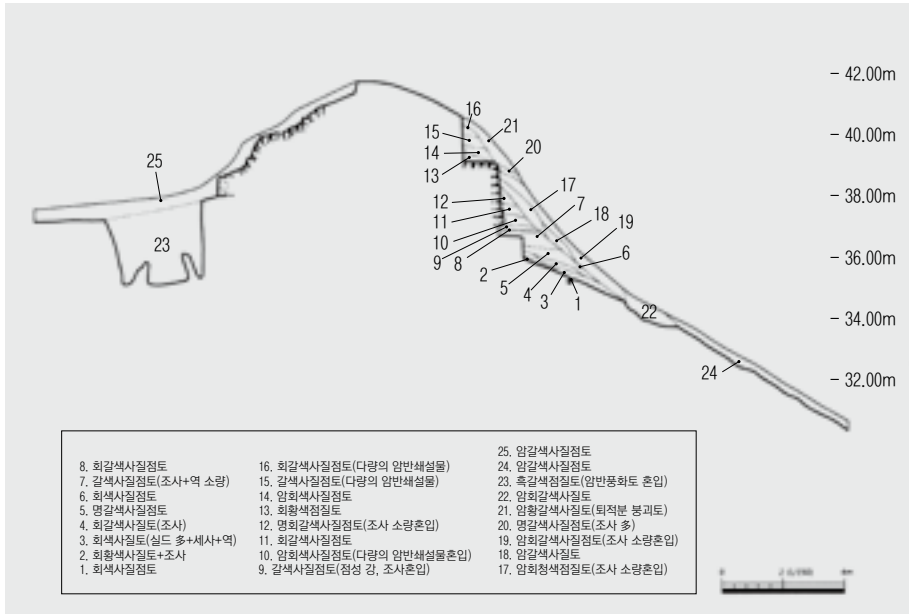
남서치성 1(2017. 10. 16.)



남서치성 2(2017. 10. 16.)



남문 서쪽 해자 추정지(2017. 11. 20.)



〈그림 8〉 남서치성1 단면도((재)동방문화재연구원, 2017, 약식보고서)

다. 해자(壕字)

D 구역에는 해자의 흔적이 있다. 남문에서 치성1로 오르는 급경사지에는 성 밖에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이 옛 해자를 따라 흐르는 것으로 보이고, 숲이 울창하지 않을 때에는 이곳을 통하여 다량의 토사가 남문 쪽으로 이동하여, 남문 앞에 두꺼운 퇴적층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치성1에서 바다쪽으로 능선이 갈라지는 곳에도 완경사지가 있는데, 이곳에도 해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능선 구간에서는 지형상 해자를 만들지 못하고, 경사지나 평지에는 해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E구역

소서문지에서 서문에 이르는 구간이다. 서문 동쪽의 경사지를 제외하면 모두 평탄지이다. 이곳은 원래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이었고, 갯벌 위에 성을

축조하였다. 현재는 매립되어 시가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원형을 알 수 없지만 1910년대의 사진과 시가지의 하수도공사 때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갯벌 위에 약간의 돌을



E구역의 1910년대 사진



주택지로 변한 E구역(2017.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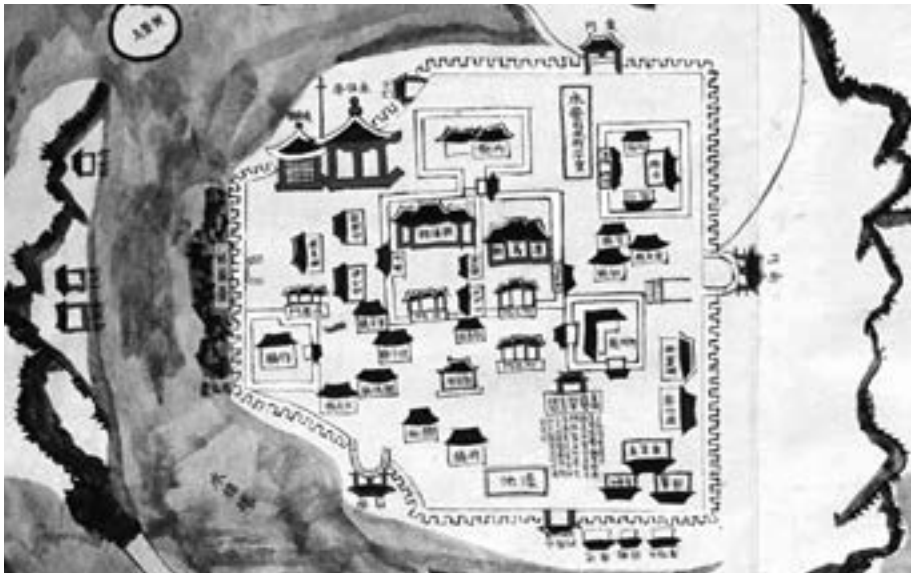
E구역 성벽 위치까지 들어온 바닷물
(2007. 9. 29.)

쌓아 놓은 정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물 때에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낮은 돌담으로도 적선의 출입을 막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의 축성 때문에 충청수영성 안에 못(池)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성문(城門)

충청수영성에는 5개소의 성문이 있었다. 동서남북의 4방위와 소서문(小西門)이 그것이다. 마을 주민들에게 전승되는 성문 이름은 방위에 따른 명칭만 있으나 진남문(鎭南門), 용금문(湧金門), 망화문(望華門), 만경문(萬頃門) 등의 별칭이 있다.⁶¹⁾ 1990년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 보고서에는 진남문을 남문으로 용금문을 서문으로 비정하였고 나머지는 비정하지 못하였는데, 아마도 망화문은 북문이고, 만경문은 동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망화(望華)를 검색해 보면, 나주 객사인 금성관의 문이 망화루(望華樓)인데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망화는 임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아 북문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



〈그림 9〉 1872년 보령부지도의 충청수영 성문

61) 보령군,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 보고서, 51쪽.



〈그림 10〉 지승(19세기 후반) 그림의 충청수영 성문

이다. 그렇다면 만경문은 동문이다. 동문 밖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지는 넓은 땅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름과도 어울린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東門, 南門, 西門, 皆層樓, 北門, 小西門 皆一閣 譙樓無, 炮樓無…」라 한 것을 보면 동문·남문·서문에는 석문육축(石門陸築) 위에 문루를 갖춘 형식이고, 북문과 소서문은 문루 없이 외쪽문을 달은 석문(石門)으로 이해되는데 여러 지도에는 북문을 제외하고 모두 층루(層樓)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① 서문(西門)

충청수영성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문으로 홍예문이다. 문 밖은 각종 전선(戰船)을 정박한 곳이기 때문에 배에 오르내릴 때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다. 문의 이름은 용금문(湧金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湧金門’이라고 쓴 현판이 붙어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중한 무사장대석(武砂長臺石) 위에 홍예를 틀은 석문(石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로 바닥 부분이 1m 이상 깊게 파여지고 성문 밖으로도 지반이 깎여진 채 근래에 개설된 계단을 따라 성내로 들어간다. 성문의 폭(홍예받침석 하부 외폭)은 3.16m, 성 안쪽은 3.75m이다. 이는 홍예석 안쪽에서 문짝을 설치할 공간으로 통로 양측의 성안측벽을 좌 28cm, 우 31cm 가량 뒤물려 쌓은 까닭에 성 안쪽 개구면(開口面)이 훨씬 넓어진 것이다. 이 뒤물림터 자리에 문확홈을 파 놓은 문지도리석이 설치되어 있다.

성문의 두께(안쪽 깊이)는 통행로 좌측이 3.16m, 우측이 3.18m이다. 좌우의 두께가 다른 석렬이 이완(弛緩) 교란된 때문이다. 여기에서 홍예기석 아래의 두께는 좌 1.35m, 우 1.348m이다.

현재 성문 외변(外邊)으로만 홍예를 틀었고, 내면은 홍예 없는 평거식(平掘式) 형태의 문인데 전체의 마무리로 보아 원형인 것으로 보인다. 홍예는 9개의 돌로 반원형으로 틀었는데 종석(宗石)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4개씩 배열하였고 홍예기석(虹霓基石) 아래에는 높이 1.06m, 폭 0.75m 가량되는 단일 석재로 된 선단석(扇單石 - 두께쪽엔 2개를 접했음)을 양쪽에 배치 개구부를 형성하였다.

홍예돌은 높이 0.65m, 두께 0.95m이고 선단석 상면에서 측정한 내호반경(內弧半徑)은 1.58m, 통로바닥(문지 도리확석 상면 기준)으로부터 홍예종석 하단까지의 높이는 2.65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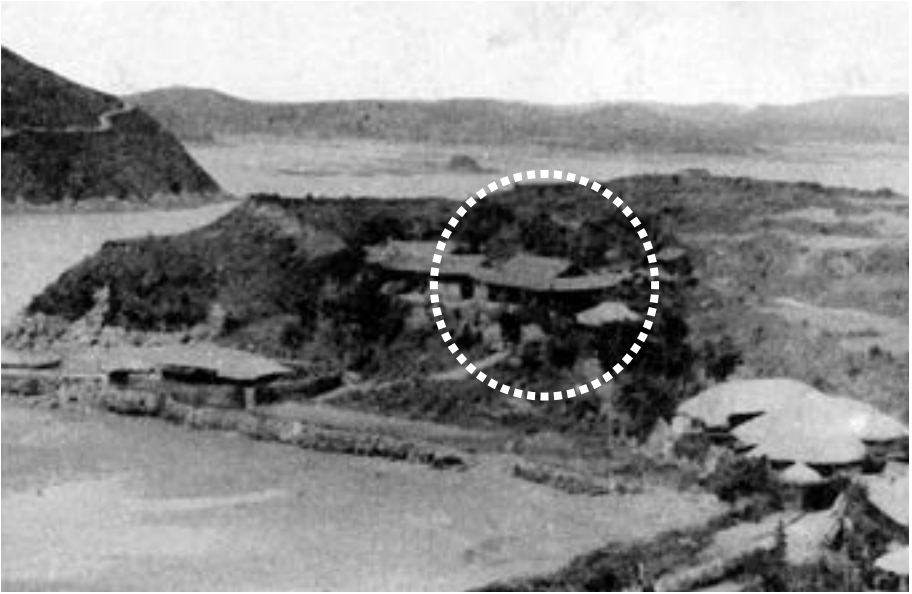
홍예종석 상부의 장대석들은 모두 유실되었고, 통로 양측 내벽고(內壁高)도 좌우가 서로 다르다. 통로 양쪽 측벽(側壁) 상부와 중간 위치에는 문짝 고정용 둔테자리와 달은 문을 지탱해 주는 버팀목 끼일홈이 파여 있고 지도리석(화금) 바닥엔 직경 12cm와 7cm 가량의 둥근홈이 두 개씩 파여 있다.

성문의 밖에는 문초석이 남쪽에만 남아있는데 둥근 홈은 직경 20cm, 깊이 15cm 크기이다. 오랫동안 사용하여 홈이 커지자 돌을 깎아넣어 높인 것처럼 보인다. 북쪽의 문초석과 상부에 있었던 돌은 모두 없어졌다.

성 안의 육축내면(陸築內面) 북쪽에는 작은 돌로 쌓아올린 협축(夾築)에 붙여 비스듬한 계단이 있어 영보정 및 진흙청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 남쪽 협축에

붙여서는 민가가 들어서 있었는데 근래 철거하였다.

성문육축의 두께가 너무 험착하며 내부쪽 마무리 상태가 불규칙하고, 좌우 길이도 달라 현상대로가 아닌 내부 홍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석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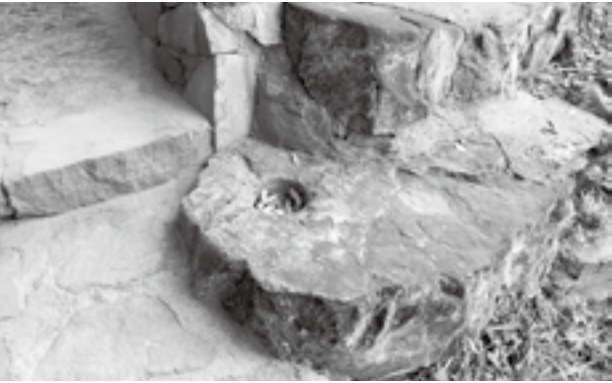
서문의 문루(1910년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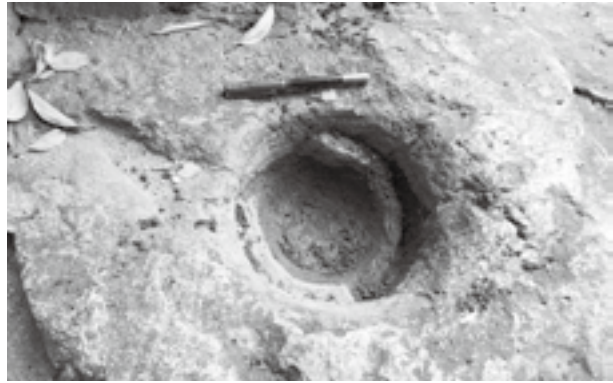
서문 - 정면(2017. 10. 16.)



서문 - 후면(2017.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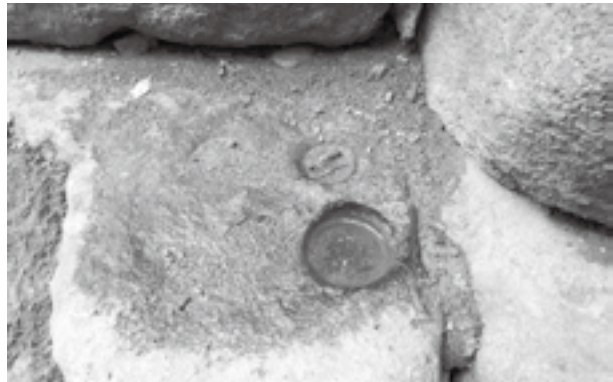
서문의 외부 문초석(2017. 1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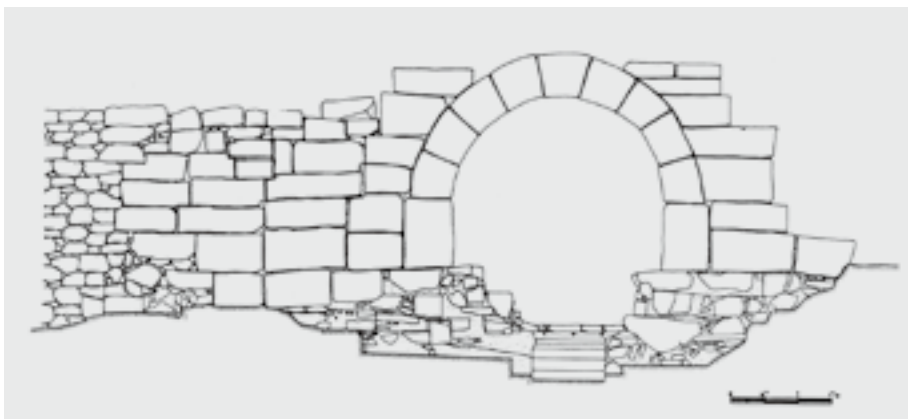
서문의 외부 문초석(2017. 10. 16.)



서문 - 측면(2017. 10. 16.)



문초석 - 내부(2017. 10. 16.)



〈그림 11〉 서문 입면도(보령시,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보고서)

의 이완, 교란에 따른 현상이거나 후일의 보수 때 변형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지금처럼 얇은 두께의 육축(陸築) 위에 측면 단칸 정도의 문루(門樓)가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충청수영사례집』에 의하면 을사년(1785년) 7월 이연필(李延弼)이 서문을 고쳐 짓고 공해(公廨) 및 성첩(城堞)을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고, 가경(嘉慶) 24년 기묘년(1819) 여름에 홍수가 나서 서문이 무너졌고, 사도(使道) 구강(具絳)이 병선미 300석을 비국에 보고하여 떼어서 신축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홍예 내부 남측벽의 돌에서 명문이 발견되었다. 지면에서부터 5째 석축열에 있는 가로 120cm 세로 54cm의 직사각형 돌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데 자경은 대략 10cm이다. 판독할 수 있는 글자는 다음과 같다.

嘉靖三十七年(1558)

戊午七月

水使相***?

監官李□□

이 명문에 의하면 충청수영의 서문이 嘉靖三十七年(1558) 監官李□□에 의해 건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당시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를 찾아보면, 1557년 9월 13일 청홍수사로 심뢰(沈鏞)가 임명된다.

이후 1559년 7월 14일 기록에는 이원우(李元祐)가 수군절도사이므로, 1558년 7월 당시의 수군절도



서문의 건축상황을 기록한 성돌(2017. 10. 16.)

사는 심뢰 또는 이원우이다. 돌에 새긴 글자의 배열을 보면 감관(監官)의 이름이 李□□으로 3자인데, 수군절도사를 지칭하는 사상(使相)보다 위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사상(使相)의 이름이 짧은 것을 암시하고 있다. 3자인 감관보다 짧다면 2자인 심뢰(沈鏞)일 것으로 보인다. 즉, 충청수영의 서문은 1557년 9월 13일 임명된 청홍수사 심뢰(沈鏞)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② 북문(北門)

북문은 현재 주포~오천간 도로가 통과하는 곳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지형상 영보정에서 동쪽으로 뺀 산 능선과 동문에서 서쪽으로 뺀 산 능선이 만나는 낮은 지점이다. 『여지도서』의 지도에서 보면 지형상 남쪽 방향으로 들어와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의 밖은 바다이고, 절벽이기 때문에 외지와 통행하는 도로도 이어지지 않아, 충청수영에 있던 5개의 문 중에서 가장 통행량이 적은 문이었던 것 같다. 『여지도서』에는 ‘北門 小西門 皆一閤’이라 하여 작은 문이었음을 기록하였고, 해동지도(18세기 중엽), 지방지도(1872년)에도 북문을 통한 도로는 그려져 있지 않다.

북문을 만든 것은 1716년이다. 『충청수영사례집』에 ‘강희(康熙) 5년 병자 이박(李璞)이 군기(軍器) 및 북문(北門)을 새로 건설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도광(道光) 10년(1830) 7월 북문이 퇴락하여 무너졌다. 사도 이정곤(李貞坤)이 자

비로 새로 지었다.’라고 하여 100여 년이 지난 뒤에 새로 지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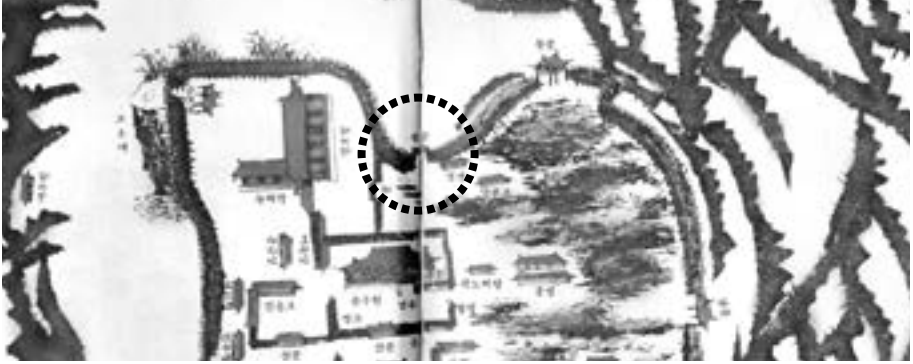
문의 별칭은 망화문(望華門)이었던 것 같다.

북문은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 훼손 때 보존되었는데, 이후 신작로를



북문의 위치(2017. 10. 16.)

개설하면서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여지도서』 지도의 북문(중앙)



〈그림 13〉 1872년 보령부지도의 북문(1872년)

③ 동문(東門)

충청수영성의 동쪽 능선 위에 있다. 능선 위에 있어 통행하기는 불편하지만, 광천이나 홍성, 결성 방면으로 통하는 지름길과 연결되어 통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872년의 지방지도에도 남문과 더불어 도로가 표시되어 있다.

옛 문헌에는 동문이 홍예식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여지도, 해동지도, 지승, 광여도) 개거식으로 표기된(여지도서, 『호서읍지』, 1872년 보령부지도) 것도 있는데 발굴조사 결

과 장초석이 발견되어 개거식 성문으로 확인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신작로가 북문 자리에 개설되면서 동문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고, 다만 동문밖 마을 주민들이 걸어서 면소재지에 갈 때 이용하였다.

주민들이 걸어서 이용할 때까지는 동문지의 형태가 남아있었으나 2010년 쯤, 오천면에서 경운기가 통과할 수 있는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하면서 동문지를 훼손하였다.

2015년 (재)한얼문화유산연구원에서 발굴하면서, 동문에 있던 장초석, 화돌 등과 함께 남쪽 15m 지점에서 적대가 발견되었다.

동문은 ‘도광(道光) 갑신(甲申, 1824년) 3월 동문이 무너지자 윤 사도가 자비로 새로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 1824년에 개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문의 별칭은 만경문(萬頃門)이다. 동문에서 내려다 본 풍경이 광천으로 이어지는 넓은 바다와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첩첩의 산, 넓은 들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생각된다.

옛 지도를 자세히 보면 동문 안에 민가들이 그려져 있어, 충청수영의 동문 안 경사지에는 민가들이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천군지』에도,



훼손되기 전의 동문지(2003. 6.)



현재의 동문지(2017. 10. 16.)

- 西紀 1760년(英祖 36, 庚辰) 正月에 破營五戶首하다. 營內居民이 以戶首之痼瘼으로 難堪하여 流散하므로 此를 革罷而越三年 壬午三月에 金範魯가 結事하다.

라고 하여 영내에 주민이 거주하였음과 오호수(五戶首)의 폐해가 극심하여 주민들이 흩어지는 지경에 이르러, 김범노가 이를 혁파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동문 안에는 현재도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④ 남문(南門)

충청수영성 남쪽에 있는 문이고, 충청수영의 주 통행문이었다. 옛 지도에도 남문을 통하여 보령현, 남포현 등과 소통한 도로가 그려져 있다. 옛 지도에는 남문이 홍예문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나, 1910년대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홍예문이 아니다. 사진에 의하면 남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각 건물에 팔작지붕을 얹은 모양이었다. 주민들에 의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보령읍성의 남문인 ‘해산루’와 똑같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오천의 충청수영성 남문을 헐어다가 해산루를 지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마도 1901년 3월 6일 보령현감이 충청수영의 건물을 철취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충청수영의 남문과 보령읍성의 남문인 해산루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충청수영사례집』에 가경(嘉慶) 25년(1820) 경진 3월에 남문 또한 새로 지었다. 감관(監官)은 이종길(李宗吉)이고 색리는 최봉달(崔鳳達)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남문의 별칭은 진남문(鎭南門)이었다. ‘남쪽을 진압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읍성의 남쪽에 있는 문을 보통 ‘진남문’이라고 불렀으며 가까운 해미읍성의 남문도 진남문이다.

남문지는 2017년 7월부터 발굴조사를 하였다. 발굴결과 적심과 문지의 부석시설, 문초석 등이 확인되었으며, 문지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 성벽 일부와 성벽과 동시에 축조된 적대가 조사되었다.



남문 사진(1910년대)



보령읍성의 남문인 해산루(2006. 7. 19.)

주민들의 기억으로는 1970년대 초까지 남문의 장초석 2개가 남문지에 남아있었다고 한다. 이 장초석은 이동되어 주변 민가의 화단에 있었는데 위가 좁은 4각 기둥으로 길이 127cm, 밑면 60cm, 윗면 47cm이다. 또한 2개의 장초석이 남문지 발굴 현장에서 넘어진 채 발굴되었다. 이로써 오천초등학교의 후문, 오천면사무소의 정문으로 사용하였던 장초석은 그 동안 알려져 온대로 남문의 장초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남문지는 지형상으로 볼 때 남문 남쪽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

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큰 수구(水口)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이 성안의 못(池)에 유입되고 넘치면 바다로 빠져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발굴현장에서는 문지의 서쪽에 수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문의 문지(2017. 10. 25.)



남문의 장초석(2017. 10. 25.)



남문지 서쪽의 적대(2017. 10. 25.)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들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고, 1910년대 사진에도 보인다.

⑤ 서소문(西小門)

서소문은 충청수영성의 남서쪽 모서리 부근에 있었다. 이곳은 원래 바닷물



서소문과 수구 자리(2017. 10. 16.)



〈그림 14〉 고소대로 통하는 암문(1872년 보령부지도)

이 드나들던 갯골이 위치하던 곳으로 현재도 수로가 지나고 있다. 서문 밖에 있던 선소(船所), 줄고, 육물고 등에 출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이다. 문 옆에 수구(水口)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의하면 ‘北門 小西門 皆一閤’이라고 하여 쪽문이었음을 알 수 있고, 지도의 그림에 의하면 팔작지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은 작았지만 배가 출입할 수 있는 갯골로 연결되고, 서문밖 마을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암문(暗門)

암문은 성벽에 지붕을 만들지 않고 만든 문인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872년에 그려진 지방지도에 그려져 있다. 충청수영에서 이름난 절경인 고소대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문으로, 고소대가 성 밖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충청수영성에서 경치가 좋은 북서쪽 끝 부분이 성 밖 고소대이고, 성곽은 영보정 서쪽에서 진흥청으로 이어지는 언덕일 수도 있다고 본다.

(5) 연못[池]



연못을 메워 만든 논(일제강점기)

충청수영성의 서소문~서문 구간은 대부분 갯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안에도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저지대가 있었고, 이 저지대에 물을 저장하는 연못이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

서』 등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고 각종 지도에도 나타나 있다. 특히 『여지도서』에는 소서문 안에 있는 해자라고 소개하면서 길이 100장, 너비 50장, 깊이 반장으로 크기와 깊이까지 기록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성벽의 둘레 3,174척을 453장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척(尺)으로 계산하면 700.66척이다. 이를 포백척으로 계산하면 $700.66 \times 46.73\text{cm}(\text{포백척}) \approx 327.4\text{m}$ 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폭은 163.7m, 깊이는 1.637m이다. 그러나 현재 충청수영성 안의 저지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과장되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의 충청수영 지도에는 연못이 직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데 서문과 동문사이 길이의 약 3.5/12로 그려져 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본다면 $370\text{m} \times 3.5/12 \approx 108\text{m}$ 이다.

따라서 충청수영성 안의 지형과 비교해 볼 때 길이 100여m, 폭 50여m 정도의 호수가 바다를 가로지르는 체성 안에 있어 해자의 역할과 방화수의 공급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조 때의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 들물 때에는 바닷물이 들어왔고, 식수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모두 논으로 개간되었다.



〈그림 15〉 『여지도서』의 연못

(6) 우물

성곽 안에는 반드시 우물이 필요하다. 평상시에 식수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외적이 침입하여 성문을 닫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식량보다 긴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이다. 충청수영성 안에도 4개의 우물이 있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옛 충청수영에서 사용하던 우물을 찾기 위하여 1960년대까지 사용하던 마을의 우물을 조사해보니 성 안에 있는 것은 4개였다.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4개의 우물 중에서 가장 수원이 좋은 우물은 1번 우물이었다. 남문에서 서쪽으로 40여m, 성벽에 붙어있는 우물인데, 남문 밖 골짜기에서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하수를 노출시킨 것이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샘의 깊이는



1960년대까지 남아있던 충청수영의 우물

3m 정도이고, 물의 깊이는 2m 정도이다. 과거에는 두레박을 사용했다고 하며, 오천면 소재지 주민들은 거의 모두 이 물을 먹었다고 한다.



충청수영성 안의 샘(남문 서쪽, 2017. 11. 1.)

현재 이 우물은 시멘트로 단장하고, 지붕도 만들어 덮였으나 자세히 보

면 장방형(길이 180cm, 두께 20cm)의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맞추어 놓았다.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므로 충청수영이 있던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2번 우물은 현 오천파출소 북쪽에 있던 우물이다. 성벽 안에 오천파출소에서 서문으로 통하는 길이 있었고, 이 길 옆에 조그만 샘이 있었다고 한다. 배후지가 낮고 좁아 물이 많지 않았으나 주변에 영사(營舍) 건물들이 있었고, 서문 밖에 정박한 전선(戰船)과도 가깝기 때문에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3번 우물은 오천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던 우물이다. 과거에는 오천초등학교



〈그림 16〉 오천공립보통학교 배치도에 그려진 우물



대동집 앞 샘자리(2017. 11. 1.)



오천지서 옆 샘 있던 곳(2017. 11. 1.)

교 학생들이 이용했고, 일제강점기 오천초등학교의 도면에도 그려져 있다. 수량도 많았고, 영사(營舍)와도 가까워 요긴하게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4번 우물은 대동집이라고 불리는 마을회관 앞에 있던 우물이다. 우물이 상당히 깊었다고 한다. 도로를 넓히느라 메워졌다.

충청수영성 안에 있던 4개의 우물 중 3개는 주요 영사(營舍) 주변에 있었고, 1곳만 수원이 좋은 먼 곳에 있었다. 지하수위가 높은 계절에는 영사 주변의 물을 사용하였고, 날이 가물어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남문 옆의 우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4) 충청수영 영사(營舍)

(1) 주요 건물의 위치 변천

충청수영의 중심 건물인 객사(客舍)나 동헌(東軒) 건물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까지는 1872년에 그려진 보령현 지도와 『오천군지』에 필사된 지도, 1910년대에 찍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을 바탕으로 오천면사무소와 오천초등학교가 위치하는 곳이 충청수영의 중심 건물들이 위치한 곳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다.

충청수영이 폐영된 뒤 오천군이 설치되고, 이어 오천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되고, 다시 오천군이 보령군에 통합되면서 옛 충청수영 영사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해 본다.

① 옛 지도의 검토

충청수영의 영사(營舍)가 있던 중심지역은 어디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충청수영의 많은 지도 중에서 성 안의 지형을 잘 그린 지도는 19세기 후반에 그려진 ‘지승’이다.

위 그림에는 성 안에 검은색으로 윤곽을 그리고 녹색을 칠한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다. 우선 동문과 남문 주변에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고 서문과 서소문 안쪽, 못[池] 옆에 산줄기가 표시되어 있다. 동문과 남문 주변은 지금도 산으로 되어있지만 서



〈그림 17〉 충청수영 지도(지승, 19C 후반)



오천초등학교 뒤에서 발굴된 건물지
(2015. 11. 9.)



오천초등학교 뒤에서 발굴된 건물지
(2016. 6. 1.)



〈그림 18〉 보령부지도의 충청수영 영사(營舍)(1872년)

문 안쪽에 있는 산지 표시는 무엇일까? 이것은 현재 오천초등학교 뒤, 계급장군청터비가 있는 언덕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건물이 들어설 수 없는 급경사지를 산지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승 지도에서 보이는 충청수영의 영보정, 능허각, □영, 관덕루 등 주요 영사(營舍)들은 모두 현재의 오천초등학교 뒤 해발 10~15m의 언덕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 중 영보정의 위치는 주민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발굴에 의해 유구가 확인되고 2015년에 복원되었기 때문에 충청수영의 주요 건물들은 모두 영보정 아래에서부터 오천초등학교 뒤, 언덕 위에까지 위치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보령시에서는 2015년과 2016년 2차에 걸쳐 이 부분을 발굴하였다. (재)가 경고고학연구소에 의뢰해 발굴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총 22동의 건물지가 확인되어 충청수영 영사(營舍)의 중심지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② 객사(客舍)와 동헌(東軒)의 위치 검토

가. 보령부지도(保寧府地圖, 1872년)

충청수영이 폐영되기 24년 전인 1872년에 그려진 보령부지도에 충청수영 영사(營舍)의 건물배치가 가장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 의하면 영보정 동쪽에 내아(內衙)가 있고, 내아의 아래쪽, 모든 영사 건물의 중심에 공해관(拱海館)과 운주헌(運籌軒)이 있는데 공해관은 충청수영의 객사이고, 운주헌은 동헌이다.⁶²⁾

가장 중요한 건물들이 영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그 위치는 현재의 오천초등학교 뒤에서 영보정 사이에 있는 평탄지이다. 아마도 영보정 아래의 넓은 평탄지일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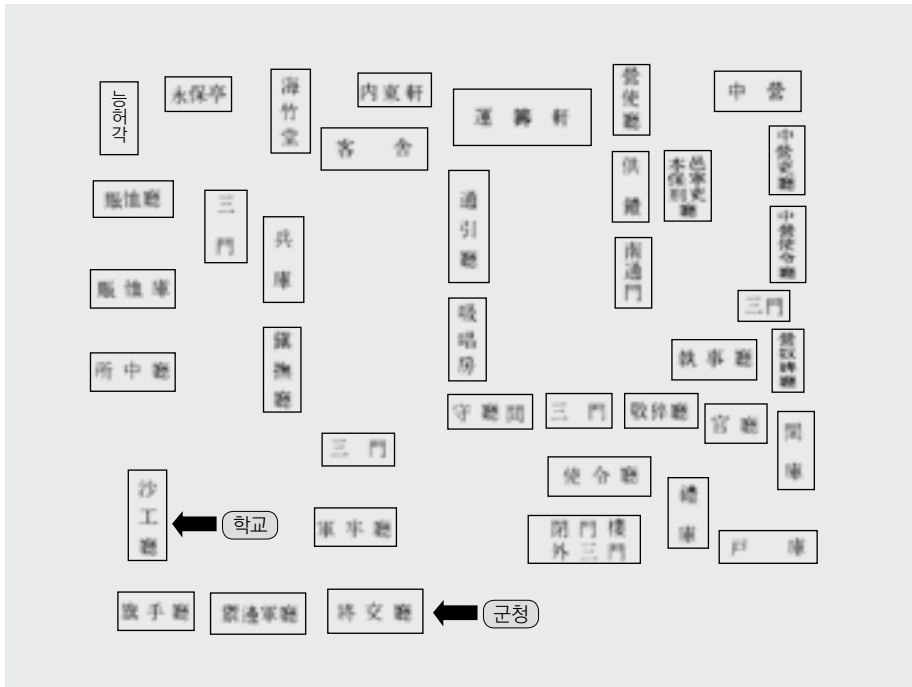
62) 김명래, 2015, 「충청수영성 동헌·객사의 당호 복원」, 『보령문화 24집』, 66쪽.

충청수영의 영사(營舍) 건물은 모두 방어를 위한 시설이다. 적이 들어오는 바다를 조망해야하기 때문에 좀 높은 대지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수의 전라좌수영이나 통영의 통제영 영사(營舍)들도 모두 해안에 들어선 것이 아니고 언덕 위에 들어서 있다.

1972년의 보령부지도에서 분명한 것은 객사인 공해관이 고소대가 있는 바다쪽(서쪽)에 있고, 동헌인 운주헌은 동쪽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 『오천군지』의 지도(1915년)

1915년 군청비본(郡廳備本)에서 사취(寫取)했다는 필사본 『鰲川郡誌』에 충청수영 폐영 직전의 영사(營舍) 상황을 그린 지도가 있다. 위 지도를 보면 충청수영이 폐영되기 직전까지는 1872년의 상황과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림 19〉 폐영 직전의 충청수영 영사(1915년 필사 『오천군지』)

여전히 객사와 운주헌이 영사의 중심 건물이었고 서쪽에 객사,⁶³⁾ 동쪽에 동헌인 운주헌⁶⁴⁾이 배치되어 있었다. 지도는 아래와 같다.⁶⁵⁾

위 지도에서 객사와 운주헌을 비교하면 1872년의 보령부지도와 약간 차이가 난다. 보령부지도에서는 두 건물의 담장이 나란히 있고, 본 건물은 운주헌이 더 아래쪽(남쪽)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운주헌이 더 북쪽으로 그려진 것이다. 그러나 위 지도를 만든 원지도(북사본)를 보면 양면에 이어져 그려진 지도를 각각 한 면씩 복사할 때 양면을 맞추지 못하여 오른쪽 면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충청수영의 영사는 폐영 직전까지 1872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1896년 충청수영이 폐지된 이후 충청수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 양주 조씨 묘역(墓域)의 이장

1896년 충청수영이 폐지된 후 충청수영이 있던 곳은 사패지로 활용되게 된다.

1895년 8월 20일 명성황후가 시해된 후, 동대문구 청량리에 예장하고 능호를 홍릉(洪陵)이라고 하였는데, 묘자리가 나쁘다고 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金谷)에 있던 양주 조씨 묘역으로 옮기기로 하고, 폐영된 충청수영터를 양주 조씨에게 사패지로 내주어 묘를 이장하도록 하였다.

1900년 10월 27일 남양주 금곡에 있던 양주 조씨들의 묘를 충청수영 터로 옮기게 되는데, 묘를 옮긴 뒤 1901년 4월 18일 오천군이 설립되고 관청 건물들이 들어서자 1940년 묘역을 다시 남양주 수석동으로 옮기게 된다. 현재 양주 조씨들의 묘역은 남양주 수석동에 조성되어 있다. 잠시 묘역이 있던 오천

63) 이 지도에서는 객사라고만 기록되었다.

64) 이 지도에서는 운주헌이라고만 기록되었다.

65) 보령군,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보고서』 19쪽.

의 충청수영 터에는 묘를 옮기면서 버리고 간 지석(誌石)이 발견된다.

양주 조씨들의 묘역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형적으로 관찰해 보면 현 오천초등학교와 영보정 사이의 평탄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평탄지의 중심인 소성리 659번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최초의 지목은 분묘지(墳墓地)이고, 1914년 6월 30일자로 양주 조씨 6명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다. 이곳은 충청수영 영사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영사가 없어질 것을 전제로 영사 주변에 묘역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종실록』, 고종 40년(1903) 9월 26일조 조병세(趙秉世)가 올린 상소문에,

‘지난 경자년(1900) 가을에 신의 집안의 금곡산(金谷山) 선영에 특별히 사패(賜牌)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충청 수영의 옛터에 무덤을 이장하였으나 봉분을 만드는 일을 채 마치지 못하였으니, 관청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영을 이미 없앴으니 건물도 마땅히 훼손시킬 것이기에 오직 조정에서 조만간 처분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봄 과연 군부의 훈칙이 있었으나 해영(該營)의 옛 이배(吏輩)들이 소란을 일으킨 탓에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오천에 군을 설치한 뒤에도 읍의 치소를 기어이 옛날대로 두려고 한 것도 이 무리들이 종용한 것입니다. ... (중략) ... 외람되어 생각하건대 신의 집안의 새 선영이 관아의 담장 밖이나 정자의 섬돌 아래쪽에 있어 가까운 것은 5~6보이고 먼 것은 수십 보 밖에 안 됩니다. 설령 빈 건물로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형편상 같이 두기 어려운데, 하물며 수령이 관아에 앉아 안팎에서 호통을 치고 좌우에 형틀을 벌여 놓는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 묘역과 영사(營舍) 건물이 섞여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양주 조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사를 옮기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라. 충청수영의 폐영과 영사철회(營舍撤毀)

충청수영의 폐영과 영사의 처리에 관하여 『오천군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西紀 1896년(建陽元年, 高宗 33년, 開國 504년 丙申) 七月 日 節度使 趙義昌時에 度支部 訓令으로 基因하여 洪州 觀察使 李勝宇의 膽訓으로 廢營한 事.
- 越7年 西紀 1901년(光武 5년) 陰 辛丑 3월 初6일에 軍部訓令을 基因하여 保寧郡守 權聖洙가 諸郡屬及 各洞丁 數千名을 領率 來到하여 前水營 公廨를 始威撤毀而 其中 保存者는 將校廳, 鎮撫廳, 沙工廳, 旗手廳, 使令廳, 閉門樓 西南北門樓, 軍飼庫인바 其時 愁慘한 政況은 難可一一枚擧而 當邑內 朝夕 炊烟이 3일 永絶하매 不忍常況은 省略함.

즉 충청수영은 1896년 7월 절도사 조회창 때에 탁지부 훈령을 받아 내린 홍주관찰사 이승우의 훈령으로 폐영되었고, 1901년 3월 6일 군부훈령을 받은 보령군수 권성수가 보령군의 군속과 마을의 장정 수천 명을 동원하여 오천으로 들어와 충청수영의 영사(營舍) 건물을 철회(撤毀)하였다. 이때 남은 건물은 장교청, 진무청, 사공청, 기수청, 사령청, 폐문루, 서남북문루, 군사고 뿐이었다. 이에 충청수영의 폐지로 살길을 잃어 시름에 잠겨있던 오천의 충청수영 영속(營屬)들은 식음(食飲)을 할 수 없어 3일 동안 밥 짓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충청수영의 참담함을 기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충청수영의 영사를 처참하게 철회한 이유는 양주 조씨들의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주조씨들의 입장에서는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선조들의 묘역을 내놓고 대신 받은 사패지에 건물이 뺄뺄하게 들어서 있었고, 영사 건물들이 철거될 것을 전제로 건물 사이에 묘역을 조성했으니 시급하게 묘역 주변의 건물을 철거해야만 했을 것이다. 당시 왕실 입장에서도 적극 도와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은 정 반대였다. 어떻게든

지 오천군을 새로 만들어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일자리를 얻어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사 건물을 철취할 때 건물들은 불태우지 않고 매각하였다. 다음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오천군지』 33쪽, 各名勝個所事蹟

永保亭은 在昔 弘治 17년(1504년) 燕山君 10년에 咸川君 李良이 新建이러니 至光武 5년 서기 1901년 辛丑3월 6일 自保寧郡으로 撤毀 放賣한 事.

황성신문, 1901년 5월 21일자

民非保寧 - 보령군수 權聖守氏의 公報를 據한즉, 本郡所管 水營公廨 毀撤事로 郡부에서 奉承旨意하여 훈령하였기로 본 郡수가 前월 24일에 始撤次로 率願買人及役丁하고 ... (이하 생략) ...

위의 내용으로 보아 훼손된 영사는 불태우지 않고, 판매한 것을 알 수 있다. 『오천군지』가 충청수영의 영속(營屬)들 입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불태웠으면 반드시 불태웠다고 기록했을 터인데 단지 '3일동안 밥짓는 연기가 나지 않았다' 라고 하여 영속들이 받은 충격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충청수영의 가장 핵심 건물인 객사의 자재는 주민들에 의해 보존되고, 양주 조씨의 묘지와 관련 없는 곳에 이전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훼손된 자재를 이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 오천군의 신설

오천에 있던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1901년 4월 18일 오천군(鰲川郡)이 신설되었다. 수영 폐지 이후 오천군이 신설된 배경은 충청수영의 주민 박계영(朴啓榮) 등이 소장(訴狀)을 올린 데서 발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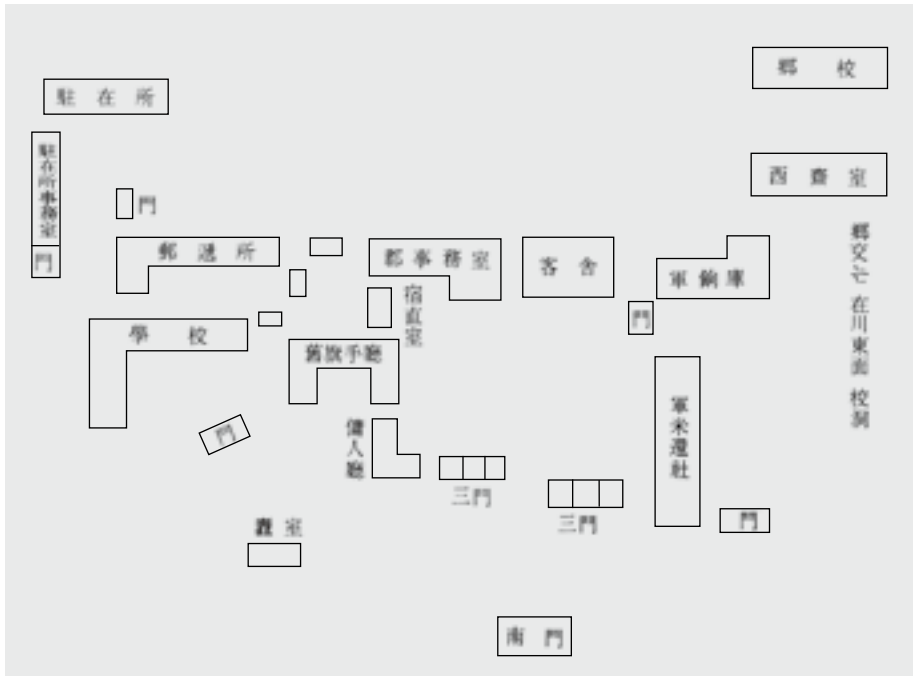
『오천군지』에 의하면 이때 군사무실은 구장교청(舊將校廳)에 두었다. 구장교

청은 밀집된 충청수영 영사 건물의 가장 남쪽에 있었다.(위 그림 - 폐영 직전의 충청수영 영사 참조)

바. 오천군의 관유건물(官有建物) 상황

1896년 7월 폐지된 충청수영에는 1900년 10월 27일 양주 조씨들의 묘역이 들어서고, 1901년 3월 6일 보령군수 권성수에 의해 많은 영사 건물들이 훼손(毀撤)된 후, 1901년 4월 18일에는 오천군이 신설되고 구장교청에 군청이 들어서게 된다.

군청이 들어섰으나 객사(공해관)나 동헌(운주헌)같은 중심 건물은 이미 없어진 뒤였다. 이들 건물들은 양주조씨 묘역에 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어 영사 건물들을 훼손할 때 집중적으로 훼손했을 것이다. 남은 건물들은 대부분



〈그림 20〉 현오천군 관유건물 각할소(各詰所)(『오천군지』, 1915년)

중심지역에서 벗어난 주변지역에 있는 건물들이다. 남아있는 건물 중에서 구장교청을 군청청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구장교청이 가장 크고 온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오천에 남아있는 옛 충청수영 영사(營舍)들은 그 기능이 달라졌다. 충청수영 시절에는 방어를 위해 언덕 위에 위치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나 이제는 오천군이라는 행정기관의 역할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높은 언덕 위가 필요 없고 접근하기 좋은 평지가 최고인 것이다. 따라서 구장교청은 해수면과 가까운 평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은 위치여서 군청으로는 객사나 동헌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위치였다.

이제 오천군은 장교청을 중심으로 행정중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물을 재배치하게 된다. 남은 건물들을 옮기기도 했을 것이고 1901년에 훼손된 건물들의 재목을 모아 신축하기도 했을 것이다. 새로 배치된 건물상황은 위 <그림 20>⁶⁶⁾과 같다.

위 그림은 학교와 군 사무실이 같이 표시된 것으로 보아 1908~1914년 사이에 그린 그림이다. 오천군에는 1908년 사립 광신학교(光新學校)가 설립되고 1913년에 오천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기 때문에 군청과 학교가 공존하는 시기는 1908~1914년 사이이다.

이 그림에서 주목되는 것은 객사이다. 영보정 아래, 동헌의 서쪽에 있던 객사가 군사무실(장교청) 동쪽으로 옮겨온 것이다. 아마도 충청수영의 옛 영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었던 객사를 훼손 후에 복원하면서 새로운 중심지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 당시 불태운 것이 아니라 자재를 판매하였고, 훼손 후, 불과 40여 일 만에 오천군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오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령군수 권성수가 영사 건물을 훼손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오천군 설립을 추진하였고, 성사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객

66) 보령군,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보고서』, 20쪽.

사 건물이라도 보존하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오천군에는 군청(장교청 - 서쪽)과 객사(동쪽)가 나란히 위치하여 군청소재지로서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1910년대 오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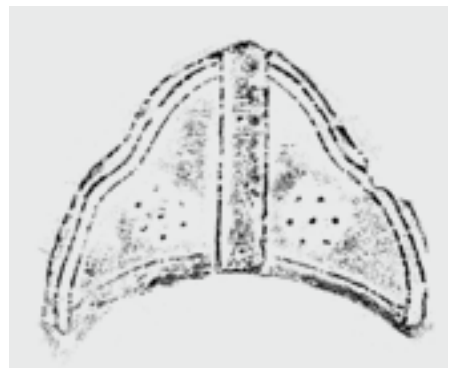
이때의 상황이 일제강점기에 엮서로 사용하던 사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위 사진에서 왼쪽 건물은 군청으로 사용되던 옛 장교청이고 오른쪽 건물은 영보정 아래에서 새로 옮겨지은 객사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사진에 나오는 두 건물이 1972년 보령부지도에 그려진 객사(공해관)와 동헌(운주헌)이라고 착각하였고, 이 두 건물이 옛 충청수영 영사의 중심 건물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사실 이 두 건물은 오천군이 설치되고, 오천이 행정중심지 기능을 할 때의 중심건물인 것이다.

이들 건물이 옛 충청수영의 중심건물이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해발고



〈그림 21〉 충청수영 내삼문의 망새기와 1



〈그림 22〉 충청수영 내삼문의 망새기와 2

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야 하는데 이곳은 만조시에 바닷물 높이보다 불과 수십cm 높은 곳에 위치한다. 새로 옮겨지은 객사는 옛 못(池) 주변의 평탄지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충청수영이 폐지되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옮겨지은 것은 삼문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된 ‘충청수영내삼문’도 영보정을 옮겨오면서 여러 재료를 합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증거로 망새기와를 들 수 있다. 작은 건물이지만 여러 종류의 망새기와가 얹혀있어 시대를 달리하는 여러 건물의 기와를 모아 새로 만들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 오천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확장

가) 오천공립보통학교의 설립

1901년 4월 18일 오천군이 설치된 후, 오천은 군청소재지로서 이른 시기에 학교가 설립된다. 최초의 학교는 1908년에 세워진 사립 광신학교(光新學校)로 옛 충청수영의 사공청(沙工廳)에 세워지게 된다. 1913년에는 공립보통학교가 인가되어 정식으로 오천공립보통학교가 세워지고 1913년 6월 6일 개교식을 거행한다. 건물은 옛 광신학교(옛 사공청)를 사용하게 된다.

옛 사공청은 옛 장교청 바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오천공립보통학교는 오천군청의 서쪽, 바닷가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 오천군청과 더불어 이곳이 새로운 오천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나) 오천공립보통학교의 확장

오천공립보통학교는 학생수의 증가로 빠르게 확장하게 된다. 학교가 크게 확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은 1914년 오천군의 폐지이다. 1914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어 오천군이 폐지되고 보령군에 통합되었다. 이때 옛 장교청에 두었던 군청이 폐지되면서 군청이 학교로

사용되게 된 것이다.

오천초등학교에 보관된 학교 연혁지에 의하면,

‘大正三年(1914) 四月二十二日 元水營將校廳タリシ前鰲川郡廳舎ニ移轉ス’

라고 기재되어 오천군이 폐지된 다음 달에 바로 오천군청이 있던 건물로 오천 공립보통학교가 이전되는 것이다. 기록은 없으나 이때 오천면사무소는 학교가 있던 옛 사공청 자리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는 규모가 커지고 면사무소의 행정인원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군사무소 동쪽에 있던 객사도 학교로 사용된다. 오천초등학교 연혁지에,

‘大正四年(1915) 四月 學級增加ノ結果 本校東鄰ナル旧客舎ヲ改修シ一教室ニ充ツ’

라고 하여 군청사를 학교로 사용한 지 1년 만에 교실이 부족되어 동쪽에 있던 객사를 수리해서 교실 1칸으로 사용한 것이다. 1914년 군청사로 이전할 때 객사도 학교로 포함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26년에는 학교의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 객사의 삼문과 담장 등을 정리하게 되어 현재의 학교 모습으로 점차 바뀌게 된다. 이때쯤 1910년대 사진에 나오는 2개의 삼문 중에서 온전한 삼문은 오천초등학교 동쪽으로 이전되었고, 이후 노인정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객사 앞으로 이전되었다. 현재 붙어있는 ‘拱海館’이라는 현판은 2개의 삼문 중 하나에 붙어있었을 것이다. 오천초등학교 연혁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大正十五年(1926) 八月 西ノ 樓門及土壁ヲ取除キ運動場ヲ擴張ス’

아. 충청수영 객사(客舍)의 재 이전

오천공립보통학교가 계속 확장되면서 교실로 사용되던 충청수영의 객사 건물은 다시 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오천공립보통학교의 사진을 보면 학교의 서쪽, 현재의 면사무소 자리에 객사 건물이 들어선 모습이 보인다. 아마도 학교로 사용되다가 면사무소로 사용된 옛 충청수영의 사공청(沙工廳) 건물이 남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교실을 잇대어 증축해야 했기 때문에 객사 건물을 지금의 면사무소로 옮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객사를 옮기면서 방향을 바꾸었다. 오천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될 때까지는 남향으로 들어섰으나 면사무소자리로 옮기면서 서향으로 바뀐 것이다. 면사무소 앞에 난 도로를 면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향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객사 건물은 충청수영의 옛 건물에서 처마의 끝이 올라가는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에서도 구분할 수 있다.

사진자료에 의하면 1922년까지는 객사가 오천초등학교 자리에 있었고, 1932년에는 객사 자리에 현대식 교실이 들어서 있으며, 학교 연혁지에 객사 앞의 삼문이 1926년에 헐린 기록이 있으므로 아마 1926~1932년 사이에 객사가 면사무소 자리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동쪽에 있던 객사(1922년)



객사 자리에 들어선 교실(배경 오른쪽, 1932년)

오천면사무소로 사용되던 객사 건물은 1981년 면사무소의 개축으로 다시 이전하게 된다. 당시 시내에서는 마땅히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여 북문과 동문 사이의 언덕 위에 이전하였다. 이곳은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라 비오는 날이면 객사 바닥 전체가 물에 젖어 쉽게 부식된다. 1981년 이전된 이후 3~4번의 큰 보수가 있었다.



면사무소 자리로 옮겨진 객사 사진(촬영년도 미상)

이 객사는 최근 대대적인 수리를 하였으나 비만 오면 물에 젖기 때문에 쉽게 부식된다. 다음 수리가 필요할 때에는 영보정 아래 옛 터에 이전했으면 한다. 이때 ‘拱海館’이란 현판이 붙은 삼문도 함께 옮겨야 한다. 현재는 객사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의 삼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중간에 담장을 쳐 놓았으나, 사실은 객사 건물의 삼문이다.⁶⁷⁾ 근래 토지도 매입하여 옮기는데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옮긴 뒤에는 영보정, 진흥청과 어울려 옛 충청수영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충청수영의 영사(營舍) 변화

충청수영에는 많은 영사 건물들이 있었다. 건물들은 『여지도서』, 1872년의 지방지도, 일제시기에 필사된 『오천군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18C 중엽에

67) 건물은 다른 건물의 삼문일 수도 있지만 붙어있는 현판은 객사건물의 현판이 맞다.

만들어진 『여지도서』에 의하면 충청수영의 영사(營舍)는 선소, 육물고 등 성 밖에 있는 건물을 제외하고 원산도에 있는 창고 12칸을 포함하여 모두 324칸이었다. 그 뒤 약 110년 후에 만들어진 『호서읍지』의 기록에 의하면 성 밖에 있는 선소를 제외하고 344칸이었다. 110년 후에 20칸이 늘어난 것이다.

영사의 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사관정(四觀亭), 양무고(養武庫), 영선고(營繕庫), 해현고(解懸庫) 등은 무너져 없어지고 교사청(教師廳), 포수청(砲手廳), 기수청(旗手廳) 등의 건물이 새로 생겨난다.

문헌별 영사(營舍) 비교

여지도서 (1757~1765)	호서읍지 (1871)	보령부지도 (1872)	오천군지 (폐영직전)
運籌軒 殿牌奉安 6칸	運籌軒 殿牌奉安 6칸	運籌軒	運籌軒
凌虛閣 3칸	凌虛閣 3칸	凌虛閣	凌虛閣
永保亭 24칸	永保亭 24칸	永保亭	永保亭
拱襟堂 4칸	拱襟堂 4칸	拱襟堂	
梅竹堂 4칸	梅竹堂 4칸	梅竹堂	梅竹堂
觀德樓 6칸	觀德樓 6칸	觀德樓	
東軒 5칸	東軒 10칸		
衙舍 15칸	衙舍 15칸		
南樓 3칸	南樓 3칸		
裨將廳 9칸	裨將廳 9칸	裨將廳	
歇廳 2칸	歇廳 2칸		
官廳 20칸	官廳 20칸	官廳	
四觀亭 3칸	四觀亭 毀壓無		
軍器庫 20칸	軍器庫 20칸	軍器庫	
火藥庫 3칸	火藥庫 3칸	火藥庫	
營吏廳 10칸	營吏廳 11칸	營吏廳	營吏廳
鎮撫廳 9칸	鎮撫廳 9칸		鎮撫廳

여지도서 (1757~1765)	호서읍지 (1871)	보령부지도 (1872)	오천군지 (폐영직전)
養武庫 6칸	養武庫 毀壓無		
營繕庫 3칸	營繕庫 毀壓無		
官奴婢廳 12칸	官奴婢廳 12칸		
虞侯衙舍 28칸	虞侯衙舍 28칸		
解懸庫 9칸	解懸庫 毀壓無		
蠹廟 3칸	蠹廟 3칸	蠹廟	
什物庫 15칸	什物庫 15칸	什物庫(성밖)	
兵庫 6칸	兵庫 6칸	兵庫	兵庫
工庫 4칸	工庫 4칸		
待變軍官廳 7칸	禦邊軍官廳 11칸	禦邊廳	禦邊廳
將校廳 26칸	將校廳 26칸	將廳	將校廳
使令廳 11칸	使令廳 7칸	使令廳	使令廳
土兵廳 11칸	土兵廳 11칸	土兵廳	
鐘閣 7칸	鐘閣 7칸		
賑恤庫 6칸(倉庫)	賑恤庫(倉庫) 9칸	賑恤庫	賑恤庫
軍餉庫 12칸(倉庫)	軍餉倉(倉庫) 20칸	軍餉庫	
元山倉庫 12칸(倉庫)	元山倉 17칸		
계 324칸			
	教師廳 3칸		
	砲手廳 4칸		
	旗手廳 12칸	旗手廳	旗手廳
	계 344칸	拱海館	
		軍牢廳	軍牢廳
		及唱房	及唱房
		欄後廳	
		南門	
		內三門	
		內衙2곳	

여지도서 (1757~1765)	호서읍지 (1871)	보령부지도 (1872)	오천군지 (폐영직전)
		奴廳	
		凌虛門	
		東門	
		北門	
		裨將廳	
		三門	三門(3곳)
		西門	
		小西門	
		外三門	外三門(閉門樓)
		寅和門	
		作廳2곳	
		中營	中營
		執事廳	
		通引廳	通引廳
		濠池	
		皇明遊擊將軍季公碑閣	
六物庫(성밖)		芑庫(성밖)	
船所(성밖)	船所(성밖)	船所(성밖)	
待舟院(바다건너)	待舟院(바다건너)	待舟院(바다건너)	
寒山寺(바다건너)	寒山寺(바다건너)	寒山寺(바다건너)	
	黃鶴樓(바다건너)	黃鶴樓(바다건너)	
姑蘇臺(성밑)	姑蘇臺(성밑)	姑蘇臺(성밑)	
	降仙巖(성밑)	降仙巖(성밑)	
			內東軒
			客舍
			賑恤廳

여지도서 (1757~1765)	호서읍지 (1871)	보령부지도 (1872)	오천군지 (폐영직전)
			所中廳
			沙工廳
			供饋
			南通門
			本邑保寧刑吏廳
			中營吏廳
			中營使令廳
			守廳間
			敬粹廳
			官廳
			營奴婢廳
			禮庫
			間庫
			戶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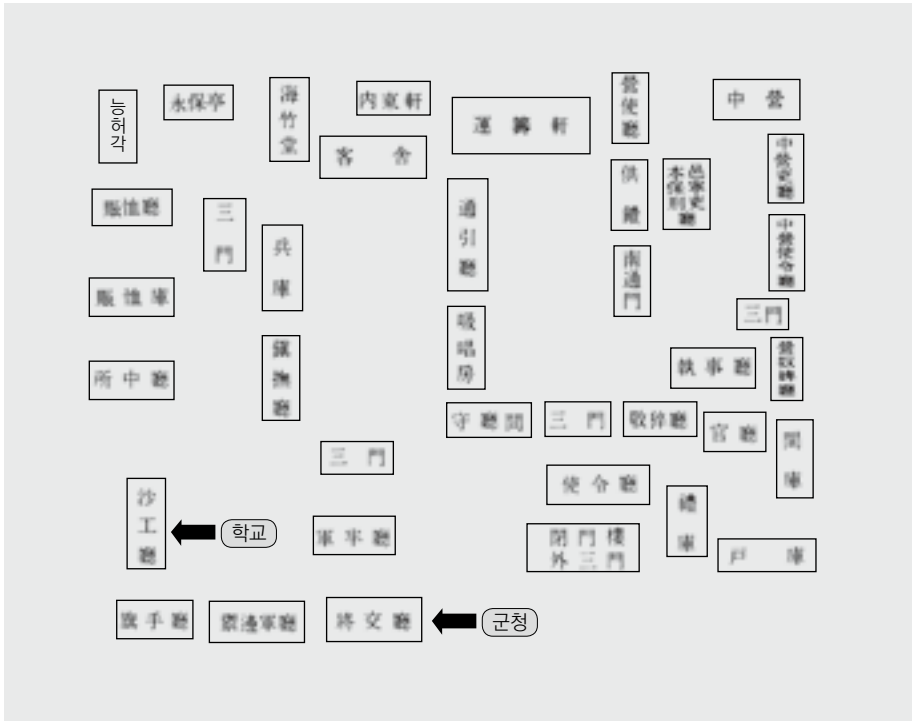
〈그림 23〉 『여지도서』의 충청수영 영사



〈그림 24〉 『호서읍지』(1871년)의 충청수영 영사



〈그림 25〉 보령부지도(1872년)의 충청수영 영사



〈그림 26〉 폐영(1896년) 직전의 충청수영 영사(『오천군지』)

(3) 영보정(永保亭) 영역

충청수영의 서북쪽 지역이다. 영보정·능허각·매죽당 등 충청수영의 경관(景觀)과 관련된 건물이 들어선 영역이다.

① 영보정(永保亭)

충청수영의 영사 건물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이다. 『여지도서』나 『호서읍지』에 일관되게 24칸으로 기록되어 있어 충청수영의 영사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다.

영보정은 1504년(연산군 10)에 함천군(咸川君) 이량(李良)이 최초로 건축하였는데

영보정기(永保亭記)에 ‘양청(涼廳)이라 하는 오래된 객관이 있었는데, 비바람에 파괴되어 수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에 관원들과 의논하여 옛것을 헐고 정자를 지어 현판을 걸었으니 영보(永保)라고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양청이라는 객관(客館) 자리에 정자를 짓고 영보정이라는 현판을 달았음을 알 수 있다. 함천군 이량은 전라좌수영에 부임하여서는 왜구를 막기 위하여 제방을 쌓아 이장군함천군휘랑방왜축제비(李將軍咸川君諱良防倭築堤碑)⁶⁸가 전하고 있다.

이후 영보정은 여러 차례 중수(重修)하게 된다. 중수 상황은 중수기와 충청수영 사례집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익성(申翊聖, 1588~1644년)의 중수기에 의하면,⁶⁹

경진년(1640년) 가을에 휴가를 얻어 이 정각에서 오래 쉬어 갔는데, ... 용마루의 기와며 서까래의 붉은 칠은 다 바래고, 처마며 기둥도 다 기울어 무너지려는 참이었다. ...

그 이듬해(1641년) 여름 수군절도사가 사자(使者)를 보내어 나에게 영보정을 중수했다고 알려오며 그 중수기를 써줄 것을 청하였다. 내가 그 사자를 불러들여 사연을 물으니 그는 “정각을 세운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홍치갑자(洪治甲子, 1504년)에 함천군 이량이 이 영진(營鎭)에 도임(到任)하여 객사(客舍)를 헐고 정각(亭閣)을 세워 처음으로 편액(扁額)을 걸게 되었고, 연현(蓮軒) 이의무(李宜茂)는 글을 지어 기념하였는데 이로부터 70년이 지나 만력갑술(萬曆甲戌, 1574년)에 이흔(李昕)이 이 정각이 오래되었다 하여 다시 수리하였으니 지금부터 6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둥이며 서까래의 썩은 것은 바꾸고, 난간(欄干)의 망가진 것은 고치며, 기와는 떼우고 벽돌은 채우며, 문짝·선반·현판까지 아름답게 조각을 해서 꾸미니 대단히 찬란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68) 숙종 36년(1710) 세음.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 240호.

69) 송하순, 1991, 『申翊聖의 永保亭 重修記』, 『大保文化 창간호』

라고 하여 1504년 건립 후, 1574년에 이혼이 수리하고, 68년 후인 1642년에 민진익(閔震翼)이 중수하였음을 알 수 있고, 약 70년 주기로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충청수영사례집』에 의하면,

1804년(순조 4) : 6월 능허각(凌虛閣)이 해가 오래되어 무너지니 김수기(金守基) 사도(使道)가 비국(備局)에 보고(報告) 청해 얻어내고 봉영병선미(本營兵船米) 200석으로 새롭게 세우고 영보정을 중수일신(重修一新)했다.

1823년(순조 23) : 9월 영보정 북쪽 2칸이 세운지 너무 오래되어 무너졌다. 사도(使道) 윤상중(尹相中)이 도송(島松) 10주를 비국(備局)에 보고해 얻어 내어 보수하였다.

등의 기록이 있어 계속해서 수리하여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고, 『조선지리지자료』(1911)에는,

‘영보정은 본래 읍북변 성 위와 고소대의 동쪽에 있었는데 옛 시판(詩板)의 필적이 극히 아름다웠었다. 지난 무인년(1878)에 부서지고 그 후에 작은 정자를 세웠는데 이것조차 지금은



영보정과 능허각(이돈중, 1765~? 그림)

없다.’⁷⁰⁾

라고 하여 1878년에 부서져 없어지고 이후 작은 정자를 세워 존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永保亭은 在昔 弘治 17년(1504) 燕山君 10년에 咸川君 李良이 新建이러니 至光武 5년 서기 1901년 辛丑 3월 6일 自保寧郡으로 撤毀 放賣한 事.

라고 기록되어 1901년 3월 6일 보령군수가 철해(撤毀)하여 건축자재를 매각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영보정이 불탔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사실은 뜯어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영보정은 원래 있던 24칸의 건물 이 아니라, 1878년 부서져 없어지고 다시 세운 작은 영보정이었다.

이어 『오천군지』에는 영보정에 걸렸던 편액으로 ‘天上樓臺畫中江山’ 과

박은(朴聞)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영보정에는 박은의 시 뿐만 아니라 주산면 증산리 시루메 마을에 거주 하던 구촌(龜村) 이덕온(李德溫) 선생의 영보정기도 걸려있었는데, 영보정이 헐릴 때 후손들이 가져와 보관하다가 최근 분실되었다.

영보정이 위치하던 곳은 1990년 새한건축문화연구소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충청남도역사문화



〈그림 27〉 보령부지도(1872년)의 영보정과 능허각

70) 永保亭은本在於邑北邊城上과姑蘇臺之東이은바古人之詩板筆蹟이極其彬々矣러니去戊寅年兮의 仍爲回祿而其後의略起一亭矣러니 此亦今無喜



이덕온의 영보정기 현판(1997. 10. 26.)

연구원에서 2010년에 시굴조사, 2011년에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영보정의 변화양상은 모두 5시기에 이른다. 먼저 초축 시기의 유구인 1차 건물지는 암반면을 절토하여 약간의 기반토를 조성한 이후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조성하였는데, 조사지역에서 초축시기의 건물로 기록에 전하는 ‘양청(涼廳)의 흔적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후 2번의 기단토 조성층위가 확인되었는데, 첫 번째 기단토에서는 2차 건물지의 적심 1기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 기단토는 적갈색사질점토와 황갈색사질점토가 번갈아가며 여러 층이 판축형태로 다짐되었는데, 기단토의 구지표면 위로 초석이 약 5cm 정도만 노출되도록 유구를 조성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유구는 초석 3매가 확인되며 3차시기의 건물지로 판단하였다.

4차 건물지의 특징은 건물지 상면을 약 20~30cm 두께의 화재소결층이 덮고 있는 점이다. 화재소결층 하면에는 불에 탄 목재가 일부 남아있으며, 층위 내에 다량의 소토가 확인되었다.

영보정의 화재로 인해 지붕의 보토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이는데, 화재소결층에서 수습되는 기와류는 대체로 조선 말기에 해당하는 반원집선문계 유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⁷¹⁾

71)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보령시, 2012, 『보령 충청수영성 학술 발굴조사 보고서』, 89쪽.

발굴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보정과 능허각의 연결 상황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여지도서』의 충청수영 지도나 이돈중의 충청수영 그림에서는 영보정과 능허각이 붙어있고, 『호서읍지』·지승 등 여러 지도에는 영보정과 능허각이 분리되어 있어 혼선을 주고 있는데, 발굴조사에서도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다.

보령시에서는 발굴조사를 토대로 2016년 영보정을 복원하였다. 2013년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2014년 3월 문화재 전문가의 현장 기술지도를 받고, 2015년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



영보정 상량식(2016. 6. 10.)



영보정 복원 준공식(2016. 11. 18.)



영보정 1(2017. 10. 16.)



영보정 2(2017. 10. 16.)

2015년 6월 10일에는 상량식을 거행하였고, 2015년 11월 18일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공사기간은 2013. 12. 30.~2015. 10. 30.이었고, 사업비는 1,169백만원이었으며 성원건설(주)에서 시공하였다.

준공식에는 영보정을 처음 만든 함천군 이량(李良) 장군의 후손들이 참여하였는데, ‘永保亭’이라는 현판을 제작하여 기증하기도 하였다. 현판의 글씨는 보령출신 서예가인 임기석 님이 썼다.

【영보정기(永保亭記)】

- 지은이 : 이의무(李宜茂)
- 시기 : 1510년

歲甲子春 咸川君李公諱良 以廉選爲忠清道水軍節度使以寵之 重其任也 既視事 政通人和 無不樂爲公用焉 營之北隅 舊有客館曰涼廳 爲風雨所壞 不修者久矣 公乃謀於僚佐 撤舊而亭之 扁曰永保 又作永保亭歌詞 以寓夫忠君憂國之意 人皆樂公之能樂其樂也 是亭也據層崖之上 斷岸千尺 俯瞰長江 洪波萬頃 峯巒周遭 翠屏低列 西望海門 水天相接 島嶼微茫 出沒於煙雲杳靄間 斯實江山之勝槩也 一日 監司許公 駐節于斯 以相從容宴飲以樂之 賓僚之在席者五六輩 亦一時之名勝也 酒既半 席上有執盞而復於公者曰 江山勝槩 天地間常有 而人之樂此勝槩者 不常也 公以萬夫之長 當大平無事之時 高牙大纛 能樂此勝槩 夫豈偶然哉 況今日之所與共之者 無非一時名勝 而江山萬象 亦若欣欣然感於知己 舉皆呈露於几席之上 豈非天慳地祕 以待其人 而使公能樂其樂也 然人知公之能樂其樂 而不知公之能保其樂也 知公之能保其樂 而不知公之永保斯樂於無窮之意也 苟不知公之心 則江山勝槩 亦徒一物而已 其能使人永保之哉 他日繼公而來者 登公之亭 歌公之歌 一唱三歎 聖恩流布 萬世興之調 則當知我公之心也 公以爲何如也 公曰 諾 命洪州牧使德水李宜茂 爲之記

갑자년 봄(1504년, 연산 10)에 함천군 이량이 충청도수군절도사가 되었는데, 이것은 임금의 총애가 있어 중하게 맡겨진 임무였다. 이미 임금께서는 정무를 보아서 정사에 능통하고 사람들을 화합하셨으니 공을 임용함에 즐겁지 아니함이 없었다. 수영의 북쪽 모퉁이에 오래된 객관이 있었는데 양청(涼廳)이라 하였다. 비바람에 파괴되어 수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에 공이 관원(官員)들과 의논하여 옛 것을 헐고 정자를 지어 현판을 걸었으니 영보(永保)라고 하였다. 또 영보정 가사를 지어 충군우국의 뜻을 비유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공이 즐거움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 정자는 층층 절벽 위에 있어 깎아 내린 듯한 언덕이 천 척이며, 큰 강이 내려다보이고 한없이 넓은 바다와 산봉우리들에 둘러싸여 있고, 아래에는 이끼 낀 초록색 바위들이 널려 있다. 서쪽 바다 입구를 바라보면 바다와 하늘이 맞닿아 있고, 섬들이 아득하게 보이며, 연기 구름이 아득한 안개 사이로 출몰하니 이것은 정말로 강산의 뛰어난 경치이다. 하루는 감사 허 공이 여기에 머물면서 서로 만나 잔치를 베풀고 이를 즐겼는데 손님들 오육 명도 함께 자리하였다. 역시, 한 때의 명사들이었다. 술기운이 무르익어 자리 위의 술잔을 집었다 놓았다 하며 공이 말하기를 강산의 뛰어난 경치는 천지간에 항상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공이 모든 이의 어른으로서 태평무사시에 고상하고 우아하고 도량이 넓게 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니 어찌 우연이겠는가? 하물며 오늘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한 시대의 명사들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 강산 만상도 또한 지기(知己)들에게 감동되어 기뻐하는 것 같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궤석 위에 모두 드러내고 있으니 이 어찌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을 기다렸다가 공으로 하여금 그 즐거움을 즐기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이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만 알지 공이 그 즐거움을 보존하려는 무궁한 뜻은 알지 못한다. 공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강산의 뛰어난 경치도 또한 하나의 일물(一物)에 불과할 뿐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훗날 공을 이어 오는 사람이 공이 지은 정자에 올라 공이 지은 노래를 부르고, 일창삼탄하고, 성은이 유포되어

만세토록 흥하기를 바란다면 곧 마땅히 공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공은 어찌 생각하는가?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홍주목사 덕수 이의무에게 명하여 이를 기록하게 하였다.

【영보정연유기(永保亭宴游記)】

• 지은이 : 정약용(丁若鏞)

• 시기 : 1795년

世之論湖石亭樓之勝者 必以永保亭爲冠冕 昔余謫海美 嘗有意而未至焉 乙卯秋 始從金井獲登斯亭 豈於亭有分哉?余方以好奇遭貶 然凡天下之物 不奇不能顯, 觀乎永保之亭 知其然也 山之在平陸者 非尖削峻截 不能爲名 唯突然入水如島 則雖培塿之隆 亦奇也 水之由江河而達于海 勢也 雖泓渟演漾 不足稱 唯自海突然入山爲湖, 則不待波瀾之興 而知其奇也 姑麻之山 西馳數十里 蜿蜒赴海中 如鶴之引頸而飲水 此所謂山之突然入水而如島者也 姑麻之湖 東匯數十里 環以諸山 若龍之矯首而戲珠 此所謂水突然入山而爲湖者也 永保之亭 據是山而臨是水 以之爲一路之冠冕 則曩所謂物不奇不能顯者非邪?時節度使柳公心源 爲余具酒醴 而太學生申公宗洙詩人也 值中秋月夜 汎舟姑麻之湖 轉泊寒山寺下 復有歌者 簫者 與登寺樓 令作流商刻羽之音 余遷客也 愀然有望美人天一方之思 竝書此以爲永保亭記

세상에서 호우(湖右)의 누정의 뛰어난 경치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보정(永保亭)을 으뜸으로 꼽는다. 옛날에 내가 해미(海美)에 귀양갔을 때, 마음은 있었지만 가보지 못했다. 을묘년 가을에 나는 비로소 금정(金井)으로부터 이 정자(亭子)에 오를 수 있었으니, 어찌 정자와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때 기이한 것을 좋아함으로 인해 좌천되었었다.

그러나 천하의 사물이 기이하지 않으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영보정을 보고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산이 육지에 있는 것은 깎아 세운 듯 뾰족하고

잘라 놓은 듯 우뚝하지 않으면 이름이 날 수 없으나, 갑자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섬처럼 되어 있으면 작은 언덕(埗)처럼 조그맣게 솟아오른 것이라도 기이하게 보인다. 물이 강하(江河)에서부터 바다로 흐르는 것은 부득이한 사세이므로, 비록 깊은 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더라도 칭찬하기에 부족하나, 갑자기 바다에서 산 속으로 들어가 호수가 되면, 그 물결치는 흥취는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이 기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마산(姑麻山)이 서쪽으로 몇십 리를 내달아 꿈틀거리며 바다 가운데에 다다랐는데, 마치 학(鶴)이 목을 길게 빼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이른바 갑자기 물 가운데로 들어가 섬처럼 된 것이요, 고마호(姑麻湖)는 동쪽으로 돌아서 수십 리를 흘러나가는데, 여러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용(龍)이 머리를 들고 여의주(如意珠)를 희롱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이른바 물이 갑자기 산 속으로 들어가 호수가 된 것이다. 영보정은 이 산에 의지하고, 이 호수에 임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의 으뜸이 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사물(事物)은 기이하지 않으면 이름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때 절도사(節度使) 유공 심원(柳公心源)이 나를 위해 술을 준비했고, 태학생(太學生) 신공 종수(申公宗洙)는 시인인데, 그와 함께 가을 달밤을 맞아 고마호에 배를 띄웠다가 길을 바꾸어 한산사(寒山寺) 아래에 배를 대었다. 여기에는 또 노래하는 사람과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 그들과 더불어 절의 누대에 올라 좋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나는 귀양온 사람이므로,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저 하늘 한쪽에 계시는 임금(美人)을 우리러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 또한 여기에 같이 기록하여 영보정기(永保亭記)로 한다.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의 행장 중에서】

甲午春。湖西賊宋儒真反分朝。諸臣欲奉世子還朝以避賊。公上筮駁其非計。世子從之。賊亦尋平。世子在洪州。欲移駐保寧之水營。使公往審之。公還詭對以爲不可駐。或疑之。公曰。永保亭勝概冠湖中。恐少主居之。啓異日侈蕩心。識者服其遠識。

갑오년 봄에는 호서(湖西)의 반적 송유진(宋儒眞)이 분조(分朝)를 배반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세자를 받들고 환조(還朝)하여 적을 피하려고 하자, 공이 차자(劄子)를 올려 그것이 옳은 계책이 아님을 논박하니, 세자가 공의 의견을 따랐는데, 적 또한 얼마 안 가서 평정되었다. 세자가 홍주(洪州)에 있으면서 보령(保寧)의 수영(水營)으로 옮겨 머물고자 하여 공으로 하여금 가서 현지를 살펴 보고 오게 하였는데, 공이 돌아와서는 머무를 수 없는 곳이라고 속여 대답하였다. 혹자가 그것을 의심하자, 공이 말하기를, “영보정(永保亭)의 좋은 경치는 호중(湖中)의 으뜸이니, 소주(少主)가 그 곳에 거처하는 것이 후일의 방탕한 마음을 인도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하니, 식견 있는 이들이 그 원대한 식견에 감복하였다

【수영(水營) 뒤의 정자(營後亭子)】

• 지은이 : 박은(朴暉)

• 시기 : 1503년

其一

地迫未窮千頃海	땅이 끝나 드넓은 바다는 다 보지 못하지만 ⁷²⁾
山開猶納一頭潮	산이 열려서 한 가닥 조수를 받아들이는구나
急風吹霧水如鏡	급한 바람이 안개 불어 흠고 물은 거울 같은데
近渚無人禽自謠	가까운 물가에 사람 없고 새만 스스로 노래한다
客裏每爲清境惱	객지에서 매양 맑은 경치에 마음이 심란하더니
日邊更覺故園遙	일변 ⁷³⁾ 에서 다시금 고향이 아득히 멀음 깨닫노라
苦吟不去乏新語	고심해 시 읊느라 안 떠나니 새 시구가 부족해
愁見落暉沈遠靄	석양이 먼 하늘에 잠기는 광경 시름겨워 보노라

72) 땅이 …… 받아들이는구나 : 땅은 바닷가에서 끝났지만 산 사이로 조수는 들락날락한다는 뜻이다.

73) 일변(日邊) : 해 곁이란 뜻으로 천애(天涯)의 먼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명제(明帝)에게 묻기를, “너는 장안(長安)과 해 중 어느 쪽이 더 멀다고 생각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해가 더 멀니다. 해 곁에서 온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世說新語 夙慧》

其二

晚潮來處暫欹枕
 擡眼忽看洲渚生
 朝暮應誰事呼吸
 乾坤終亦有虧盈
 南人浮海如行馬
 澤國逢春更少晴
 日日倚樓渾不下
 怪聲時聽白鷗鳴

저녁 조수 밀려드는 곳에 잠시 베개에 누웠다
 눈길을 드니 홀연 새로 물가 생긴 게 보이누나
 아침저녁으로 응당 그 누가 호흡하는 것이리
 하늘과 땅도 마침내는 성쇠를 거듭하는 법이지
 남쪽 사람들은 배 타는 게 말 타는 듯하고
 바닷가는 봄을 만나 날씨가 조금 개었어라
 날마다 누각에 기댄 채 내려오지 않노니
 괴이하게 우는 백구 울음을 때때로 듣노라

其三

平生病眼怯遐矚
 尋丈之間殊不分
 鳥過猶憐一點雪
 山橫但覺萬堆雲
 西邊落日劇相盪
 空裏玄花尤自紛
 隱几茫茫輒成睡
 琅然鐵撥只堪聞

평소에 눈병을 앓아 멀리 보기도 겁난 터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은 전혀 분간치 못한다
 새가 지나가니 한 점의 흰 눈 같아 어여쁘고
 산이 가로놓였으니 만 무더기 구름만 같구나
 서쪽으로 떨어지는 해는 몹시도 흔들리고
 공중에 흩어지는 헛꽃은 매우 어지러워라
 궤안에 기댄 채 망망하여 문득 잠이 드니
 낭랑하게 울리는 현악기 소리 들을 만하여라

其四

地如拍拍將飛翼
 樓似搖搖不繫篷
 北望雲山欲何極
 南來襟帶此爲雄
 海氛作霧因成雨
 浪勢翻天自起風
 暝裏如聞鳥相叫
 坐間渾覺境俱空

땅은 새가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려는 형국
 누각은 한들한들 매인 데 없는 배 같아라
 북쪽으로 바라보매 운산은 어드메가 그 끝이고
 남쪽으로 와 띠처럼 두른 산세 이곳이 제일일세
 바다 기운은 안개가 되고 이어서 비를 뿌리며
 물결 형세는 하늘에 닿고 절로 바람을 일으킨다
 어둑한 중에서 마치 새 우는 소리 들리는 듯
 앉았노라니 몸도 경계도 공함을 깨닫겠노라

其五

憐我朝來獨吟處	어여빠라 내가 아침에 와 홀로 시 읊던 곳에
一竿初日照簾旌	한 발 높이로 뜬 해가 주렴과 깃발을 비추누나
風颿飽與潮俱上	돛단배는 바람을 가득 받아 조수와 함께 오르고
漁戶渾臨岸欲傾	어촌의 집은 도무지 바닷가에 서서 기우뚱해라
雨後海山皆秀色	비 온 뒤에 해산은 모두 수려한 빛을 띠고
春還禽鳥自和聲	봄이 돌아오자 새들은 절로 소리 화창하구나
客中奇勝猶須句	객지에서 좋은 경치 만나면 시구를 읊어야지
平世文章不要名	태평한 세상에 문장은 명성 얻을 필요 없으라

② 능허각(凌虛閣)

영보정의 서쪽에 붙어 있던 건물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일관되게 3칸으로 기록되어 작은 정자였던 것 같다. 그러나 모든 그림에서 창호가 나타나고 있어, 벽과 문을 갖춘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바로



밀양 영남루의 능파각(2017. 5. 22.)

옆에 있는 영보정이 벽이 없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 없어, 추울 때 이용하기 위해 만든 건물로 보인다. 밀양 영남루의 능파각(凌波閣)과 비슷한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금당(拱襟堂)

영보정 남쪽, 매죽당 서쪽에 있던 건물이다. 『여지도서』에서부터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까지 그려져 있고, 『오천군지』의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매죽

당과 같이 시인묵객들이 묵는 건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능허문(凌虛門)

1872년에 그려진 보령부지도에 보이는 문이다. 작청 북쪽, 진흥고 남쪽에 그려져 있다. 삼문 형식이다.

⑤ 매죽당(梅竹堂)

『여지도서』에서부터 『오천군지』의 충청수영지도까지 일관되게 나오는 건물이다.

영보정 아래에 있고, 건물의 이름으로 보아 충청수영, 특히 영보정을 찾는 시인묵객들이 묵는 건물일 것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영보정과 연결된 건물로 그려져 있다.

⑥ 사관정(四觀亭)

『여지도서』에 나오는 3칸의 정자이다. 영보정과 고소대 사이, 성벽이 꺾이는 곳에 위치하였다.

현재 영보정을 오를 때 사진을 찍는, 사방이 트인 곳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호서읍지』에는 무너져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국의 악양루

⑦ 악양루(岳陽樓)

충청수영을 그린 각종 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911년에 만들어진 조선 지리지자료에 나오는 정자이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악양루’는 본래 영보정의 서

쪽, 고소대의 동쪽에 있던 불과 2칸 밖에 안되는 정자이다. 정자 이름은 옛 중국 강남의 악양루를 본받아 일컬은 것 같은 의혹이 든다.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⁷⁴⁾라고 하여 영보정 서쪽에 불과 2칸짜리 정자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여지도서』에 나오는 사관정(四觀亭)과 같은 곳이다.

악양루는 중국 호남성 악양에 있는 당나라 때 만들어진 강남 3대 명루(名樓) 중의 하나로 동정호 옆에 있다.

(4) 객사(客舍) 영역

영보정 남쪽, 충청수영 영사(營舍)의 중심지 서쪽 부분이다. 여러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었고, 객사는 담장이 둘러져 있었다.

① 객사(客舍)

객사는 국왕의 전패(殿牌)를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에 망궤례(望闕禮)를 올리는 한편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중앙관리를 접대하고 유숙시키던 곳으로 지방의 치소(治所)나 군영(軍營)에서는 동헌(東軒)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물이었다. 충청수영에도 아주 오래 전부터 객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충청수영의 객사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1504년이다. 당시 이량(李良)이 영보정을 지었는데 ‘양청(涼廳)이라 하는 오래된 객관이 있었는데, 비바람에 파괴되어 수리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에 관원들과 의논하여 옛 것을 헐고 정자를 지어 현관을 걸었으니 영보(永保)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양청(涼廳)이라고 불린 객관 즉, 객사를 헐고, 영보정을 지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객사는 중심 건물이기 때문에 영사(營舍) 건물을 짓기 시작한 1447년(世宗 29년, 正統 12년

74) 岳陽樓는 本在於永保亭之西와 姑蘇臺之東而不過二間之亭이온바 樓名則意或效稱古之江南岳陽樓이온지 未可必今無訾

丁卯)부터 지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여지도서』(1757~1765년)에는 ‘運籌軒 殿牌奉安 6칸’ 이라고 기록되어 운주헌에서 전패를 보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도에는 한 건물의 서쪽 부분에는 운주헌, 동쪽 부분에는 동헌이라고 기재하고, 정문은 남루라고 기재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객사라는 별도 건물이 없고, 동헌인 운주헌(運籌軒)에 전패를 보관하고, 객사의 역할을 함께 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호서읍지』(1871년)에도 ‘運籌軒 殿牌奉安 6칸’ 이라고 기록되어 운주헌이 객사 역할을 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나, 지도에는 남루(南樓)를 가운데 두고, 서쪽에는 전청(殿廳), 동쪽에는 운주헌(運籌軒)을 그려 넣어 분명히 별도의 건물로 서쪽에 객사, 동쪽에 운주헌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이때는 객사(殿廳)와 동헌(運籌軒)이 별도로 있었으나 책 내용을 기술할 때 『여지도서』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1872년에 발간된 보령부지도나, 충청수영 폐영 직전의 모습을 그린 『오천군지』의 지도에는 동헌의 서쪽에 객사가 분명하게 그려져 있다.

충청수영 객사 건물의 이름은 공해관(拱海館)이었다. 『여지도서』에 운주헌(運籌軒)에 전패를 보관한다는 기록으로 운주헌이 객사인 것으로도 생각했었으나, 1871년의 『호서읍지』에 나오는 전청(殿廳) 위치에 1872년의 지방지도에 공해

관(拱海館)이라고 그려져 있고, 객사 명칭에 일반적으로 ‘관(館)’자가 쓰이므로 분명히 객사 이름은 공해관(拱海館)이고 동헌 이름이 운주헌(運籌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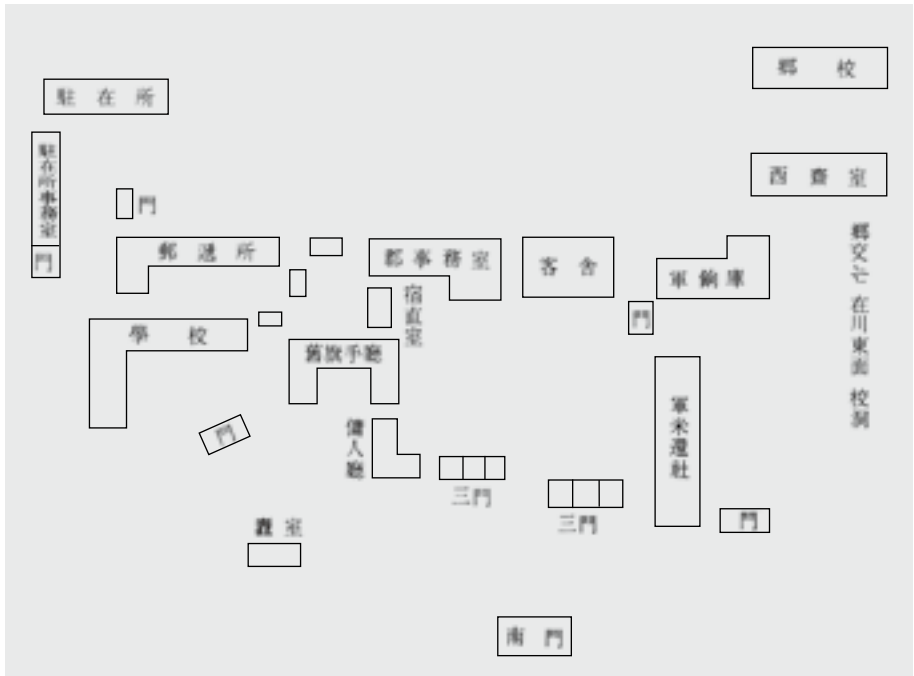
충청수영의 객사인 공해관은 영보정 남쪽에 동헌인 운주헌과 나란히 서쪽으로 있었는데, 1896년 충청수영의 폐영 이후, 1901년 3월 6일 보령군수 권성



〈그림 28〉 지방지도(보령부, 1872년)의 객사(공해관)와 동헌(운주헌)

수에 의해 헐리게 된다. 충청수영의 상징 건물인 객사가 헐리게 된 것은 1900년 10월 27일 이루어진 양주 조씨들의 묘역 이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주 조씨들이 조상 묘역이 홍릉(洪陵) 부지로 수용되면서 충청수영 자리를 사패지로 받아 이장하고, 신설되는 오천군의 군청을 안면도에 둘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충청수영의 객사를 포함한 영사(營舍) 건물들이 훼손된 것이다. 양주 조씨와 왕실의 힘에 의해 영사 건물들이 훼손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01년 4월 18일 오천군이 들어서고, 군청은 오천 옛 충청수영 자리로 정해진다. 충청수영의 영사 건물들이 훼손된 뒤 불과 1달 12일 만에 군청이 들어서는 것이다. 이때 군청은 옛 충청수영 영사 중 가장 남쪽에 있던 장교청에 들어서고, 이후 훼손되고 남은 건물들은 군청 주변으로 옮기게 된



〈그림 29〉 오천군 당시(1901~1914년) 관청건물(『오천군지』, 1915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충청수영의 건물들이 있던 곳에는 양주 조씨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건물들을 옮겨야 되었고, 평지인 군청 주변에 옮겨야 행정기능을 수행하기도 편리했기 때문이다.

이때 객사 건물은 군청(장교청)의 서쪽으로 옮겨졌는데, 그 모습이 『오천군지』에 그림으로 나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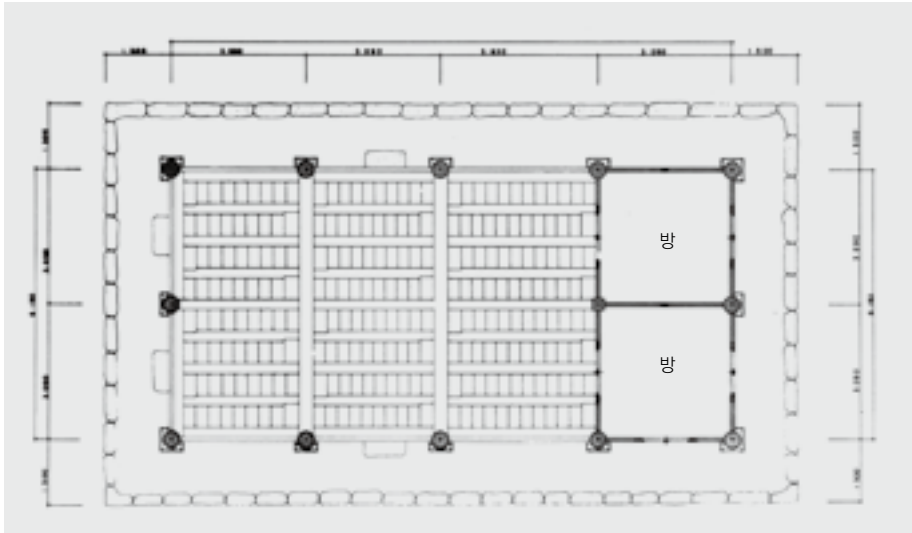
앞의 <그림 29>와 같이 영보정 아래에서 옮겨온 객사는 군사무실(장교청) 동쪽에 들어서게 된다.

이후 1914년 오천군이 폐지되고 보령군에 통합되면서, 1914년 4월 22일 오천군청이 있던 장교청 자리는 오천공립보통학교가 옮겨오게 된다. 그리고 옛 객사는 자연스럽게 오천공립보통학교 소유가 된다. 이후 오천공립보통학교의 학생수가 증가하면서 1915년에는 객사를 수리하여 교실로 사용하다가, 객사를 헐고(1922~1932) 근대식 건물을 지어 교실로 사용하게 된다. 다시 헐려진 객사 건물은 옛 학교건물에 들어선 오천면사무소로 옮겨져 오천면 청사로 사용하게 된다. 1980년에는 오천면사무소를 현대식으로 새로 짓고, 1981년 옛 청사인 객사 건물을 북문 동쪽 언덕 위로 옮기게 된다.

객사 건물이 옮겨간 곳은 언덕 위라 비바람이 불면 바닥이 물에 젖는 문제점이 있다. 부식이 심해 벌써 3~4차례 보수하였다. 2016년에 마지막 보수를 하였으므로 다음 보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 위치인 영보정 아래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사 건물은 현재 ‘충청수영 장교청’ 이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411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의 장소로 이전되기 전에 오천면사무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오천면사무소는 옛 오천군청이었을 것이고, 옛 오천군청은 옛 충청수영의 장교청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충청수영 장교청’ 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1914년 오천군이 폐지된 뒤, 오천군청 자리에 오천공립보통학교가 옮겨온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문화재의 명칭도 ‘충청수영 객사’ 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객사의 건물평면은 정면 4칸 특면 2칸의 24평 건물이며, 그중 서측의



〈그림 30〉 객사 평면도

3칸은 양통(樑通) 2칸의 넓은 청루(廳樓)를 내어 3면을 개방하였고, 동측 끝 칸에는 측면 2칸통의 온돌방을 들여 전체 8칸 집이 되었다.



객사(2017. 10. 16.)

청(廳)과 방 사이의 세살문 분합(分閤)이 달린 회벽(灰壁)으로 막아 구획하였다. 마루바닥은 기단으로부터 53cm가량 높여 우물마루로 설치되었다.⁷⁵⁾

75) 새한건축문화연구소, 1990, 『오천성(충청수영성) 지표조사 보고서』, 58쪽.

② 삼문(三門)

현재 충청수영 객사 앞에 있는 문이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인데 가운데 한칸을 높여 솟을지붕을 구성하였다.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현재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고, 사방의 기둥에 벽을 만들고, 앞면은 유리창을 달아 오천면 노인회 회관으로 사용하였다. 문의 앞면에는 ‘控海館’이라는 현판이 붙어있어 충청수영 객사의 삼문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문이 옛 객사에 있던 문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아마도 1910년대 오천 중심지 사진에서 보이는 2개의 삼문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객사의 삼문은 상당히 훼손되었고 군청으로 사용되는 장교청의 삼문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교청 앞에 있는 삼문을 옮기면서 객사 앞에 있는 삼문의 현판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삼문을 마을회관 위치로 옮긴 것은 1922년인 것으로 보인다. 오천초등학교에 보관된 사진 중 1921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삼문이 있는데, 1922년에 찍은 사진에는 운동장이 넓은 반면, 삼문이나 담장은 없다. 아마도 1922년 10월 26일 개교 10주년 행사를 앞두고 운동장을 넓히면서 삼문을 모두 없앴 것으로 보인다.

옛 충청수영 영사의 삼문을 살펴보면 『여지도서』에는 운주현과 진흥고의



대정 10년(1921)의 삼문(오천초 6회 졸업사진)



없어진 삼문(개교 10주년 - 1922 기념행사 사진)

삼문이 있었고, 1872년의 지방지도에는 운주현 앞에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었고, 공해관 앞에 삼문, 작청 뒤의 능허문 등 4개의 삼문이 있었다. 『오천군지』에 실려 있는 폐영 직전의 충청수영 지도에도 1872년의 지도와 같은 위치에 4개의 삼문이 그려져 있다.

현재 객사 앞에 있는 삼문은 옛 충청수영 중심 건물의 삼문으로 있다가, 1901년 3월 6일 영사 건물들이 훼손되고,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오천군청으로 사용되던 장교청 앞으로 이전되었고, 장교청과 객사 건물이 오천공립보통학교 소유가 되면서 운동장의 확장으로 1922년 학교 동쪽 좁디좁은 경사지로 이전되었고, 이때 객사 앞에 있던 삼문에 붙어있던 ‘拱海館’의 현판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81년 오천면사무소 자리에 있던 객사 건물을 옮긴 뒤, 삼문도 객사 앞으로 옮기게 되는데, 주민들이 옛 객사 앞에 있던 문이 아니라는 증언에 따라 삼문과 객사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삼문은 모두 비슷한 형식의 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문의 현판이 가장 중요하므로 객사의 이름인 ‘拱海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삼문을 객사의 삼문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객사를 영보정 아래로 옮길 때 이 삼문도 객사 앞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 삼문의 망새기와를 살펴보면 시기와 모양을 달리하는 여러 기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삼문의 재료들은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영사 건물들을 훼손하고 이전할 때 여러 건물에 사용된 재료를 모아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삼문은 ‘충청수영 내삼문’이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0호로 지정되었다.

삼문에 걸려있는 ‘拱海館’이라는 글씨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동농(東農) 김가진(金嘉鎭, 1848~1922년)이 썼다.

김가진은 안동(安東) 김씨로 예조판서 김응균(金應均)의 아들이다.

1886년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였고 이후 홍문관 수찬(修撰)이 되었다. 1887년부터 판사대신 주일공사(辦事大臣 駐日公使)로 4년간 동경(東京)에 주재하였으며, 1891년부터 안동대도호부부사를 지냈다. 1894년에는 군국기무처회의원(軍國機



김가진

務處會議員)이 되어 내정개혁에 참여했고, 병조참의·외무독판서리(外務督辦署理)·전우국총판(電郵局總辦)·공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농상공부대신, 1896년 중추원1등의관을 지냈다. 갑오개혁이 실패한 뒤에는 1896년 7월에 조직된 독립협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때 독립문 현판석의 '독립문' 글씨를 한자와 한글로 썼다.

1897년 신구법(新舊法)을 절충하기 위해 설치한 교전소(校典所)의 지사원(知事員)과 황해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900년 중추원의장, 1902년 궁내부특진관(宮內部特進官)을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을 민영환 등과 함께 격렬히 반대했으나 좌절되자 1906년 충청도관찰사로 스스로 좌천하였다.

1907년 규장각제학을 역임하였고, 1908년 7월에는 대한협회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친일단체 일진회를 성토하였다.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뒤 수여한 남작(男爵)의 작위를 받았다가 즉시 반납하고, 비밀결사인 대동단(大同團)의 총재 및 고문으로 추대되어 상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였다.

1920년 3월에는 대동단 총재의 명의로 포고문·통고문을 배포했으며, 대동단의 박용만(朴容萬)·나창현(羅昌憲)·손영직(孫永稷)·고광원(高光元) 등과 공동명의로 각금권고문(鑿金勸告文)을 발표하였다. 그 뒤 단원들이 붙잡혀 대동단이 해체된 뒤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한학과 서예로도 유명하였다.⁷⁶⁾

7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문(拱海館, 2017. 10. 16.)



공해관(拱海館) 현판(2017. 10. 16.)

김가진의 아들은 김의한(金毅漢)인데 아버지와 함께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였고, 1948년에는 남북회담에 나선 김구선생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며느리 정정화(鄭靖和)도 상해에서 임시정부요원으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③ 군뢰청(軍牢廳)

군뢰(軍牢)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군인을 일컫는 말이므로, 죄인을 다루던 군인이 근무하던 건물이다. 1872년에 그려진 보령부지도와 『오천군지』에 그려져 있다. 사령청과 매죽당 사이에 별도 건물로 그려져 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중범자는 군뢰청에 가두었다.

④ 병고(兵庫)

병기(兵器)를 보관하던 창고로 『여지도서』 이후 『오천군지』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 6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872년의 보령부 지도에 객사인 공해관 앞, 서쪽에 위치하여 객사와 담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5) 동헌(東軒) 영역

영보정 남쪽, 충청수영 영사(營舍) 중심지 동쪽 부분이다. 수군절도사가 근무하던 동헌(運籌軒)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었다.

① 동헌(東軒)

수군절도사가 공사를 처리하던 건물인데 영보정 남쪽, 영사의 중심에 객사와 나란히 별도의 담장을 가지고 있었다. 『여지도서』에는 5칸, 『호서읍지』에는 10칸으로 기재되어 있다. 건물의 명칭은 운주헌(運籌軒)이었고, 앞에 내삼문(內三門), 외삼문(外三門)이 있었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는 동헌(東軒), 1872년의 보령부지도와 『오천군지』에는 운주헌(運籌軒)으로 표기되어 있다. 운주헌 뒤에는 담장으로 둘러진 내아(內衙) 건물이 있었다.

『오천군지』에는 ‘수령(守令)·변장(邊將)과 일반인민(一般人民)의 삼문(三門)출입 제한과 기타상황’이라고 특별히 기록하여 수군절도사가 집무 보던 동헌을 출입하는데 따른 관행을 소개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守令 邊將 及 一般人民이 三門出入制限及 其他狀況

- 守令及 邊將는 東夾門 出入하고 人民及部下職員中 虞侯, 裨將 除한 外에 其他 役員은 西夾門出入함.
- 守令及 邊將가 水使 現謁時에 拜禮를 行하고 水使는 舉手答揖하고 虞侯 裨將은 公事房 越門에 拱手整立
- 守令 邊將이 現謁時에 預히 內三門 敬粹廳에 現謁狀을 提呈하여 受許題入謁함.

但 水使가 公禮를 施行치 않는 時는 後面 夾門으로 入謁 함.

위 내용에 의하면 수군절도사는 삼문으로 출입하지만, 수령과 변장, 우

후·비장은 동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출입하고, 일반 백성이나 부하직원들은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출입하였다.

수령이나 변장이 수군절도사를 알현할 때에는 배례(拜禮)를 행하고, 수군절도사는 거수하여 읍하고, 우후나 비장은 공사방에 들어서서 두 손을 맞잡아 공경의 자세로 바로 섰다.

수령이나 변장은 수군절도사를 알현할 때, 내삼문 경졸청(敬猝廳)에 현알장(現謁狀)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알현하였다.

동헌에 들어와 수군절도사를 만나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동헌은 1901년 3월 6일 보령군수에 의해 훼손되었다.

② 경졸청(敬猝廳)

『오천군지』에 그려진 건물이다. 동헌(운주헌) 삼문 동쪽에 붙어 있었다. 『오천군지』의 내용 중에 ‘守令 邊將이 現謁時에 預히 內三門 敬猝廳에 現謁狀을 提呈하여 受許題入謁함. 但 水使가 公禮를 施行치 않는 時는 後面 夾門으로 入謁 함.’ 이라고 하여 수령이나 변장(邊將)이 수군절도사를 알현(謁見)할 때, 경졸청에 현알장을 제출하여 허락을 받고 알현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경졸청은 수군절도사 집무실의 출입사무를 담당하던 곳이다.

③ 공궤(供饋)

『오천군지』에 기록된 건물이다. 동헌인 운주헌 앞, 동쪽에 있었다. 공궤(供饋)가 윗사람에게 음식을 드리는 것을 말하므로, 수군절도사의 음식을 마련하는 곳이다.

④ 관노비청(官奴婢廳)

충청수영에 소속된 노비들이 근무하던 곳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12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의 지도에 동헌과 중영 사이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노청(奴廳)이라고 하여, 같은

위치에 그려져 있고, 『오천군지』에는 관청(官廳) 근처에 영노비청(營奴婢廳)이 그려져 있다. 모두 같은 위치이므로 관노비청, 노청, 영노비청이 모두 같은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1703년(숙종 29) 수사 남윤(南胤)이 6칸을 건립하였다.

『오천군지』에 ‘영노(營奴) 10명, 통인(通引)의 발포구령(發布口令)을 응답하고 수군절도사 출입시에 배위(陪衛) 함. 비자(婢子) 8명, 수군절도사와 군관의 의복 세답(衣服洗踏)⁷⁷⁾ 및 주무(廚務)에 복종(服從) 함. 이라고 하여 총 18명의 노비가 수군절도사의 시중, 부엌일, 세탁을 하며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생(妓生) 15명, 공사연회(公私宴會)에 가무(歌舞)와 수사(水使) 근시(近侍) 함.’ 이라고 하여 15명의 기생이 수군절도사를 모시며 수영의 각종 연회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관덕루(觀德樓)

『여지도서』·『호서읍지』·1872년 『보령부지도』 등에 보이는 6칸의 건물이다. 동헌과 객사 앞쪽에 있었다. 건물의 이름으로 보아 정자인 것으로 보인다.

⑥ 교사청(教師廳)

『호서읍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위치나 기능은 알 수 없다.

⑦ 남루(南樓)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나와 있는 건물이다. 『여지도서』에는 운주현(運籌軒)과 동헌 건물 앞에 있는 문루로 그려져 있고, 『호서읍지』에는 전청(殿廳)과 운주현 사이에 그려져 있다. 내용에 3칸의 건물로 나와 있으므로 충청수영의 중심 건물 앞에 있던 문루로 생각된다.

77) 상전의 빨래

⑧ 남통문(南通門)

『오천군지』에 그려진 문이다. 운주현 앞, 경졸청(敬猝廳) 북쪽에 있다. 운주현의 정문인 삼문이 있고, 남쪽에 통문(通門)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⑨ 내동헌(內東軒)

『오천군지』에 그려져 있는 건물이다. 내아(內衙)와 같은 위치로, 수군절도사의 사적(私的)인 공간인 내아를 다른 이름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⑩ 내삼문(內三門)

동헌인 운주현 앞에 있던 삼문이다. 객사인 공해관 앞에는 삼문이라고 기재되고, 운주현 앞에는 내삼문과 외삼문이 있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⑪ 내아(內衙)

내아는 지방 관아의 안채로 1872년에 그려진 보령부지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수군절도사가 사용하던 사적인 공간이다. 보령부지도에는 중영에도 내아가 그려져 있어, 수군절도사와 우후는 각각 사적인 공간인 내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⑫ 본읍보령형리청(本邑保寧刑吏廳)

『오천군지』에 기록된 건물이다. 운주현의 공궤(供饋) 동쪽, 중영(中營) 앞에 그려져 있다.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는 보령현의 현감을 겸직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였다. 충청수영이 폐영되기 전에도 1871년 이규안(李珪顔) 수군절도사부터 보령현감을 겸직하였다.

수군절도사가 보령현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보령현의 형률에 관한 사무를 보던 아전이 충청수영에 나와서 사무를 보았고, 그 청사가 본읍보령형리청(本邑保寧刑吏廳)인 것이다.

⑬ 사령청(使令廳)

사령(使令)은 관아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이다. 충청수영에는 30명의 사령이 있어 영노(營奴)의 발포구령(發布口令)을 응답(應答)하고 수군절도사가 출입할 때 앞뒤에 따라가고, 기타 잡역(雜役)에 종사하였다.

사령청은 『여지도서』에 11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객사인 공해관 앞, 『오천군지』에는 동헌인 운주헌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⑭ 수청간(守廳間)

『오천군지』에 운주헌 삼문 서쪽에 붙여 그려져 있다. 수군절도사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이 거주한 공간으로 보인다. 수청간(守廳間)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위쪽에 있는 흡창방(吸唱房)과 한 건물을 나누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⑮ 아사(衙舍)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의 내용에 15칸으로 나와 있는 건물이다. 아사(衙舍)가 관청 건물을 뜻하므로 당시 동헌과 전패를 보관하던 운주헌(運籌軒)을 합하여 사용한 건물명으로 생각된다.

⑯ 외삼문(外三門)

동헌인 운주헌 앞, 내삼문 밖에 있던 삼문이다. 『오천군지』에 ‘閉門樓 外三門’라고 쓰여있고, 내용 중에 자정(子正)에 개문(開門)하고 술정(戌正)에 폐문(閉門)할 때에 군악(軍樂)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자정과 술정에 개문·폐문하던 문으로 보인다.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 훼손 때 보존되었다. 오천초등학교 옛 후문과 오천면사무소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장초석(長礎石)은 외삼문의 장초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오천초등학교의 연혁지에 ‘1927년 5월 원수사영시대(元水使營時代)



오천초 후문 기둥(2017. 10. 16.)



오천면사무소 정문으로 사용하던 기둥(2007. 9. 29.)

건물에 사용된 석주(石柱)를 이용하여 교문주(敎門柱)를 입(立)하였다.(公費 8円)'라고 기록되어 1927년 이전에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⑰ 인화문(寅和門)

1872년 보령부지도에 나와 있는 동헌(운주헌)의 동쪽에 있는 문이다. 『오천군지』에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은 동협문(東夾門)을 출입하고, 우후(虞侯)·비장(裨將)을 제외한 부하와 일반인은 서협문(西夾門)을 출입한다는 기록이 있어, 수령·변장·우후·비장이 출입하던 동협문(東夾門)으로 보인다.

⑱ 작청(作廳)

작청은 군아(軍衙)에서 아전이 일을 보는 곳이다. 충청수영에는 진흥청 남쪽에 큰 작청과 중영영역 안에 작은 작청이 있었다. 진흥청 남쪽의 작청은 동헌에 속한 아전들이 일을 보던 곳으로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큰 건물로 그려져 있고, 주변에는 담장과 건물로 된 문이 있었다. 폐영 직전의 『오천군지』에는 작청은 없고 같은 위치에 소중청(所中廳)이 그려져 있어 같은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오천군지』에 나와 있는 영리(營吏)의 명칭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任名	員數	職務 概要	備考
吏房	1	道內官吏進退及 褒貶에 關한 書類와 部下營吏를 監督함.	
工房	1	土木事及 器具農造에 關한 事務를 掌함	
承發	1	廳內 諸般物品을 掌함.	
監嘗	1	水使朝夕供饋에 監嘗	
軍器吏	1	軍器에 關한 文簿를 掌함	
軍餉吏	1	軍餉米 雜量에 關한 事務를 掌함	

其他吏員은 吏房이 便宜上으로 增減함.

⑱ 종각(鐘閣)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만 7칸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물이다. 운주현의 삼문 앞에 그려져 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와 『오천군지』에는 그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간에 없어진 건물로 보인다.

⑳ 집사청(執事廳)

충청수영의 잡다한 사무를 맡아보던 집사들이 사용하던 건물이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만 보이고 있다. 위치는 동헌인 운주현과 관덕루 사이이다.

㉑ 통인청(通引廳)

1872년의 보령부지도와 『오천군지』에 보이는 건물이다. 운주현의 서쪽, 공해관 동쪽에 있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충청수영의 통인은 15명이었고, 직무는 ‘公文上 印章 押捺及 印章 收藏 또는 水使諸般命令及口令을 發布함’이라고 되어 있어 공문에 수군절도사 인장을 찍고, 인장을 보관하고, 수군절도사의 명령과 구령을 발포하는 일을 하였다.

㉔ 혈청(歇廳)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2칸의 건물로 기재되어 있고, 『여지도서』에 동헌 앞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기실같이 사용된 건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㉕ 황명유격장군계공비각(皇明遊擊將軍季公碑閣)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보이는 건물이다. 외삼문과 비장청 앞에 그려져 있는데, 건물 이름 밑에 ‘壬辰倭變請兵皇明遊擊將軍姓季諱金 中軍官王啓予 碑銘豎立於營官舍 南底矣 崇禎再己巳 水使趙東晉移設 於觀德樓下 古建閣○’이라고 쓰여있어, 영조 25년(1749) 수군절도사 조동진(趙東晉)⁷⁸⁾이 유격장군 계공청덕비(遊擊將軍季公淸德)를 영관사(營官舍) 아래에서 관덕루(觀德樓) 아래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위치가 관덕루 아래에 해당하므로 1749년에 옮겨진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석을 기준으로 옛 영사(營舍) 건물들의 위치를 비정할 수 있다고 본다.

주민들에 의하면 일제강점기까지 작은 비각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정초에 제를 지냈다고 한다. 제물은 반드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범벅’을 올렸다고 전한다. 비각은 없어졌지만 1970년대까지도 주민들이 제를 지냈다고 한다.

대리석으로 된 비석이지만 오랫동안 비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비문 내용은 「충청수영의 옛 비석」 편 참조)

㉖ 흡창방(吸唱房)

동헌인 운주헌 앞에 있던 건물이다. 『여지도서』나 『호서읍지』에는 기록되지 않고, 1872년의 보령부지도와 『오천군지』에 기록되어 있다. 흡창(吸唱)은

78) 조동진은 1748년 8월에 부임하여 1749년 8월에 이임한다.

수군절도사 밑에서 심부름하는 하인을 말하므로 수군절도사를 돕는 하인들이 사용하던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6) 진휼청(賑恤廳) 영역

충청수영의 서북쪽, 서문 북쪽 지역이다. 현재도 옛 건물이 남아있어 진휼청이라고 이름하였다.

① 진휼청(賑恤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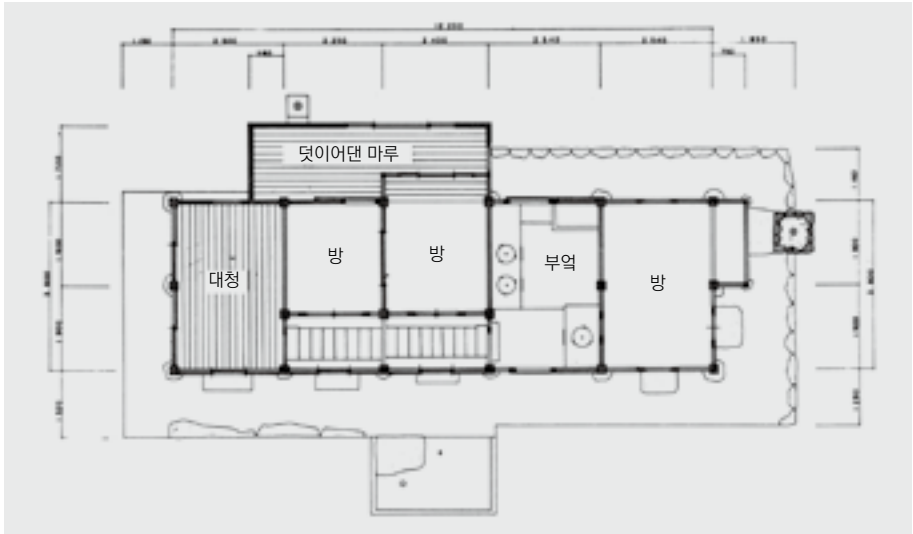
『오천군지』에 나와 있는 흥년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청 건물이다. 『여지도서』나 『호서읍지』 등에는 진휼고(賑恤庫)만 있고, 진휼청은 없다.

충청수영의 서문을 들어서서 성벽을 따라 영보정 쪽으로 30m쯤 오르면 진휼청에 이른다. 건물의 평면은 전면 5칸, 측면 2칸의 긴 장방형 건물이다. 서쪽에서부터 장마루 깔린 대청과 방2칸, 부엌, 방으로 전면 5칸을 구성했다. 건평은 14.5평이다. 작은 자연석 주초(柱礎)에 6~6.6치의 각기둥을 세운 홑처마 팔작 기와지붕이다.



진휼청(2007. 12. 6.)

이 건물이 진휼청이라는 기록은 없는데, 각종 지도에 기록된 진휼청, 진휼고 등이 이곳에 해당되어 진휼청이라고 명명하였다. 민간인이 거주할 당시 마당에는 문초석 등으로 보이는 가공된 돌들이 놓여있어 마당에도 충



〈그림 31〉 진흥청 평면도



진흥청 마당에 있던 석재들(1995)



진흥청 상량문(光緒 2년, 1876)

청수영의 건물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간인이 거주하다가 1994년 보령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매입 보수하여 보존하고 있다. 상량문에 ‘光緒二年丙子四月二十七日午時上樑’ 이라 하여 1876년 4월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은 ‘충청수영 진흥청’이라는 이름으로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 412호로 지정되어 있다.

② 소중청(所中廳)

『오천군지』에만 그려져 있는 관청이다. 진흥고와 사공청 사이에 그려져 있다. 관청의 역할은 알 수 없다.

③ 진무청(鎭撫廳)

진무청은 『여지도서』·『호서읍지』·『오천군지』 등에 9칸으로 그려져 있는데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는 서문 북쪽, 현재의 진흥청 근처에 위치하였고, 『오천군지』에는 객사 앞에 위치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진흥청이 생기면서 위치의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진무(鎭撫)는 조선 초기 여러 군영에 두었던 군사실무 담당 관직으로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진무(鎭撫)가 근무하던 관청으로 보인다.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 훼손 때 보존되었다.

④ 진흥고(賑恤庫)

『여지도서』에서부터 『오천군지』까지 일관되게 기록된 6~9칸의 건물이다. 『여지도서』와 1872년 『보령부지도』에는 운주현 서쪽, 서문 북쪽으로 현재 진흥청이 있는 곳 근처로 그려져 있다. 흉년에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든 창고이다.

『오천군지』에 1738년(영조 14) 정수송(鄭壽松)이 신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 장교청(將校廳) 영역

충청수영 중심 건물인 객사·동헌의 남쪽에 위치한 영역이다. 관덕정 앞

언덕 아래에서부터 호지(湖池) 사이에 위치했다.

① 장교청(將校廳)

충청수영의 장교(將校)가 직무를 수행하던 곳인데, 『여지도서』에서부터 『오천군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었다. 26칸으로 기록되어 충청수영 안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장청(將廳)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1년 3월 6일 충청수영의 주요 건물들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고, 1901년 4월 18일 오천군이 설치되면서 오천군청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14년부터는 오천군이 폐지되어 오천공립보통학교 교사(校舍)로 이용되었다. 현재의 위치는 오천초등학교 교사(校舍)의 서쪽 부분이다.

오천초등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옛 졸업사진에 사진으로 남아있다. 사진에 의하면 ㄱ자형 건물로 앞에 삼문이 있었으며, 검소루(劍簫樓), 삼산당(三山堂)이라는 큰 현판이 붙어 있었다. 현판은 원래 있던 현판인지, 주요 영사 건물이 훼손될 때 옮겨 붙였는지 알 수 없다.

『오천군지』에 충청수영의 장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무사(武事)를 담당하고



1910년대 장교청(좌), 객사(우)



학교로 사용된 시기의 장교청 건물과 현판 -
劍簫樓, 三山堂(1922년 사진)

부하를 감독하는 행수집사(行首執事) 1명, 경계 업무를 담당하던 어변군관(禦邊軍官) 1명, 서무를 담당하던 지교관(知教官) 2명, 영내(營內) 순라 및 성문의 개폐 사무를 담당하던 기패관(旗牌官) 2명이 있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매년 10월 선무도시장(選武都試場)을 장교청에 설치하고, 주수(舟帥) 음방(邑方) 사거자(射學者)에게 시험을 쳐 1명을 선발, 병조에 보고하여 홍패(紅牌)와 교지(教旨)를 받게 하였다. 즉 매년 10월 과거에 준하는 시험을 본 장소이다.

② 기수청(旗手廳)

기수(旗手)는 군대에서 행사할 때 앞에서 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나 기를 들고 신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기수는 38명이었고, 임무로 수군절도사 신영시(新迎時)와 춘추 취점시(聚點時) 기를 들고 파열(播列)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수청은 『호서읍지』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2칸이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위치는 사공청(沙工廳) 남쪽, 어변군청(禦邊軍廳) 서쪽이다. 1901년 3월 6일 주요건물들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다.

③ 난후청(欄後廳)

난후군(欄後軍)은 1872년(고종 9) 각도의 광대(廣大)들을 뽑아 편성한 포병이다. 따라서 포병들이 사용하던 건물로 보인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보이는데 토병청 동쪽에 있었다.

④ 대변군관청(待變軍官廳)

대변군관(待變軍官)은 조선 후기에, 변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각 지방의 군정(軍丁) 가운데에서 임명하여 둔 군관이다. 『여지도서』에 대변군관청이 7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⑤ 비장청(裨將廳)

비장(裨將)은 수군절도사를 수행하면서 일을 돕던 무관이다. 비장청은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9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천군지』에는 군무사(軍務事) 일체를 맡는 병방(兵房) 1명, 수군절도사의 가사(家事) 및 공궤(供饋)에 관한 일을 맡는 예방(禮房) 1명, 영내(營內)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맡는 회계 1명, 토목에 관한 사무를 맡는 공방(工房) 1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의하면 동현인 운주현 앞에 있었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건물이었다.

⑥ 사공청(沙工廳)

『오천군지』에만 보이는 충청수영의 영사이다. 수군 중에서 노를 젓는 사공들이 거주하던 건물인데,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들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다가, 1908년 오천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립 광신학교(光新學校)가 들어서고, 이어 오천공립보통학교로 바뀌었다가 1914년 오천군이 폐지되고 오천면이 생기면서 오천면사무소가 들어서게 되는 건물이다. 사공청의 위치는 현재 오천면사무소 자리이다.

⑦ 어변군관청(禦邊軍官廳)

『오천군지』에 변경사무(邊警事務)를 담당하던 군관을 어변군관(禦邊軍官)이라고 하고 1명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변경사무는 적이 국경을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업무이므로 경계업무를 수행하던 관청으로 보인다. 『호서읍지』에는 어변군관청 11칸,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어변청(禦邊廳), 『오천군지』에는 어변군청(禦邊軍廳)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치는 장교청의 서쪽이다.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던 건물이다.

⑧ 토병청(土兵廳)

토병(土兵)은 그 지방에서 모집한 군대이다. 충청수영의 토병청은 『여지도

서』·『호서읍지』에 11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위치는 장교청의 서쪽이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까지는 기록되어 있으나 『오천군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⑨ 포수청(砲手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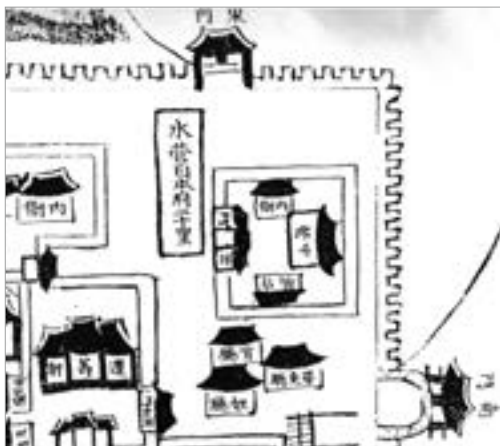
포수들이 거처하던 건물이다. 『호서읍지』에 4칸으로 기록되었는데 지도에는 그려져 있지 않다.

(8) 중영(中營) 영역

중영은 우후(虞侯)가 근무하던 충청수영의 주요 관청으로 주변에 여러 영사(營舍)가 있었다. 위치는 동헌인 운주헌의 동쪽이다.

① 중영(中營)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는 우후아사(虞侯衙舍) 28칸으로 기록되고, 지도에는 중영으로 그려져 있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담장과 함께 삼문이 있고, 안에 중영과 내아, 작청이 그려져 있어 상당히 규모가 큰 중심 건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32> 중영 영역(1872년, 보령부지도)

중영에 근무하던 우후는 정4품으로 수군절도사를 보좌하고, 수군절도사가 업무를 보지 못할

때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충청수영의 2인자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바람이 센 동절기에는 영내에 근무하였고, 바람이 약한 하절기에는 원산도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② 중영내아(中營內衙)

내아는 지방 관아의 안채로 사적인 공간이다. 중영에 속한 내아는 중영과 한 담장 안에 있었다. 1872년에 그려진 보령부지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운주현의 내아는 별도의 담장 안에 있고, 중영의 내아는 중영과 한 담장 안에 있었다.

③ 중영사령청(中營使令廳)

사령(使令)은 관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므로 우후에 소속되어 심부름하던 관청이다.

④ 중영삼문(中營三門)

중영 앞에 있는 문이다. 충청수영의 여러 삼문 중 하나로 1972년의 보령부 지도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⑤ 중영이청(中營吏廳)

『오천군지』의 중영 아래에 그려져 있는 건물이다. 중영에 속한 아전들이 근무하던 곳으로 보인다.

⑥ 중영작청(中營作廳)

작청은 군아(軍衙)에서 아전이 일을 보는 곳이다. 충청수영에는 진흥청 남쪽에 큰 작청과 중영영역 안에 작은 작청이 있었다. 중영영역에 있는 작은 작청은 우후에 소속된 아전들이 일을 보던 곳이다. 중영 앞쪽에 내아와 마주보고 있었다.

⑦ 공고(工庫)

충청수영의 용구(用具) 또는 자재를 보관하고 무기를 만들던 곳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4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치는 관청과 동헌 사이이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⑧ 양무고(養武庫)

장고의 급료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으로, 『여지도서』에는 6칸으로 기록되고 중영 북쪽의 북문 근처에 그려져 있다. 『호서읍지』에는 무너져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에는 다른 창고에서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천군지』에 1734년(영조 10)에 이의익(李義翼)이 창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⑨ 영리청(營吏廳)

충청수영의 아전들이 근무하던 관아이다. 『여지도서』 이후 여러 문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는 10칸, 『호서읍지』에는 11칸으로 기재되었는데, 여지도서에는 서문 북쪽, 진흥고 서쪽 성벽 옆에 위치하고, 『호서읍지』에는 전청(殿廳) 뒤쪽,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는 중영 아래에, 『오천군지』에는 중영과 운주헌 사이에 그려져 있다. 몇 번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⑩ 영선고(營繕庫)

군에서 필요한 말 먹이, 연료를 관리하던 곳이다. 『여지도서』에 3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양무고와 북문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호서읍지』에 무너져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⑪ 우후아사(虞侯衙舍)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28칸으로 기재되어 있다. 우후가 근무하던 중영(中營)에 소속된 관아(官衙)를 총칭한 것으로 보인다.

(9) 관청(官廳) 영역

충청수영의 중앙부 남쪽, 연못 북쪽 지역에 위치하던 관청 영역이다. 영역의 중심건물은 관청(官廳)이다.

① 관청(官廳)

관아의 물품을 공급하고, 수군절도사와 그 가족의 식생활 및 공사빈객(公私賓客) 접대와 각종 잔치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곳으로, 관아 중에서 일이 가장 많았던 곳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20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도에는 동헌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주변에는 주요 창고들이 위치하였다.



〈그림 33〉 관청 영역(『오천군지』의 지도)

② 군향고(軍餉庫)

군인들의 식량을 관리하던 곳이다. 『여지도서』에 12칸, 『호서읍지』에 20칸으로 기록되었고,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 비장청 근처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1690년(숙종 16) 우필한(禹弼漢)이 군향고 5칸을 건립하였고, 1718년(숙종 44) 최진한(崔鎭漢)이 동문밖 천동(泉洞)에서 성내로 옮겼다고 한다. 1901년 3월 6일 주요 건물들이 훼손될 때 보존되었다.

③ 예고(禮庫)

진상품을 관리하던 곳이다. 『오천군지』에 관청(官廳) 아래 호고(戶庫) 옆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조정(朝廷)의 제사·연회·조빙(朝聘) 등에 필요한 물품

과 공물 등을 수납하여 정기적으로 중앙에 보냈으며, 그 중에서도 충청수영 관내의 특산물인 전복 참게 등은 특별한 진상품이었다. 1833년(순조 33) 이식(李栻) 사포가 개건했다는 기록이 있다.

④ 해현고(解懸庫)

어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보인다. 『여지도서』에 9칸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도에는 비장청과 군향고 사이에 그려져 있다. 『오천군지』에는 1711년(숙종 37) 김수(金洙)가 창설하였다고 기록되었으며, 『호서읍지』에는 무너져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⑤ 호고(戶庫)

충청수영 관내에서 세곡을 거두어들이고, 충청수영 운영에 필요한 재화를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오천군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관청의 아래, 예고 동쪽에 그려져 있다.

(10) 군기(軍器) 화약고(火藥庫) 영역



〈그림 34〉 『여지도서』에 그려진
군기고, 화약고, 독묘, 선소, 육물고

충청수영의 남서쪽 끝, 연못의 남쪽에 위치한 영사(營舍) 영역이다. 주요 영사와 떨어진 곳에 군기고·화약고·독묘가 위치해 있다.

① 군기고(軍器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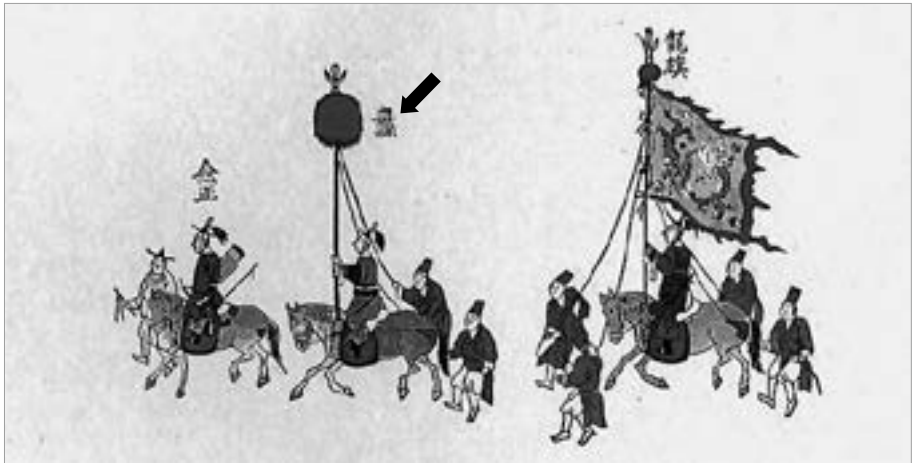
무기 등 전투에 필요한

물건을 관리하던 곳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20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지도서』의 지도에 연못 남쪽, 화약고 북쪽에 위치해 있다. 서소문과 가까운 위치이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1666년(현종 7) 이박(李璞)이 새로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② 독묘(蠶廟)

쇠꼬리나 꿩꼬리로 만든 큰 깃발을 모셔놓고 봄·가을로 제를 올리던 사당이다.

조선시대 모든 지방의 수어관(守禦官)은 모두 관아 청사 뒤에 대를 쌓고 기독묘(旗蠶廟)를 세우고 군아(軍牙)와 여섯 독신(蠶神)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놓고 봄철의 제사는 경칩(驚蟄)날에 지내고, 가을철의 제사는 상강(霜降)날에 지내며, 제물은 양 1마리, 돼지 1마리, 흰색 비단 1필, 축문 1장, 향, 촛불, 술, 과일이었다. 제사가 있기에 앞서 모든 관리는 하루 동안 재계하고,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수어 장관(守禦長官)은 무관복(武官服) 차림으로 삼헌(三獻)의 예를 집행하였다. 만일 군대가 출동할 때에는 독기(蠶旗)를 내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군대가



<그림 35> 정조대왕 화성행행 반차도에 그려진 독기(蠶旗 - 중앙)

돌아왔을 때에는 그대로 묘(廟) 안에 들여 놓았다.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독제를 지낸 것을 기록하고 있고,⁷⁹⁾ 정조 때에는 지방 수어관이 독제의 예법을 어겼다가 파직되기도 했다.

충청수영에는 서소문 안, 호수의 남쪽, 화약고와 군기고 근처에 3칸의 독묘(蠶廟)가 있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1591년(선조 24) 최윤덕(崔允德)이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수영이 폐지된 뒤에도 주민들에 의해 제사를 지내기도 하나, 오천 소성리 마을에서는 제사 지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

③ 화약고(火藥庫)

화약을 관리하던 곳이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3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못의 남쪽, 서소문 옆에 군기고와 이웃하여 그려져 있는데, 화약이 위험하기 때문에 중요 건물과 떨어진 곳에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11) 선소(船所) 영역

서소문 밖에 있던 영사(營舍)이다. 충청수영성의 남벽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고, 갯골이 형성되었던 곳으로 배가 정박하기 좋은 위치이다. 선소(船所), 짐물고(什物庫), 즐고(涉庫) 등이 있었다.

① 선소(船所)

배를 만들거나 수리하던 곳이다. 충청수영 내부의 물이 수문을 통하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갯벌에 갯골이 생겼고, 이곳을 통하여 쉽게 배가 출입할

79) 『난중일기』, 계사년.

선조 26년(1593) 2월 5일 :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가 늦게야 개다. 경칩날이라 독제를 지냈다.



〈그림 36〉 선소 영역(지승 - 19세기 후반)

수도 있던 곳이다. 충청수영성의 남서쪽 끝, 서소문 밖이다.

② 대변루(待變樓)

지승지도에 나와 있는 건물이다. 육물고 동북쪽에 그려져 있다. 현재 오천 시내에서 영보리 밤까시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 동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있었으나, 오천 시가지를 매립하기 위해 흙을 파내어 낮아졌다고 한다.

충청수영으로 접근하는 외적을 감시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감시초소와 정자의 역할을 했던 건물로 보인다.

③ 육물고(六物庫)

『여지도서』의 지도에 선소 서쪽에 그려져 있다. 집물고(什物庫)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1872년의 보령부지도에도 육물고로 표기되어 있다.

④ 즐고(悤庫)

배에 사용하는 줄을 관리하던 곳이다. 1872년 보령부지도에 선소 안쪽으로 그려져 있다.

⑤ 짐물고(什物庫)

일상용품을 관리하던 곳이다. 선소 서쪽, 배가 접안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였다. 『여지도서』와 『호서읍지』에 15칸으로 기록되었는데, 『여지도서』의 지도에는 선소 서쪽에 짐물고가 없고, 육물고가 그려져 있어 육물고과 짐물고가 같은 건물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위치는 오천 시내에서 영보리 밤까시마을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북쪽으로 보인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1709년(숙종 35) 백시구(白時壽)가 기와집 10칸으로 건립하였다.

(12) 한산사(寒山寺) 영역

충청수영의 북쪽, 바다 건너에 있던 충청수영과 관련 있던 건물들이다. 한산사(寒山寺), 황학루(黃鶴樓), 대주원(待舟院) 등의 건물이 있었다.

한산사터에 관하여 천북면 학성리나 오천면 소성리 주민들은 192쪽 사진의 A지역으로 말하고 있다. A지역에는 현재 평탄지가 있고, 신하대가 자라고 있어 옛 건물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A지역이 한산사터라면 그 서쪽에 황학루터가 있어야 하는데, 찾을 수 없다. 그리고 B지역에는 절이 위치할 수 있는 평탄지가 있지만, 석축이나 주춧돌은 확인할 수 없다.

A지역의 해안에는 1960년대 말까지 1가구가 거주하였고, 근처의 꽤 넓은 지역을 개간하여 경작하였다. 샘도 있었다고 한다.

한산사와 황학루 자리는 첫째 A지역이 황학루 B지역이 한산사, 둘째 A지역 남쪽 부분이 황학루 북쪽 부분이 한산사로 생각할 수 있다. 정밀한 지표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C지역이 대주원터인 것은 확실하다.



〈그림 37〉 황학루와 한산사 - 1842년(하백원, 1781~1844)



〈그림 38〉 『여지도서』의 한산사 영역



한산사 영역(A : 평탄지, B : 평탄지, C : 대주원지)



A지역의 경작 상황(1967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① 한산사(寒山寺)

충청수영의 북서쪽, 바다 건너 산에 있던 절이다. 조선지리지(1911년)에 ‘한산사는 본래 황학루의 좌측 가까운 곳에 있었다. 과거 수군절도영 시절에 적이 쳐들어 올 때 신호를 맡은 절이었는데,



중국 소주의 한산사

지금도 없어졌다’⁸⁰⁾고 기록되어 일반적인 절이 아닌, 충청수영의 전방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시하는 초소와 같은 역할을 한 절이었다. 승려에 대한 급료도 충청수영에서 지급했는데, 『충청수영사례집』에 ‘塘報僧一四兩五錢’ 이라고 기록되어 1명의 당보승(塘報僧)⁸¹⁾에게 급료로 4냥5전을 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병선장(兵船將)에게 지급한 3냥과 비교할 때 상당히 많은 액수이다.

절의 이름 ‘한산사(寒山寺)’는 중국 강남의 소주에 있는 한산사에서 가져왔다. 옛 사람들은 충청수영이 있는 오천을 강남의 소주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여 소주에 있는 명승지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 아마도 당나라 시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라는 시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楓橋夜泊

月落烏啼霜滿天

江楓漁火對愁眠

姑蘇城外寒山寺

밤배 풍교에 깃들다

달 지고 까마귀 울고 하늘엔 찬서리 가득하고

강가의 고깃배도 시름속에 잠 못 드네

고소성 밖 한산사의

80) 寒山寺는 本在於黃鶴樓咫尺之地左邊이온마 本邑이 前爲節度營時에 使爲塘報寺矣러니 今無存

81) 당보승(塘報手)가 높은 곳에서 적의 동정을 기(旗)로써 알리는 일

夜半鐘聲到客船 깊은 밤 종소리가 뱃전에 이르는구나.

한산사는 1709년(숙종 35) 4월, 한국유학사에서 유명한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과 외암(巍巖) 이간(李柬) 사이에 호락논쟁(湖洛論爭)이 벌어진 장소이기도 하다.

한산사터⁸²⁾에서는 1982년 5월 26일 천북면 학성리에 거주하는 이완수 님이 삼국시대~고려시대에 제작된 청동제 불상 1구를 발견하여 신고하여 현재 부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불상은 상당히 훼손되었으며 높이 12cm, 무릎넓이 13cm이다.⁸³⁾



한산사터 출토 불상 - 정면(부여박물관 제공)



한산사터 출토 불상 - 측면(부여박물관 제공)

② 황학루(黃鶴樓)

한산사 서쪽에 있던 정자이다. 『여지도서』에는 그려져 있지 않고, 1842년

82) 마을 주민들은 1960년대 밭으로 개간된 평탄지를 한산사터라고 하는데, 이완수 님을 찾을 수 없어 불상을 발굴한 구체적인 장소는 알 수 없다.

83) 불상을 발견한 구체적인 장소는 알아보지 못하였다.

에 그린 하백원의 그림이나, 1871년의 『호서읍지』, 1872년의 보령부지도 등에는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지도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어진 정자인 것으로 보인다. 하백원의 그림에 의하면 충청수영 쪽을 전면으로 하여, 전면 4칸, 측면 3칸 건물이었고 지붕은 기와로 팔작지붕이었다.

1911년에 만들어진 조선지리지자료에는 ‘황학루는 고소성 밖 서북간으로 강 건너 몇 리가량인데, 영보정 고소대와 서로 마주보며 한산사의 오른쪽이다. 누각의 이름은 역시 옛 황학루의 이름을 본받은 것 같다. 반드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⁸⁴⁾라고 하여, 중국의 황학루를 본 딴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중국 호북성(湖北省) 무한(武漢)에 있는 황학루는 강남 3대 명루(名樓) 중의 하나로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군사용으로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아래와 같은 전설도 있다.

중북 호북 무창성 서남쪽에 있는 양자강 가에는 조그마한 술집이 하나 있었다. 이 술집의 주인은 ‘신씨’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마음 씩씩이가 무척 선하고 고왔다. 하루는 이 주점에 한 선비가 찾아와서는 술과 음식을 시켜서 먹었다. 술과 음식을 다 먹은 선비는 자신이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였다. 신씨는 선비를 가엾



중국 무한의 황학루

84) 黃鶴樓는 姑蘇城外西北間越江假量數里許이온바 自永保亭姑蘇臺로 對面相望之地 寒山寺之右이온나 樓名은 亦爲效古黃鶴樓之名이온지 未可必今無함

이 여기어 그냥 돌려보내 주었는데 그 뒤로 이 선비는 매일 신씨의 주점을 찾아와서는 공짜로 술과 음식을 먹고 갔다. 그러나 신씨는 몰염치한 그 선비의 행위에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올 때마다 술과 음식을 내어 주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선비는 그동안의 술 값 대신이라면서 굴껍질을 가지고는 벽에다 노란 색깔의 학을 그려 주었다. 학의 그림을 완성시킨 선비는 앞으로 이 주점에 손님들이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를 때면 이 황학이 춤을 추리라는, 뜻 모를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과연 그 선비가 떠난 뒤로 손님들이 찾아와 술 마시고 노래를 할 때면 그 선비의 말처럼 벽 속의 황학이 노래에 맞추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사방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으며 그 소문으로 인하여 신씨의 주점은 크게 번창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황학을 그려주었던 그 선비가 홀연히 찾아 왔다. 신씨는 크게 반기며 그를 맞이하였다. 그 때 선비는 품속에서 피리를 꺼내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황학은 그 피리 소리에 빨려나오듯이 벽으로부터 빠져 나왔다. 벽에서 나온 황학은 이내 선비를 태우고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선비는 하늘로 오르며 자신의 이름을 '자안'이라 밝혔고 그제서야 신씨는 그 선비가 하늘에서 내려 온 신선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훗날 그 선비가 황학을 타고 올랐던 자리에 누각을 세우니 그곳이 양자강의 명소 중의 하나인 황학루(黃鶴樓)이다.⁸⁵⁾

③ 대주원(待舟院)

충청수영 북쪽(위 192쪽 그림에서 C), 바다 건너에 있는 옛 원(院)이다. 결성현

85) 다음카페 : 탁사랑에서 옮김



나룻개(1991년) - 집이 있는 곳

쪽에서 충청수영을 출입할 때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했기 때문에 원(院)에서 나룻배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지금도 원굴이라는 지명이 살아있으며 ‘나룻개’라고 불리고, 제방을 막기 전까지 나룻배가 운영되었다. 1911년에 만들어진 조선지리지에는 ‘원명(院名)은 소성강 북변 강 언덕에 대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폐지되고, 나룻사공을 시켜 원지기를 삼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⁸⁶⁾라고 하여, 대주원이 폐지되었지만 기능은 유지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오천군지』에 의하면 1738년(영조 14) 정수송(鄭壽松)이 신설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3) 충청수영의 명승

충청수영의 북서쪽 해안은 침식되고 남은 바위가 절벽을 이루어 아름다운

86) 院名은 蘇城江北邊의 岸邊有待舟院이러니 今廢하고 使津夫로 爲院直야 今居함

경관을 이루었고, 선비들은 이곳에 강선암, 고소대 등의 이름을 붙였다. 또한 북동쪽에는 작은 섬 2개가 있어 쌍오도(雙鰲島)라고 이름 붙여 오천(鰲川)의 어원이 되었다.

① 강선암(降仙巖)

충청수영성의 서북쪽 절벽 아래에 있던 바위이다. 1911년에 기록된 조선지리지자료에 ‘강선암은 고소성이라 새긴 바위의 오른쪽 북변에 또 하나의 큰 바위가 있어, 둘에 강선암이라는 3자를 새긴 연유로 이름하였다.’⁸⁷⁾라고 하여 바위에 글씨를 새겼음을 알 수 있다. 선녀(仙女)가 내려와 노는 바위라는 뜻으로, 경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매립되었거나 석재(石材)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고소대(姑蘇臺)

고소대는 각종 지도에 영보정의 서쪽 해안 절벽에 그려져 있어, 해안에서 침식되고 남은 바위임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1911년에 기록한 조선지리지자료에 ‘고소대는 고소성·강선암이라고 새긴 두 돌 위가 평원하여, 이곳에서 옛날 무술을 닦았다는 이야기가 있다.’⁸⁸⁾라고 하여 바위에 고소성(姑蘇城)·강선암(降仙巖)이란 글씨를 새겼



중국 강소성의 고소대

87) 降仙巖은 石刻姑蘇城右北邊의 亦有大岩石하야 石面上的 刻降仙巖三字故로 名함

88) 姑蘇臺는 石刻姑蘇城降仙岩兩石之上的 有地平圓하야 如基址樣而或聞由來之說則此處古有臺樹云함

음을 알 수 있다.

고소대는 춘추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일찍이 월(越)나라를 격파하고 나서 미인 서시(西施)를 얻고는 고소산(姑蘇山) 위에 지은 대(臺)의 이름이다. 오왕은 이곳에서 날마다 서시와 함께 유연(遊宴)만 즐기다가 끝내는 월나라의 침공을 받고 멸망하였다. 중국 강소성(江蘇省) 오현(吳縣)에 있다.

고소성(姑蘇城)은 중국 강소성 소주(蘇州)에 있는 성으로 충청수영성의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중국 강남에 있는 고소성(姑蘇城), 고소대(姑蘇臺), 한산사(寒山寺), 황학루(黃鶴樓), 악양루(岳陽樓) 등을 본떠 이름 붙여, 충청수영의 아름다움을 중국 강남에 비유한 것이다. 고소성은 오천면 소재지인 소성리(蘇城里)의 어원이 되었다.

고소대는 현재 충청수영성의 서북쪽 끝, 절벽 아래로 추정되는데 없어졌다. 시가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석재(石材)로 사용되었거나 매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천군지』에는 姑蘇十景(고소십경)이 전하는데 아래와 같다.

- | | |
|------------|-----------------|
| 安眠雲松(안면운송) | 안면도의 구름같은 소나무 |
| 外烟雨竹(외연우죽) | 외연도의 빗살같은 대나무 숲 |
| 烏岫朝霞(오수조하) | 오서산의 아침노을 |



〈그림 39〉해동지도의 고소대와 쌍오도

鰲島晚帆(오도만범)	쌍오도의 저녁돛대
湧金望月(용금망월)	용금문(서문)의 보름달
海門狐峰(해문호봉)	해문의 여우봉
寒山夕鐘(한산석종)	한산사의 저녁종
凌虛候潮(능허후조)	능허각의 조수물
沿港樓船(연항누선)	항구에 연이은 다락배
姑蘇漁火(고소어화)	고소대의 어화

③ 쌍오도(雙鰲島)

충청수영을 그린 모든 지도에 나오는 작은 2개의 섬이다. 하나는 보령호 제방 동쪽, 노출된 갯벌 안에 남아있고, 하나는 보령호 제방 북쪽 끝에 이어져있는 간척지의 제방에 연결되어 있다. 옛 선비들은 충청수영의 동북쪽 바다에 자라같이 떠 있는 이 작은 2개의 섬을 큰 자라의 등에 얹혀져 있는 산인 오산(鰲山)으로 생각하고 신선이 산다고 생각하여 쌍오도(雙鰲島)라고 이름 붙여 특별하게 생각한 것이다. 오천(鰲川)의 어원이 되었다.



보령호 공사 전의 쌍오도 - 남쪽(1991년)

④ 수조장(水操場)

충청수영 앞 바다로 수군을 훈련하던 곳이다. 훈련은 봄[春操]과 가을[秋操]에 실시하였다. 이곳은 고소대가 있기 때문에 소성강(蘇城江)이라고도 불렀다.⁸⁹⁾

(14) 원산진(元山鎭)

조선 후기에 원산도에는 충청수영의 우후(虞侯)가 하절기에 나가 조운선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여지도서』에는 원산창고가 12칸, 『호서읍지』에는 17칸으로 기록되어 있고, 1872년에 그린 보령부지도에는 아사(衙舍), 창고(倉庫), 삼문(三門) 등 4동의 영사(營舍)가 그려져 있다.

『오천군지』에 1486년(성종 17)에 원산창이 신설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충청수영이 설치된 이후 이른 시기에 원산창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671년(현종 12)에는 정두제(鄭斗齊)가 안면창(安眠倉) 없애고, 원산창으로 이설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림 40〉 원산진의 영사(營舍)

89) 蘇城江은 邑之西北城外有姑蘇臺下有一帶長江하야 自東而西下故로仍以名홍(조선지리지자료)

5) 충청수영의 운영⁹⁰⁾

19세기 충청수영의 수군조직과 급료 지급 현황 그리고 직무 개황을 통해 그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세기 충청수영의 수군 편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忠清水營의 水軍編成(『輿地圖書』, 『湖西邑誌』, 『萬機要覽』)

輿地圖書 (1760년)		湖西邑誌 (1871년)		萬機要覽 (1808년)		輿地圖書		湖西邑誌		萬機要覽	
區分	員數	區分	員數	區分	員數	區分	員數	區分	員數	區分	員數
船將	25	船將	25	待變軍官	170	火砲手	155	火砲手	155	繚手	6
知鼓官	12	知鼓官	12	船將	2	軍牢	18	軍牢	18	碇手	6
旗牌官	155	旗牌官	155	知鼓官	7	羅將	8	羅將	8	舞上	3
教師	33	教師	33	旗牌官	20	巡令手	12	巡令手	12	能櫓軍	424
訓導	31	訓導	31	教師	6	吹手	113	吹手	110	防水軍	3,297 (각음)
火砲教師	31	火砲教師	31	火砲教師	4	鑼手	1	鑼手	1	輪防校卒	290 (각음)
捕盜官	62	捕盜官	62	捕盜官	8	碇手	31	碇手	31	新選	270 (각음)
旗手	417	旗手	417	訓導	4	鼓手	35	鼓手	35		
射手	340	射手	340	射手	90	細樂	3	細樂	3		
新選戶射手	270	新選戶射手	270	砲手	141	隨卒	24	隨卒	24		

90) 민병선, 『19세기 忠清水營의 運營과 機能』, 2012, 중앙대석사논문

輿地圖書 (1760년)		湖西邑誌 (1871년)		萬機要覽 (1808년)		輿地圖書		湖西邑誌		萬機要覽	
新選保	559	新選保	559	標下軍	162	能櫓軍	2,433	能櫓軍	2,434		
砲手	592	砲手	592	舵手	9		5,359		5,357		4,921

『輿地圖書』(1760년)와 『湖西邑誌』(1871년)의 간행시기가 110년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글자 순서와 편성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변화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편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萬機要覽』(1808년)은 왕명을 받들어 찬진한 것으로, 편찬 의도로 볼 때 좀 더 정확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9세기 초기의 책으로써 19세기 후반에 기록된 『忠清水營事例集』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1896년廢營되기 얼마 전의 상황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이는 『忠清水營事例集』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⁹¹⁾

本營水軍 三千二百九十七名內 二百名三秩(鎮撫, 使令, 通引) -
 一百九十二名 城內軍 - 依事目減布
 一名 平薪分籍時啓減

實軍 二千九百四名 各捧錢二兩
 合錢 五千八百八兩
 結錢 三千三百兩(每歲末自巡營區劃各邑)

合捧錢 九千一百八兩

風高六朔⁹²⁾ 入防軍給代 五百四十五兩

風和六朔 入防軍給代 五百四十九兩(中營釣魚軍 三兩, 馬草軍 一兩)

위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수영의 군액(軍額)은 2,904명이며, 이들로부터 봉

91) 『忠清水營事例集』 本營事例條.

92) 風和六朔 : 11, 12, 1, 2, 3, 4월 風高 : 5, 6, 7, 8, 9, 10월

전(捧錢) 2냥(二兩)씩을 받아 모두 5,808兩이고, 결전(結錢)이 3,300兩이므로 합봉전(合捧錢) 9,108兩으로 입방군(入防軍)을 급가대립(給價代立)시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풍고6삭(風高6朔) 동안은 총 급대액이 545兩이고, 풍화시(風和時)에는 중영조어군과 마초군을 더 급대하여 549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절에 따라 급대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다.

급대현황을 자세히 보면 다음 표와 같다.⁹³⁾

忠靑水營 給代現況(『忠靑水營事例集』)

職名	員數 (名)	額 (兩)	職名	員數 (名)	額 (兩)	職名	員數 (名)	額 (兩)
...			누락된 부분					
...								
...								
軍牢	2	6	船直	4	12	及唱	1	3
兵庫子	1	3	首奴都房子	1	3	軍器直	1	3
大廳直	1	3	六物庫直	1	3	公事下紙軍	1半	○
負木軍	3	12	汲水軍	3	12	烽臺直	1	3
東南西門直	3	9	○牌	2	6	都沙工	1	3
軍餉廳直	1	3	菜汗	2	6	釣魚軍	1	3
工庫子北門直	1	3	將廳直	1	3	作廳直	1	3
營廳直	1	3	使令廳直	1	3			
合錢 三百二十一兩								
虞候所屬軍	15	45	龜防船將	2	6	知穀官	2	6
養武監官	1	3	掌務執事	1	3	海門將	1	3
火砲教師	1	3	賑恤監色庫直	3	9	搜討船二隻軍	16	48
弓矢人	2	6	營奴婢	15	45	備局書吏	1	8

93) 『忠靑水營事例集』 本營事例條.

職名	員數 (名)	額 (兩)	職名	員數 (名)	額 (兩)	職名	員數 (名)	額 (兩)
京主人	1	8	京房子	1	3	解縣監	1	3
巡營主人	1	3						
合錢 二百二兩								
行首執事	1	4.5	軍餉色	1	3	待變兵房	1	4
歲抄色	1	3	兵船將	1	3	塘報僧	1	4.5
合錢 二十二兩								
以上給代元數 545兩 風和 549兩								

위 표를 보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 직명(職名)과 급대원수(給代元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풍고육삭(風高六朔)의 급대원액(給代元額)이 545兩이고, 풍화육삭(風和六朔)의 급대원액(給代元額)이 549兩이므로 1년동안의 총급대액(總給代額)은 6,564兩이 된다. 급가(給價)는 대체로 1인당 3~4.5兩인데 비국서리(備局書吏)와 경주인(京主人)에게는 8兩까지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누락된 부분의 정확한 직명(職名)을 알 수는 없지만 표의 중간 부분에 있는 우후소속군(虞候所屬軍) 이하 순영주인(巡營主人)까지 64명의 급대총액이 202兩이므로 단순히 평균하면 1명당 급대액이 3.15兩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행수집사(行首執事) 이하 당보승(塘報僧)까지는 1명당 3.6兩이 지급되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락된 부분도 대략 이와 유사한 급대액(給代額)이라면 545兩에 대해 1명당 3.6兩씩 계산하면 151명이 되고, 3.15兩씩 계산하면 173명이 된다. 여기에 비국서리 1, 경주인 1, 경방자 1, 순영주인 1, 당보승 1명 등은 수영에서 근무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수영에는 대략 146~168명 정도의 인원이 급가(給價)를 지급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갔다고 추산(推算)할 수 있다.

수영의 지휘체계(指揮體系)는 수영내의 직명(職名)과 직원의 직무개황(職務概況)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수사는 직무범위가 넓고 임무가 많았으므로 휘하에 우후(虞候)를 두고 보좌(補佐)하게 하였으며, 여러

비장(裨將)과 장교(將校) 등을 거느리고 수영을 총지휘했다. 수사 이하 직원의 원수(員數)와 직무(職務)를 정리하면 아래 표과 같다.⁹⁴⁾

충청수영(忠淸水營)의 직원(職員) 및 직무개황(職務概況)(『鰲川郡誌』)

職名	員數	職務概況
水使	1	最高 指揮者
虞候	1	水使補佐, 수사가 有故廢務하면 主將을 대신하여 視務함
裨將	兵房	軍務事일체를 맡음
	禮房	수사의 家事 및 供饋에 관한 일을 맡음
	會計	수영의 제반 회계에 관한 일을 맡음
	工房	土木에 관한 일을 맡음
이외에 各員은 수사가 便宜上 增減함		
將校	行首執事	武事を 主務하여 부하을 감독함
	禦邊軍官	邊警事務를 맡음
	知鼓官	軍務에 관한 庶務에 종사함
	旗牌官	매일 晨夕에 영내 巡邏 및 開閉門 사무를 맡음
이외의 장교는 行首執事が 편의상 증감함		
營吏	吏房	道內 관리의 進退와 褒貶에 관한 서류와 부하 營吏를 감독함
	工房	토목에 관한 일과 器具農造에 관한 사무를 맡음
	承發	廳內 제반물품을 맡음
	監嘗	수사의 조식 供饋를 監嘗함
	軍器吏	군기에 관한 文簿를 맡음
	軍餉吏	군향미와 雜糧에 관한 사무를 맡음

94) 『鰲川郡誌』 職員名稱及員數職務條.

職名	員數	職務概況
----	----	------

기타 吏員은 吏房이 편의상으로 증감함

役丁	通引	15	公文上 印章押捺 및 印章收歲 또는 수사의 제반 命令 및 口令을 發佈함
	營奴	10	통인의 발포구령에 응답하고 수사 출입시에 陪衛함
	使令	30	營奴의 발포구령에 응답하고 수사 출입시에 전후배위 또는 기타 雜役に 服從함
	旗手	38	수사 新迎時 및 春秋聚點時에 旗幟播列함

* 裨將 : 監司 · 留守 · 兵使 · 水使들을 따라 다니던 官員의 일종

위의 표를 보면 우후(虞候)와 역정(役丁)이하를 제외하면 수영을 지휘하는 중간급관리로는 비장, 장교, 영리로 구분하여 18명을 두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나 담당부서의 우두머리가 관리를 증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사는 여러 명의 비장(裨將)과 장교(將校)를 거느리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관리들에 대한 요뢰(料賴)지급 방법을 보면 수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수군변전(水軍番錢)과 군항미모곡(軍餉米耗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사가 지급하는 관리들은 수사의 임기와 함께 직무(職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진이(鎭吏)이상은 미(米)와 전(錢)을 함께 지급하고, 통인 · 영노비 · 사령에게는 전(錢)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영의 요뢰(料賴)와 지급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수영청(水營廳) 요뢰년액(料賴年額) 및 지급방법(支給方法)⁹⁵⁾

職名	種類	年額	當時單價(圓)	價額(圓)	支給方法
水軍節度使	米	350石	2,000	700,000	國庫
	金	120圓			水軍番錢中

95) 『鰲川郡誌』 水營廳經營年額及支出方法條.

職名	種類	年額	當時單價(圓)	價額(圓)	支給方法
虞候	米	6石128升	2,000	12,064	水使가支給
	金	57,060원			水軍番錢中
裨將	米	10石136升	2,000	20,068	水使가支給
	金	30,000			水軍番錢中
將校	米	8石120升	2,000	16,060	水使가支給
	金	(누락)			水軍番錢中
營吏	米	12石	2,000	24,000	軍餉米耗中支給
	金	14,040			水軍番錢中
鎭吏	米	12石	2,000	24,000	水使가支給
	金	72			水軍番錢中
通引	金	25,020			〃
營奴婢	金	64,080			〃
使令	金	84,000			〃

6) 충청수영의 옛 비석

(1) 계금(季金) 장군 청덕비(淸德碑)

1598년 4월에 세운 유격장군(遊擊將軍) 계금(季金)의 청덕비이다. 유격장군 계금은 중국 명나라 절강성(浙江省) 태주부(台州府) 출신의 수군장(水軍將)으로 임진왜란(정유재란) 때 3,000여 명의 수군 선발대를 이끌고 강화도에 들어왔다가 충청수영이었던 이곳 오천에 들어와 머물다가 이듬해 전라도로 이동하여 왜군을 토벌하였다.

비문은 장군의 덕(德)을 칭송하고 왜적을 빨리 무찌르기를 기원하였으며, 장군의 위엄을 빌어 바다에서의 안녕을 기도(祈禱)하자는 내용이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수군의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당시의 민속을 엿볼 수 있는 비이다. 비문은 당시 승문원 교리이던 안대진(安大進, 1561~1604년)이 지었고 경상도 의병장이었던 박사제(朴思齊, 1555~?)가 썼다.



계금 장군 청덕비

조선시대 충청수영 내에서 비각이 설치되어 몇 군데 옮겨지면서 보존되다가 최근에는 현재의 위치에 보존되고 있다.

2000년 9월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제159호로 지정되었다.

안대진(安大進, 1561~1604년)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며, 호는 우재(迂齋), 자는 퇴지(退之)이다. 명곡 이산보의 문인이다. 선조 19년(1585) 알성문과에 급제하고 동년에 증시(重試)에 올라 예문관 한림학사에 들어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접반사와 함께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는 등 공을 세워 선무·호성·청난 공신에 오르고, 춘추관 및 홍문관 제학, 세자시강원 좌부빈객 등을 거쳐 44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이조참판과 가선대부에 증직되었다. 그의 묘소는 웅천읍 소황리 서오개에 있다.

박사제(朴思齊, 1555~?)는 조선 중기의 문신·의병장, 본관은 죽산(竹山), 자는 경현(景賢), 호는 매계(梅溪), 경상도 삼가 출신, 이조참의 우(優)의 아들이다. 진사시를 거쳐,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은 승지를 거쳐 형조참



계금장군 후손 오천 방문(2014. 7. 24.)

의에 이르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봉사(奉事) 노흠(盧欽), 생원 권양(權養), 권제(權濟) 등과 의병을 일으켜 삼가의 윤탁(尹鐸)과 함께 곽재우(郭再祐)의 군사와 합류하여 낙동강 좌안지방의 여러 고을 방위와 수복에 힘써

공을 세웠다.

2009년 보령문화연구회에서 중국 절강성 온령시에 거주하는 계금장군의 후손들을 찾아 방문하였고, 2014년 후손들도 계금장군 청덕비를 찾아 오천을 방문하였다.

〈전면〉

欽差統領浙直水兵遊擊將軍季公清德碑

通德郎前判官陪臣朴思齊書

林守榮

督陣旗牌官 周煥張邦達

把總 陳子秀戴起龍

前營千總 丁文麟

把總 楊永龔璣

左營千總 朱守謙

中軍官 王啓予

右營千總 江麟躍

把總 許龍施勝

後營千總 吳惟林

把總 候應連陳國敬

監官保助將軍訓練正 陪臣

〈후면〉

欽惟

聖天子御寓之二十年海寇犯東邊不月已據平壤天子赫然怒若曰朝鮮朕東藩世虔職貢不解朕視之如內服蠢茲倭曷敢侵軼其疆土若無中國者然必急救毋緩於是大發南北兵越明年正月掃平壤四月復王京賊洒震疊犇北喙息於竝海千里之外猶復信然不已屯蜂結蟻假和詐緩遲延五六載天子思益奮調兵船若干艘以截海路特命將軍實爲其帥將軍姓季諱金字長庚別號龍岡浙江台州府松門衛人中隆慶戊辰科武進士歷浙江廣東山東參將統帥浙直水兵三千艄士一皆當百鯨濤萬里天風送便乃以上年仲冬湖面未下碇海颶猝起多船滄沒將軍色不動規本國篙工凍濕者解衣衣之仁之至渥也以至下卒見人藍縷無衣褐輒爲之製套化至神也逮及解纜下營無譁若御枚晝聽襖靄夜警刀斗而已令至肅也要酒饌者銀布有準尺童莫之欺不待阿蒙之斬覆鎧推其廉也男女偪側不相猜貳而罔敢侵犯風誘御以簡也將軍從旱路在南留丁朱兩千總以視餘卒兩千總咸能體將軍意毋動威素行也湖南再經賊駝馱不受遞者盡籍其牛馬齒毛各令討還由是遠近悅服翕然無異辭德施普也將軍既仁而化令以廉簡威與德並濟得三千同德之士其與田家之五百孰爲之多少於以仗皇靈征老寇特在破竹中行見梟秀吉於檣竿落颿前浦重尋舊寨寧不踴與是宜豎石通衢以爲陵 師倡而城中父老皆欲私之曰我獨有將軍惠且西海神最憐舟行過此者禱之假其威以求福不亦可乎是爲銘銘曰氏分魯三季爲徵音 秋陰屬殺 名應西金 太白八月 敵可摧兮 永配諸賢 照後來兮

萬曆戊戌孟夏 日立 奉正大夫戶曹佐郎兼承文院校理陪臣 安大進撰

흠차통령절직수병유격장군계공청덕비

경건히 생각하건대 성천자(聖天子)가 천하(天下)를 다스린 지 스무 해가 되는 해, 해구(海寇)가 동쪽을 침범하고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이미 평양을 점거하였다.

천자가赫然(赫然)히 노(怒)하여 말씀하시기를 조선(朝鮮)은 짐의 동방(東方)의 변방(藩邦)으로 대대로 정성스럽게 직공(職貢)을 게을리 하지 않아 짐의 내복(內服)과 같이 여겼거늘 버리지 같은 왜(倭)가 감히 그 강토(疆土)를 침범하여 중국(中國)이 없는 듯이 여기고 있으니 반드시 급히 구원하여 늦추지 말 것이라 하고 이에 남북의 군사를 크게 발동(發動)시켜 다음해 정월엔 평양(平壤)을 소탕하고 사월엔 서울을 수복하였다.

도적(盜賊)은 이에 깜짝 놀라 도망하여 해외(海外) 천리나 되는 곳에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그래도 다시 오르령 대며 벌떼마냥 둔(屯)치고 개미떼마냥 뭉쳐서 화평(和平)을 가장하고 간사스럽게 늦춰서 5~6년을 끌었다.

천자(天子)가 더욱 분노하여 얼마쯤의 병선을 마련하여 해로(海路)를 끊으라고 특별히 장군에게 명령하니 실로 그 장수(將帥)되는 장군(將軍)의 성은 계(季), 이름은 금(金), 자는 장경(長庚), 별호는 용강(龍岡)으로 절강성(浙江省) 태주부(台州府) 송문위(松門衛) 사람이다.

용경년대(隆慶年代) 무진년(戊辰年) 무과진사(武科進士)로 절강(浙江), 광둥(廣東), 산둥(山東)의 참장(參將)을 역임하고 절강직예수병(浙江直隸水兵)을 통수(統帥)하니 삼천 명의 정예수병들은 모두 일당백(一當百)짜리였다.

파도(波濤)치는 만 리 길을 강풍(強風)부는 속에도 편안히 온 것은 작년 동짓달이었는데 해면(海面)에 미쳐 닻을 내리기 전에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 많은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장군은 얼굴빛을 변치 않고 데리고 온 사공을 살피 얼었거나 젖은 자는 옷을 번갈아 갈아 입혔으니 인자함이 지극히 흠족(洽足)함이었다. 하졸(下卒)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이 남루(襤褸)하거나 옷이 없는 이를 보면 문득 이를 위하여 들썩우는 것을 만들었으니 변화(變化)가 지극히 신묘(神妙)함이었다.

달을 감고 진영(鎭營)을 떠남에 미처서는 재갈을 물린 것처럼 낮에는 노 젓는 소리[襖譟]⁹⁶만 들리고 밤에는 조두(刁斗)로 경계하는 소리만 들릴 뿐이어서 시끄럽지 않았으니 명령은 지극히 엄숙(嚴肅)함이었다. 술이나 음식이 필요할 때 값을 치는 데 돈이나 필묵으로 준가(準價)함이 있어 어린이이라도 속이지 아니하고, 민폐를 끼친 자를 참형에 처한 아몽(阿蒙)의 엄한 군율⁹⁷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으니 그 청렴함을 알만하였다. 남녀들이 서로 가까이 어울려도 서로 시기(猜忌)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감히 풍기(風紀)를 침범하지 아니하였으니 통어(統御)하기를 간결하게 함이었다.

장군이 육로(陸路)를 따라 남으로 가 있고, 정(丁), 주(朱) 두 천총(千總)을 머물게 하여 남은 군졸을 보살피게 하였는데 두 천총이 다 능히 장군의 뜻을 체득하여 동요가 없었으니 위엄(威嚴)이 평소애 행해졌음이다. 호남지방이 다시 난리(亂離)를 겪음에 짐을 날라주고도 태비(駄費)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겐 모두 우마치모(牛馬齒毛)를 문적에 기록하고 각기 따져서 환급(還給)하게 하였으니 이로 연유하여 원근간(遠近間) 열복(悅服)하고 모두 탄 말이 없었으니 덕이 널리 퍼짐이다. 장군은 이미 인자함, 조화(調和)로움, 명령의 엄숙이며 청렴과 간결(簡潔), 위엄(威嚴)과 덕성(德性) 아울러 3천 명의 동덕지사(同德之士)를 지냈으니 <외연도에서 제향(祭享)을 받는데> 전횡장군(田橫將軍)과 그 휘하의 오백동덕지사(五百同德之士)와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적으냐.

이에 황제의 영험으로 늙은 도적을 치는데 특별히 대가 쪼개지듯 하

96)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금호자고(金壺字考)의 자음(字音)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권59), “〈款乃〉 음은 오에(襖譟)인데 노젓는 소리이다.”라고 했다.

97) 아몽(阿蒙)은 여몽(呂蒙)을 말한다. 삼국 시대 오(吳)나라 여몽이 형주(荊州)에서 관우(關羽)의 군대와 싸울 적에 민가에 들어가서 약탈하지 말라고 군령(軍令)을 내렸는데, 군사 하나가 삿갓 하나를 민가에서 가져와 갑옷을 덮자, 군령을 범했다는 이유로 눈물을 흘리며 목을 베니, 군중이 전율(戰慄)하며 길에 떨어진 물건조차도 줍지 않았다는 기록이 《삼국지》 권54 오서(吳書) 여몽(呂蒙)에 보인다.

는 중에 있으니 옛터(성)를 다시 찾아 닳을 내렸던 전의 포구에서 장대에 매달린 수길(秀吉)의 목을 보게 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에 마땅히 비석을 네거리에 세워 능사(陵師)⁹⁸로 여기는데 성중(城中)의 부모(父老)들은 사적으로 말하기를 모두 자기만이 장군의 은혜를 독차지해야 한다 하고 또 서해(西海)의 해신(海神)은 가장 영맹(捰猛)하니 배타고 여기를 지나는 이들이 이에 기도하고 장군의 위엄을 빌어 복을 기구(祈求)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니 이 또한 가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 명(銘)하노니
 성씨는 노(魯)나라의 삼성(三姓)에서 나눠져
 계(季)는 미음(微音)이 되고
 가을은 살기(殺氣)에 속한다는데
 이름은 서쪽 금국(金局)에 속하네
 금성(金星)이 반짝이는 가을달 팔월(八月)엔⁹⁹
 왜적(倭敵)을 가히 무찌르리
 영원(永遠)토록 여러분을 배향(配享)하리니
 두고두고 뒷날을 밝게 비추시라
 <황영주 역, 대보문화 제2집>¹⁰⁰

(2) 김병시(金炳始) 영세불망비

김병시(金炳始, 1832~1898년)는 조선 고종 때의 대신으로 자는 성초(聖初), 호는 용암(蓉庵)이며 1884년 갑신정변 후에 우의정이 되었고, 1895년 특진관으로 단

98) 제(齊) 나라 군사. 제 환공(齊桓公)이 초(楚)를 정벌하고 군대를 소릉(召陵)에다 임시 주둔시켰었음. 《春秋 僖公 四年》

99) 이 부분을 노승석은 '八月'을 '八月'로 보아 '태백성(太白星, 長庚)이 달에 드니'로 해석했다.

100) 황영주의 초역(1992)에서 미비된 부분을 노승석 역(2008)과 고전간행회 자료를 참고로 보완하였음

발령을 극력으로 반대하였으며, 친러파 내각에서 의정대신을 지냈다. 오천군 설립에 조력하였다.

〈전면〉

觀察使金公炳始永世不忘碑
在昔黃馬 錦水洋洋
公又繼續 烈烈其光
恩及貢島 惠布關防
磋我黎庶 奈何敢忘



김병시 비

예부터 황마(黃馬)¹⁰¹⁾가 비단 물결같이 양양(洋洋)¹⁰²⁾ 하도다.

공 또한 이어서 그 빛이 열렬(烈烈)¹⁰³⁾ 하도다.

은공은 공도(貢島)¹⁰⁴⁾까지 미치고 혜택은 관방(關防)¹⁰⁵⁾에 펼쳐졌도다.

아! 우리 백성들이 어찌 감히 잊으리요.

〈후면〉 乙亥四月 日

101) 여기서 馬는 아지랑이로 黃雲과 같은 말, 즉 가을 들판을 말하는 것으로 가을 들판과 같이 풍성하다는 뜻.

102) 넓고 큰 모양

103) 더할 나위없이 강함

104) 공물을 바치는 섬

105) 국경 또는 지역의 방비



김수 비

(3) 김수(金洙) 영세불망비

〈전면〉

水軍節度使金公洙清德善政永世不忘碑
 既勤且儉 不倚不偏
 公用自足 庫有鮮懸
 軍需不渴 兵有貨泉
 入人者深 遺德萬年

이미 부지런했고 또한 검소하며
 권세에 기대지 않고 치우치지 않았다.
 공용에 쓸 것은 자족하고
 창고에 있는 것이 사실과 현격한 것을
 줄였다.

군수품은 마르지 않게 하여
 군사들에게 있어 재화의 샘과 같이 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깊이
 유덕을 느끼므로 만년에 전하리라.

〈후면〉 癸巳三月 日

(4) 군수 김영기(金永基) 영세불망비

〈전면〉

行郡守金公永基永世不忘碑
 一鎮鰲山 陰谷生陽

恩被更蘇 頌騰如傷
 殫竭捐廩 葺補有方
 父兮母兮 永世不忘

하나의 진(鎭)인 오천의 산은
 그늘 골짜기에 햇볕이 들었다.
 은혜 입어 다시 소생하게 되었으니
 상처 입고도 달리는 모습 같도다.
 창고 털어 냈을 다하여
 수리 수보할 방법 있었으니
 부모와 같기에
 영세토록 불망할 일이다.



김영기 비

〈후면〉 乙巳 正月 日

(5) 박계영(朴啓榮) 영세불망비

충청수영 폐영 후 오천군 설립운동
 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공을 세운 서
 기 박계영의 비석이다.

〈전면〉

書記朴啓榮永世不忘碑
 出類異人
 氣宇軒軒
 志在設邑



박계영 비

誠功蒙恩
珠是不夜
丹乃還魂
難忘者功
片石四言

보통 사람보다 남달리 출중하여
기개와 도량이 뛰어났었다.
뜻은 고을을 설치하는 데만 있었기에
성심을 다하여 은혜를 입는 공을 세웠다.
이는 야광주가 밤을 밝히듯,
영단이 죽는 자를 살린 격이다.
공을 이룬자 잊기 어려워

조각돌에 사언시를 새기노라.



박제경 비

〈후면〉 乙巳正月 日

(6) 박제경(朴濟璟) 영세불망비

〈전면〉

行郡守朴公濟璟永世不忘碑
城可空 亭可朽
哀此民 可不顧
僕我侯 來何暮
欲報德 父兮母

성은 가히 비었고 정자는 가히 후락¹⁰⁶⁾했을 때
이 백성들의 슬픔을 가히 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영주는 어찌 늦게야 왔는가.
은덕을 갚고자 하나니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아라.

(7) 박지용(朴之壖) 무휼비

〈전면〉

行水軍節度朴公之壖撫恤軍卒善政碑



박지용 비



신광하 비

106) 씩어 쓰지 못함.

(8) 신광하(申光夏) 무휼비

〈전면〉

水軍節度使申公光夏撫恤士卒清德善政碑

〈후면〉 辛亥七月 日

(9) 신경징(申景澄) 무휼비

〈전면〉

行水軍節度使申景澄撫恤軍卒碑



신경징 비



심상훈 비

(10) 심상훈(沈相薰) 영세불망비

충청수영 폐영 후 백성과 관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 도움을 준 탁지대신 심상훈을 기리는 비석이다. 충청수영 폐영에서 오천군 설치의 과도기 충청수영 역사의 한 단면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심상훈(沈相薰, 1854~?) 조선 말기의 문신.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순가(舜歌). 1882년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를 도움. 1884년 갑신정변 때는 개화당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공헌함. 1896년 아관파천 이후 탁지부대신 역임.

〈전면〉

度支大臣心公相薰永世不忘碑
城以民守 民以食聚
民散城空 惟食之故
食之者誰 度支其賢
賢哉度支 一城之天

성을 백성들이 지키고 백성들은 먹을 수 있어 모여들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성이 비었을 때는 오직 먹을 문제 때문인 연고라.
먹을거리를 준 자가 누구인가. 탁지대신 그 어지신 분이였다.
어질도다. 탁지공이시여. 한 성(城)에 하늘과 같은 분이시다.

〈후면〉

蘇人自廢營以來吏窮民散一城幾墟矣度支大臣沈公聞而歎傷請於朝劃下還米一千石作錢貿土爲守城資又將保洪結三郡所在屯土公稅許付本營監秋因爲定式取其零羨裨補經費盖異數也郡守朴公觀察使李公尤盡心茲事成而城守如故人皆尊安有食有粥往來嬉遊忘其爲廢營也於時吏民相與謀樹石刻三公恩德以無忘于萬世首吏朴啓榮來謁余銘顧余先壟近蘇其爲蘇人用心嘗不後於三公矣余所以

感頌三公又豈與蘇人異哉遂不辭而銘且記焉

丁酉九月日 前承旨 永膺 李僕記

首校 全斗憲

首吏 朴啓榮 李炳顯 金喜寬 崔榮

탁지대신 심공 상훈 영세 불망비

사람들이 두려워 불안해 하니 폐영된 때로부터 이래로 관리들은 곤궁하고 백성들은 흠어져서 한 성(城)이 거의 허성이 되었었다. 탁지대신 심공이 상심하는 탄식을 듣고 조정에 주청할 계획아래 돌아와 쌀 1천석으로 돈을 만들어 땅을 사서 수성(守城)의 자금으로 하고 또 장차 보령 홍성 결성이 보유한 3군에 소재한 둔토에 나라의 세금을 본영의 감리에 부쳐줌을 허락했다. 가을에 인하여 법식을 정하여 그 영락한 고을을 도울 수 있는 경비를 취하게 하니 대개로 특이한 계산이다. 군수 박공과 관찰사 이공은 더욱 이 일로 성의껏 일에 마음을 다했다. 성을 지킴이 이와 같았던 고로 사람들에게 모두 다 편안함을 베풀었고 먹을 수 있게 함으로 왕래하며 즐기고 있으나 그 폐영되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에 관리들이나 백성들은 서로 돌에 새겨 세울 것을 꾀하니 3공의 은덕을 만세까지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석 관리인 박계영이 나에게 새길 일을 구하기에 돌아보면 나의 선산이 계신 곳에 가까운 땅이 소생되게 된 것이고 그 사람들을 소생하게 하는 데 마음 씀에는 일찍이 3공에 뒤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감동한 바 있어 3공을 칭송하나니 또 어찌 소생된 사람들과 다를 수 있으리요. 드디어 사양하지 않고 또 그것을 새기노라.

(11) 유성추(柳星樞) 청덕비

〈전면〉

行水軍節度使柳公星樞清德善政永思碑



유성추 비



유준 비

(12) 유준(柳濬) 청덕비

〈전면〉

水軍節度使柳公濬清德善政碑

志存撫摩 政尚公平

三載施惠 一鎮賴蘇

뜻은 백성 달래 위무하는 데 있었고 정사는 공평함을 숭상했다.
삼년을 시혜하여 하나의 진(鎭)이 소생하는 데 힘입게 했다.

〈후면〉 己酉六月 日

後六十一年己酉春曾孫文植繼叨此不勝愴慕謹移建丹腹

後九年丁巳三月不肖子世復爲洪州營將時丹腹

뒤에 61년이 지난 기유년 봄 증손 문식(文植)은 외람되게 이 자리를 잇게 됨에 사모하는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해 삼가 옮겨 단청하노라.

뒤에 9년이 지난 정사년 3월 불초자 세복(世復)이 홍주 영장이 되었을 때 단청하노라.



윤택정 비

(13) 윤택정(尹宅鼎) 청덕비

〈전면〉

水軍節度使尹公宅鼎清德善政碑

撫摩爲德 湖闌奠枕¹⁰⁷⁾

大旱在天 斯區則餘

不重箠楚 禁令凜凜

欲絕永思 非石何銘

어루만지고 위로하며 호얼(撫摩)¹⁰⁸⁾에서
는 심신을 안정시켰다.

큰 가뭄에 하늘에 있었으나 이 구역은
배불렀도다.

형벌은 무겁지 않게 했고 금령은 늠름

(凜凜)¹⁰⁹⁾히 했도다.

절대로 오래도록 사모코자 하니 돌이 아니고는 어디에 새기랴.

107) 奠枕 : 심신이 안정됨

108) 호랑이의 문지방으로 독서당을 말한다.

109) 용기가 왕성한 모양

〈후면〉

不肖孫範紘繼到六十年後 甲寅秋不勝愴慕謹移建閣

불초손 범서(範紘)가 이어서 60년 후에 이르러 갑인년 가을 사모함에 추창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옮겨 비각을 세우다.

(14) 윤희용(尹喜用) 청덕비

〈전면〉

水軍節度使尹公喜用清德善政碑
十朔闔政 百世不忘
永瀾民瘼 復賑家聲

열 달 머물러 정사 다스렸지만 백세 잊지 못하리로다.

백성의 아픔 길게 덜어주어 다시 집집마다 기쁜 소리 떨칠 것이다.



윤희용 비

〈후면〉 庚寅四月 日

(15) 원숙(元勳) 청덕비

〈전면〉

行水軍節度使元公勳清德善政



원숙 비



이건하 비

(16) 이건하(李乾夏) 영세불망비

〈전면〉

觀察使李公乾夏永世不忘碑

乙亥 四月 日

繫我觀察兮

無城有城衆心結兮

非佛是佛千家活兮

觀察之一兮

萬口一說

아! 우리 관찰사여!

성에 있건 성에 없건 대중의 마음을 결집했음이어!
 도왔던 돕지 못했던 천가(千家)를 살려냄이어!
 관찰사의 어짐이어!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말한다.

(17) 이봉구(李鳳九) 거사비(去思碑)

이봉구는 본관이 우봉으로 사학자 이병도(李丙燾)의 부친이다. 그의 장자 이병목이 오천군수 재임시절에 세웠다. 원래는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철로변에 있었다.

〈전면〉

水軍節度使兼都護府使李公鳳九去思碑
 適丁撓攘
 在公關防
 柔以制強
 關以治平
 捐廩補弊
 衛正斥邪
 功成列郡
 恩救衆民
 范公鎮蜀
 相¹¹⁰平蔡



이봉구 비

110) 배상(裴相) : 당 헌종(唐憲宗) 때의 명상(名相) 배도(裴度)를 가리킨다.

立石頌德
去而益詠
辛丑二月日

마침 소란을 당하여 물리치고
공무에 있어, 관내를 방어했으며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제하고
관대함으로 평안에 이르게 했다.
곳간을 털어서, 피폐한 곳을 돕고
바름 지키고 사악함을 물리쳤도다.
여러 고을에 공을 이루고
은혜로 여러 백성을 구했으니
범공이 촉 땅을 진안하고



이영 비

배정승이 채 땅을 평안케 함이라.
돌을 세워 덕을 칭송하고
간 뒤에도 공덕을 읊노라.

〈후면〉 乙巳六月初一日長子丙默修立

(18) 이영(李英) 청덕비

〈전면〉

行水軍節度使李英清德撫恤軍卒碑

(19) 이의익(李義翼) 영사비

<전면>

水軍節度使李公義翼永思碑

撫恤軍卒 清德善政

군졸을 무휼(撫恤)하고 밝은 덕으로 선정을 베풀다.

<후면>

甲辰冬孫潤彬繼叨五十一年後謹移基建閣作廳之南



이의익 비

갑진년 겨울 손자 윤빈(潤彬)은 51년 후 외람되게 계승하게 되어 삼가 터를 옮겨 비각을 작청(作廳)의 남쪽에 짓다.

(20) 이행검(李行儉) 청덕비

<전면>

行水軍節度使李公行儉清德善政碑

清約其性 仁明爲治

誠殫營賑 人自忘飢

澤洽鬢白 政便公私

二載蒞職 萬歲留思



이행검 비

그 성품 맑고 검소했으며 어질고 밝음으로 다스림 했다.
정성 다하여 영내 진휼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배고픔을 잊게 했다.
노소 모두 은택에 젖게 했으니 선공후사의 정사를 했다.
직위에 있었음이 이 년이나 만세토록 생각이 남으리다.

(21) 전백록(全百祿) 영세불망비

〈전면〉

行水軍節度使全公百祿永世不忘碑

〈후면〉 丁亥七月 日



전백록 비



조존일 비

(22) 조존일(趙存一) 영세불망비

〈전면〉

水軍節度使趙存一永世不忘碑

父兮母兮 惟我趙公

城內蠲布 繼其遺風

募砲受田 方略得中

賴此育愛 頌德無窮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음이어 오직 우리 조 공이로다.

성내에 호포를 덜어주던 그 유풍을 이었도다.

길전을 불러들여 터전을 잇게 함은 방략이 맞았도다.

사랑으로 기른 이들에 힘입어 무궁토록 덕을 기린다.

〈후면〉

曾於乾隆甲辰公族曾祖心泰莅營時特軫凋弊城內水軍四百名啓請減布安興行營
革罷民乃安業今者公之蠲布事非偶然回感其舊而刻之于後

乙亥四月

일찍이 건륭 갑진(1784년)에 공의 족증조 심태(心泰)가 수영에 근무할 때 조 폐한 성내 수군 400여 명을 특별히 안쓰럽게 생각하여 감포해 줄 것을 계청 하고 안흥 행영을 혁파하여 이에 지금껏 백성들이 안업할 수 있게 하였으니 공이 호포를 덜어준 일은 우연이 아니기에 진실로 그 옛날을 느껴 후면에 새기노라.



홍원모 비

(23) 홍원모(洪遠謨) 영세불망비

〈전면〉

御史洪公遠謨永世不忘碑

一被繡衣 無瘼不蘇

明能燭幽 人亦澤枯 券燒五稷 頌騰萬夫

琢石紀惠 千劫不渝

한 번 수의(繡衣)¹¹¹⁾를 입으니 소생 못
시킬 병이 없었다.

능히 어둠에 촛불을 밝히고 사람 또
한 고조(枯凋)¹¹²⁾함에서 운택해졌다.

오계(五稷)의 문서들을 불지르니 여
러 사람들을 뛰어 넘는 모습이로다.

돌을 쪼아 은혜를 기록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게 하리라.

〈후면〉 庚寅四月 日

(24) 하상기(河相驥) 영세불망비

충청수영 폐영 후 오천군 설치를 지원해 준 인천감리 하상기의 영세불망비
이다. 오천군 설치 과정에서 있던 일을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11) 비단옷, 여기서는 어사의 관직을 말함.

112) 枯는 枯凋의 뜻으로 시들다, 마르다의 뜻.

〈전면〉

仁川監理河公相驥永世不忘碑

惟我河公 既仁且明

德被一境 澤流群生

山兮眞眞 水兮盈盈

一石千秋 略陣庶情

오직 우리 하 공께서는 이미 어지신 분이고 또 밝은 분이다.

덕은 한 지경에 덮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흐른다.

산 같음이어 우뚝하고 우뚝하도다. 물 같음이어 가득하고 가득하도다.

한 돌에 새겨 천추까지 전하리니 간략하나마 거의 투명하게 펼쳐노라.

〈후면〉

粵在乙未秋廢營後絕料賴民無依仰
 稍稍渙散幾至全城之貴墟區區生活難
 保一日之延命于時郡吏朴啓榮與同心
 一二建議設郡計劃已定已亥春登程留
 系喫苦三載不顧妻孥之凍餒齋願一念
 只在廢址之復設經營已成措劃未周辛
 丑春保寧郡吏數千滿路入城毀撤公廨
 打破民戶號哭之聲一天漲滿爨之烟
 三日頓絕男而權腦女而泣裙之狀無處
 告訴奚惟我仁川監理河公相驥仁智之
 性慈諒之政舉其慘酷繼以設郡之意具
 由天聽辛丑四月十八日鰲川郡新設事
 勅教下矣竊伏念皇上聖德天日後臨河
 公恩澤海嶽猶淺郡守金公永基隨事殫



하상기 비

竭捐廩修補一邑煥然矣嗚呼宣上恩德以濟斯民於塗炭之中使曩時幾死之群生復蘇今日已廢之一城更完伊誰之澤監理河公欲思圖報只切感泣咸願刻石昭著厥美於千秋爾

乙巳正月日

인천감리 하상기 영세불망비(仁川監理 河相驥 永世不忘碑)

을미년 가을 폐영 후 관리들은 급료가 끊어지고 도움을 받던 백성들은 의지하여 바라볼 데가 없으므로 점점 흩어져서 거의 온 성이 휴허의 빈터에 이르게 되니 구구하여 생활은 보전키 어렵게 된 채 하루를 연명해 가던 때 군리(郡吏) 박계영(朴啓榮)이 마을을 같이 하는 한 두 사람과 건의할 설군(設郡) 계획을 이미 정하고 기해년 봄 길에 올라 서울에 머물며 고통을 삼키며 3년을 처자의 굶고 배고픔을 돌보지 않고 일념을 갖고 원하는 것은 다만 폐지(廢址)의 복설(復設) 경영에 있음이었다.

성을 둘 계획이 주선되지 못하자 신축년 봄에 보령군 관리와 민간 수천이 길에 가득이 입성하여 공관을 휘철하고 민호를 타파하니 울음소리 하늘에 창만하며 밥 짓는 연기가 3일이나 끊어져서 남자는 권도 앞에 치고 여자들은 울어 옷을 적시는 형상이었으나 어디에 호소할 곳이 없었던 바에 오직 우리 인천감리 하 공께서 어질고 지혜로우며 성품은 자혜롭고 겸양하여 정사에 그 참혹함을 들어 이어서 설군의 뜻을 갖추어 임금께서 듣도록 하여 신축년 4월 18일 오천군이 신설될 일에 칙교가 내려왔던 것이다. 가만히 엮드려 생각하니 황상의 성덕으로 하늘에 해가 다시 뜬 것이다.

하 공의 은덕은 바다나 산악도 오히려 얕은 것이며 군수 김 공 영기께서 일에 따라 힘을 다하여 창고를 털어 일읍을 수보(修補)하므로 빛이 났던 것이다.

오호라! 상(上)이 배푸신 은덕은 이 백성을 도탄 가운데서 구제하여 지난번 때와 거의 죽어가던 군생을 금일에 다시 소생시키고 이미 폐해졌던 하나의 성을 다시 완전하게 하니 저 누구의 은덕이던가.

감리 하 공께 보답을 도모하고자 생각하니 다만 간절히 감읍하여 모두를

돌에 새길 것을 원하므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천추에 밝히노라.

을사(1905) 정월 일

7) 충청수영의 수군절도사

(1) 임진왜란과 최호(崔湖)

1592년 임진년 4월 왜군의 부산포 상륙으로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은 육지에서 조선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남해 바다의 방어 책임자들은 경상우수사 원균, 전라좌수사 이순신, 전라우수사 이억기 등이었다.

특히 1591년 유성룡의 추천으로 전라좌수사에 임명된 이순신은 전라좌수영이 있는 여수에서 거북선을 건조·정비하는 등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전라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과 제휴하여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부산포 해전 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왜군의 수륙병진작전을 좌절시킬 수 있었다. 한산도 해전 이후 수군의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알게 된 조정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고 삼도수군통제사를 두었다. 그리고 삼도수군통제사는 본영을 한산도에 두고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을 총지휘하도록 하였다. 삼도수군통제사에는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겸직으로 임명되었다.

이때부터 보령 오천의 충청수군도 삼도수군통제사의 지휘 하에 들어가 남해 바다로 가서 왜군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충청수군은 충청수사의 지휘 아래 본영, 서천포, 마량진, 당진포, 소근포, 파지포의 수군이 차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 전라의 수군이 자신들의 근무지에서 통제영의 지휘를

받는 대신 충청수군은 먼 거리 원정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따랐다.¹¹³⁾

또한 1595년에는 충청수사 이계훈(李繼勛)이 충청수영군을 이끌고 남해바다에서 이순신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는 도중에 배에 실화로 불이 나서 수사 이계훈이 물에 빠져 죽음과 동시에 충청수군 14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¹¹⁴⁾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이순신은 『난중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595년 3월 17일 『난중일기』에,

十七日庚寅。忠淸虞候馳報。水使李繼勛。失火投水死。軍官及格軍並百四十餘名焚死云。可愕可愕

충청우후 원유남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충청수사 이계훈이 배에 실화로 불이 나서 물에 빠져 죽고 군관과 격군 합하여 140여 명이 불에 타 죽었다 한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이후 명군과 왜군사이에 휴전회담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결렬되어 1597년(선조 30) 왜군이 재침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정유재란이다. 이때 삼도수군통제사이던 이순신은 모함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어가고, 새로이 조선수군을 지휘하게 된 사람은 이순신과 라이벌 관계인 원균으로,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

113)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1594) 10월 16일조에,

들으니 충청도의 수군(水軍)들이 매우 원망하는 일이 있다 하는데, 그것은 충청도 연해의 진보(鎭堡)에서 선척 수군(船隻水軍)과 노역군(櫓役軍)을 한산도(閑山島)에 보낼 때에는 각 포(各浦)에 저장해 놓은 군량을 같이 보내므로 진(陣)에 남아 있는 수군은 공량(公糧)으로 먹이고, 교대한 뒤에 각 포(各浦)로 하여금 먹은 군량을 환수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정결(丁傑)이 충청 수사(忠淸水使)로 있을 때에 비롯되어 지금까지 통행되고 있는데, 진중의 전사(戰士)가 먹은 식량을 교대한 뒤에 계산해서 환수한다는 것은 매우 무리한 일이니, 이제부터는 금단(禁斷)하되 각별히 시행하여 군사(軍士)가 해를 당하는 고통을 제거할 것을 각도의 수사와 관찰사에게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114) 충청수사 이계훈(李繼勛)의 추모 시설인 영산사(英山祠)가 1732년 전남 해남군 마산면 화내리에 세워졌고, 묘소는 영암군 영암읍 학송리에 있다.

군통제사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1년 전인 1596년(선조 29)에 충청수사에 임명된 최호(崔湖)도 충청수영군을 이끌고 원균 통제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정유재란 때 재침하여 부산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는 문제를 두고 도원수 권율과 통제사 원균은 상당한 의견 차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1597) 6월 11일조에,

수군 통제사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水軍統制使全羅左道水軍節度使) 원균(元均)이 치계하기를, … 신의 계책으로는 반드시 수륙(水陸)으로 병진하여 안골포의 적을 도모한 연후에야 차단할 방도가 생겨 회복하는 형세를 십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조정에서도 방도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으나, 신이 변방에 있으면서 적을 헤아려 보건대 금일의 계책은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각별히 처치하여 속히 지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원균의 뜻은 반드시 육군이 먼저 안골포(安骨浦)와 가덕도(加德島)의 적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고, 도원수와 체찰사의 뜻은 그렇지 않아 수군을 나누어 다대포 등처를 왕래시키면서 해양에서 요격하려는 계획입니다. … 대저 군중(軍中)의 일을 제어하는 권한이 체찰사와 도원수에게 있으니, 제장(諸將)으로서 품하여 지휘를 받아서 진퇴하는 것이 마땅한 데도 근일 남쪽의 장수들이 조정에 처치해 달라고 자청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체통을 유지시키는 뜻이 도무지 없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1597) 6월 26일조에,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쪽의 일은 이 한 가지 단서만 가지고 보아도 매우 염려가 되는데, 근일에 이르러서는 남풍(南風)이 연달아 불어 전선이 연속적으로 와서

정박하게끔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나라 수군이 오랫동안 바다에 있으면서 낱낱이 소탕해 막지는 못하더라도 현재의 선박을 합쳐 몇 개 부대로 나누되 배설(裴榎)은 경상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이억기(李億祺)는 전라우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며, 최호(崔湖)는 충청도의 배로 일개 부대를 만들고, 원균(元均)은 그가 거느린 선박으로 일개 부대를 만들으로써 한산도를 굳게 지켜 근본을 삼고 부대별로 교대로 해상에 나가 서로 관측하게 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30년(1597) 6월 28일조에,

도원수 권율의 장계는 다음과 같다.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은 매양 육로에서 먼저 안골포(安骨浦) 등의 적을 치라고 미루면서 바다로 나가 군사 작전을 벌여 오는 적을 막을 생각이 없으니, 신은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은 전령(傳令)으로 혹은 돌려보내면서 호되게 나무랐고 세 번이나 도체찰사에게 군관을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이공(南以恭)이 또한 체찰의 명을 받들고 한산도(閑山島)에 들어가 앉아서 독촉하고서야 부득이한 나머지 18일에 비로소 전선을 출발시켜 크고 작은 배 1백여 척이 가덕도(加德島) 앞바다를 향했으니, 이는 남이공의 힘이었지 어찌 원균의 마음이었겠습니까. … 신은 우선 사천(泗川)에 머물면서 해상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왜군을 육군이 먼저 공격한 후 수군이 공격하겠다는 원균과, 수군이 먼저 공격해야 해야 한다는 권율의 의견이 맞서다가, 비변사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통제사의 지휘권을 가진 권율이 군법을 시행하여 원균에게 태형을 가하면서 독려하여 원균은 마지못해 출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균은 전 병력을 동원하여 7월 7일 다대포에서 왜군의 빈 전선

8척을 불사르고, 서생포에 이르렀으나 적의 함대를 만나 패전하고, 마침 풍랑으로 인하여 일부는 표류되었다. 간신히 가덕도에 도착한 원균의 주력은 다시 일본의 복병을 만나 많은 손해를 보고, 거제도 앞 칠천량에 정박하였다. 패전을 당하여 사기가 떨어진 위에 권율에게 태형까지 당한 원균은 불만과 실의로 인하여 군사를 돌보지 아니하고 전략상 해전이 불리한 칠천량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종2품직인 삼도수군통제사가 도원수에게 불러가 패전의 책임을 추궁 당하여 곤장을 맞았으니 사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7월 15일 새벽 왜군 함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왜군은 미리 면밀한 계획을 세워 도오도오[藤堂高虎]와 와끼사까[脇坂安治]는 수백 척을 이끌고 부산에서 출진을 하고, 고니시[小西行長], 시마즈[島津忠豊] 등의 육군도 이곳으로 향하였으며, 가토오[加藤嘉明]의 수군도 이에 합세하여 공격하니, 7월 16일 조선 수군은 육지와 바다 양면에서 공격을 받아 대패하고, 통제사 원균은 육지로 탈출하였다가 전사하였다. 그리고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수사 최호(崔湖), 조방장(助防將) 배흥립(裨興立) 등이 전사하고, 경상우수사 배설(裨榭)만이 12척의 배를 이끌고 한산도로 후퇴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칠천량 해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30년(1597) 7월 1일조에,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元均)이 패하여 죽고 전라 수사 이억기(李億祺), 충청 수사 최호(崔湖) 등이 죽었으며, 경상 우수사 배설(裨榭)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 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에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絶影島)에 이르러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획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加德島)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固城)의 추원포(秋原浦)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해 내지 못하고, 배설이 먼저 도망하자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억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명하여 주륙하였다.

이렇게 칠천량 해전은 조선 측에는 현장 최고 지휘관인 수사 3인이 전사하는 치욕의 완패였다. 그것이 원균의 책임이든 권율의 책임이든 충청수군과 충청수사 최호는 나라를 지키는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가 남해 바다에서 전사한 것이다. 패전한 해전이어서 역사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이 해전에서 목숨을 바친 충청수군의 애국심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원균은 육지에 내렸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쫓아 온 왜군의 칼에 맞아 58세

의 나이로 전사했지만, 최호와 이억기는 바다로 뛰어내려 전사했다. 평생 무장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다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되자 왜군의 칼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뛰어 내려 부하들과 함께 깨끗이 절의를 지키고 죽



칠천량의 모습

다리를 중심으로 좌우 해협 4km에 걸쳐서 해전이 전개되었다.

는 편이 무장으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이때 최호는 62세의 노장이고, 이억기는 37세의 장년이였다.

이때 원균과 배설은 사실상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고 최호와 이억기는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는 상황이었던 것이다.¹¹⁵⁾

왜란 후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한 통제사 원균(元均)은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과 함께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전라우수사 이억기(李億祺)는 선무공신 2등에 봉해졌다. 그러나 충청수사 최호(崔湖)는 선무공신에는 오르지 않고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청난공신(淸難功臣) 2등에 올랐다.¹¹⁶⁾

그 후 광해군 때에 와서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최호(崔湖)를 이대원(李大元)·이순신(李舜臣)·원균(元均)·이억기(李億祺)·이복남(李福男)·임현(任鉉) 등과 함께 충신의 대열에 수록하였다.¹¹⁷⁾

최호의 사후에 선조 임금은 예관(禮官)을 보내어 정중하게 치제(致祭)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제문을 지어 추모했다.

오직 경은 기량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힘써왔고, 뛰어난 재주에 갑옷을 입고 일찍이 무술을 닦아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이 날로 더했다. 왜적이 침범하였을 때 하늘의 뜻을 지키는데 용감하였다. 동방을 놀라게 진동시킨 그 일 ...

장수로서 등단하여 계략을 다하여 지휘하고 온갖 힘을 다 내어 武를 떨치어 여러 번 극복하고 왜구가 깊숙이 들어와 溫島, 그 섬에서 화살이 다하도록 싸웠지만 어찌할 수 없어 몸을 바쳐 의를 택한 만고의 충절이 날로 더불어 빛나니 맹부(盟府)에서 수고와 공로에 대한 갚음을 주는 것은 내가 사사로이 경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뚜렷한 정성스러운

115) 金甯漢(1878~1950년), 『及愚齋集』, 「忠淸道水軍節道使崔公湖行狀」

116) 『조선왕조실록』, 선조 37년 6월 25일조.

117) 『조선왕조실록』, 광해 7년 11월 23일조.

그릇이기에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되었도다. 공로를 생각하는 바가 여기에 있어 나의 가슴이 슬프도다. 예조판서를 보내어 강신하니 나의 술잔을 박하게 여기지 말라.¹¹⁸⁾

그리고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은 다음과 같은 추모시를 지었다.

出師未捷 魂先還
誰識英雄 勝敗間
如許靖忠 如許義
明天在上 何無慳

출전한 장수가 승리 거두지 못하고 혼만 먼저 돌아왔네
누라서 영웅의 승패를 알았으리요
충의를 다하였으니 편안하소서
밝으신 임금도 어찌 애석하게 여기지 않으리요.¹¹⁹⁾

충청수사 최호(崔湖)는 본관이 경주로서 최치원의 후손이며, 1536년 부친 최한정(崔漢禎)과 모친 광주 김씨 사이의 4남으로 전북 옥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글을 잘 읽고 담력이 컸으며, 무예를 공부하여 드디어 1574년(선조 7) 38세의 나이로 무과 병과에 급제하고 이어서 1576년(선조 9) 40세에 무과 갑과에 급제하였다. 이어서 군자감 주부, 강진현감 무안현감이 되었고, 용강현령 오위도총부도사를 역임하고 나서 1592년(선조 25) 절충장군으로 승진하여 함경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 함경도 병사 시절에는 왜군이 북상한 상태였으므로 이때부터 최호는 임진왜란에 참여하는 무장이 되었다. 그 후 부친상으로

118) 군산문화원, 『충원공』, 2002.

119) 군산문화원, 위의 책

휴직하였다. 그리고 1596년(선조 29) 충청도수군절도사로 임명되어, 충청수영이 있는 보령 오천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부임 3개월 짜인 그 해 충청도 서부 지역에 이몽학의 난이 일어나 최호는 난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 공훈을 세웠다.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 칠천량 해전에서 전사한 후 1604년(선조 37) 청난공신(淸難功臣) 2등에 봉해지고, 정2품직인 증자헌대부(贈資憲大夫) 병조판서(兵曹判書) 겸 의금부지사(義禁府知事)에 가자(加資) 되었으며,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나중에 충원(忠元)의 시호를 받았다.¹²⁰⁾

수사 최호의 사후 132년이 지난 영조 5년(1729) 나라의 하사금으로 선영인 전북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반월산 동사면(東斜面)에 사당을 건립하였는데, 이것이 충의사(忠義祠)이다. 1906년 최호의 후손인 최호선(崔浩善)이 중수하여 오늘에 이른다. 대지 990㎡에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이며, 최호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 손자의 4대에 걸친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부터 최호 장군 추모제를 군산문화원 주최로 시행해 오다가,



최호 장군 사당(전북 옥구)



최호 장군 묘(전북 옥구)

120) 군산문화원, 위의 책

군산시에서는 국비 등을 들여 옛 충의사의 반대편인 반월산 서사면에 새로운 충의사를 건립하고 이 지역 성역화 사업을 진행하여 대대적인 유적지를 만들었다. 즉 충의사 사당, 내삼문, 최호 장군 유품 전시관, 관리사 등을 두었으며, 유적지 옆에 묘소도 정비하였다. 동쪽의 구 충의사와 서쪽의 신 충의사 모두 전라북도 기념물 32호로 지정되었다.

최호 수사의 묘소는 쌍분으로 되어 있으며 상석과 묘비석이 갖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 묘소는 최호 수사가 바다에 뛰어내려 전사했으므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여 그의 유품으로 만든 가묘인 것이다.

한편 최호의 13세손 최용철(崔用哲)은 김영한(金甯漢)에게 부탁하여 최호 수사의 행장을 지었다.

(2) 병자호란과 강진흔(姜晉昕)

1636년 청태종은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대규모의 침략을 단행하였으니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청군에 의해 수도 한양을 점령당하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여 항전하고, 왕자 봉림대군과 빈궁(嬪宮)은 강화도로 피신하였다. 남한산성과 강화도는 수도권 주변에서는 방어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원래 인조도 대군 등을 강화도에 먼저 피신시키고 자신도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갑자기 청군이 들이닥쳐 여의치가 않아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강화도는 고려시대 유목민 왕조인 몽골이 끝내 함락시키지 못한 역사성을 가졌기에 같은 유목민 왕조인 청에 대한 방어의 확신은 컸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강화도를 방어하기 위해 김경징(金慶徵)¹²¹⁾을 김찰사(檢察使)로 이

121) 김경징(金慶徵, 1589~1637년)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순천.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유(瑬)의 아들이다. 1623년 인조반정 때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이 되고, 순흥군(順興君)에 봉해졌다. 문과에 급

민구(李敏求)¹²²를 부찰사(副察使)로 임명하여 방어에 임하였다. 그리고 강화도 방어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수군은 강화유수 장신(張紳)¹²³을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 임명하여 경기수영 휘하의 경기 수군을 중심으로 지휘하게 했다.

피신 행렬이 강화도로 들어가자 충청수영에서는 군함 7척과 200여 명의 수군을 수사 강진흔(姜晉昕)과 우후 변이척(邊以楊)이 지휘하여 강화도로 들어갔다.¹²⁴ 강화도 염하(鹽河) 북쪽의 연미정(燕尾亭)¹²⁵ 부근에 배치되어 방어에 임하고 있던 도중 1637년 1월 22일 청군이 연미정 아래 부분 건너편인 갑곶에서 대포(홍이포)를 쏘며 도하작전을 전개했다. 강진흔이 지휘하는 충청수군은 연미정에서 악전고투하며 썰물을 거슬러 올라가 갑곶 주변에서 도하작전을 전개하는 적과 용감히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

ㄹ제, 후에 도승지를 거쳐 한성부판윤이 되었는데, 이때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사에 임명되어 강화도 수어의 임무를 띠고 부제학 이민구(李敏求)를 부장으로 삼고, 수찬 홍명일(洪命一)을 종사관으로 삼아 함께 부임하였다. 청나라 군사가 침입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다가 적군이 눈앞에 이르러서야 서둘러 방어의 계책을 세웠으나 군사가 부족하여 해변의 방어를 포기하고 강화성 안으로 들어와 성을 지키려 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이 흩어져 성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방어책임을 맡은 그는 나뭇배로 도망하여 마침내 성은 함락되었다. 대간으로부터 강화수비의 실책에 대한 탄핵을 받았는데, 인조는 원훈(元勳)의 외아들이라고 하여 특별히 용서하려 하였으나 대간의 탄핵이 완강하여 사사(賜死)하였다.

122) 이민구(李敏求, 1589~1670년)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이조판서 수광(睟光)의 아들이다. 1612년 증광문과에 장원급제하고 1624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강도검찰부사(江都檢察副使)가 되어 왕을 강화에 모시기 위하여 배편을 준비하였으나 적군의 진격이 빨라 어가의 길을 막았으므로 왕이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소임을 완수할 수 없었다. 난이 끝난 뒤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죄로 아산에 유배되었다가 영변으로 옮겨졌다. 유배지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자책을 하다가 1649년에 풀려났다.

문장에 뛰어나고 사부(詞賦)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저술을 좋아해서 평생에 쓴 책이 4,000권이 되었으나 병화에 거의 타버렸다.

123) 장신(張紳, 미상~1637년) : 조선 중기의 문신. 1623년 인조반정 때 형 유(維)와 함께, 당시 궁궐을 수비하던 장인 이흥립(李興立)을 설득하여 내용하게 하는 한편, 직접 왕궁진입에도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유는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그는 3등에 책록되었다. 1636년 강화유수로 전임되었다. 그해 12월 병자호란을 당하여 강도(江都)방위를 맡게 되었는데, 전세가 불리하여지자 왕실과 노모를 버리고 먼저 도망하여 강도가 함락되었다. 사헌부에서 그를 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전일의 공로를 생각하여 자진하게 하였다.

124) 1627년 정묘호란 후 조정에서는 강도방어의 필요성을 느껴 강화도 교동에 3도 통어영을 설치하고, 유사시 경기 충청 황해의 수군을 지휘하게 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충청수군이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 출정한 것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다.

125) 연미정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월곶리에 있는 정자

이때 주사대장 장신이 지휘하는 수군은 갑곶 아래쪽인 광성진에 주둔¹²⁶⁾하고 있다가 적의 도하작전이 전개되자 갑곶으로 전진해 왔으나 적의 기세가 대단한 것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주사대장 장신은 퇴각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충청수군만으로는 도저히 중과부적이었던 것이다. 결국 청군은 갑곶 나루를 건너는 도하작전에 성공하여 강화도는 점령당하고 왕자 등 피난자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다.

이어서 청군은 남한산성에 전력을 집중하여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굴욕적 항복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패전 책임자 처벌로 검찰사 김경징은 사사되고 장신은 자진하였고, 충청수사 강진흔은 잘 싸우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였다는 죄명으로 우후 변이척과 함께 참형을 당하였다. 열심히 싸우고도 균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던 충청수사 강진흔이었다. 강진흔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공익이 『연려실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연려실기술 <인조조 고사본말 : 강화도가 함락되다>

- 이때 경징(慶徵)은 방비와 수비에는 마음이 없어 초관(哨官)들을 풀어 주어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한 섬 외에는 정탐도 하지 않으니, 식자(識者)들이 한심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갑곶(甲串) 이하에서 연미정(燕尾亭) 이북까지의 사이에는 일찍이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하나 없었다. 충청 수사(忠淸水使) 강진흔(姜晉昕)이 밤을 도와서 들어와 원조하니, 경징이 강진흔이 거느린 배를 연미(燕尾)와 여러 곳에 나누어 배치하고 경기도 배는 모두 광진(廣津)에 두었다.

126) 조선시대 김포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은 갑곶과 광성진이었다. 당시 갑곶 부근은 충청수군, 광성진은 장신 수군 그리고 교동북진(北津)에 경기 수군이 배치되었다. 갑곶 나루는 지금의 국도 48호가 지나는 곳이다.

○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적군이 삼강(三江)에 모여 있으면서 가옥을 헐어 재목으로 혹은 작은 배를 만들고 혹은 동거(童車)를 만들고 있으니, 그 의도가 아마 강화도에 있는 것 같다.” 하였다. 경징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강에 얼음이 아직 단단한데 어떻게 육지에 배가 다닐 수 있겠는가.” 하였다

○ 그때 장신(張紳)은 주사대장으로서 갑자기 광진을 출발하여 갑곶을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으나, 이때는 아직도 조금(潮減)이라 조수가 매우 적어서 밤을 새우며 배를 저었으나 이날 22일 새벽에 겨우 갑곶에서 5리 가량 되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강진흔(姜晉昕)은 배 7척을 거느리고 갑곶에 머물고 있다가 적과 힘껏 싸워 적선 2, 3척을 침몰시켰으나, 진흔의 배도 역시 대포에 맞아 죽은 군졸이 수십 명이나 되었다. 진흔도 적의 화살에 맞았으나 적의 화살과 그 밖의 전구(戰具)를 빼앗은 것이 또한 많았다. 그런데 진흔이 거느리고 있는 배는 매우 적었고 장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군은 대단히 많았으나 장신은 적세(賊勢)가 급한 것을 보고도 전진할 생각이 없었다. 진흔이 북을 치고 기를 흔들면서 장신에게 빨리 전진하라고 재촉하였으나 장신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진흔이 배 위에서 외치기를, “내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 어찌 차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베어 죽이겠다.” 하였으나 장신은 끝내 듣지 않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 버렸다. 이때에 정포 만호(井浦萬戶) 정연(鄭延)과 덕포 첨사(德浦僉使) 조종선(趙宗善)이 선봉이었는데, 정연이 적선 1척을 함몰시키고 장차 전진하려고 하였으나 장신이 징을 쳐서 퇴군시키므로 정연 등도 모두 물러갔다.

연려실기술 <인조조고사본말 : 난리 뒤에 생긴 일>

○ 경징(慶徵)은 대간이 처음에 법대로 처단하자고 논계하여 강계(江界)에 귀양보냈다가, 전 판서 김시양과 참판 유백증(兪伯曾)의 상소로 인하

여 사헌부의 의논이 다시 일어나서 잡아다 사사하고, 민구는 영변(寧邊)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였다.

- 강진흔(姜晉昕)이 잘 싸우지 못하여 적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먼 곳으로 귀양보냈는데, 대간이 다시 잡아다가 효시하기를 청하였다. 충청 수영의 군관 및 하졸들이 대궐 밖에 나아가 목놓아 슬피 울며 여러 번 비국에 글을 올려 지극히 원통함을 말하였으나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 처음에 강진흔이 경징과 더불어 금부에 있었는데, 사사하는 명이 내린 것을 듣고 경징은 목놓아 슬피 울어 의표(儀表)를 잃었으나, 진흔은 웃으며 경징에게 말하기를, “아무리 운들 면할 수 있는가.” 하고, 음식 먹는 것이 평소와 같았다. 그는 보검을 옥졸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예리한 칼이다. 이 칼로 내 목을 빨리 베고 나서 네가 가지고 가라.” 하였다. 대개 배 위에서 힘껏 싸운 것이 진흔과 같은 이가 없었는데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고, 죽음에 임하여 또 태연하기가 이와 같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고 수영의 군졸들은 친척을 잃은 것같이 슬퍼하였다 한다.

강진흔 사후 죽손 강석규(姜錫圭, 1628~1695년)에 의해 묘표가 지어졌다. 강석규는 강진흔의 재종손으로 조선후기 문신이다. 문집으로 『오아재집(聲齋齋集)』이 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묘표의 내용을 오아재집에서 발굴하여 처음으로 번역하여 소개한다. 내용은 병자록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묘표로 인하여 병자호란 당시의 활약 이외에도 강진흔의 가계와 이력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忠清水軍節度使姜公墓表

不佞¹²⁷⁾有故友趙監司世煥。嘗謂不佞曰。姜水使晉昕。於君爲第幾行。曰不佞族祖父。趙君曰。姜公吾不識何狀。嘗讀丙子江都錄。且聞諸士友間緒言。而得其一二焉。臨亂奮不顧身。臨死陽陽如平常。蓋所謂烈丈夫矣。蓋所謂達死生之理者矣。吾子以文自任。樂道人之善。何不爲姜公立傳。以圖其不朽乎。不佞曰。若余惟不文。焉能不朽公。且雖欲圖所以不朽者。其於耳目有所不逮何。嚮者城南從父畧舉當時事。爲余稱道之。欲据其所聞而爲之詮次。恐其不能細也。把筆而旋止者數矣。趙君曰。其言謂何。不佞以其聞於嚮日者。而語之曰。公自幼少時。倜儻¹²⁸⁾卓詭¹²⁹⁾。已有食牛氣。稍長就外傳。屈首受書。文義驟長。同學者皆媿屈焉。以文就進塗¹³⁰⁾。即可一蹴到。而便不屑曰。大丈夫生斯世。桑弧蓬矢¹³¹⁾。射四方。安肯以鉛槧¹³²⁾爲事。碌碌爲書簾中一小蠹哉。遂投筆起。閒弓馬習韜幹。年二十六。中謁聖第二名。卽拜武兼宣傳官。見光海政亂。卽逃遁不仕曰。大丈夫遇此時。當斂鋒淬刃。以待清時可也。豈忍作喉下語。以媚權貴。以賭一命之寵哉。仍歸卧楊州村庄。力穡耕田以自給。以其暇與樵青漁徒。狎亡異也。及天啓癸亥。仁祖大王改玉之元年。卽拜不次。擢用¹³³⁾宣傳官兼備邊郎。俄陞都揔都事。皆武弁極選也。自是屢典郡邑。輒有聲績。吏民翕翕有去後思。以水軍節度出鎮湖西。弭節之明日。卽修戰艦理戎械。簡練習操無虛日。踐更¹³⁴⁾軍布。盡施之賞給。縮月廩辦牛酒以饗士。士皆樂爲之用。或有譏其迂者。公曰。平居不盡施忘武備。乃有國之常。况此天下大亂之日乎。暨明年冬。胡兵大

127) 불佞(不佞) : 재주가 없다는 뜻으로 자신을 겸칭(謙稱)하는 것

128) 척당(倜儻) : 기개가 있어 남에게 구애받지 않음

129) 탁괴(卓詭) : 언행이 뛰어나 보통사람과 다른 모양

130) 진도(進塗) : 벼슬길로 나갈

131) 桑弧蓬矢 : 중국에서 남자를 낳으면 뽕나무 활과 쭉대 살을 쏘아서 성공을 기원하였다는 고사, 남자가 뜻을 크게 세움

132) 연잠(鉛槧) : 먹과 종이, 문필을 말함

133) 불차탁용(不次擢用) : 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 뽑아올려서 관직에 임용함

134) 천경(踐更) : 병졸로 뽑힌 사람이 금전으로 사람을 얻어서 대신으로 보내는 것

擧入寇。大駕及春宮。幸南漢城。被白登之辱¹³⁵。廟社主嬪宮大君以下。皆入江都。公聞變。卽日領舟師七艘。直至江都。檢察使金慶徵。副察使李敏求。日置酒高會曰。江都天塹¹³⁶。虜兵豈能飛渡乎。使公退守鷺尾亭。公慨然奮腕。欲爲排軍門直入。慶徵醉曰。有敢犯者。以軍法從事。門卒挺槍森立拒不納。公歎曰。一髮孤城。主上蒙塵。彈丸海島。宗社無依。若曹世受國恩。位至卿宰。而不恤國事。宴安醉飽之是甘焉。是可忍也。孰不可忍也。時虜兵連三晝夜。以童車¹³⁷載小船。運置江岸者無筭。丁丑正月二十二日早朝。乘風縱船。船載卒數十人。其疾如飛。公旣退守下流。時適潮退。風迅浪駛。船重不能運。枳不得上。前推後挽。進寸退尺。公親自扣舷揚櫓。僅與賊還。賊先鋒已抵岸矣。公力戰移晷。我船數隻。爲虜砲所陷。士卒死者數十人。公所覆沒虜船數十艘。虜死傷及溺死者。亦不記其數。公督戰益急。關與彎同繁弱¹³⁸。使二卒拾矢于前。虜兵砲矢如雨下。公所乘船。中虜砲數十穴。拾箭卒中流矢。踣於船頭。公亦被二箭。公猶植立不動如偶人。且進且射。旣矣盡弓折。度無可奈何。時張紳以舟師大將。見賊勢甚盛。縮伏不敢進戰。公親擊鼓揚麾。使促之前。紳終不應。公疾聲呼曰。汝張紳以國之勳臣。當國家重任。敢爲偷生計耶。吾斬若頭矣。紳俛首若不聞者。乘小船逃去。虜兵已下陸。恣屠戮殺。聲動天地。公慟哭仍欲自墜水死。幕下有將校一人。急挽之曰。江都非公所守信地¹³⁹也。以客軍孤寄。專制之權在彼掌握。今日之敗。非公之罪。主上方困於孤城。觀南漢存亡。決死未晚也。公然其言遂止。亂亂稍已。朝廷論諸將失律之罪。張紳賜自盡。慶徵謫江界。敏求謫寧邊。公謫理山。旣數月。臺議更峻。閱月爭執。慶徵賜死。公當刑。水營諸將吏士卒守闕號泣。又訟冤於備局者屢日。竟不免焉。公初與慶徵。

135) 백등(白登) : 백등(白登)은 한 고조(漢高祖)가 흉노의 목돌(冒頓)에게 7일 동안 포위당했던 산 이름이다.

136) 천잡(天塹) : 천협(天險)의 구덩이라는 뜻으로, 보통 장강(長江)을 가리키는데, 여기서서는 압록강을 비유한 말이다.

137) 동거(童車) : 짐을 운반하는 수레

138) 번약(繁弱) : 옛날 하후씨가 썼다는 명궁

139) 신지(信地) : 규정된 위치

同就金吾。及命下。慶徵號哭失儀。公曰。朝廷既以吾輩爲有罪。則有死而已。哭其可免乎。飲食言笑固自如。索紙筆書後事。以付幼子。臨刑。解所佩刀與刑者曰。此劍直百金。今以與汝。汝其以此劍速斬我。刑者亦掩淚。本營吏卒亡大小男女。皆相率哭泣。如悲親戚云。趙公聽罷。惻然慷慨。爲之涕簌簌下曰。斯亦足以不朽。子其圖之。嗚呼。公以魁傑之才。負一時重望。當丙丁艱之秋。使獨當一面。展其方畧。卽幸而成功。固可爲壬辰之李統制。卽不幸而不成功。亦可爲戊午之金將軍。而爲慶徵輩所沮抑。終不能有所爲。卒之與紳與慶徵同其死。死生命也。於公何有焉。而其在邦刑何如耶。由是而上自薦紳大夫。下至韋布吏胥。又至於婦孺下賤。莫不訟其冤而憐其志。至于今如一日。人心之不可誣也如此。夫丙子錄江都錄。儘出於當時文人之所撰。而羅學士萬甲最稱其忠烈。載其事頗悉。此可爲一代之信史矣。公晉州人。子果其字也。其六代祖諱希孟。左贊成文良公。五代祖諱龜孫。右議政肅憲公。高祖諱台壽。順天都護府使。曾祖諱復。忠佐衛副司勇。祖諱克誠。議政府舍人。贈弘文館直提學。考諱世慶。掌隸院司議。妣完山李氏。孝寧大君之後。松山副正健之曾孫。縣監枝蕙之孫。縣令輜之女。察訪洪克纘之日丙戌。年四十六。公甲子。自掄郎出爲理山郡守。丙寅。遭內艱。服才闋。卽拜秋曹郎。庚午。轉軍器僉正。時鄭忠信以副元帥。開府于西邊。極擢文武士于幕下。公亦與焉。旋拜龍岡縣令。辛未。陞鐵山府使。乙亥。移遂安郡守。俄擢外孫也。公生以萬曆二十年壬辰三月初一日辛酉。死以崇禎十年丁丑九月二十一忠清水使。此公平生所履歷也。夫人星山李氏。高麗名臣文烈公兆年之後。性本端慤貞靜。以禮自將。宗黨咸宜之。有古女士風。丙亂。避寇于砥平龍門山中。聞江都之陷。慟哭自刎。時丁丑正月十九日。寔江都未陷前三日。蓋因道途傳說之訛而致然也。年三十六。朝廷聞而嘉之。爲棹楔¹⁴⁰⁾其門。與公合葬于龍門東廣灘西坐乾向巽原。距先

140) 도설(棹楔) : 정려

大夫墓一牛鳴也。男載後武科。娶士人任愈女。有一男一女。男錫龜。娶監察朴尙賢女。有二男昌溥，玄溥。女黃聖龜通政牧使。有繼子旻。側出男錫龍。女李相佑。不佞生也後。不及拜公之顏色。而自幼稔聞公有忠義大節矣。既稍長。從從父遊。得聞江都事。未嘗不謏謏然敬也。既又聞趙友言。亦未嘗不瞿然悚也。今迺參以家狀而爲之叙次如右。庶可以塞趙友之責。亦可以藉手于地下矣。族孫通訓大夫行成均館司藝錫圭再拜而書。

나의 친구 중에 감사(監司) 조세환(趙世煥)¹⁴¹⁾이 있는데, 일찍이 나에게 일러 말하기를 강수사(姜水使) 진흔(晉昕)은 당신에게 몇 항렬이 되는가 하기에 나의 족조부라고 했다. 조 감사가 말하기를 강공(姜公)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일찍이 병자·강도록(丙子江都錄)을 읽었고, 또 여러 사우(士友)들 사이에서 여러 말을 들었는데, 한 두가지의 일들이었다. 난을 당하여 떨어져 일어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음에 임해서도 평상시처럼 조금도 변치 않았으니 열장부(烈丈夫)라고 이를 만하고, 사생(死生)의 이치를 통달한 사람이라 이를 만하다. 나의 아들이 문(文)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는 터이고, 남의 착한 일을 말하기를 좋아하니 강공의 전기를 만들어서 영원하게 하는 것을 어찌 도모하지 않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만약 내가 추천하여 기록하여 놓지 않으면 어찌 능히 공이 영원하겠는가. 또 비록 영원한 것으로 도모하고자 하여도 보고 듣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어찌할 것인가.

지난번 성남(城南)의 종부(從父)가 당시 일을 대략 들어서 내가 칭찬을 했는데, 그 소문으로 말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그것을 자세하게 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붓을 잡았다가 곧바로 그만둔 것이 여러 번이었다.

141) 조세환(趙世煥, 1615~1683년)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임천(林川). 아버지는 참봉 석(碩)이며, 어머니는 별좌(別坐) 이거인(李據仁)의 딸이다. 이거인은 토정 이지함의 손자여서 조세환은 이지함의 후손이며, 홍주 출신이다. 1657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전적이 된 뒤 예조와 병조의 좌랑, 황주판관·병조정랑을 거쳐 정언·지평·장령 등의 연관을 지냈다. 1681년 전라도관찰사에 오른 뒤 승지·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조 감사가 말하기를 그가 무슨 말을 하던가? 내가 그 전에 들은 것으로써 말하기를 공은 어린 시절부터 기개가 있어 남에게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행이 뛰어나 보통 사람과 달랐으며, 이미 소를 잡아먹는 당당한 기상이 있었다. 점점 장성함에 스승에게 나가 배웠다. 머리 숙여 책을 받아, 문의(文義)가 빠르게 성장하니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 학문을 이루고 벼슬에 나가 단번에 지위에 이르렀지만, 편안한 것을 달갑게 여지키 않고 말하기를 대장부로 이 세상에 태어나 뿡나무 화살과 쭉대 화살로 사방을 쏘아야지 어찌 문필을 일삼아서 녹녹하게 책 상자 속의 작은 좀 벌레가 되겠는가? 하고 드디어 붓을 버리고 일어나 틈내어 칼을 차고 궁마(弓馬)를 익혔다.

26세에 알성급제 2등하고 곧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벼슬에 임명되었다. 광해군의 정치가 문란함을 보고 즉시 숨어서 벼슬에 나가지 않고 말하기를 “대장부가 이런 때를 만나서 마땅히 칼끝을 거두고 날을 갈면서 청명한 시대를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찌 차마 목구멍으로 하어(下語)를 만들어 권귀(權貴)에게 아첨하고 말직의 벼슬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였다. 양주의 촌장(村庄)에 돌아와 농사지어 스스로 먹고 사는데 힘쓰면서 나무꾼과 어부의 무리들과 여가를 즐기면서 그들과 다르지 않음에 익숙해졌다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대왕 즉위 원년에 이르러 곧바로 선전관겸 비변랑(宣傳官兼備邊郎)에 뽑아 올려져 임명되었고 조금 뒤에 도총도사(都摠都事)로 승진하였으니 모두 무변(武弁)으로 엄선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여러 번 군읍(郡邑)의 수령이 되었는데 번번이 성적(聲績)이 있었고, 이민(吏民)이 화합해서 떠난 뒤에도 사모함이 있었다.

수군절도사가 되어 호서로 출진하여, 쉬고 난 다음날 즉시로 전함과 무기를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조련하는 데 날을 허비함이 없었다. 군역(軍役) 대신에 거둔 군포(軍布)는 모두 상급(賞給)으로 베풀었다. 월급을 모아서 쇠고기와 술을 마련하여 군사들을 먹이니 사졸들이 모두

즐겨 쓰임을 받았고, 혹 어떤 사람들이 그의 세상물정 어둠을 원망하기도 했으나 공은 웃으며 말하기를 평소에 무비(武備)를 잊지 않으면 국가가 평안한 것인데, 하물며 이러한 천하 대란이 있는 때이겠는가? 하였다.

다음해 겨울에 이르러 호병(胡兵)이 대거 침입해 오니 대가 및 왕세자가 남한산성으로 행차하고 포위당하는 치욕을 겪었다. 종묘사직과 비빈 대군이하는 모두 강도(江都)로 들어갔다. 공이 변란을 듣고 다음날로 군선 7척을 거느리고 곧바로 강도에 도착했다. 검찰사(檢察使) 김경징(金慶徵) 부찰사(副察使) 이민구(李敏求)는 날마다 술자리를 크게 베풀며 말하기를 강도는 천험의 요새로 청병이 어찌 능히 날아서 건널 수 있겠는가? 하고 공으로 하여금 연미정(鸞尾亭)으로 물러나 지키게 했다. 공이 본격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군문으로 직접 들어가서 배척하고자 하니 경징이 술에 취하여 말하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군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것이다 하였다. 군졸들이 창을 빼어들고 뻑뻑하게 서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위기일발의 외로운 성(城)에 주상이 몽진(蒙塵) 하셨는데, 탄환만한 바다 섬에 종사(宗社)는 의탁할 곳이 없는데 네가 자손대대로 국을 받아서 공경재상의 지위에 이르고서 나라 일에 걱정하지 않고 안일에 빠져 취하고 배부르니 이에 맛이 달으냐? 이것을 차마 하는데 무슨 일을 차마 못하겠는가? 하였다.

이때 오랑캐들이 3일 낮과 밤을 연이어 동거(童車)를 작은 배에 실어 강 연안에 옮겨 놓은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다. 정축년(1637) 정월 22일 이른 아침 바람을 타고 배가 따라오는데 배에는 병사 수십 인이 타고 있는데 그 빠름이 나는 듯하였다.

공은 이미 물러나 하류를 지키는데, 이때 조류가 물러남을 만나 바람이 빠르고 파도가 이는데 배가 무거워 움직일 수 없어서 소외된 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서 한 치 진보하면 한 치 물러나니 공이 친히 뱃전을 치며 노를 들었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적을 만났는데 적의 선봉은 이미 연안에 다다랐다. 공이 한참 동안

힘써 싸우는데 우리 전선 여러 척이 청군의 포에 가라앉고 사졸들이 죽은 자가 수십 인이었다. 공이 청 군선 수십 척을 격파하니 청병 죽거나 다친 자 및 물에 빠진 자 역시 세어 기록할 수 없었다.

공이 싸움 독려하기를 더욱 다급하게 하는데, 관여하며 활을 당기기를 함께 하였다. 2명의 병사로 하여금 앞에서 화살을 쏘게 하였다. 청병의 포와 화살이 비 오듯 떨어졌다. 공이 배에 올라 가운데 있는 청군 포수십 문에 활을 쏘고, 습전졸(拾箭卒) 가운데 흐르는 화살에 맞아 뱃머리에 넘어지는 자도 있었다. 공 또한 화살에 맞았으나 공은 오히려 똑바로 서서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또 나가고 또 쏘아서 이미 활은 모두 다 부러졌다.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 때 장신(張紳)이 주사대장(舟師大將)으로서 적의 세력이 심히 성대함을 보고 움츠리고 엎드려서 감히 나아가 싸우지 않았다. 공이 친히 복을 치고 대장기를 흔들며 앞에서 독려하였다. 장신이 마침내 응하지 아니하니 공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너 장신은 나라의 훈신으로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맡아가지고 감히 구차스럽게 살 계책을 하는가? 내가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하였다. 장신이 머리를 숙이고 못들은 척하고 작은 배에 올라 도망갔다.

청병은 이미 육지에 내렸고 도륙(屠戮)과 살인을 자행하여 천지에 소리가 진동했다. 공이 통곡하고 이어 물에 몸을 던져 죽으려하는데 막하(幕下)의 장교 한 사람이 급히 만류하며 말하기를 “강도(江都)는 공이 지켜야 하는 규정된 위치가 아닙니다. 객군(客軍)으로 외롭게 붙여져서 통제의 권리를 저들이 장악하였으니 오늘의 패배는 공의 죄가 아닙니다. 주상이 바야흐로 외로운 성에서 곤경에 처해있는데, 남한산성의 존망을 보고나서 죽음을 결심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공이 그 말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물에 몸을 던지는 것을 그쳤다.

난이 점차로 그쳐가니 조정에서는 제장(諸將)들의 패전한 죄를 논하는데, 장신은 자진하고 경징은 강계에 귀양 보내고 민구는 영변에 귀양

보내고 공은 이산(理山)에 귀양 보냈다. 여러 달이 지나 대론(臺論)이 다시 엄격해져서 한 달이 넘도록 논쟁하여 경징은 사사하고 공은 사형을 당했는데, 수영의 제장(諸將)과 관리와 사졸들이 대궐에 앞드려 목 놓아 울었으며, 또 비국(備局)에 송면(訟寃)한 것이 여러 날이었으나 마침내는 이루지 못하였다. 공이 처음 경징과 더불어 금오(金吾)에 함께 나갔는데, 명(命)이 내려지자 경징은 목 놓아 울며 품의를 잃어버렸다. 공이 말하기를 “조정은 이미 우리들에게 죄가 있다고 하니 죽음만이 있을 뿐이요. 운다고 죽음을 면할 수 있으리요?”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얘기하며 웃으며 본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였다.

종이와 붓을 찾아 후사(後事)를 써서 어린 아들에게 주었다. 형(刑)에 임하여 차고 있던 칼을 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일 백금(百金) 가격이다. 지금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는 이 칼로 속히 나를 베라.” 하였다. 형 집행자 또한 눈물이 앞을 가렸고, 본영 이졸(吏卒)들은 도망가고 대소 남녀가 모두 서로 이끌며 통곡하고 우는 것이 친척처럼 슬퍼하였다고 한다.

조공이 듣고 나서 측은해 하고 강개(慷慨)하여 주렁주렁 눈물 흘리고 말하기를 “이 일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족하다. 내가 그 일을 도모하겠다.” 하였다.

아! 공이 괴결(魁傑)의 재목으로 한 때의 중망을 짊어지고 병자년·정축년의 위기의 때를 당하여 홀로 한 지역을 맡게 되었는데, 그 방략을 펴서 다행히 성공했으면 진실로 임진왜란 때의 이순신 통제사가 되었을 터이고, 불행히도 성공하지 못하였으면 또한 무오년의 김 장군¹⁴²⁾이

142) 김응하(金應河, 1580~1619년)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안동. 철원 출신. 1618년 명나라가 후금을 칠 때 조선에 원병을 청해오자, 도원수 강홍립(姜弘立)을 따라 압록강을 건너 후금정벌에 나섰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자, 3천명의 휘하군사로 수만명의 후금군을 맞아 고군분투하다가 중과부적으로 패배하고 그도 전사하였다. 이듬해 명나라 신종(神宗)은 그가 용전분투하다가 장렬한 죽음을 당한 데 대한 보답으로 특별히 조서를 내려 요동백(遼東伯)에 봉하였으며, 처자에게는 백금을 하사하였다. 조정에서도 그의 전사를 가상히

되었을 것인데, 경징의 무리에게 (방략이) 저지되어 마침내 무위로 끝났다. 졸지에 경징 장신과 더불어 함께 죽게 되었으니 사생(死生)은 명(命)인 것이어서 공에게 무슨 관계될 것이 있겠는가? 그것이 나라의 형벌에 있었는데 어찌하겠는가? 이로부터 위로는 조정안의 사대부들로부터 아래로는 위포이서(韋布吏胥)¹⁴³들에 이르기까지 또 부유하천(婦孺下賤)¹⁴⁴에 이르기까지 그 원통함을 쟁송하고 그 뜻을 가엾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날과 같았다. 이처럼 인심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무릇 병자록 강도록을 당시의 문인들이 지어내었으니 나 학사(羅學士) 만갑(萬甲)은 그 충렬이 최고이다. 그 사실을 자세하게 실어 이것을 일대의 신사(信史)가 되게 했다.

공은 진주인(晉州人)이다. 자과(子果)는 그 자(字)이다. 그 6대조 휘 희맹(希孟)은 좌찬성 문양공(左贊成文良公)이고, 5대조 휘 구손(龜孫)은 우의정 숙헌공(右議政肅憲公)이고, 고조는 휘 태수(台壽) 순천도호부사이며 증조는 휘 복(復)으로 충좌위부사용이며, 조는 휘 극성(克誠)으로 의정부 사인이며 증흥문관직제학이며, 고는 휘 세경(世慶)으로 장예원사의이다. 비(妣)는 완산 이씨로 효령대군의 후손이다. 송산부정(松山副正) 건(健)의 증손이며 현감 지훈(枝蕙)의 손녀이며 현령 유(輿)의 딸이며 찰방 홍극찬(洪克纘)의 외손이다.

공은 만력 20년(1592) 임진 3월 초 1일 신유에 태어나 승정 10년(1637) 9월 21일 병술에 사망하였다. 나이가 46세였다. 공이 갑자년에 총랑(摠郎)으로 나가 이산(埋山)군수가 되었고 병인년에 내간상을 만났고 복상을 겨우 마치자 즉시로 추조랑(秋曹郎)에 배수되었다. 경오년에 군기시 첨정으로 바뀌었고 이때 정충신이 부원수로 서쪽 변방에 마을을 개척하는

여겨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143) 위포이서(韋布吏胥) : 위포(韋布)는 가죽띠와 배옷으로 가난한 자의 복장을 말함이니 벼슬하지 않은 선비, 이서(吏胥)는 관청 실무를 보는 아전.

144) 부유하천(婦孺下賤) : 부녀자 · 어린아이 및 미천한 무리

데 막하에 문사와 무사를 극히 선택하였다. 공 또한 함께하게 되어 용강현령에 배수되었다. 신미에 철산부사에 승진되고 을해년(1635)에 수안부사로 옮겼으며 얼마 아니 되어 충청수사로 나갔다. 이것이 공의 평생 이력이다.

부인은 성주(星州) 이씨로 고려명신 문열공 조년(兆年)의 후손으로 성품이 본래 단정하고 성실하며 정숙하였다. 예절을 스스로 지키고 친척들이 모두 마땅해 하였으니 고녀(古女)의 사풍(士風)이 있었다. 병자년의 난리에 지평 용문산 중에 피난하였다가 강도 함락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을 찔렀다. 이때가 정축년 정월 19일이었다. 이때는 강도가 함락되기 3일 전이었다. 대개 길에 소문이 자자한 것에 기인하여 와전된 것이 그리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나이는 36세였다. 조정에서 듣고 가상하게 여겨 그 문에 정려했다. 공과 더불어 용문(龍門) 동쪽의 광탄(廣灘) 서좌(西坐) 건향손원(乾向巽原)에 합장했으며 선대부(先大夫) 부친묘에서 소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이다.

남자 재후(載後)는 무과이고 사인 임유(任愈)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1녀가 있는데, 남자 석구(錫龜)는 감찰 박상현의 딸에게 장가들어 남자 2명이 있는데 창부(昌溥) 현부(玄溥)이다. 여자는 황성구(黃聖龜)인데 통정 목사(通政牧使)이다. 계자(繼子) 민(旻)이 있다. 측실 남에는 석룡(錫龍)이고 여는 이상우(李相佑)이다.

내가 태어난 후 공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공이 충의대절이 있음을 익히 들었다. 성장하면서 부친과 함께 지낼 때 강도(江都)의 일을 들을 수 있었으며, 시원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존경하였다. 이미 또 조우(趙友) 말을 듣고 또한 놀라지는 않았지만 당황스러웠다. 이제 비로소 가장(家狀)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써서 조우의 책함을 막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 지하에서도 의지 할 수 있게 되었다.

족손 통훈대부 행 성균관사에(成均館司藝) 석규(錫圭) 재배하고 쓰다.



〈그림 41〉 강화도와 병자호란 당시 충청수군의 위치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군함 7척과 수군 200여 명을 지휘하여 강화도로 달려간 충청수사 강진흔은 갑곶연안에서 도하작전을 전개하는 청군과 용감히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청군은 나루를 건너 강화도를 점령하였으며, 결국 조선은 치욕의 항복을 하고 말았다. 병자록에 의하면 열심히 싸우지 않는 주사대장 장신 때문에 열심히 싸운 강진흔에게는 얼마나 절박한 전투였지는 충청수사 강진흔이 상관인 주사대장 장신에게 “네가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받고서 어찌 차마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베어 죽이겠다.”로 소리친 정황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는 패전으로 이어졌고, 또한 강진흔은 살아남았으니 결국 국법에 의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었다. 오죽했으면 충청수영의 군졸들이 대궐에 집단으로 탄원하고 슬퍼하였겠는가. 만약 강진흔이 전사했든지 바다에 투신했으면 사후에 영웅이 되었겠지만, 용감히 싸우고도 살아 남은 죄로 실록에서는 패전의 장수로 평가되어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다.

그리고 균을시행도 불공정했으니 더욱 억울할 것이다. 김경징, 장신 등이 조정내의 여러 힘있는 배경으로 인하여 예우를 갖춘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저자거리에서 참수를 당했던 것이다. 또한 강진흔과 충청수군의 갑곶 싸움은 경기수군이나 수군 연합부대가 치렀어야 정상이나 지휘부의 작전 실패로 경기수군은 교동도에, 장신 수군은 광성진에 배치되어 충청수군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고, 훗날 경기수군보다 더 심한 책임 추궁을 당한 것 또한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나만감이 지은 병자록에 가장 용감히 싸우고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장수로 평가 기록되면서 그 진실이 후세에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은 용감하게 열심히 싸운 충청수사 강진흔으로 평가되고 있다.

병자호란 당시 경기도의 수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더구나 객군(客軍)으로서 결정적 시간에 결정적인 장소에서 용감히 싸웠던 충청수군과 수사 강진흔이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충청수영이 있는 보령 지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3) 수군절도사 명단

조선시대 충청수사의 임기는 2년이었는데, 『충청수영사례집』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 의해 부임일을 고찰하여 기록한 것이다.

水軍使道 次序(忠清水營事例集)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僉使		都節制使		僉使	
1	洪自海	3	曹彦	4	姜楊
2	辛悅			5	盧仲齊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6	玄仁貴(1408. 3. 재임)	25	金益生	49	韓忠仁
兵馬水軍節度使		26	池有容	50	申峻
7	李龜鐵	27	盧龜祥	51	金致云
8	辛有定	28	金孝誠(1434. 10. 임명)	52	洪白涓
9	金重寶	29	申得海	53	李純
都節制使		30	李樺	54	朴擁
10	金文發(1411. 3. 在任)	31	尹重富(1440. 7. 재임)	55	河淑溥
11	崔龍和	32	李尙恒	56	李厚仁
兵馬水軍節度使		33	安崇直(1443. 12. 임명)	57	孫繼良(1482. 5. 在任)
12	李之實	34	李穰(1444. 9. 임명)	58	金世勳
13	柳濕(1405. 7. 임명)	35	朴培(1446. 7. 임명)	59	李朝陽
14	趙秩(1409. 10. 임명)	36	洪約(1447. 11. 임명)	60	卞宗仁
15	金尙旅	37	李嶺	61	金世衡
都節制使		38	柳江	62	申未舟
16	王鄰	39	朴靖(1453. 10. 임명)	63	河孟潤
17	李推	40	金允壽(1455. 12. 在任)	64	柳睇
兵馬水軍節度使		41	金師禹(1456. 1. 임명)	65	吳純
18	具成亮	42	李孝誠(1459. 7. 임명)	66	尹未孫
都按撫處置使		43	權軀(1460. 11. 임명)	67	申用漑
19	元胤(1420. 10. 임명)	44	李宗孝	68	柳軒
20	邊灑(1422. 4. 임명)	45	成貴達(1464. 7. 임명)	69	李良(1505)
21	禹博	46	金嶠	70	南孝元(1506)
22	尹夏(1423. 12. 임명)	47	安仁厚	71	金五倫
23	李尙興	水軍節度使		72	李長生(1509)
24	李中至	48	金奉元	73	李胤宗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74	鄭殷富	99	方好義(1545. 11. 在任)	124	李龜深
75	鄭允謙	100	金胤宗	125	奉訢(1572. 11. 임명)
76	禹孟善	101	尹先知	126	柳敬先
77	沈順徑	102	李世麟(1550. 9. 在任)	127	李昕
78	金良弼	103	崔守仁	128	徐山封
79	韓忠	104	金淑	129	柳夢龍
80	高自謙	105	鄭台誠	130	朴麟壽
81	尹任(1523)	106	金公奭	131	梁思瑩
82	黃琛(1523. 7. 재임)	107	吳滄	132	鄭元祥(1573. 8. 임명)
83	韓碩	108	申○	133	金鋸
84	李玉衡	109	沈鏞	134	金璨
85	朴琛	110	李元祐(1559. 7. 在任)	135	李淮壽(1587. 12. 在任)
86	朴世英	111	朴秀麟(1560. 7. 在任)	136	卞國幹(1587. 12. 임명)
87	安瑞鳳(1528. 8. 在任)	112	尹先智(再)(1562. 7. 在任)	137	成應吉
88	柳泓(1532. 2. 在任)	113	李大伸	138	劉克良
89	禹孟善(再)(1526 在任)	114	許世麟	139	韓繼男
90	金秀淵	115	李欽禮	140	崔潤德
91	金末孫	116	李巖(1563 재임)	141	邊良俊(1592. 6. 재임)
92	元彭祖	117	申顯	142	丁傑(1593. 2. 在任)
93	尹汝諧	118	洪致武	143	具思稷(1594)
94	金瑚	119	宋重器(1566. 6. 임명)	144	李純信(1594)
95	梁允英	120	洪彦誠	○	崔湖(1596 임명)
96	南致勤(1543. 12. 在任)	121	白惟倫	145	權俊
97	池世芳(1544. 6. 在任)	122	鄭亨國	146	吳應台(1598)
98	韓琦(1545. 11. 在任)	123	金堉	147	朴名賢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148	吳應台(再)	173	李昌庭(1624. 3. 在任)	198	具義俊(1653. 6. 在職)
149	李純信(1600 再)	174	金孝信	199	李壽昌(1653. 10. 임명)
150	柳珩	175	金起宗(1626. 7. 임명)	200	金漢文(1654. 6. 임명)
151	禹致績(1601. 1. 임명)	176	鄭應聖(再)(1626. 8. 임명)	201	金素(1655. 7.)
152	成允文(1603)	177	奇宗獻	202	李仁夏(1656. 10. 임명)
153	裴興立(1604)	178	宋英望(南行)	203	元翮
154	洪昌世(1605. 10. 임명)	179	李慶餘(1630. 10. 임명)	204	李沂?
155	奇孝福(1606. 3. 임명)	180	白善男(1631 임명)	205	朴之墉(1659. 3.)
156	李光英	181	閔仁佶	206	邊岌(1660. 4. 임명)
157	李侃	182	宋英望(再)(1629. 7. 在任)	207	李枝遠(1660. 7.)
158	李燧	183	李言揚	208	李仁夏(再)(1662. 2. 임명)
159	崔垆	184	許完(1635 재직)	209	李尙敬(1664. 3. 임명)
160	柳止信	185	柳持敬(1635. 7. 임명)	210	李璞(再)(1666. 3.)
161	李英	186	奇宗獻(再)(1637. 3. 在任)	211	申汝哲(1667. 8.)
162	李止孝(1612. 임명)	187	李英達(1637. 6. 임명)	212	鄭漢驥(1666. 7.)
163	李廷彪	188	金述(1639. 9. 在任)	213	權道經(1669. 11. 임명)
164	鄭應聖(1626. 8. 임명)	189	閔震益(1640. 3. 임명)	214	鄭斗齊(1673. 6. 在職)
165	朴毅長	190	一人削名	215	尹昌亨(1673. 7. 임명)
166	李慶裕	191	沈之溟(1643. 9.)	216	李必馨(1675. 5.)
167	朴燁	192	盧孝誠	217	鄭德謙(1676. 10.)
168	金義直(1616. 1. 임명)	193	全導性	218	趙師錫(1678. 8. 在任)
169	申景澄(1617. 11. 在任)	194	金是聲(1648. 2. 在職)	219	李穰(1679. 6.)
170	柳琳(1618. 6. 임명)	195	嚴愧(1648. 9. 임명)	220	李立身(1680. 6.)
171	李楹	196	李垆(1650. 10. 在職)	221	尹時達(1681 在任)
172	李檐	197	申垆(南行)(1651. 12. 임명)	222	閔晟(1681. 8.)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223	韓侃(1684 재임)	248	鄭壽松(初)(1717. 2.)	270	尹光莘(1744. 5. 임명)
224	蘇斗山(1685. 1.)	249	崔鎮漢(1718. 3.)	271	李彥祥(再)(1745. 1. 임명)
225	韓樞(1685. 6.)	250	申光夏(1720. 4. 임명)	272	柳澐(1745. 10. 임명)
226	李枝遠(再)(1687. 1.)		南泰徵(1721. 1. 10. 임명)[실록]	273	具善行(1747. 5. 임명)
227	金益勳(南行)(1687. 8.)		朴纘新(1721. 4.)[실록]	274	吳命修(1748. 3.)
228	盧銓(1688. 7.)	251	李夏禎(1721. 윤6. 임명)	275	趙東晋(1748. 8. 임명)
229	鄭弘佐(1690. 9. 在職)	252	李徵休(1723. 4. 임명)	276	申思彦(1749. 8. 임명)
230	禹弼漢(1690. 9.)	253	洪時九(1724. 3. 在任)	277	孫鎮民(1750. 9. 임명)
231	李光震(1692. 7.)	254	李復休(1725. 8. 在任)	278	吳璞(1752. 7.)
232	韓公俊(1693. 5.)	255	李彥祥(1725. 10. 임명)	279	徐宗伋(1753. 12. 임명)
233	黃銓(1696. 12. 在職)	256	柳澐(1727. 8. 임명)		趙載浩
234	李惠疇(1697. 1. 在職)	257	柳星樞(1729. 5.)	280	李柱國(1754. 윤4. 임명)
235	洪夏明(1699. 1.)	258	尹宅鼎(1730. 8. 임명)	281	林時侗
236	李錫(1699. 6.)	259	朴鑽(1732. 5.)	282	具秉勳(1757. 10. 임명)
237	金重三(1700. 5.)	260	李義翼(1734. 2. 임명)	283	張志豐(1758. 12. 임명)
238	申漢章(1702. 2.)	261	趙虎臣(1735. 10. 임명)	284	金範魯(1759. 12. 임명)
239	南崙(1703. 3.)	262	許晶(1736. 6. 2. 임명)	285	安允福(1762. 1.)
240	全百祿(1705. 2.)		趙國彬(1736. 6. 1. 임명)	286	田光國(1763. 11.)
241	尹慤(1707. 7.)	263	李行儉(1736. 12. 임명)	287	李廷壽(1765. 9.)
242	白時耇(1709. 1.)	264	田云祥	288	李彥熙(1767. 6. 임명)
243	李順坤(1710. 9.)	265	鄭壽松(再)(1738. 10. 임명)	289	李思觀(1768. 6.)
244	金洙(1711. 3.)	266	李命祥(1740. 5. 임명)	290	徐有大(補外)(1768. 8. 임명)
245	具鳳昌(1713. 2.)	267	趙德中(1742. 2. 임명)	291	徐命應
246	張鵬翼(1714. 7.)	268	李漢弼(1742. 6. 임명)	292	田光勳(1769. 6. 임명)
247	李漢珪(1715. 9.)	269	一人杖斃拏籍	293	一人無姓名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294	朴聖浹(1770. 3.)	317	具明遠(1799 在任)	342	柳文儉(1834 임명)
295	李聖師(1772. 7. 임명)	318	李顯宅(1799 임명)	343	李濟完 (1836 임명. 丙申到戊戌遞)
296	具明謙(1774. 4.)	319	李近靑(1801 재직)	344	
	一人無姓名(사례집)	320	朴應浩(1802 임명)	345	沈有祖(1839. 9.)
297	李長燦(1774. 12. 임명)	321	金守基(1803 임명)	346	吳致賢(1841. 5.)
298	金麟瑞(1775. 1. 임명)	322	尹頤東(1805. 3.)	347	趙禹錫 (壬寅二月初一日 到 甲辰 三月全兵)
299	元厚鎭(1776. 11. 임명)	323	安宗厚(1807 임명)	348	
300	吳載熙(1777. 10. 임명)	324	李吉培(1808 임명)	349	鄭宅善 (1846 임명. 丙午三月到, 以胡**)
	柳鎭說(1778. 10. 임명)	325	李石求(1809 임명)	350	
301	任崱(1780. 7. 임명)	326	元毅鎭(1810 임명)	351	申紹 (1847 임명. 丁未九月到兵 戊申 四月遞*)
302	南憲喆(1781. 5.)	327	李謙會(1811 임명)	352	
303	申敞(1782. 5. 임명)	328	趙義鎭(1812 임명)	353	李倫叙(庚戌二月到)
304	李潤彬(1784. 4. 임명)	329	李載弘(1815 임명)	354	李南軾 (1851 임명. 壬子四月到****)
305	趙心泰(1784. 10. 임명)	330	趙在昇(1817 임명)	355	
306	李延弼(1786. 8. 在任)	331	李周鳳(1818 임명)	356	徐箕淳 (已行西詮 補外甲寅三月 二九日到)
307	沈성?(土省)(1786. 10.)	332	具絳(1818. 10. 임명)	357	
308	洪仁默(1787. 8.)	333	申純(1820 임명)		
309	邊慶遇(1788. 3.)	334	尹相重(1826 임명)		
310	柳文植(1790. 4. 在任)	335	趙台錫(1824 임명)		
311	金明遇(1791. 5. 在任)	336	沈日永(1826 임명)		
312	李潤謙(1774. 재임)	337	朴潤榮(1827 임명)		
313	尹範叙(1794 임명)	338	尹喜用(1629 임명)		
314	柳心源(1794. 10. 在任)	339	李貞坤(1830 임명)		
315	閔光升(1796. 6.)	340	李載亨(1832. 2.)		
316	安櫛(1796. 10.)	341	李栻(1832. 7.)		

번호	이름	번호	이름	번호	이름
358	李元熙 (乙卯丁月日到自宣川移拜)	365	徐相稷 (辛酉八月十五日到. 1861 임명)	376	李圭顔(自江界移於)
				377	李泰鉉(甲戌到. 1875 임)
359	趙台顯 (1856 임명. 丙辰五月到 自*川移拜)	366	李承駿(壬戌四月到)	378	李熙訥(丙子到. 1876 임)
		367	李教獻(1863 임명)	379	李教復(戊寅到. 1878 임)
360	蔡東健 (丁巳五月日到自濟州移拜)	368	申泰善(1863 임명)	380	李教弼(庚辰到. 1880 임)
		369	李熙完(1864. 6.)	381	沈宣弘(壬午到)
361	申命溫 (1857 임명. 丁巳十月日到)	370	李教昌(1864 임명)	382	梁柱宣(癸未到)
		371	任尙準	383	李正弼(甲申到. 1884 임)
362	宋在璿 (戊午四月日到. 1858 임명. 以鐵原**移拜)	372	李** (移插晉兵)	384	具然昌 (乙酉到. 1885 임. 丁亥十一月日 移拜康*)
		373	李志鼎 (丁卯二月到. 1866 임명) 自鐵原移拜戊辰正月*****		
363	李熙永 (己未十二月二十六日到. 1859 任. 辛酉正月全***)	374	張厚植 (戊辰三月到. 1867 임명)	385	吳正善(丁亥到. 1887 임)
364	金在徽 (辛酉正月十三日到. 1860 任***移拜. 辛酉 七月****)	375	趙存一 (己巳四月二十八日到. 1869 임명. 自鐵原移於)	386	閔致一(1889 임)
				387	李*
				388	李庠珪(1892. 1.)
				389	李鳳九(1893. 11.)

※ 숫자는 충청수영사레집의 기재 순서임

* 는 충청수영사레집의 판독 불가능 글자

○는 충청수영사레집에 없는 수사임

연도 표시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검색결과이며, 표시가 없는 것은 검색결과가 없는 것임.

8) 충청수영 봉수망



충청수영성과 망해정 봉수의 위치

충청수영은 자체 권설봉수(權設烽燧)를 전방 바다의 후망을 위하여 도서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바다 깊숙한 지역으로 일직선으로 봉수대를 설치하여 외양(外洋) 감시를 위하여 운영한 점이 특징이다. 권설봉수(權設烽燧)란 필요에 의해서 지역 관방의 중심지에서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한 봉수대를 말한다. 보령도서 지역 권설봉수는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봉수이다. 즉, 어청도봉수 - (18km) - 외연도봉수 - (19km) - 녹도봉수 - (23km) - 원산도봉수 - (8.7km) - 수영 망해정 봉수의 전보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는 바다를 통하여 수도권으로 접근하는 왜적을 신속히 탐지하는 기능과 함께, 조선 후기 급증하는 이양선 등 서양 세력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 최종 망해정(望海亭) 봉수의 위치는 수영 뒤의 산줄기가 약간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오천면 영보 2리 밤까시 마을의 뒷산에 위치한다. 이 산은 해발 약 110m 정도에 불과하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뻗어 내리는 산줄기에 형성된 봉우리이기 때문에 내륙 쪽의 전망만 제외하고 전면



〈그림 42〉 보령지역의 봉수 노선도

과 좌우의 전망이 아주 좋다. 수영에서는 남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영을 한눈에 내려다봄과 동시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고 특히 원산도를 가장 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수영이 만입한 곳에 있고 더구나 앞에는 보령시 천북면을 이루는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외양을 후망(後望)하는 데는 상당한 약점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 망해정 봉수가 있어 수영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 깊숙한 만입지에 들어앉은 수영과 외양을 연결해 주는 수영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어청도·외연도·녹도·원산도는 조선시대는 행정 구역상 홍주목에 속한 도서들이었으나, 충청수영의 관방 체제와 관련하여 충청수사가 관장하던 섬들이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외연도·녹도·원산도는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녹도리·원산도리로, 그리고 어청도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로 개편되었다.

어청도는 뱃길로 군산에서 서쪽으로 72km, 충청수영이 있었던 보령 오천에서 서남방으로 68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조선시대는 잉분도(莛盆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외연도는 어청도의 동북방 19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51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외안도(外安島)로 불리기도 하였다. 녹도는 외연도 동북방 16.25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는 서남방 31km 지점에 있다. 원산도는 녹도의 동북방 16.9km 지점에 있으며 오천에서 서남방 12.15km 지점에 있다.

이렇게 충청수영에서 서남방으로 바다를 향해서 뺏어내려 간 원산도 → 녹도 → 외연도 → 어청도를 연결하는 선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바다를 통하여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왜적을 감시하고, 또한 바다 건너 중국을 경계하는 역할을 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왜적 감시 역할이 조선 후기에 오면서 그 기능은 약화되었지만 접근해 오는 이양선 등 서양세력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수영의 권설봉수(權設烽燧)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이 권설봉수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신속히 수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청도 → 외연도 → 녹도 → 원산도 → 수영 망해정의 전보관계를 가진다.

한편 충청수영 권설봉수는 봉수대 간의 거리도 어청도 - (19km) - 외연도 - (16.25km) - 녹도 - (16.9km) - 원산도 - (12.15km) - 수영 망해정으로 육지의 봉수대 간 거리보다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통망(通望)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해무(海霧)로 인한 어려움은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봉수대가 조선전기인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홍주목 봉수조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확하게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청도와 외연도 녹도봉수에 관한 기록이 조선 후기 『備邊司謄錄』에 등장하고, 이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增補文獻備考』의 기록이 있어 이들 봉수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備邊司謄錄』 숙종 33년(1667) 1월 16일조 <外安島 於靑島 鹿島 烽軍 入番弊>에,

외안도(外安島)와 어청도(於靑島)는 바다 가운데 있어 멀리 망보기에 편리하므로 일전에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이 진(鎭)을 설치하도록 아뢰어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진보(鎭堡)를 설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형편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곤란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고 복계하였습니다. 그 후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의 보고서 중에 이미 20여 호(戶)를 모집하여 두 섬에 나누어 들였으며, 사천(私賤)은 남쪽 진포(鎭浦)의 토졸을 전례대로 그들의 상전(上典)으로 하여금 신공(身貢)만 거두고, 데리고 가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 양인으로서 역(役)이 없는 자는 정역시키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도 부세를 거두지 말아서 보존시킬 터전이 되게 하였습니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세는 이대로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각 고을에서 여유 있는 원래 봉군(烽軍)을 뽑아내어 외안·어청·녹도(鹿島) 등 세 섬에 감관(監官) 2명과 5명의 군인을 충정(充定)하였고, 원산(元山) 해망제(海望齊) 두 곳의 봉군은 군인 1명만을 감원시켜 모두 3번으로 마련하여 들여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복계하고 윤희를 받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이어 충청도 사람에게 거행되는 형편을 상세히 듣건대, 봉군이 원래 부실하고 정원수가 여유 있는 곳이 없으며, 원래 정해진 봉수(烽燧)에도 오히려 법대로 횃불을 들지 못하니, 벌써 봉화를 조심해서 하는 뜻이 없거늘 거

기에다 봉군을 털어내어 새로 설치된 먼 절도에 나가게 하여 돌려가며 번을 서도록 한다면, 지탱하기 어려운 폐단이 두루 여러 고을의 봉군들에게 미치게 되어, 도망치는 자가 잇따르고 원망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설치된 봉대(烽臺)가 설혹 망보는 데 유익하다 하더라도 역시 잔폐한 봉군들을 억지로 번에 나가게 하여 보존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곳 외안도는 아주 먼 섬이어서 만약 적선(賊船)이 줄지에 오게되면 도리어 붙잡혀 길잡이가 될 근심만 있으며, 제 때에 봉화를 들어 통보할 형편은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봉수란 늘 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응할 수가 없으니 폐단만 있고 이익이 없는 일은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외안·어청·녹도 등 세 섬에 봉화를 올리고 망을 보게 한다는 일은 즉시 혁파하고, 원산의 봉수만을 그전대로 계속하게 하소서. 또한 다른 곳의 봉군을 털어내어 번을 서게 한다는 일도 마찬가지로 혁파하고, 수영에서 계획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이로써 감사와 수사에게 아울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위 『備邊司臚錄』의 기록에 의하면 충청감사 조위명(趙威明)¹⁴⁵⁾에 의하여 어청도·외연도·녹도에 진(鎭)과 봉수 설치 논의가 제기 되었고 이어서, 충청수사 이필형(李必馨)에 의해서 어렵게 봉수대가 설치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육지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봉군 충원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비변사에서는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속종 3년(1677) 폐지하고 원산도 봉수만 유지하여 망해정 봉수와 전보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만 본다면 어청도 외연도 녹도는 17세기 후반에 설치되어 운영되다

145) 趙威明(1640~1685년)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675년 충청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다.

가 폐지되고 원산도 봉수만이 운영되어 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충청도의 도서지역 권설봉수 기록이 조선 후기 숙종 이후의 다른 읍지나 지리지 등에 기록이 없다가 오직 19세기 후반의 『大東地志』에만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흥선대원군 때 서양세력과의 수교 통상 거부 정책 과정에서 더욱 바다의 권설봉수를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꼈고, 실제로 이를 강화시켜 많이 운영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설봉수는 충청수영이 폐지되는 시기까지 계속 기능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서지역의 봉수대를 확인 답사하면서 녹도에서 19세기 녹도 봉수별장을 지낸 밀양 박씨 집안의 녹도봉수대와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기록을 통하여 추론하여보면 어청도·원산도·녹도의 봉수가 비록 숙종 3년(1677)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해도 충청수영에서는 조선 후기 접근하는 서양세력 경계와 조운선 안내 등의 필요성에 의해 계속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녹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6.25 전후까지도 도서지역의 통신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육지나 섬 사이의 연락을 주고받는 데 봉수대에서 신호를 사용하였다 하니, 도서지역의 봉수대야말로 과거에는 도서지역에 있어서는 최고의 통신수단이었던 것이다.

충청수영 권설 봉수대

순	봉수대명	위치	해발 고도	특징	출토 유물	기록
1	망해정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118.7m	• 한말 포대 설치 흔적 • 충청수영 권설봉수	기와편 그릇편	대동지지
2	원산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17.9m	• 원형이 잘 보존됨 • 다듬은 돌로 석축 •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3	녹도봉수 (권설봉수)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90여m	• 원형이 잘 보존됨 • 자연석으로 석축 • 충청수영 권설봉수		대동지지

순	붕수대명	위치	해발 고도	특징	출토 유물	기록
4	외연도붕수 (권설붕수)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273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이 잘 보존됨 • 자연석으로 석축 • 충청수영 권설붕수 		대동지지
5	어청도붕수 (권설붕수)	전북 군산시 옥서면 어청도리	2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형이 잘 보존됨 • 자연석으로 석축 • 충청수영 권설붕수 • 현재 현지 해군부대 관리 		대동지지



원산도붕수대(2004년)



녹도붕수대(2004년)



외연도붕수대(2004년)



어청도붕수대(2004년)

9) 병인박해와 선교사의 순교·순교자 이외의 처형 상황

갈매못 순교 성지는 보령시 오천면 영보리 바닷가에 있는 천주교 순교성지이다. 1866년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행해진 병인박해 때 안 다블뤼(Daveluy) 안토니오 주교, 민 위앵(Huin) 루까 신부, 오 오매르뜨(Aumaitre) 베드로 신부, 장주기(張周基) 요셉 회장, 황석두(黃錫斗) 루까 회장 등 5인의 성인(聖人)이 순교한 곳이다.

안다블뤼 안토니오 주교(49세)는 프랑스인으로 1866년 3월 제 5대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어 충남 서부지역 포교에 전념하던 중 황석두(53세)와 함께 당진 지방에서 체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프랑스인 오 오매르뜨 베드로 신부와 역시 프랑스인 민 위앵 루까 신부(30세)도 더 많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수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의금부로 압송되어 가혹한 문초를 받은 뒤 군문효수형이 확정되었다. 처형 장소는 해읍정법(該邑正法) 즉 범죄가 발생한 고을에서 범인을 처벌하는 원칙에 의해 호서 지역에서 처벌하는데, 호서 지역에서 군문효수를 시행할 수 있는 곳은 보령의 충청수영이었기에 이곳까지 끌려와 갈매못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장주기 요셉(63세) 회장도 그들과 함께 순교할 것을 결심하고 스스로 죄인 행렬에 참가하여 함께 3월 30일 처형되었다. 이들은 처형되는 순간에도 편안한 표정과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 땅의 천주교 번영을 하나님께 기원하며 죽어갔다고 한다.

이들의 유해는 3일 뒤, 황석두는 가족들에 의해 연풍으로 안장되었고, 나머지 4명은 사형장 부근에 매장되었다가, 남포 서지골(현재의 미산면)로 이장되었고, 1882년 일본의 나가사키로 옮겨졌다가 천주교 포교의 자유가 인정된 후인 1894년 서울 용산 신학교를 거쳐 1900년 서울 명동성당 지하실에 안치되었다. 이어서 1967년에는 절두산 순교 기념관에 안치되었다.

조선 말기 병인박해 때 국내신도 8,000여 명이 처형되었고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었는데 그 중의 3인이 이곳 갈매못에서 처형된 것이다.

나라에서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프랑스 선교사 3명을 추적하였다. 이때 탈출에 성공한 리델 신부가 중국에 있는 프랑스 해군 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박해 사실을 알려 병인양요를 초래하게 된다.

이 순교성인 5인은 1968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로마 교황청에서 시복(諡福)되었다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는 1984년 5월 6일 서울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諡聖)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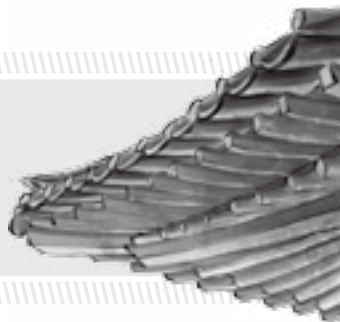
이 갈매못 사형장은 1926년 부여 금사리 본당 주임 정규량 신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견되었으며, 1968년 대천성당 유영소 신부와 신자들의 노력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1975년 순교 복자비를 세웠다. 1999년에는 경당과 사제관 수녀원 등이 완공되면서 성역화되어 이 땅의 천주교를 위해 기꺼이 몸을 바친 5인의 성인을 기리고 있다.

이외에도 그 후에 충청수영 갈매못에서 처형된 천주교 신자는 충청도 신창 사람으로 홍주에서 포교하다 체포된 박 베드로, 홍주 사람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손치양, 공주 사람으로 오펜르트 도굴사건 때 구만포에서 서양 배와 내통했다가 서울에서 체포된 이영중, 덕산 사람으로 서울에서 체포된 이 발토로메오, 호서 출신으로 수영에서 체포된 임운필 등이 사형당하였다.



갈매못 성지

3. 충청수영의 속진



- 1) 마량진(馬梁鎭)
- 2) 소근진(所斤鎭)
- 3) 안흥진(安興鎭)
- 4) 평신진(平薪鎭)
- 5) 서천포영(舒川浦營)
- 6) 파지포영(波知浦營)
- 7) 당진포영(唐津浦營)



3. 충청수영의 속진

1) 마량진(馬梁鎭)

(1) 마량진의 설치

마량진은 첨사영으로서 장항의 서천포만호영을 지휘하면서 충청수영 관내의 남부 지역인 현재의 보령시 남부해안과 서천군 지역 해안 방어를 담당한 수군기지였다.

그 위치는 조선 초기에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있었고, 조선 후기에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옮겨져 설치되었다. 마량진의 위치는 현재 학계에서 발간되는 모든 도서(圖書)에 시기 구분 없이 서천군 비인으로만 표시되고 있는데,¹⁴⁶⁾ 그만큼 마량진의 위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마량진이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에 있었던 기간과,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었던 기간은 조선 500년 동안 거의 절반씩 비슷한 기간이었으며, 마량진성(馬梁鎭城)도 보령 웅천에 남아 있다. 마량진이 처음 설치된 곳은 현재의 웅천읍

14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이기백, 『한국사 신론』 등

황교리 광암마을인 웅천천 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웅천만구(熊川灣口) 지역이다.

웅천천은 보령시 성주산과 부여군 만수산에서 발원하여 감입곡류하면서 서해바다로 유입되는 36km에 이르는 하천이며 충청서해안 지역에서 금강과 삼교천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하천이다. 과거에는 大川으로 불리면서 이 고장의 젓줄과 교통로 역할을 하던 곳인데¹⁴⁷⁾ 현재는 하구에 부사방조제가 건설되어 그 주변은 대부분 육지화 되었다.

이 웅천천 하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외통로 역할을 하였던 곳이어서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웅천천 상류에 우리나라 선문9산 중의 하나인 성주사(聖住寺)가 세워졌는데, 이 성주사는 백제시대에는 오합사(烏合寺)라는 절이었다. 오합사에 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의 문헌에 나타나고 있으며, 『聖住寺事蹟記』에서도 성주사의 전신이 오합사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최근의 성주사지 발굴조사에서도 백제시대의 가람지와 유물이 확인되었다.¹⁴⁸⁾

『성주사사적기』에는 백제 법왕이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오합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성주선원(聖住禪院)이라고 하고 있으며, 『삼국유사』에는 의자왕 19년에 크고 붉은 말이 오합사에 나타나 밤낮으로 여섯 번이나 절을 돌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삼국사기』에는 의자왕 15년에 붉은 말이 북악의 오합사에 나타나 울면서 절을 돌다가 수 일만에 죽었다고 하는 등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를 오합사와 연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사적기의 기록대로 전쟁에서 죽은 병사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찰이라면 백제시대 이곳 보령 남부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지역보다 컸으며,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난 점¹⁴⁹⁾이라든가, 사당적(祠堂的) 성격의

147)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조: 대천은 본현 남쪽 20리 지점에 있으며, 그 근원이 성주산에서 나와 靑淵浦로 들어간다. 靑淵浦는 본현 남쪽 23리 지점에 있으며, 彌造浦는 본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148) 충남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49)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백제 멸망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중앙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지방에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다.

원찰(願刹)이라든가 하는 점은 군사적 성격이 강하고 나라의 존망과 관련 있는 호국사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절이 사비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이 곳 서해안 보령의 사포현(寺浦縣 - 현재 웅천천 하류 지역)에 세워졌다는 것은 백제시대 이 지역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때 오합사의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의 포구가 사포(寺浦)로 불리면서, 대외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일본서기』에도 백제 멸망 징조와 관련하여 성주사의 전신이었던 백제 오합사(烏合寺) 기록¹⁵⁰이 나오는 것도 주목되는 현상이다. 『일본서기』에 오합사 기록이 나오는 것은 보령 남포 오합사에 일본 승려들이 내왕하였거나, 아니면 오합사가 일본과 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니 이때 일본과의 통로는 웅천천 하구가 된다.

따라서 웅천천 하구 지역은 금강하구와 함께 백제 시대 사비도성으로 통하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의 성주사는 선문9산의 하나로서 우리나라 선종불교를 크게 진작시키는 데 기여한 거대한 사찰이었다. 『성주사사적기』의 성주사 건물을 살펴보면 ‘전단림(梅檀林) 9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전단은 유향목재(有香木材)로 동남아의 자바나 수마트라에서 생산되었다. 자단(紫檀)이라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흥덕왕 때 수입을 금지한 사치품이었다.¹⁵¹ 이러한 전단으로 지은 건물이 성주사에 있었다는 것은 이것을 해외무역을 통해서 유입시키는 귀족이나 지방 호족의 해상 관문으로 웅천천 하구가 큰 포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150) 『일본서기』, 濟明 4年 백제가 신라를 토벌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한 말(馬)이 오합사 사찰의 金堂을 行道하기를 낮과 밤을 쉬지 않았다. 오직 풀을 먹을 때만 그쳤다. (百濟伐新羅還 時馬自行道於寺金堂 晝夜勿息 唯食草時止(或本云 至庚申年 爲敵所滅之應也))

151) 曹凡煥, 「朗慧無染과 聖住山門」,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이러한 대외 통로의 중요성 때문에 고려 원종 때는 웅천천 하구를 통하여 삼별초가 남포에 상륙하여 남포 감무(監務)를 잡아가지도 하였다.¹⁵²⁾ 고려 말에는 왜구 침입으로 우리나라 해안이 황폐화 될 때, 이곳 웅천천 일대에도 우왕 때인 1380년에 왜구가 쳐들어와서 10여 년 동안 황폐화되었고 백성이 사망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1390년(공양왕 2) 고남포(현재의 웅천천 하류 웅천읍 수부리)에 남포진성(藍浦鎭城)을 쌓고 병마사를 파견하여 흩어진 백성을 불러 모았다.¹⁵³⁾ 이것으로 보아 10여 년 동안 왜구들이 웅천천 하구의 포구에 배를 정박시키고 이곳을 교두보로 삼아 내륙지역을 약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⁴⁾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외 통로이면서 고려말 왜구의 침입 교두보 역할을 하던 웅천천 하류지역 고남포에 남포진성(藍浦鎭城)이 만들어져 태안의 순성진, 덕산의 이산진과 함께 조선초기 진관체제가 정비되기 전까지 충청도 지역 육군 3대 방어기지가 되었다.

이 남포진성의 일선 방어기지로 바다와 만나는 웅천천 하구에 고려말 조선초에 수군기지가 들어선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충청우도(忠淸右道) 수군도만호(水軍都萬戶)가 남포현(藍浦縣)의 구정(龜井)에 머무른다.’ 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고려말 이전이나 조선 초기에도 수군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포현의 구정은 현재 지명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남포현 관할의 해안인 현재의 보령시 남포면과 웅천읍 해안에서 요충지는 웅천천 하구이외에는 상정할 곳이 없다.

그런데 『세종실록지리지』 이전인 세종 18년경에도 마량포(馬梁浦)의 명칭이

152) 『고려사』 원종 13년 9월 무진

153)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고려사』 지리지나 『세종실록지리지』의 충청도 각 고을 소개에서 왜구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본 고을은 남포현만 기록되어있다. 다른 고을도 왜구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포현만 기록 된 것을 보면 남포가 왜구들의 주요 거점으로 교두보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54) 금강하구에도 고려말 倭船 500여 척이 정박하여 이 곳을 교두보로 삼고 약탈을 자행하자, 최무선이 화약으로 물리친 진포대첩이 있었고, 그 무리들을 추격하여 이성계가 남원에서 물리친 황산대첩이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고려 말 금강 하구와 웅천천 하구는 충남지역의 대표적인 왜구의 교두보였던 것이다.

나타나는 것을 보면¹⁵⁵⁾ 구정이라는 명칭은 마량포 주변의 또 다른 명칭으로 보인다.

이 구정의 도만호영은 세조 때 진관체제와 수군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마량진으로 불리고 경국대전에 공식적으로 기록된다. 마량진이 바다에서 웅천천 하구의 만구를 따라 내륙쪽으로 약간 들어온 곳에 위치한 관계로, 좀 더 바다쪽의 경계를 위하여 만구 건너편의 도둔곳에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하여 마량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초기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내륙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웅천천 하구를 양쪽에서 방어하는 체제도 갖춘 것이니, 당시 왜구침입에 대한 웅천천 하구지역 방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금강하구의 양쪽에 서천포영과 옥구진이 설치된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도둔곳은 현재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이다.

(2) 마량진의 이설(移設)

백제시대 이래로 웅천천 하구가 대외통로의 요충지이면서 왜구의 빈번한 침입 때문에 웅천천 하구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 광암에 설치되었던 마량진은 입지의 불편성으로 인하여 성종 때부터 이전 논의가 등장한다.

『조선왕조실록』 성종 21년(1490) 9월 28일 정축조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성건(成健)이 복명(復命)하고 서계(書啓)하기를, “남포(藍浦) 땅의 마량(馬梁)에 정박(碇泊)한 병선(兵船)은 조수(潮水)가 차면 뜨고, 조수가 물러가면 물에 있어 위급(危急)한 때에 쓰기는 어려우나, 적선(賊船)도 또한 반드시 조수를 타고서 오게 되니, 이 때에 우리도 또한 응변(應

155) 『조선왕조실록』, 세종 18년 6월 20일 을유

變)할 만합니다. 또 그 지역은 산이 둘러 있고 물이 넓어서 배를 감추어 둘 만합니다. 도둔곶(都屯串)은 비록 적로(賊路)의 요충(要衝)이라 하더라도 배를 정박하는 곳이 얇게 드러나 조수가 물러가면 배는 마땅히 물에 있게 되니, 마량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오나 마량은 본시 긴요한 곳이니, 진실로 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으므로, 그전대로 둬서 편하겠습시다. 도둔곶도 또한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이전에 조전소(助戰所)라고 일컫고, 마량 군관(馬梁軍官) 1인이 병선 1척(隻)과 수군 30명을 거느리고 나누어 방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병선 1척(隻)만으로 요해지(要害地)를 수비하기란 심히 고단(孤單)하니, 모름지기 마량진(馬梁鎭)의 소맹선(小猛船) 2척(隻)과 수군 60명을 더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소서.

이와 같이 마량진 이전 논의가 있게 된 것은 서해안의 특징인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한 입지의 불편성이었다. 마량진의 위치는 육지에서 뺏어온 산줄기에 형성된 웅천천 하구의 88m의 야산이 바다와 면한 지점에 있었는데, 이 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만구(灣口)여서 다른 곳보다도 간석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하여 썰물 시에는 배를 정박시키는 곳의 바닥이 드러나게 되며, 이때 뺏의 가운데에 겨우 수심 0.2~0.4m¹⁵⁶⁾의 물길만이 열릴 뿐이다. 이러한 지형이어서 현재는 그 하구가 간척되어 물으로 변하였다. 물론 밀물이 되면 강물과 어울려 완전한 바다를 이루고 또 진 앞에는 만구의 중심부로 내민 ‘과녁쭉불’로 불리는 한 줄기의 조그만 산등성이가 있어 천혜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 어떤 폭풍에도 절대 안전한 곳이 된다. 그러나 강 하구에 넓게 형성된 뺏은 자주 불편함을 노출하면서 진의 이전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다더라도 위 기록에서 지적한 대로 왜적 방어의 긴요한 곳이라는 점이 더 감안되어 이설의 실행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56) 대한민국 수로국, 해도

결국 조선후기 효종 때에 이르러 마량진은 웅천만구 건너편의 비인현 관내인 도둔곶 끝단으로 옮겨진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6년 11월 7일 정해조에,

충청도 비인현(庇仁縣)의(비인현은 남포현의 오기읍 - 필자 주) 마량진(馬梁鎭)을 도도(都島)에 옮겼다. 조정이 수사 김한문(金漢文)의 요청을 따른 것으로, 구진(舊鎭)이 배를 정박하는 데 불편했기 때문이다.

『국조보감』 효종 6년(1655) 11월조에,

비인현(庇仁縣)의 마량진(馬梁鎭)을 같은 현의 도도(都島)로 옮기도록 명했다. 옛 진(鎭) 자리가 배를 정박해 두기에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배를 정박해 두는 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옮겨졌는데, 이때는 마량진이 요충지로서의 기능보다는 뿔로 인한 불편성이 더 부각되어 결국은 옮겨진 것이다.

이러한 불편성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의 정세변화도 마량진 이설에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왕조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따라 왜적에 대한 경계는 약화되고 그 대신 대륙의 청나라와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이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면서 수도권 방어 중심의 국방 강화 체제를 구축한다. 그리하여 육군은 수도권 주변에 5군영이 설치되고, 수군은 인조 11년(1633) 경기도 교동에 삼도수군통어영을 설치하고 경기·황해·충청도의 수군을 통제하였다.¹⁵⁷⁾

임진왜란 당시 왜적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제영에 편입되었던 충청수영

157) 『萬機要覽』 군정편

이 양란 이후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삼도수군통어영에 편입된 사실은 남방의 왜구 방어보다는 수도권 방어 임무에 무게가 주어졌 것이다. 따라서 왜구 침입로에 위치하여 내륙 요충으로 들어가는 왜구를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하던 남포현 마량진의 위치는 중국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수도권 구원(救援)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때는 요충지로서의 중요성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서 남포 마량진은 왜적 방어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보다 빨리 인한 수군진 운영의 불편성이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의 충청 수군진의 위치는 조선전기의 왜구 방어 시기와는 다르게 수도권 방어를 위해 재편성되면서 내만(內灣)하여 숨겨진 곳이 아닌 좀더 바다 쪽으로 나간 육지의 끝단에 설치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내만한 곳에 있던 마량진이 도둔곶 끝단으로 이설되었던 것이다. 도둔곶은 이전에도 마량진의 분병수지가 설치된 곳이며, 도둔곶의 끝단은 오늘날 서천군 서면 마량리로써, 분병수지였던 도둔곶보다 더 바다쪽으로 나아간 반도 끝이어서 바다를 관찰하기에 매우 유리한 곳이며, 썰물시에도 바닥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¹⁵⁸⁾ 그리하여 현재도 어항(마량항)으로 이용되고 있다.

도둔곶 끝단인 현재의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마량진이 옮겨지면서 이 곳이 마량진으로 불려지고, 원래의 마량진이었던 보령시 웅천읍 황교리는 구진(舊鎭)으로 불려지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지명이 계속되고 있다.

(3) 마량진성

마량진의 이설 초기에는 조정에서조차도 마량진은 남포(보령)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¹⁵⁹⁾ 남포의 마량진은 그만큼 요충지였던 곳이었다. 충청수영

158) 마량항 주변은 썰물시에도 수심이 2.7~6.7m에 이른다.(앞의 海圖)

159) 『承政院日記』 현종 7년 1월 25일, 2월 25일조

의 속진 중에서 가장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무관심 지역으로 남은 곳이 오늘날 구진으로 불리는 남포현 마량진이니 만큼 마량진성은 사실상 학계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셈이다. 조선 초기 전국 수군기지 축성 정책에 따라 마량진도 중종 5년(1510)에 축성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포현 관방조에 ‘마량진은 본현의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우도수군첨절제사의 영문이 있으며, 그의 소관은 서천포이다. 첨절제사 1명이 있다. 정덕(正德) 5년 경오년에 비로소 돌로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371척에 높이는 9척이며 그 안에 우물하나가 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1510년 축성된 마량진성은 웅천천 하구의 88m 야산의 남사면을 에워쌌고, 내탁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남벽은 바닷물에 접해서 축조한 삼태기 모양의 조선전기 전형적인 수군진성이다.

다른 수군진성에 비해 산의 높이와 경사도가 가장 높아 성의 내부가 가파른 점이 특징이다. 현재 길이는 약 660m 정도로 전 구간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정상부의 북벽은 산정상이어서 파괴의 손길이 덜 미치어 치성과 함께 석축이 잘 남아있으며, 동벽과 서벽의 아랫부분은 토성의 형태로만 남아있는데, 최근의 웅천천 제방공사 때에 배를 대고 돌을 날라다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다와 접하는 남벽은 기단부의 석축만이 남아있지만 그 흔적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은 민가가 오랫동안 들어선 관계로 많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동문지와 웅성, 서문지와 웅성 그리고 성내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지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성의 하단부에서 정상부를 연결하는 동벽에는 그 바깥에 해자를 만들어 성벽의 높이를 높게 만듦으로서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내륙 쪽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남사면에 만들어진 마량진성에서 바다쪽이 아닌 내륙쪽에 축성된 성벽(동벽)의 바깥에 해자 시설을 한 특징은 파지포영성 서천포영성

義禁府啓曰, 本府罪人李經漢, 以忠清道藍浦縣馬梁鎮充軍定配, 啓下矣, 聞馬梁, 移屬於本道庇仁縣云, 藍浦二字, 以庇仁, 改付標以入之意, 敢啓

당진포영성 등에서도 보이는 공통적 현상들이다.

또 마량진성의 북벽은 충청수영관내의 성벽 중 조선후기에 축성된 안흥진성을 제외하고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성벽으로써는 가장 양호하게 남아있는 부분이다. 조선 초기에 축성되어 양호하게 남아있는 수군진성인데도 지역과 학계의 무관심 속에 보호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량진성의 포구는 성벽(남벽) 앞에 형성되었는데, 마량진성이 만들어진 산줄기에서 끝가지로 뺨어내려 만의 중심부로 향하여 돌출해 들어간 높이 약 10m정도의 ‘과녁쭝불’로 불리는 작은 산줄기가 외양 쪽을 막고 있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포구는 이 자연적 방파제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1655년 이설된 서천 마량리의 마량진은 성벽을 축조하지 않고 영사(營舍)만을 건립하고 수군기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마량리에서는 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영사 건물의 흔적인 와편(瓦片)만이 발견될 뿐이다.

『해동지도』에도 서천 마량진은 성벽이 나타나 있지 않다. 서천 마량진은 바다로 뺨어 들어간 산줄기 끝의 야트막한 야산의 완만한 동사면에 바다를 면하여 영사를 건립하고 그 앞에 군선을 정박시켰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내민 곳의 끝단이어서 풍랑의 위협을 피하고자 외양을 바라보는 서사면에 진을



구 마량진 포구



구 마량진성 해안접촉부



구 마량진성 해자



구 마량진성 북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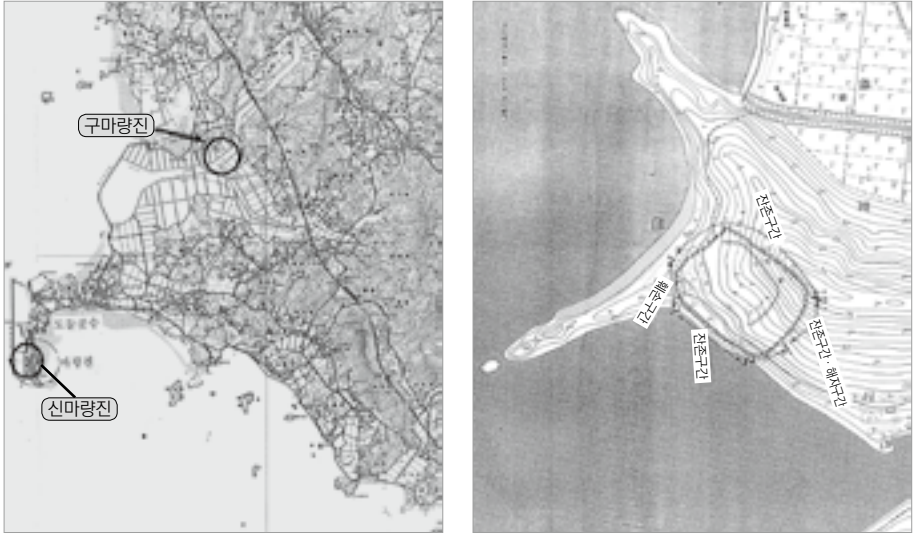
건설한 것이 아니고, 서쪽의 외양을 등지고 동쪽의 내양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마량진 포구도 지형이 움푹 들어간 곳이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천혜의 U자형 포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설된 비인 마량진이 성을 쌓지 않고 수군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은 조선 후기 왜적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고, 우리나라 국방 체제상 유사시 이곳에서의 전투보다는 강도(江都) 구원의 역할을 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조운선 안내와 보호가 주된 임무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인 마량포구(신마량진)

현재 서천군 서면에 있는 마량진은 성벽이 없는 관계로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도 없이 수군진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당진의 왜목 마을과 함께 서해안 해돋이 관광의 명소로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보령

웅천의 구마량진은 성벽이 남아있으나, 그 위치조차 아는 이가 별로 없으며, 단지 1999년 웅천읍에서 세운 안내기 하나만이 무성한 대나무 숲에 숨어있을 뿐이다.



〈그림 43-44〉 구 마량진 성벽

2) 소근진(所斤鎭)

(1) 소근진의 설치와 기능

소근진은 현재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소근2리 안소근 마을에 있었던 첨사진이다. 1871년에 작성된 『호서읍지』의 「소근진지」에 의해 소근진의 창설시기를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근진은 1404년(태종 4)에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오근이포

(栲斤伊浦)라고 하였으며, 도만호를 배치하였다. 1467년(세조 12)에 첨사진으로 승격하고 소근진으로 개명하였다.’ 고 하였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에도 ‘태안군 서쪽 오근이포에 좌도도만호가 머무른다.’ 고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근포진은 일명 오근이포라 하며 군 서쪽 33리 지점에 있는데 좌도수군첨절제사영이 있고, 그 소관은 당진포와 파지도이다. 첨절제사 1명이 있다. 정덕 갑술년(1514)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2,165척 높이는 11척이며, 그 안에 우물하나가 있다. 안흥량수(安興梁戍)는 소근포 첨절제사가 군병을 나누어 지킨다.’ 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소근진은 1404년(태종 4)에 창설되었고, 세조때 진관체제 정비와 함께 충청수영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좌도첨절제사영(左道僉節制使營)으로 되어 당진포만호와 파지도만호를 지휘하고, 안흥량에 분병수지를 두고서 서산·태안 반도를 중심으로 한 충청수영 관내의 북부지역 해안 방어를 담당하는 중심 역할을 하였다.

소근진은 태안반도에서 소원면 의항리와 원북면 신두리 사이로 깊숙이, 바다가 육지로 만입한 곳에 만들어졌는데, 외양에서 깊숙히 만입되어 있어 풍랑의 위협도 없을 뿐 아니라 왜적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요충지이다. 또 이곳은 위치상으로도 보령의 충청수영 본영의 북쪽 부분 중에서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태안반도는 바다로 내민 지형이어서 여말 선초 왜구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태안군조 남수문(南秀文)과 신숙주(申叔舟)의 기문(記文)에 의하면 왜구의 피해가 극심하여 수령이 겨우 한 두 명의 아전을 인솔하고 임시로 서산군과 예산군에 붙이고 있기도 하였으며, 사방으로 흩어진 백성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아 경내가 가시덤불 속에 황무(荒蕪)한 채 짐승의 소굴화되어 버려두기도 하였다가, 해적의 방비를 위하여 순성진(尊城鎭)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고려말 보령 남포와 비슷하다. 남포에서도 왜적의 침입으로 10여 년간 백성들이 유리(遊離)하였다가 남포진(藍浦鎭)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다

시 불러모았다.¹⁶⁰⁾ 남포진의 일선 수군기지로 마량진(馬梁鎭)이 설치되듯이 태안의 소근진도 처음에 순성진의 일선 수군기지로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마량진이 웅천천 하구의 수륙 교통 요지여서¹⁶¹⁾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것처럼 소근포진이 있는 만구(灣口)도 수륙의 교통로여서 왜구가 태안반도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으니, 여기에 수군진인 소근진을 설치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는 왜구방어의 일선을 담당하였고, 그 2선에 동쪽으로 순성진(오늘날의 서산군 팔봉면 진장리)이 설치되어 왜구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리고 소근진 부근과 소근진의 관할인 안흥량 부근은 우리나라 조운의 대표적인 험로(險路)여서 이곳의 조운선을 안내하는 역할도 해야 했다. 그리하여 소근진이 내만한 곳에 위치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쪽으로 내민 지형인 안흥에 소근침사의 분병수지를 두고 소근진을 운영하였다.

왜구방어나 조운선 보호·안내를 위해 조선 초기에 설치된 소근진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우리나라 국방체제가 변화되고 수군진이 만입된 곳에서 외양의 열려진 곳으로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설이나 폐지 논의 한 번 없이 그대로 지속된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안흥진이나 평신진이 소근진 주변에 새롭게 설치되어 침사영 3개가 서산·태안반도에 아주 가깝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지위 변화도 없다.

160) 『세종실록지리지』 남포현조

161) 『조선왕조실록』 태종 14년(1414) 9월 8일조에,

충청도 수군 도만호(忠淸道水軍都萬戶) 현인량(玄仁亮)의 고신(告身)을 거두고 장(杖)을 때렸다. 처음에 철물(鐵物) 흥리인(興利人) 김녹(金祿) 등이 충청도 소근량(所斤梁)에서 배를 패몰(敗沒)하였는데, 현인량(玄仁亮)이 선(船) 중의 나머지 물건을 사사로이 썼기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실록』 선조 25년(1592) 9월 12일조에,

상이 선유사로 전라 충청도등지에 갔다가 돌아온 윤승훈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황해(黃海)의 수로(水路)를 거쳐 왔는가?”

하니, 승훈이 아뢰기를,

“신은 소근포(所斤浦)에서 배를 타고 등산곶(登山串)에서(황해도에 있다) 내려 삼화(三和)의 대진(大津) 나루를 건너 왔습니다.”

하였다.

위 두 기사는 소근진이 물자유통과 관리의 통행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당시 태안반도가 강도(江都)와의 관계 속에서 수도권 방어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인식된 데서 기인하겠지만,¹⁶²⁾ 군사적인 기능은 신설된 안흥진이나 평신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소근진은 조운 관련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치중하도록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근진지』에 의하면 조운선에 대한 소근첨사진의 호송한계는 의항리 앞 바다에서 태안의 북면 독진포 앞 항구에 이르는 수로 수 백리이다. 소근첨사진의 영호한계(領護限界)는 안흥 장항리에서 수원 풍도 앞바다까지 수로 수 천리이고, 영호차사원(領護差使員)은 평신과 2년마다 교대로 거행한다. 한편 『평신진지』에 의하면 평신진의 조세선 호송은 안흥포구에서 풍도까지 호송을 하고 경기도에 넘겨주는데, 소근진과 1년마다 교대한다고 한다. 이로 본다면 안흥에서 경기도에 이르는 조운로는 험로여서 소근진과 평신진이 교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조 때에는 태안 지역의 조세선 호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을 잘 아는 소근진이 호송거리를 늘려야 한다¹⁶³⁾는 논의가 나오는데 이는 소근진의 조운 관련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1875년에 쓰여진 『을해조행록(乙亥漕行祿)』에 의하면 조운제도에 있어 충청해안의 대호송관(大護送官)은 마량첨사와 소근첨사였다¹⁶⁴⁾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서도 안흥진 평신진보다는 소근진이 조운관련 기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리하여 소근진은 조선시대 전체를 통하여 이설이나 폐지 등의 변화 없이 조선 말기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였다.

162) 『비변사등록』 숙종 38년(1712) 4월 25일조예,

안흥첨사를 방어사로 승격하고 수륙을 겸하여 통솔하게 하고 수군은 소근첨사를 중군으로 삼고 육군은 태안군수를 중군으로 삼았다.

163) 『조선왕조실록』 정조 11년(1787) 10월 19일 계축조

164) 趙熙百, 『乙亥漕行祿』 3월 29일조. 국립중앙도서관소장. 을해조행록은 1875년 함열현감 조희백의 조세운송 일기이다.

(2) 소근진성

소근진성¹⁶⁵⁾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중종 9년(1514)에 석축으로 축성하였고 주위가 2,165척, 높이는 11척이며, 그 안에 우물 하나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약 945m정도 남아 있다. 황해에서 소근리에 만입한 바다에 내민 해발 46m 산과 해발 57m의 산의 봉우리를 연결하면서, 서사면에 산 정상부로부터 바다 해수면을 둘러싼 삼태기 모양의 성벽이다. 그리고 서향한 성벽 앞 포구의 남과 북 양쪽으로 산능선이 바다쪽으로 내밀고 있어서 소근진 성벽 앞의 포구는 U자형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포구의 앞에는 의항리 쪽의 산 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바다의 풍랑에 노출되지 않는다. 해안과 접한 서벽은 굴양식 등에 돌이 사용되어 그 흔적이 약간만 남아 있고, 동벽 남벽 북벽은 근래에 석재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사용되어 토성의 모양으로 비교적 잘 남아 있다.

그런데 산 정상부의 동벽 일부는 복원을 하였으나 원래의 모양의 자연석이 아닌 벽돌모양으로 가공한 오석으로 일률적으로 쌓아 올려 원형을 완전히 잃어 버렸다.

성내는 마을이 들어서 있고 성벽의 안쪽인 마을의 뒤에는 대나무 숲이 무성하게 형성되었으며, 마을 안길에는 조선시대 외편이 산견(散見)된다. 그리고 동벽의 일부와 내륙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 쪽에 축성된 남벽에는 해자가 잘 나타나 있어 같은 시기 축성된 다른 수근진성과 공통적 현상을 보인다. 이 성의 앞 바다는 간조시에는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며, 깊은 빨을 형성하고 있어 선박 운행에 지장을 주는 바위가 없으며 지금도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간척을 하지는 않았지만 굴양식이 성행하고 있고 포구로 이용되고 있다.

충청남도 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었으나 찾아가는 길에 안내 이정표 하나

165) 소근진성은 공주대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소근진성에 대하여는 공주대박물관 『所斤鎭城』 1996이 참고된다.



소근진성 동문



소근진성 복원부



소근진성 복원부



소근진성 포구



소근진 마을



〈그림 45〉 소근진성 성벽

없으며, 좀더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요구된다. 태안에서 만리포 방향 32번 국도를 가다가 소원면 소재지 삼거리에서 북쪽 길로 갈라져서 약 10km 정도 소근진리 방향으로 가면 도로 끝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3) 안흥진(安興鎭)

(1) 안흥진의 설치와 기능

안흥진은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에 위치했던 조선후기 신설된 수군첨사영이다. 안흥진이 위치한 태안반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으로 돌출된 지역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을 형성하고 있다. 돌출된 반도지형으로 바닷길을 끼고 있어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류 등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 태안 지역은 특히 고려·조선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었다.

삼남의 조세미가 개경이나 한양으로 운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안 앞 바다를 통과해야 했는데, 태안의 안흥 앞바다는 난행량(難行梁)이라 불릴 정도로 물살이 세고 바위가 많아 강화도의 손돌목과 함께 최고의 험로로 꼽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려 조선시대는 태안반도의 내륙 쪽에 굴포 운하 건설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현재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¹⁶⁶⁾

이렇게 안흥 지역이 험난한 바닷길이지만 조운로로서 중요성을 가짐과 동시에 왜구의 침입을 방어해야 하는 요충지로 부각되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수군기지가 설치된다.

166) 朴正賢, 『韓國中世의 漕運과 泰安漕渠』,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尹龍燦, 「瑞山·泰安地方의 漕運關聯유적과 高麗 永豐漕倉」, 『百濟研究』22, 충남대백제연구소, 1991.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안군 관방조에 ‘안흥량수(安興梁戍)는 소근포침절제사가 군병을 나누어 지킨다.’ 라고 하여 안흥의 수군진에 대하여 최초로 기록되어있다. 이로써 보면 조선초기 충청수영의 체제가 정비되면서 소근포침사의 분병수지(分兵戍地)로 안흥은 비로소 수군기지가 되는데, 소근진이 태안반도의 만입한 곳에 위치하여 외양의 바다로부터 떨어져서 곧바로 바다를 관망하기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안흥량수가 만들어져 소근진의 전진기지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는 남방의 왜구에 대한 방어보다도 대륙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면서 국방체제가 수도권 중심의 방어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흥이 강도(江都)의 배후지로서 크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라 수(戍)자리에서 격상되어 진(鎭)이 설치되기에 이른다. 『조선왕조실록』 효종 4년 3월 7일조에 상(上)이 강(講)을 마치고 나서 지경연(知經筵) 이후원(李厚源)이 나아가 아뢰기를,

“일전에 경기(京畿)의 사인(士人) 김석견(金石堅)이 상소하여 안흥진(安興鎭)을 건립할 것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강도(江都)의 외원(外援)에 대해 조정에서 살피지 않고 있다.’ 고 했습니다. 안흥의 형세에 대해서는 신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해곡(海曲)에서 수십 리 안쪽으로 삼입되어 있고 호서(湖西)로 통하는 한 가닥 길이 되기 때문에 군량을 저장하고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음은 물론, 안으로는 강도와 표리(表裏)의 관계를 이루고 있고 밖으로는 호남과 영남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가 있으면 안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진장(鎭將)을 가려서 둔 다음 지키기에 충분한 군사와 족히 지탱할 만한 군량을 대주는 한편 감사로 하여금 행영(行營)을 설치하여 수시로 순력(巡歷)하게 함으로써 유사시에 들어가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면 뒷날 반드시 힘입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계속 이런 의논이 있었으나 방금 영종(永宗)에 진(鎭)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거행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경의 말을 듣고서야 나의 뜻을 결정하였다. 다음 날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겠다.”

효종6년 1월 17일 임인에,

이때 상이 중원(中原)이 오래도록 어지러운데 피폐(皮幣)만을 일삼고 눈 앞의 편안한 것을 꾀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하여, 성지(城池)를 수리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방책으로 삼으려 하였다. … 원두표는 강화(江華)를 맡고, 이후원(李厚源)은 안흥(安興)을 맡고, 이시방(李時昉)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맡고 …

효종6년 1월 24일 기유에

예조 판서 이후원(李厚源)이 아뢰기를,

“강도(江都)는 원두표(元斗杓)가 주관하여 이미 성취한 것이 되었으나, 안흥진(安興鎭)으로 말하면 성지(城池)·기계(器械)가 없습니다. 이는 격포(格浦)와 함께 다 같은 요충지인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람들의 소문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경이 반드시 가서 형편을 살핀 뒤에야 섬의 크기와 배가 정박할 만찬지를 알아서 조처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안흥에 가 보도록 하라.” 하였다.

병자호란 때 강도(江都)가 청군에 함락되어 많은 피해를 경험한 조정에서는 호란 이후 강도의 방어체제 구축에 전력을 기울인다.¹⁶⁷⁾ 그에 따라 안흥은 강도와 표리(表裏)·순치(脣齒) 관계로 인식되어 진을 설치하고 진성을 쌓고, 또한 무기와 군량의 비축기지로 만든다. 이렇게 안흥이 조선후기 강도의 외원(外援)

167) 박광성, 「병자란 후의 강화도 방비 구축」 『기전문화연구』 제3집, 1973.

이민웅,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록』 34, 서울대, 1995.

으로서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심지어는 감사의 행영(行營) 설치 문제까지 대두되고서, 급기야 안홍첨사에게 방어사(宗2품)의 기능을 겸임하는 문제가 논의¹⁶⁸⁾되고, 숙종 1년(1675)에는 태안군수로 하여금 안홍방어사를 겸임시키고 그 사목(事目)을 마련¹⁶⁹⁾하였으며, 숙종 32년(1706)년에는 수영을 안홍으로 옮기자는 논의까지 등장한다.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년 4월 14일조에,

(보령) 수영의 형세는 위치한 곳이 외지고 앞 바다와의 거리가 아주 먼 데다가 산줄기가 가로막혀 있어 멀리 망을 보는 데 방해로움이 있으며 선창(船塢)이 불편합니다. 안홍은 바다 속 깊숙이 들어가 있어 지세가 험준하고 삼면이 바다여서 망을 보는데 막힘이 없으며, 삼남지방의公私선박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니 실로 사방을 제어하는 요충지대입니다. 수영을 안홍으로 옮겨 설치하고 또다시 항금진에 우후를 두면 해방의 형세가 저절로 공고히 됩니다.

라고 하여 수영을 안홍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영 본영과 안홍진의 대비되는 위치 조건을 비교하여 수영의 위치 조건에 대한 조선 후기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충청수영이 안홍으로 옮겨오지는 않았지만 안홍진은 계속 강화되어갔다. 숙종 32년(1706)에는 태안군수를 부사로 승격시켜 태안방어사를 만들고 태안을 주영(主營), 안홍을 속영(屬營)하여,¹⁷⁰⁾ 수군기지로서의 의미보다는 수륙군의 요충지가 되도록 하였다. 숙종 37년(1711)에는 안홍첨사가 수군방어사로 승격되면서 안홍방어사 절목(節目)이 마련되고¹⁷¹⁾ 숙종 37년(1712)에는 태안 방어사

168) 『비변사등록』 효종 4년(1653) 5월 3일조

169) 『비변사등록』 숙종 1년(1675) 10월 6일조

170)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 8월 19일조

171) 『비변사등록』 숙종 37년(1711) 8월 10일조

가 혁파되고 안흥진이 안흥방어사로 승격된다.¹⁷²⁾ 이후 충청수영 본영의 주사(舟師)를 나누어 안흥에 배치하여 안흥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숙종 38년(1712)에 이르러 수영의 배와 주사를 안흥에 나누어 배치함은 수영과 안흥 모두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없고, 안흥방어사가 수군 첨사를 겸직함은 유사시 수군과 육군을 지휘해야 하는 모순점과 어려움이 따르고, 안면도의 소나무를 관리함에 따르는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 감안되어¹⁷³⁾ 숙종 39년(1713)에 안흥진 방어사영은 폐지된다.

그러나 정조 3년(1779)에는 다시 안흥첨사를 폐지하고 안흥에 수사의 행영(行營)을 설치하고 수사가 머물면서 직접 지휘하였다.¹⁷⁴⁾ 여전히 안흥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성록』 정조 3년(1779) 3월 9일조에,

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안흥은 바로 강도의 문호(門戶)로, 첨사(僉使)가 관향사(管餉使)를 겸한 것은 강도에 군량을 운반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호서 수영(湖西水營)은 바다 어귀 안에 치우쳐 있어서, 설사 적의 배가 바다를 뒤덮을 정도로 많더라도 만일 조수(潮水)가 빠져나가는 때를 당하면 전함(戰艦)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은 형세상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해서(海西) 소강(所江)의 예(例)처럼 안흥을 수사의 행영(行營)으로 삼고 선박을본진(本鎭) 포구에 정박해 둔 채 바람이 따뜻한 6개월 동안 안흥에 머물러서 관할하게 한다면, 요새지의 방비가 전처럼 소홀한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안흥을 혁파하고 수영을 이속(移屬)하여 군량을 쌓아두고 배를 정리(整理)하여 서로 의지하면서 강화(江華)의 지휘를 받는다면, 삼도를 통어하는 모양이 더욱더 원만하고 좋을 것입니다.” …

172) 『비변사등록』 숙종 37년(1712) 5월 28일조

『조선왕조실록』 숙종 37년(1712) 5월 28일 병진조

173) 『비변사등록』 숙종 38년(1712) 4월 25일조, 『비변사등록』 숙종 38년(1712) 5월 8일조

174) 『충청수영사례집』, 『조선왕조실록』 정조 3년(1779) 3월 8일 임진

훈련대장 구선복이 아뢰기를,

“홍충 수사(洪忠水使)가 바람이 따뜻한 6개월 동안 안흥진(安興鎭)으로 옮겨가서 머문다면 해안 방비에 실로 좋은 방책이 될 것입니다. 수영 또한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니, 이렇게 변통하는 것이 둘 다 원만한 방도 일 것입니다.”

수어사 서명응(徐命膺)이 아뢰기를,

“강화와 홍충수영, 홍충수영과 안흥이 모두 서로 의지하는 형세입니다. 더구나 지금 홍충 수영이 여지없이 피폐해진 상황인데, 만약 수사로 하여금 웅진(龜津) 소강(所江)의 예와 같이 나가 방어하고 들어가 방어하게 한다면, 조정은 재물과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잠깐 동안에 쉽게 강성한 진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로서 보면 안흥의 방어영은 폐지되었지만 강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방어체제 구축에 있어서 안흥의 중요성은 계속되어 수사의 행영이 설치되어 수사가 수영과 안흥에 번갈아 머무르면서 지휘하였다.

그러나 10여 년 후인 정조 14년(1790)에 안흥진은 다시 첨사가 주둔하는 첨사영(僉使營)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수영에 이속 되어지고¹⁷⁵⁾ 고종 3년(1822)에는 안흥진이 혁파되고 태안군에 속해졌다가¹⁷⁶⁾ 고종 22년 다시 복설된다.¹⁷⁷⁾ 그리고 다시 1895년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완전 폐지되며, 건물은 헐려서 태안군청 건축에 사용되었다.¹⁷⁸⁾

따라서 조선 후기에 안흥진은 비록 수영이 이설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

175) 『비변사등록』 정조 14년(1790) 4월 14일조

176)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9월 6일조

177) 『비변사등록』 고종 22년(1885) 10월

178) 李敏寧, 『瑞山郡誌』, 1926, 국립중앙도서관소장. 上 官有營造物沿革條, 37쪽.

로는 수도권 방어체제 형성 속에서 그 중요성이 충청수영 본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된 곳이었다. 그리고 안흥진이 강도방어와 수도권 강도 방어를 위한 외원 군사기지로의 기능이 강조되어 조운 기능은 크게 중요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흥에서 경기도까지의 조운 호송은 소근진과 평신진의 몫이었다.¹⁷⁹⁾

(2) 안흥진성

이렇게 조선 후기 강도 방어체제 구축 차원에서 그 외원(外援)으로 급부상한 안흥진은 곡식이나 무기 등의 전쟁 물자를 비축해 둔과 동시에, 수륙군의 방어의 중심지로 충청수영을 옮겨서 설치하고자 했던 바대로, 수영 본영보다



〈그림 46〉 안흥진성 성벽

179) 『충청도읍지』, 『평신진지』

한때는 더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축성 사업도 조선 후기 새로 만들어진 수군진인 서천의 마량진이나 서산의 평신진이 축성 없이 영사(營舍)만 건립하고 진의 역할을 수행하던 것에 비교하면 안흥진의 중요성 인식이 어느 정도였나를 보여준다.

안흥진성은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안흥항의 뒤쪽에 솟아있는 해발 80m내 외의 나지막한 4개의 봉우리를 에워싼 전형적 포곡식 성이다.¹⁸⁰⁾ 성이 위치한 지역은 바다를 향해 10리 정도 돌출해 있어 주변 해안을 관찰하기가 용이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여지』에 의하면 진이 설치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효종 6년(1655)년에 축성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리고 『국조보감』 효종 6년(1655) 4월조에 ‘안흥진(安興鎭)에다 성을 쌓았다.’ 라고 하고 있다.

현재 성의 둘레는 약 1,714m로 태안군에서 뿐 아니라 충청수영성이나 그 속진의 성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거대하게 축성된 점도 당시 안흥이 우리나라 국방체제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으며, 조선 후기에 축성되어 파괴된 부분도 있지만 충청수영 관내의 다른 성벽에 비하여 성벽이나 여장 등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며, 최근 일부 복원도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의 수군진성의 모양이 산 정상부와 바다가 접하는 부분의 산사면을 둘러싸고, 바다와 접하는 부분에 정박처를 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것에 비하면, 안흥진성은 주변의 야트막한 4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한 상당히 큰 포곡식 산성 형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안흥진성도 주위 4개의 성문 중 서문과 서벽은 유일하게 바다와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이곳을 바다로 출입하는 주된 통로로 삼고, 정박처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의 성문은 가파른 산 능선에 설치하여 평소에 출입구 역할을 하도록 하였을 뿐 군선이나 주사(舟師)를 관리하기 위한 통로는 서문이었던 것이다.

180) 안흥진성의 지표조사는 공주대박물관에 의해 이루어져서 성벽의 자세한 상황은 공주대 박물관 『安興鎭城』1996이 참고 된다.

결국 안흥진성도 전체적인 모양은 조선 전기 수군진성 모양과 약간 다르나, 기본적으로 산 능선에서 내려와 바다와 접하는 부분으로 성벽을 연결하여 그 앞을 배의 정박처로 삼고 이를 관리한 점에서는 수군진성의 기본적 모양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한편 안흥진성은 바다로 내민 육지의 끝단에 설치되어 서문 앞의 정박처가 그대로 외양에 노출되면 적의 내습이나 풍랑에 피해를 보는 약점을 가질 수



안흥진 성벽 1



안흥진 성벽 2



안흥진 북문



안흥진 북문(포구)

밖에 없는데, 서문 앞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앞을 막고 있어 이런 점을 충분히 극복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서문 양쪽의 산능선이 바다로 더 내민 지점이어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U자형의 정박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 서벽 일부를 복원하고 서문도 복원하여 수홍루(垂紅樓)라는 누대를 만들었다. 북문과 동문 사이의 봉우리 체성부는 군사 보호 구역이어서 접근하기 어렵다. 성내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건물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현재 충청수영 속진의 성벽 중에서는 가장 잘 남아 있다.

4) 평신진(平薪鎭)

(1) 평신진의 설치와 운영

평신진은 현재의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1리 반곡 마을에 위치해 있었던 수군첨사영으로, 조선 후기에 신설되었다. 평신진은 조선 후기 충청수영 속진 중에서 기능은 중요시되었지만, 오늘날 그 위치와 존재에 대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중의 하나이다.

평신진의 연혁에 대하여는 영조~현종 연간에 편찬된 『충청도읍지』의 「평신진지」에 그 대강의 내용이 나타나있다. 이에 의하면 평신진은 처음에 황금산(尙金山) 아래에 설진(設鎭)되었는데, 언젠가 망일산(望日山) 아래로 옮겨졌고 다시 임진년(1712, 숙종 32)에 삼길산(三吉山) 아래로 옮겨졌다고 한다. 황금산은 오늘날 서산시 대산읍 대산반도 끝단의 독곶리의 해발 130m의 황금산이며, 망일산은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산이다. 이 망일산 아래에 평신진이 잠시 설치된 관계로 이곳은 지금도 구진(舊鎭)이라는 지명으로 남아온다.

이어서 망일산에서 1712년 삼길산 아래로 옮겨진 평신진이 현재의 대산읍 화곡리 평신진터이다. 원래 조선 초·중기의 충청수군진 편제에 있어서는 아

산만에는 대진만호가 있었으며, 서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올라간 반도 끝인 대산곶을 중심으로 태안 쪽으로 만입된 가로림만 안쪽에는 파지포영이 있었고, 당진 쪽으로 만입된 대호만 안쪽에는 당진포영이 있었다. 이들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는데 목적을 둔 위치들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수군진지가 외양을 향한 곳에 설진되는 경향에 따라 만입된 곳에 있던 파지포영과 당진포영이 정리되고, 대신 대산반도 끝단에 새로이 평신진이 설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의 평신진은 조선 중·후기의 대진, 파지포, 당진포의 기능을 통합하여 신설된 수군진인 것이다. 그리하여 안흥진과 함께 이 평신진도 조선 후기 수도권 방어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기능하게 된다.

평신진의 시초인 항금산에 진이 처음 설치된 것이 언제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 4월 14일조에,

전 충청감사 김연(金演)의 장계에 “대산(大山)의 항금포(杭金浦)는 진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며, 수영은 안흥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항금포는 항구미(杭寇尾)의 다른 이름입니다. 항금포에 관방을 설치해야 마땅하다는 것은 전부터 말해왔기 때문에 근래에 감목관을 폐하고 첨사를 설치한 것은 해방(海防)에 군사를 더하기 위한데서 나온 것입니다. 작년에 새로이 진을 설치할 자리에 대해 수사에게 물었더니 수사가 진달하기를 “지금 진을 설치하려는 곳은 배가 정박할 곳에 반드시 포구를 수 백 보를 파야 하는데, 바위가 길에 널려 있어 인력으로 치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삼길리는 진의 터나 배가 정박할 곳이 모두 불편하며, 평신리는 조금 진을 설치할 만하나 대양에서 30여 리나 떨어져 있고, 또 소근진 안흥진과도 멀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요해의 땅은 아닌 듯 싶습니다. 또 항구미에서 5리 되는 곳에 조지산(鳥知山)이 있는데 … 대산 안에는 각처의 형세가 만전(萬全)하게 합당한 곳이 없습

니다. … 그러나 이제 이미 새로운 진을 설치한 지 수 년이 지났으니 우선은 앞으로 제치(制置)의 득실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다시 그 존폐 여부를 의논해야 하며 … 항구미는 본래의 호칭에 의하여 항금진으로 고쳐야 합니다.”

이 항금진 논의에서 보면 항금산에 항금진이 처음 설치된 것은 숙종 32년(1706) 이전이 된다. 그러나 항금산의 항금진은 수영 후보지로 부각되는 안흥과의 거리, 그리고 강도와와의 관계 등 위치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포구의 조건이 좋지 않아 계속 대산반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데, 그 대상지는 삼길리, 평신리, 조지산 등이다.

삼길리는 현재의 대호만 입구에 있는 삼길포항으로 이 곳은 항구로서의 위치는 좋으나 바닥에 바위가 많은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평신은 삼길리보다 대호만 안쪽으로 약간 더 들어간 곳이어서 노출이 적게 되어 적지(適地)이기는 하나, 당시 외양을 향해 설진되는 경향에 맞지 않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어서 숙종 34년(1708)에는 항금진에 이미 진을 설치하였으므로 주사(舟師)와 전선(戰船)을 배치하고 강도(江都)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하였지만 이곳은 배를 정박하기에 마땅치 않아 왕은 대안으로 수군침사보다 육군침사를 설하는 것이 어떻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¹⁸¹⁾

강도와와의 관계 속에서 대산반도의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그곳 수군진 설치 지역과 이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이 정박처로서 부적합한 것이 하나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금산의 항금진에 대한 이설 논의가 진행되다가 항금진은 망일산 아래 즉 현재의 대산읍 구진으로 비로소 옮겨졌음이 『평신진지』의 ‘처음에 항금산(尙金山) 아래에 설진(設鑣)되었는데, 언젠가 망일산(望日山) 아래로 옮겨졌고 다시

181) 『비변사등록』 숙종 34년(1708) 2월 11일

임진년(1712, 숙종 32)에 삼길산(三吉山) 아래로 옮겨졌다.’는 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망일산(구진)에서의 항금진 존치 시기는 1708~1712년의 짧은 기간으로 보인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숙종 37년(1712) 항금진은 다시 삼길산 아래 평신으로 옮겨지고 호칭도 속지주의에 따라 평신첨사(平新僉使)로 바뀌었다.¹⁸²⁾ 항금진의 위치를 망일산 아래로 옮겼지만 평신진의 처음 설치지가 항금산이었으므로 처음 위치의 지명을 따라 항금진으로 불리다가, 삼길산 아래 평신리로 가면서 그곳의 지명에 따라 비로소 평신진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평신진은 앞에서의 『비변사등록』 숙종 32년(1706) 4월 14일조에서 지적된, 대양에서 떨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반도 끝단에 설진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차선책으로 평신에 진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강도와외의 관계에서 항금진의 중요성은 『비변사등록』의 다음과 같은 이조참의 윤덕준의 계에서 잘 나타난다.

항금의 처지가 극히 긴요합니다. 강도(江都)의 자연(紫燕)이 이곳과 가장 가깝게 서로 바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저 국가에서는 옛날에는 왜구로써 염려하였고, 지금 염려하는 바는 해랑도(海浪島)¹⁸³⁾에 있습니다. 해랑에 사변이 있게 되면 적이 어느 곳에 이를지 알지 못하며, 안흥에 닦을 내리고 항금에 배를 멈출 것입니다. … 여기 항금에 후망(後望)의 일을 맡기고 … 자연(紫燕)¹⁸⁴⁾과 강도(江都)에 통보함이 편리합니다.¹⁸⁵⁾

182) 『조선왕조실록』 숙종 37년 5월 28일 병진조

183) 해랑도는 현재 위치는 알 수 없고, 국역『성호사설』 각주에 “《왕조실록(王朝實錄)》에 의하면, 평안도(平安道) 선천(宣川) 서쪽 장록도(獐鹿島) 등을 지나 3~4일을 가서 해랑도에 도착하였다 했고, 또 해랑도는 상국(上國)의 경계에 있다 했으며, 그곳에는 물소[水牛]가 생산된다고 하였으니,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섬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중국 해적의 출몰과 관련하여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된 섬이다.

184) 경기도 대부도에서 서쪽으로 수로(水路)로 30리에 있던 섬으로 고려시대 이래로 요충지이다. 오늘날의 지명이 어디인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인천의 전 면장이며 향토사학자인 이세희 님에게 확인한 결과 오늘날의 영종도라고 하였다.

185) 『비변사등록』 숙종 34년(1708) 2월 11일조

이 당시 자연도(紫燕島)와 강화도(江華島)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진(鎭)과 왕의 행궁이 설치되었으며, 수도권 제일의 해상 방어기지였다. 위 내용에 나타난 자연과 강도와의 관계에서 본 항금진의 중요성은 평신진과 자연·강도의 중요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강도 방어의 외원(外援)으로 중요시 된 평신진을 1794년(정조 18)에는 서산에서 대산(大山) 이원(梨園) 창택(倉宅)의 군적을 분리하여 평신진에 소속시키고 독립된 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798년(정조 22)에는 평신첨사를 장용영(壯勇營)¹⁸⁶⁾에 소속시키고 장용영에서 자체적으로 뽑는 벼슬자리로 하도록 하였다. 즉 평신진을 수원 화성에 있는 外營(장용영)에 옮겨 소속시켰다.¹⁸⁷⁾ 그리하여 평신첨사는 수군첨절제사겸 총리영둔아병파총(水軍僉節制使兼總理營屯牙兵把摠)의 직함을 가지면서¹⁸⁸⁾ 형식상으로는 충청수영소속이지만 장용영에 편입되었다. 총리영은 장용영이 나중에 개칭된 것이다.

이때 평신진을 수원에 있는 장용영에 편입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당시 화성 우수 체제공은 평신진이 화성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화성에서 가기에는 뱃길도 험하며, 육군을 지휘하는 화성유수가 수조(水操)를 주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기도¹⁸⁹⁾ 하였지만 결국은 장용영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평신진은 수도권 방어 기능에 있어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평신진은 충청수영 소속의 첨사영이었지만 조선 후기 강도와 수도권 중심의 방어체제 강화에 따라 군적을 분리하여 군적 운영상 독진체제가 되고, 정조 때 왕권 강화와 수도권 방어를 위해 신설한 장용영에 소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조(水操)는 보령의 수영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¹⁹⁰⁾

186) 정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한 왕의 친위 부대로 수원에 설치한 군영이며, 순조 때 총리영으로 개칭되었다.

187) 『조선왕조실록』 정조 22년(1798) 12월 13일 임신조

188)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산군조

189) 체제공, 『樊巖先生文集』29 「獻議」, 大串平薪兩鎭移屬華城便否議 - 華城留守時 -

190) 『조선왕조실록』 경종 3년 2월 19일조

수도권방어 차원에서 중시되던 평신진도 조선 말기로 가면서 기능이 쇠퇴하다가 고종 때 기능의 중요성이 다시 상기되기도 한다.

『승정원일기』 고종 26년(1889) 1월 25일조에,

심순택이 아뢰기를, 평신진은 해문(海門)의 요충지에 있어 변경 방비를 특특히 할 책임이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한가한 첨사(僉使) 관청에 불과하여 우환 대비에 소홀하기가 그지없어 식견 있는 사람들이 개탄한 지 오래입니다. 당초에 설치한 뜻이 어찌 다만 그러했겠습니까. 편안할 때에 위급한 상황을 걱정하는 계책상 사리에 맞게 변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변지첨사(邊地僉使)의 이력으로 인정해 주고 각별히 지위와 문벌이 있고 재간과 국량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차임해 보냄으로써 요새지를 더욱 비중이 있게 하고 위급할 때에 믿을 데가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위 기능은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수조(水操)와 함께 조운상의 호조(護漕)는 수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호조(護漕)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평신진지』에 의하면 소근진과 1년씩 서로 윤번제로 하는데, 안흥포구에서 경기도 풍도 앞까지가 그 범위였고, 거기서 경기도와 교체한다.

이 평신진은 1895년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 개편 당시에 폐영되고 그 터는 민간에 불하되고 건물은 헐어서 대산면사무소 청사건축에 사용하였다.¹⁹¹⁾

191) 李敏寧, 앞의 책. 上. 官有營造物沿革條, 34쪽.

(2) 평신진지(平薪鎭址)

처음 항금진이 설치된 곳은 대산읍 독곶리의 오늘날 황금산(黃金山)으로, 가로림만 입구 대산반도 맨 끝단에 위치하였다. 이곳은 과거에는 밀물시에 섬이 되고 썰물시에는 육지와 갯벌로 연결된 곳이었으나 오늘날은 간척사업으로 완전히 육지화 하였다. 진의 흔적은 전혀 알 수 없다.

다음으로 구진지(舊鎭址)는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의 대산 면사무소에서 정면 즉, 남서쪽으로 난 도로로 50m정도 가면 좌측에 셋길에 있는데 이곳으로 100여m 정도 산으로 오르는 방향으로 밭이 조성되었다. 이곳이 진터이다. 진터는 밭으로 개간되었고 주변은 아파트 등 주택이 있어 흔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입구에 진터임을 알리는 비석만이 있다.¹⁹²⁾

삼길산 아래의 평신진이 위치하였던 곳은 대산읍내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0km정도 가면 화곡저수지가 나오고, 이 곳에서 화곡리 반곡 마을로 들어가면 평신진지(平薪鎭址)가 있는 곳이다. 입구에 김취명(金就明) 첨사의 비가 비각과 함께 있다. 이 진터는 반곡마을의 북쪽에서 흘러내린 삼길산 구룡의 남쪽 산록에 자리하고 있다. 진터는 산 능선으로 감싸진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해안과 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룡에 위치하는 점이 다른 수군진의 위치와 다른 점이다. 진터의 앞은 일제시대 간척을 하여 지금은 선박의 정박처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선박의 정박처였던 곳은 바다로 나가는 입구가 좁게 형성된 관계로 배를 감추어 두기에는 아주 유리한 곳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평신진지(平薪鎭誌)』에 축성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시설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토성을 만들고 목책을 설치하여 성벽시설에 준하지 않

192) 대산읍내의 구진지는 간척되기 이전에도 배를 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못한다. 그리하여 구진지의 서쪽 앞인 가로림만 쪽의 오늘날 수구물(水口洞)이나 이 수구물의 2km 남쪽의 수영곳이 정박처였을 것이라고 현재의 향토사가들은 추정한다.(이은우 씨 증언)

있나 생각된다.¹⁹³⁾ 지역의 향토지에는 성이 있다고 기록되었으나, 『평신진지』의 기록이나 진도(鎭圖)에 성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필자가 확인을 하고 탐문을 하여도 주변의 산능선을 연결하여 다른 수군진성과 같은 방어 기능이 갖추어진 전투용 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건물터였던 곳을 중심으로 북·서·동쪽에 토성 형태의 방어 시설로 보이는 n자형의 약 150m 정도의 토루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곳 토지의 소유자이면서 경작을 해온 서운홍(83세) 씨에게 탐문하여¹⁹⁴⁾ 원래의 전체 토성 길이를 측정하여 본 결과 60m×70m의 장방형 토성이었다.

따라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사방 약 280~300m정도 되는 성벽이었겠지만 구릉의 평지에 이렇게 작은 규모의 성벽은 방어용이나 전투용의 성벽으로는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평신진지』에도 관아건물의 보호를 위한 울타리 성격의 성벽모양으로 그려져 있어 관아건물 보호용 성벽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그나마 경작지화 과정에서 동·서벽은 절반 이상이 잘려서 없어진 상태이고 남벽은 아예 없어졌으며, 북벽만이 해자의 흔적과 함께 2~3m정도의 높이로 토성의 형태로 온전하게 잔존한다. 진이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폐영 후 그 터가 민간에 불하되었기 때문에 농경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많이 파괴되었다.

과거에는 여기가 대산반도의 끝단으로써 조운선 보호와 강도가 가까워 강도 성원에 유리하고, 북쪽의 외양을 등지면서 삼면이 야산으로 둘러싸여 배를 감추어 두기가 유리하여¹⁹⁵⁾ 설진(設鎭)되었으나 조선 후기의 수군진 위치 관

193) 조선 초기의 水軍鎭城이 석축으로 축조되기 전에도 城堡·木柵·土城 등을 시설하여 군량, 군기, 화약 등을 보관하였다. (車勇杰, 「高麗末 朝鮮初期 對倭關防史研究」, 충남대박사논문, 1988.

194) 서운홍(83세) 씨는 58년 전에 당진에 사는 사람에게서 황무지 상태였던 이곳의 토지를 매입하여 성벽을 헐고 논으로 개간하였다하며, 따라서 자신이 헐어버린 성벽의 위치를 정확히 고증하고 있다. 성안의 내동헌 자리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오고 있으며 이 집의 뒤가 북벽으로 온전하게 60여m 정도 남아있다.(2004. 4.)

195) 『비변사등록』 숙종 34년(1708) 2월11일
 영의정 최석징이 아뢰기를 “남방 선박이 안흥 입구를 따라 들어가 대산(항금)에서 바람을 피하니 이곳은 요충지가 되므로 여기로 진을 옮겨 설치해야 한다는 거론이 있었으나 선창이 편리하지 않습니다. 평신리에 배를 감추어 두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산이 빙 둘러진 이곳은 해문과의 거리가 또한 수 십리나 된다고



평신진에서 본 포구



포구에서 본 평신진(앞의 산 아래마을)



평신진 성벽 훼손



평신진 첨사비



평신진 성벽



<그림 47> 평신진 성벽

점으로서의 지형적 위치는 삼길산을 배경으로 외양을 등지고 있어 항금진이나 삼길포보다는 부적합하다.

현재는 간척사업으로 바다의 흔적이 거의 없어졌다. 안내기는 있으나 찾아가는 이정표도 없으며, 주변은 골프장으로 개발된다는 말이 있는 바, 관심을 가지고 보존대책을 서둘러야 현재의 상태나마 평신진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서천포영(舒川浦營)

(1) 서천포영의 설치

서천포영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동 174번지 일대에 있었던 조선시대 수군만호영이다. 여기에 언제부터 수군기지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래 전부터 수운 교통의 요지인 금강 하구를 방어·감시하기 위한 수군기지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금강하구는 백제시대는 기벌포(伎伐浦)로 불리면서 백제 멸망시 소정방의 당군이 백제 사비도성으로의 진입로가 되고, 고려 말에는 최무선이 왜구 침입을 격퇴한 진포대첩이 있었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천군 관방조에 ‘서천포영은 본군 남쪽 26리 지점에 있는데, 수군만호 1명이 있다. 고려 때는 장암진(長巖鎭)이라 일컬었다.’고 하고 있다. 이로써 고려 때에도 왜구침입 때문에 장암진이라 하여 진(鎭)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에 ‘서천포만호(舒川浦

합니다. 항금선장은 비록 편리하지는 않으나 강도와 정히 상대되는바 진을 설치하는 것이 ... 지난날 좌상도 아뢰기를 선광은 비록 편리하지 않지만 그대로 첨사를 두면 강도를 성원할 수 있으므로 항금의 진은 파하지 말자고 했는데, 신의 생각도 그대로 첨사를 두면 강도를 성원할 수 있으므로 가볍게 파하지 못하겠습니다”

萬戶)는 장암포(長巖浦)에 머무르고, 거느린 것이 병선 16척, 선군 797명이다.’ 라고 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천군조에는 ‘서천포(舒川浦)는 군의 남쪽 장암포(長巖浦)에 있는데,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지킨다.’ 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의 장암진이 조선시대는 서천포로 불리어졌고, 진관체제와 충청수군진 체제가 정비되면서 마량진소관의 서천포만호영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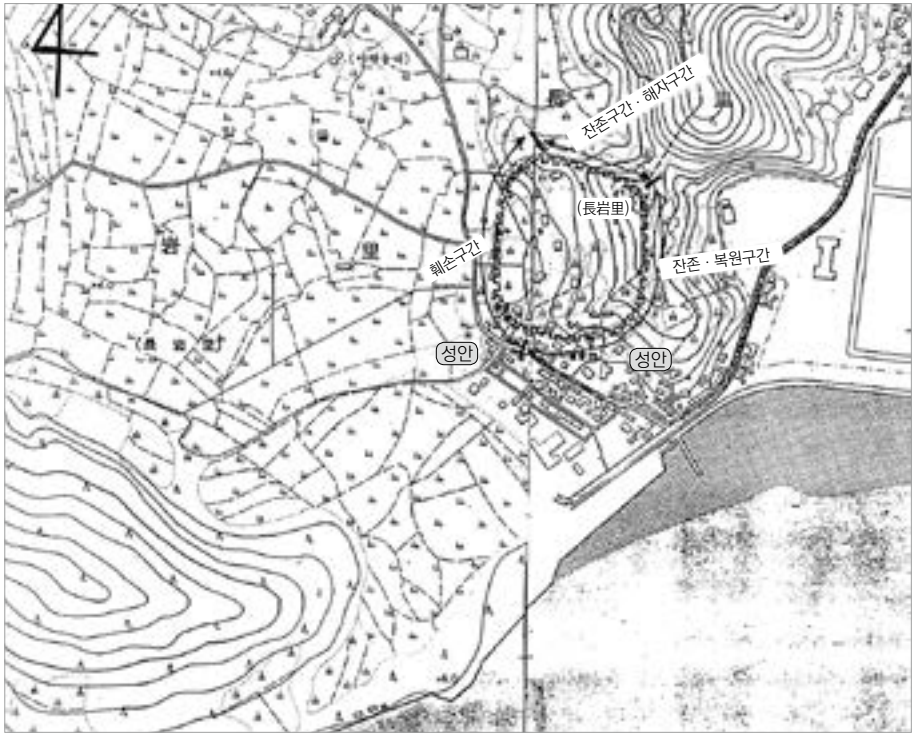
서천포는 외양을 방어함과 동시에 내륙 교통의 요지인 금강하구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너편의 군산 옥구진과 짝하여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륙으로 통하는 금강연안 방어 기능때문에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설·폐지 논의 등이 없었고, 마량진관 소속의 만호영으로 조선 말기까지 그 위치에서 그대로 기능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만입한 곳에 위치한 곳이 아니어서 다른 수군진과는 달리 외양을 감시하기 위한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2) 서천포영성

서천포영성의 축성과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천포영은 정덕 갑술년(중종 9, 1514)에 처음 돌로 성을 쌓았는데 주위는 1,311척, 높이는 9척이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중종 9년(1511)에는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충청도는 적로(賊路)의 요해지(要害地)가 아니니, 서천포(舒川浦)의 성은 쌓지 마소서. 하니, 왕이 답하기를, 성을 쌓는 일은 마땅히 해조(該曹)에 물을 것이다 하였다.¹⁹⁶⁾ 이어서 다음날 서천포의 성 쌓는 일을 정지하도

196) 『조선왕조실록』 중종 6년 9월 4일 신해조



〈그림 48〉 서천포영 성벽

록 명했다.¹⁹⁷⁾

라고 하고 있어 서천포영은 1511년 9월에 축성이 시작되었으나 대간의 반대로 정지되었다가 1514년에 와서야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천포영성의 현재 위치는 장항 시내에서 서쪽의 장항제련소(현 LG화학) 방향으로 산업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끝 부분의 장암지하도가 있는 곳이다. 후망산에서 남서쪽의 바다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의 끝부분 서사면에 위치한

197) 『조선왕조실록』 중종 6년 9월 5일 임자조

다. 후망산은 해발 93m로 정상부에 오르면 사방이 한 눈에 들어오고, 특히 금강하구와 외양 바다의 감시가 대단히 좋은 곳이다.

후망산에서 뺀어내려 형성된 산줄기 끝의 야산(해발 45m)능선 그리고 그 서사면을 둘러싼 석축성인데, 현재 약 640m정도 확인된다.¹⁹⁸⁾ 산능선에 축조된 동벽, 그리고 북벽, 남벽 일부가 남아 있고, 바다와 접한 아래의 서벽은 마을이 형성된 관계로 흔적이 없다. 북벽의 아래 부분에 용성 흔적을 가진 북문지가 있고 산능선인 동벽의 양쪽에는 치(雉)가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이곳 양쪽 치 사이의 동벽이 가장 잘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금강하구가 한 눈에 보이고 있어 금강하구 감시에 최적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북벽에는 해자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2단으로 파들어 간 흔적이 보이며, 이는 파지포, 당진포, 마량진과 비슷한 점이다.

성벽은 마을이 형성되면서 일부 파괴되었고, 장항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면서 성의 남벽을 관통하여 도로를 만들었는데, 남벽을 조금이나마 보존하기 위해 성벽 아래로 지하도를 만들어 성벽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복원된 남벽과 동벽 부분은 벽돌모양으로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여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쉬움이 있다.

여기는 다른 수군진처럼 내륙으로 만입된 곳은 아니지만 앞에 당그메산과 장항제련소 굴뚝이 있는 전망산 사이를 연결하는 사구(砂丘)인 야트막한 능선이 앞을 막아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곧바로 외양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천연의 포구로 충분히 풍랑을 피할 수 있고 외적의 침입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서천포영의 출입로는 성과 전망산 사이로 열린 금강하구 쪽이다. 『해동지도』에도 서남쪽에 있는 전망산 아래에 정박처가 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서천포영의 중심 출입로는 성의 측면 서남쪽의 금강하구쪽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는 출입로였던 부분이 매립되어 LG화학(구

198) 서천포영성의 성벽 일부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 관계로 부여박물관에서 일부 구제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부여박물관 『舒川長巖鎮城』 1997이 참고된다.



서천포성 남벽



서천포성 남벽

장항제련소)이 들어서 있고, 포구였던 곳은 논으로 변화였다. 전망산에는 장항의 상징인 장항제련소 굴뚝(120m)이 우뚝 서있다.

성벽은 바다 쪽으로 내민 산줄기 끝 부분에 형성된 산의 정상부에서 서사면을 둘러싸면서 맨 아래 면이 바다에 닿고 있는 삼태기형의 전형적인 조선 초기 수군진성 모습을 하고 있다. 성벽의 아래쪽 해수면과 만나 연결한 지점 앞의 포구는 산에서 성벽의 좌우로 뺀어 내린 능선으로 인하여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주변은 간척되어 완전히 육지화 되었기 때문에 포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다만 포구의 앞은 드넓은 농지로 간척된 것으로 보아 바닥이 바위가 없는 갯벌이었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서천포영성은 오늘날 장암진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성과 관련된 마을 지명으로 ‘성박이’, ‘성안’ 등의 지명이 남아오고, 행정구역도 장항읍 장암동이다.

6) 파지포영(波知浦營)

(1) 파지포영의 설치

파지포영은 처음에 대산포 즉 현재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설치되었는데, 세종 10년(1428)에 파치도¹⁹⁹⁾(오늘날의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섬)으로 병선이 옮겨 정착되고 직함은 그대로 파치도만호로 유지하게 하였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종 10년(1428) 1월 4일조에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대산포(大山浦)의 병선(兵船)을 파치도(波治島)로 옮겨 정착시키소서.” 하니,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계한대로 따르되, 그 만호(萬戶)·천호(千戶)의 직함(職銜)은 모두 파치도 ‘만호·천호’라 일컫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로 보아 병선은 파치도로 옮겨졌으나 지휘관인 파치도만호는 대산포에 머물러서 지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에도 ‘파치도 만호(波治島萬戶)는 서산군(瑞山郡) 북쪽 대산포(大山浦)에 머무르고, 거느린 것이 병선 13척, 별선(別船) 2척, 무군선 1척, 선군 790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지포만호영은 오늘날의 서산군 대산읍 대산리에 세종 이전에 처음 설치되었고, 이어서 파치도로 옮겨졌으나 만호는 대산포에서 지휘하였다.

그러나 다시 대산포로 옮겨온다. 즉 『조선왕조실록』 세조 5년(1459) 1월 15일 무술조에,

199)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파치도(波治島)로 기록되었으나 이후에는 파지도(波知島) 파지포(波知浦)로 기록이 나온다.

병조에서 충청도 수군처치사(忠淸道水軍處置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파지도 만호(波知島萬戶)의 수영(水營)이 바다 가운데 30리(里)에 있으니, 선군(船軍)이 왕래하는데 어렵습니다. 청컨대 고영(古營)으로 옮기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로서 보면 세종 때 파지도섬으로 옮겨간 파지포영이 육지에서 선군 왕래의 어려움 때문에 다시 원래의 위치인 고영(古營)이었던 대산포로 세조 5년(1459)에 돌아온 것이다.

이어서 1481년(성종 12)경의 『동국여지승람』 서산군 관방조에는 ‘파지도영은 군 북쪽 35리 지점에 있으며, 수군만호 1명이 있다, 고파지도수는 군 북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파지도만호가 군사를 나누어 이를 지키고 있다.’ 라고 하여 충청수군진 체제가 갖추어진 15세 말 후에는 파지도영으로 불리면서 군 북쪽 35리 지점 즉, 현재의 서산군 팔봉면 호리에 파지도영이 옮겨 설치되고, 소근진관의 관할 하에 대산반도 서쪽의 가로림만과 그 주변 방어를 임무로 하게 된다. 이 때에 와서는 처음 파지도영이 있었던 파지도섬은 고파지도수(古波知島戍)로 불리면서 파지도만호의 분병수지가 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1459~1481년 사이에 파지도영은 대산포에서 현재의 서산 팔봉면 호리로 옮겨온 것으로 추측된다.²⁰⁰⁾ 가로림만 입구의 파지도섬에서 가로림만 안쪽에 있는 팔봉면 호리로 옮겨왔지만, 명칭은 속지주의를 따르지 않고, 처음 정한대로 파지도영으로 계속 불리고 있다.

호리의 파지도영은 대산반도 서쪽의 가로림만을 방어하기 위한 수군진으로, 조선 전기 다른 수군진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만입한 곳에 설치되었고, 가로림만 입구의 파지도섬에 분병수지를 두어 외양과 입구를 감시하고 있는 점

200) 처음 파지도영이 대산포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구진지(舊鎭址)가 초기 파지도영 자리로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평신진의 전신인 항금진이 구진지에 설치되었다가 오늘날의 평신으로 이설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항금진의 존재 시기는 1708년~1712년의 짧은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조선초기의 파지도영 설진 관계로 붙여진 지명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수군진성과 공통적 특징이다.

이렇게 가로림만 깊숙이 만입한 곳에 위치한 수군진에 대하여 광해군 11년(1619)에 편찬된 서산지역의 사찬읍지인 『호산록(湖山錄)』에는 당시 식자(識者)들이 파지도영 위치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글이 있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어 간 것 같다.

옛날에는 파지도가 북포바다 입구에 있음에 군사를 나누어 지켰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옛적에는 어느 사람이 무슨 소견으로 이것을 내포에 옮겨 설치하였는가, 지금 내포에 진영을 설치했던 지점을 보면 안방속 깊숙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해적이 허점을 넘보며 파도를 따라 출몰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선(商船), 조선(漕船), 관선(官船)이 왕래하는데 탈취 당하고 함몰되거늘 만호가 멀리 있음에 듣고도 달려가 구원하지 못하니, 비록 선박이 있으나 조수가 일어나야만 배가 뜨고 조수가 떨어지면 배가 뜨지 못한다. 때문에 조수가 떨어진 후에는 도적의 선박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도 어느 물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며 바다 가운데 있는 도적을 추적하겠는가.²⁰¹⁾

진(鎭)이 외양의 해안가에 있지 않고 깊숙한 만입지에 있음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어 이 파지도영은 조선 후기에 오면 대산반도 끝단에 만들어지는 평신진에 기능을 넘기고 폐지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비고」의 革廢條에 ‘파지포진은 나중에 평신진에 합쳤다.’라고 하고 있으며, 1655(효종 6)~1670년(현종 9)에 편찬된 『동국여지』까지는 파지포영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평신진이 설립되는 1700년대 초 숙종 때 평신진에 합쳐져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여지도서』나 『충청도읍지』, 『대동지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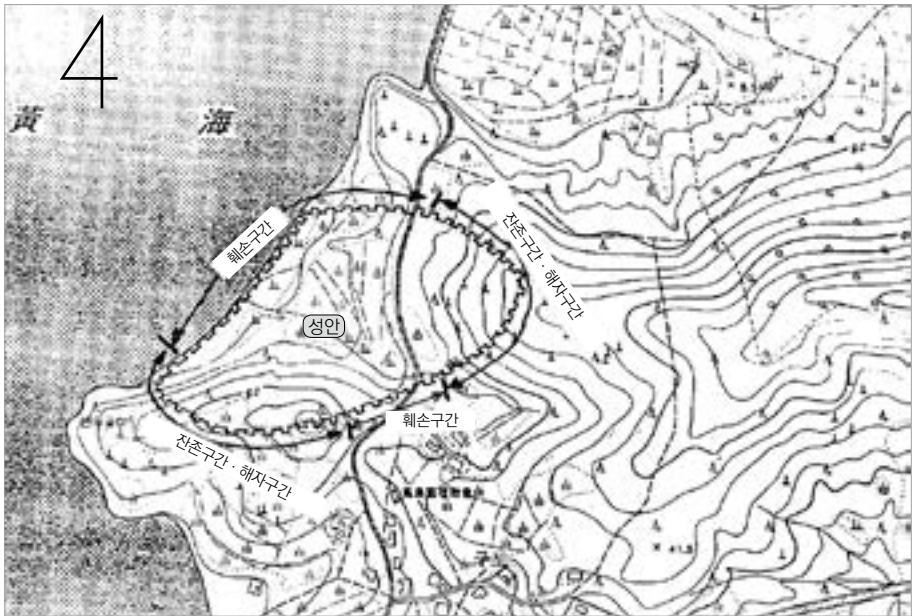
201) 『湖山錄』 관방조, 서산문화원, 1999.

에는 파지포영은 폐영으로 기록되어 나타난다.

(2) 파지포영성

파지포영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산군 관방조에 ‘정덕 병자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1,337척에 높이는 11척이며 그 안에 우물이 하나 있다.’ 하여 현재 호리에 있는 수군진성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산시 팔봉면 호리3리의 파지포영성은 1516년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약 640m정도 남아 있다.

이 성은 만의 중앙부로 내민 25~35m 정도의 야트막한 산줄기 끝의 사면에 축성되었고, 산능선과 바다가 접하는 부분을 성벽으로 연결한 포곡식 비슷한



〈그림 49〉 파지포영 성벽

성이다. 성의 내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사실상 주변 능선의 성벽이 있는 곳을 제외하면 거의 평지성에 가깝다. 바다와 접한 성벽 아래의 정박처는 그 양쪽의 산능선이 더 내밀어져,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곳이어서 다른 수군진성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석축을 하였으나, 현재는 돌은 주변 간척공사나 구도항 축조공사에 사용하여 모두 없어지고 북·동·남벽이 3~4m정도의 토성의 흔적으로만 남아있다. 또 바다와 접하는 서벽은 붕괴되어 없어지고 약간의 석축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만조시에는 물이 들어오지만 간조시에는 바닥이 드러나는데 갯벌로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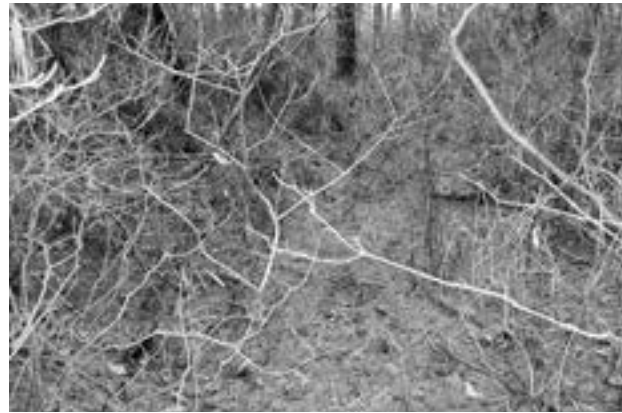
그리고 내륙 산줄기 쪽에 축성된 북벽과 동벽에는 깊이 2~3m 정도의 해자가 잘 남아있다. 성벽의 바깥면에 급경사지나 절벽이 있으면 성벽의 방어력을 강화시켜주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성벽의 바깥쪽에 해자를 파서 내륙의 산줄기를 타고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산줄기 내륙 쪽에 이렇게 해자를 만든 경우는 구 마량진성의 동벽이나, 서천포영성의 북벽 그리고 당진포영성의 남벽에서도 확인되는 공통적 현상이다.

이 성은 지역 주민들에게 탐문을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조차도 알지도 못 할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무관심 지대로 남아 있다.²⁰²⁾ 최근 마을 도로 개설 작업으로 남벽과 북벽의 아래 부분은 절개 되었는데, 현재 도로가 통하는 부분이 과거에 북문과 남문을 연결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측면 성벽의 바다와 접하는 아래 양쪽에 문을 만든 성벽 형식이 마량진 서천포 등과 아주 유사하다. 주민들에 의하면 추정 북문지 근처에서 홍예문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둥근 홍예석이 굴러다녔다는 것으로 보아 홍예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202) 처음 필자가 이 성을 찾아 답사할 때, 이 성의 존재에 대하여 아는 호리의 주민을 어렵게 찾았는데, 그분도 옛날에 어느 부자가 쌓은 성으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



파지포 포구



파지포성 해자

이 성의 현재 행정구역은 서산시 팔봉면 호리(虎里)여서 파지포영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파지포영성’ 보다는 ‘호리성’으로 소개되기도 한다.²⁰³⁾ 다만 이 성의 흔적과 관련하여 성안이었던 곳의 지명이 ‘성안골’로 불리면서 농경지로 개발되었고, 현재 파지포영 포구는 포구의 기능을 잃었다.

현재 포구의 기능은 성벽의 500여m 남쪽에 구도항이 담당하여, 어선 정박처로 파지도섬으로 가는 여객선 출항지로 이용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안흥량의 험한 뱃길로 인하여 태안군 인평면에서 서산시 진장리를 거쳐 이곳 파지포영으로 만입한 가로림만을 연결하는 굴포운하 개착 시도가 있었던 곳이다. 운하가 완성되었더라면 파지포 앞으로 조운선이 통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파도리인 파지도섬에도 성의 흔적이 남아있는데,²⁰⁴⁾ 처음 설진될 때나 분병수지였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파지도섬은 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팔봉면 호리의 구도항에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왕래하는 여객선이 있다.

203) 『문화유적분포지도』 서산시편, 충남발전연구원, 1998.

204)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1991.

7) 당진포영(唐津浦營)

(1) 당진포영의 설치

당진포영이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조에 ‘당진만호(唐津萬戶)는 당진현(唐津縣) 북쪽 박지포(朴只浦)에 머무르며, 거느린 것이 병선 13척, 선군 790명이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세종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세종 때 만호가 머무르던 박지포가 어디인가는 현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의 옹포로 추정되기도 한다.²⁰⁵⁾ 옹포는 아산만 입구에 위치한 수운의 요충지이다.

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진포영은 본현 서쪽 34리 지점에 있는데, 수군만호 1명이 있다. 정덕(正德) 갑술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그 둘레는 1,340척이며, 높이가 9척이다. 난지도수(難知島戍)는 본현 북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둘레는 34리이며, 당진포의 만호가 군병을 나누어서 지킨다.’ 라고 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당진포영성이 있는 곳을 말한다. 당진포영성이 있는 곳은 대산반도 동쪽 대호만의 만입지인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 2리이다. 따라서 박지포에서 여기로 옮겨진 것은 『동국여지승람』 완성시기인 1481년(성종 12) 이전이 된다. 이곳은 대호만을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다.

당진포영도 충청 수군진 체제가 정비되면서 공식적으로 당진포 만호영로서 소근진관 첨사의 소관으로 편입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수군의 구원군이 당진포에 들어오기도²⁰⁶⁾ 한 요충지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205) 박지포의 위치에 대하여는 당진 향토사가들은 『세종실록지리지』에 唐津縣北 29里에 있고, 대동지지에 熊浦는唐津縣北 30里 해변에 있다 로 되어있어 朴只浦를 熊浦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당진포영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당진 西 34리, 대동지지는 西北 30리로 되었다.

206) 『亂中雜錄3』 선조 31년(1598) 2월 21일조
주사제독(舟師提督) 진인(陳璘)이 절강의 수병 5백여 소(艘)를 거느리고 서해를 건너와 당진포에 정박하였다가 전라도로 내려가 고금도로 향하였다.

수영이 있던 보령 오천에도 명 수군이 들어온 것²⁰⁷⁾을 보면 충청수영 관내는 임진왜란 때 명 수군의 구원군이 들어오는 장소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진포영도 대호만의 깊숙한 만입지에 위치했으므로 외양 감시를 위하여 대호만 입구의 난지도에 분병수지를 설치하고 있다.

『세조실록』 세조 4년 6월 9일(을유)조에,

병조에서 도순찰사(都巡察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당진포 만호(唐津浦萬戶)를 난지도(難知島)로 옮겨 방어하게 하였으나, 난지도는 물길이 험악하고, 얼음이 얼면 출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니,



〈그림 50〉 당진포영 성벽

207) 오천초등학교 뒤에 있는 季金將軍淸德碑가 이 사실을 유일하게 알려준다.

청컨대 당진포에 돌아오게 하소서. 난지도도 또한 적이 침입하는 길이
니 방수(防戍)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얼음이 풀릴 때에는 당진
포의 병선(兵船)을 나누어 방어하였습니다. 또 그 토지가 기름지니, 청컨
대 당진포 만호(唐津浦萬戶)로 하여금 병선을 나누어 난지도를 방어하게
하고, 또 둔전(屯田)을 경작하여서 군수(軍需)에 보태게 하소서.”하니, 그
대로 따랐다.

이처럼 당진포영도 대호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점과, 외양을 경계하기 위
해 만 입구의 난지도에 난지도수를 설치하고 만호가 분병수지하고 하고 있는
점은 다른 수군진의 입지와 비슷한 현상이다. 난지도수는 당진군 석문면의
대난지도에 있는데, 지금도 <말막금>이라는 지명이 있고 얼마 전까지 객사
가 있었다고 한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조운선이 정박하기 때문에 대·소난
지도 항구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한편 아산만의 만입한 곳에는 조선 초기 대진만호(大津萬戶)가 설치되어 방어
하고 있었다.

즉 『세종실록지리』 충청도조에 ‘대진 만호(大津萬戶)는 홍주(洪州) 임내(任內)
신평현(新平縣) 북쪽 대진(大津)에 머무른다. 거느린 것이 병선 13척, 선군 794명
이다.’ 라고 하여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리 한진항에 대진 만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당진 영역이지만, 당시 홍주의 월경처(越境處)였기
때문에 홍주 임내로 표시되고 있다. 이곳이 홍주의 월경처라는 것은 아산만
이 조운이나 왜구 방어에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홍주목사가 직접 관할하
였다는 의미가 된다.²⁰⁸⁾ 현재 한진항구는 어업항구로써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진 만호는 세조 3년(1457) 충청도 수군진체제가 정비되면서 난
지도에 합쳐지고 폐지된다. 충청전도순찰사 박강이 여러 포진을 순심하고 보

208) 아산만 공세곳은 공진창(貢津倉)으로 불렸던 조창(漕倉)이 1478년(성종 9)에 설치되어 충청도 14개 고을,
뒤에는 7개 고을의 조세를 수납했던 해운상의 요지였다.

고하기를,

대진(大津)은 “경기와 충청 두 도(道)의 경계이므로 방어가 긴요하지 않으니, 지금 두 도의 해구(海口) 중앙인 난지도(灘地島)에 당진포 및 대진의 병선(兵船)으로써 합쳐 정박하고, 만호 1원(員)은 혁파하소서.”²⁰⁹⁾ 하니 따랐다.

당진포영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폐지되고 평신진이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대호만 입구인 대산곶 끝단에 진이 설치되면서 만의 안쪽에 있던 당진포영의 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655~1670년에 편찬된 『동국여지지』까지 당진포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오고, 『비변사등록』 효종 5년(1654) 8월 9일조에 ‘수조(水操)시 당진포의 배가 파선되는 피해가 속출한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당진포영은 적어도 평신진이 만들어지는 1700년대 초반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진포영성

당진포영이 있었던 곳은 당진군 고대면 당진포 2리인데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성벽에 대하여 『신동국여지승람』 당진현 관방조에는 ‘정덕 갑술년에 비로소 돌성을 쌓았는데 둘레는 1,340척, 높이는 9척이다.’라고 하여 1514년에 성이 축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현재의 정확한 위치는 당진포 2리의 해창 마을 북쪽에 있는 노적봉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해발 20~30m정도 야산 줄기의 끝부분이다. 이 산줄기 주

209)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1월 16일 신사

변 역시 지금은 대호방조제 간척사업으로 일대가 농경지로 변하였지만 당시는 대호만의 안쪽을 이루던 바다였다. 따라서 이 산줄기는 바다를 향하여 쏙 내밀어진 지형이다. 이 산줄기의 끝 부분에서 해발 20~30m정도의 정상부분 산능선과 동남쪽 산사면의 하단부를 연결하여 그 산사면을 둘러싼 성이다. 산사면의 여러 곳에 평탄지가 있는데 이곳이 건물지로 추정되는 곳이며, 조선시대 와편이 발견된다. 전체 길이는 약 418m정도 된다. 정상부 산능선의 성벽인 서벽은 침식은 되었으나 높이 2m정도의 토성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 서벽의 바깥은 급경사여서 천연적인 성벽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산능선에 있는 서벽과 그 아래에 있는 하단부의 동벽을 연결하는 남벽은 서벽보다 양호하게 남아 있어 높이가 4~5m에 이르며, 남벽 바깥에는 해자가 있는데 많이 침식되지 않아 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깊이 약 2m, 넓이 3m정도가 된다. 해자는 산줄기의 내륙 쪽에서 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산허리를 자른 것처럼 설치하였는데, 다른 수군진성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산사면 하단부의 동벽은 바다와 접한 부분으로 완전 훼손되었다.

당진포영성의 안내기에는 계곡을 둘러싼 포곡식의 성벽으로 안내가 되었으나 필자의 정밀답사 결과 포곡식이 아닌 구마량진성이나 서천포영성과 같



당진포 포구



당진포영 성벽

은 산사면을 둘러싼 성벽이다. 왜냐하면 바다로 내민 산줄기의 중간 부분에서 아래로 연결하는 성벽(남벽)이 있고, 그 바깥쪽에 분명히 해자가 설치되어 있어, 여기서 성벽이 더 이상 산줄기의 위쪽으로 돌아서 계곡을 둘러싸지 않는다. 아마도 정밀한 답사를 하지 않은 요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진포성영은 북쪽과 서쪽은 외양을 등지고, 내륙 쪽을 향하는 동쪽 방향의 산사면에 진성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동벽 앞쪽이 정박처인데, 외양을 등지고 있으면서 이곳도 U자형으로 들어간 부분이어서 다른 수군진성과 위치 조건이 아주 비슷하다. 처음에는 석축이었으나 돌은 주변 간척공사에 없어졌다고 하며, 성벽 앞의 마을 지명이 ‘성안’, ‘성안골’로 불리면서 수군진성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도로 건설시 성벽일부가 파괴될 뻔 하였으나 뜻있는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파괴를 면하였다고 한다.

이 성벽은 충남 문화재자료 365호로 지정되었다. 서벽의 정상부에서는 대호만과 외양이 한눈에 들어오며, 성의 너머에는 과거에 해창(海倉)이 있었던 관계로 해창 마을이 있다. 그런데 당진포성영의 서벽 즉 산능선부의 높이가 해발 20~30m 정도로 충청수영 관내의 다른 수군진성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된 점이 특징이다.

4. 충청수군진의 위치 변화와 입지의 특징



- 1) 위치 변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 2) 성벽축조와 입지의 특징
- 3) 오늘날 지명의 흔적



4. 충청수군진의 위치 변화와 입지의 특징

1) 위치 변화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

충청수영과 속진이 설치된 위치의 패턴이 기본적으로 해안 방어의 요해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각 시기별로 위치하는 구체적인 패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는 각 수군진이 입지한 곳은 여말 선초의 왜구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것들인데, 아직 조선왕조의 진관체제가 정비되기 전의 수군진 체제의 배치 상황이다.

우선 훗날 충청수영이 된 보령현 서쪽 대회이포의 수군도안무처치사영은 넓게는 천수만의 입구에 해당할 뿐 아니라, 실제 위치한 곳은 천수만에서 또 동북쪽의 광천 쪽으로 만입하여 들어간 곳의 입구이다. 보령현 서쪽 송도포에 머무르는 고만량 만호영은 수군도안무처치사영과는 남쪽으로 9km 떨어진 곳이지만, 이곳 역시 천수만 입구이다. 태안군 서쪽 오근이포에 머무르는 좌도도만호영은 나중에 소근진으로 바뀌는 곳으로, 이곳 역시 북쪽에서 태안 방향의 남쪽으로 깊게 만입된 곳인데, 수륙 교통의 중심지이다. 남포현 구정에 머무르는 우도도만호영은 나중에 마량진으로 바뀌는 곳으로,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곳도 웅천천과 만나는 웅천천 하구의 만입한 곳이다, 그리고 이곳은 백제시대 이래로 대외 통로였으며,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던 곳이다. 서천 장암포에 머무르는 장암포 만호영은 만입한 곳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수운 교통의 요지인 금강하구에 위치한다.

서산군 북쪽 대산포에 머무르는 파지도만호영은 가로림만의 우안에 위치하고, 당진현 북쪽 박지포만호영은 아산만 입구에 위치하며, 신평현 북쪽의 대진만호도 박지포보다 안쪽의 아산만 입구에 위치한다. 한결같이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만구의 입구나 만구의 안쪽에 위치하는 패턴을 보인다. 고려말 조선 초기 바다에서 내륙으로 극심하게 침입했던 왜구 방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선 초기 수륙을 연결하는 만입한 곳의 입구나 그 안쪽에 위치하였던 수군진의 위치는 조선왕조의 진관체제와 함께 정비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진관체제에 의한 지휘 계통의 확립을 가져온다. 15세기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육지로 침입하는 왜구 방어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즉 충청수영을 정점으로 그 휘하의 마량진관은 서천포를 지휘하고, 소근진관은 당진포와 파지포를 지휘하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때는 필요처에 분병수지(分兵戍地)를 설치하여 외양 쪽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이 특징인데, 이는 만입한 수군진 위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청수영에서 운영한 안면도의 요아량수, 마량진에서 운영한 도둔곶의 도둔곶수, 소근진에서 운영한 태안반도의 안흥량수 파지도영에서 운영한 파지섬의 고파지도수, 당진포영에서 운영한 대난지도의 난지도수가 이에 해당한다. 모두 만입된 곳에 있는 해당 진의 입구에 있으며, 서천포는 만입지가 아니어서 분병수지가 없다.

양란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 수영 위치 체제는 이설·신설·폐지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가져온다. 이 시기는 왜구에 대한 경계심은 거의 사라진 반면, 호란 이후 대륙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되면서 병자호란 때 강화도와 수도 한양이 청군에게 유린당한 것을 거울삼아, 수도권에 5군영의 설치,

한강 입구의 강화도 교동에 삼도통어영설치 등 수도권 방어에 중점을 두는 관방체제를 구축한다. 충청수영의 위치 변화도 이에 상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리하여 서산·태안 반도가 중시되는데, 이곳은 조선 후기 지정학적으로 강화도와 순치(脣齒)의 관계로²¹⁰⁾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실록』 17년 7월 17일 임신조에,

승지 이경의(李景義)가 상소하기를, 환란을 방지하는 방도를 반드시 미리 정해야만 의귀할 곳이 있게 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으로는 강도(江都)가 최선이니 토성(土城)과 목책(木柵)을 수축하는 일은 급선무가 아니고, …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강도를 근본으로 삼고 덕물(德物)의 여러 섬과 남양(南陽)의 대부(大富), 인천(仁川)의 자양(紫陽)을 좌우 울타리로 삼으며, 해서(海西)는 연안(延安)·해주(海州)를 대진(大鎭)으로 삼아 백령도(白翎島)에 이르고, 호서는 수영(水營)·서산(瑞山)·태안(泰安)을 우익(羽翼)으로 삼습니다. … 변고가 있으면 강도(江都)로 달려가 구원하게 합니다. …

강도(江都) 방어를 위하여 인조 11년(1633)에 강화도 앞 한강 입구인 교동도에 삼도통어영을 설치하고 경기·충청·황해도의 수군을 통제하였다.²¹¹⁾ 이로 인하여 충청수영은 조선 전기의 왜구 방어를 위한 경상·전라·충청의 수군을 지휘하는 삼도통제영의 통제에서 벗어나 수도권의 강도 방어 체제에 편입되었다. 그리하여 강도와 순치 관계인 서산·태안 반도가 강도의 우익으로 중시되었고, 따라서 소근진의 분병수지인 안흥량수가 있었던 태안반도 끝단에 안흥진(安興鎭)이 설치되고, 가로림만과 대호만의 깊숙한 곳에 설치된 파지도영과 당진포영을 폐지하고 대산반도 끝단에 새로이 평신진(平薪鎭)을 설치하

210)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 “泰安瑞山與江華南北相對而隔一小海 …”

211) 『만기요람』 군정편

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종3품의 첨사영이었지만, 특히 안흥진은 종2품의 방어사영이 되기도 하고, 수영을 여기에 옮기자는 논의가 있기도 하였으며, 수사의 행영(行營)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한 평신진은 기본적으로는 수영 소속이지만 독진(獨鎭)으로 운영되면서 정조 때 수도권 방어와 왕권 강화를 위해 신설한 부대로서 수원 화성에 본부를 둔 장용영(壯勇營)에 소속되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조선 후기는 충청수영 위치 체제상의 중요성이 수영본영보다 안흥진이나 평신진에 기울어져 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수영의 비중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시기 이설·신설·폐지의 변화를 겪으며 만들어진 새로운 수군진의 위치는 조선초기와는 달리 만입지가 아닌 외양으로 나아간 지점에 설치되고, 석축 성벽을 축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흥진이 태안반도의 맨 끝단, 평신진이 서산 대산반도의 맨 끝단, 그리고 이설된 마량진이 서천군 비인의 도둔반도 맨 끝단이다.²¹²⁾ 그리고 평신진이나 마량진은 석축의 튼튼한 성벽을 구축하지 않고 운영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 후기 충청수군진의 기능이 지역으로 침투하는 왜구 방어보다는, 강도구원과 조운선 안내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점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212) 조선 후기 수군진이 바다로 돌출한 지형의 끝단으로 나간 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산록』에,

“... 지금 내포에 진영을 설치했던 지점을 보면 안방 속 깊숙이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해적이 허점을 넘보며 파도를 따라 출몰하고 있으며, ...”

『비변사등록』 숙종 32년 4월 14일

전 충청감사 김연(金演)이 틈하기를, “충청수영은 위치한 곳이 외지고 앞 바다와의 거리가 아주 먼데다가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어 멀리 망을 보는데 방애로움이 있으며...”

『비변사등록』 숙종 37년 5월 20일

행판결사 윤덕준이 말하기를 “충청수영은 바다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어 수영을 옮기자는 논의가 전부터 있었습니다.”

2) 성벽축조와 입지의 특징

조선초기 조정에서는 진관체제 정비와 함께 수군진이 위치한 곳에 석축의 성벽을 구축하는데, 내륙의 읍성(邑城)보다는 늦어진다. 그 이유는 수군침절제 사나 수군만호들이 방어와 수토(搜討)를 위하여 항상 병선을 이끌고 해상을 왕래하는 선상수어(船上守禦)를 원칙으로 하는 수군의 전략 때문이었다. 즉 병선의 정박처로 지정된 일정한 포구는 비록 진영(鎭·營)으로 삼고는 있으나, 여기에는 군량(軍糧)과 군기(軍器)만 쌓아 두고 있었을 뿐이고, 무군병선(無軍兵船)이 있어서 유사시 하번선군(下番船軍)이 집결하고 있는 장소로 이용되고, 또 해상 작전을 하는 병선의 기항지인 동시에 보급기지 역할만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수군진에는 군량 등을 보관하는 간각(間閣)만 허락되었다. 그러나 왜구가 소멸되면서부터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 만호나 천호들이 수변(水邊)에 사적으로 영사(營舍)를 마련하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자 성종 때는 보(堡)의 설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중종대에 이르러서는 왜변의 충격에 자극되어 성종대에 이어서 2차 축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²¹³⁾ 이에 따라 충청수영과 속진들의 축성도 모두 중종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²¹⁴⁾

중종대에 축성된 충청수영관내의 진·영성의 위치적 특징은 내륙의 산줄기에서 뻗어 와서 바다로 약간 돌출해 들어간 20~80m의 아트막한 야산의 양지사면을 산등성이로부터 바다와 접하는 아래 면까지 둘러싸면서 축성을 하고 있다. 이 산등성이에서는 사망의 전망이 아주 좋아 치성을 설치하여 바다와 주변을 후망(後望)하는 역할을 한다. 맨 아래의 성벽과 성문의 바로 밑에는 물이 들어오고 배를 정박할 수 있다.

213) 車勇杰, 「高麗末 朝鮮初期 對倭 關防史研究」, 충남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214) 수영성 중종 5년, 마량진성 중종 5년, 소근진성 중종 9년, 서천포영성 중종 9년, 당진포영성 중종 9년, 파지도 영성 중종 11년이다.

그리고 정박처 주변에는 자연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이나 육지의 돌출부가 감싸고 있어 결국 U자나 이와 비슷한 형태의 지형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포구의 앞에는 섬이나 산줄기가 위치하고 있어 U자형 포구의 바깥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다. 따라서 수군진성 앞의 포구는 적에게 직접 노출이 되지 않으면서도 거센 외양의 풍랑을 직접 받지 않는다.

즉 보령의 수영은 천북면을 이루는 산줄기가 앞에 있으며, 만의 입구에는 원산도 등 많은 섬이 있고, 마량진과 평신진은 외양 쪽의 산을 등지고 내양을 바라보는 위치이고, 서천포는 앞에 당그메산 전망산의 야산이 있으며, 소근진은 의항리 쪽의 산줄기가 앞을 막고 있으며, 안흥진과 파지도영도 앞에 산줄기가 가로막고 있으며, 당진포영은 외양 쪽인 좌측에 초락도가 있어 진 포구를 보호한다.

또한 바닥에는 암석이 없어야 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에서는 썰물 때 위험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군진이 위치했던 곳들은 간척이나 매립이 이루어진 것을²¹⁵⁾ 보면 암석이 없고 사토(沙土)가 좋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서해안이기에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썰물 때는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실제 답사시에도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기록 확인이나 실제 현장 확인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부교 시설 등 특수시설을 했든지, 아니면 수군진성에서 바다 쪽으로 좀더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배를 정박해 두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될 수 있는 것이다.

충청수영과 속진들의 수군진성은 구마량진성, 당진포영성, 서천포영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포곡식 산성에 가깝지만 산성이나 읍성과는 달리 산의 정상부의 능선과 산사면, 그리고 바다와 접하는 곳까지 성벽으로 연결하여

215) 수영본영인 오천은 성문앞이 매립되어 시가지화 되었고, 마량진인 웅천의 황교리는 부사방조제 건설로 육지화 되었고, 서천포영인 장항의 장암동은 매립되어 농경지화 되었으며, 소근진은 매립은 안되었지만 갯벌에 굴양식을 하고있고, 파지도영이 있었던 자리도 매립되었고, 당진포영 자리도 간척되어 농경지화 되었다.

축성한 것은 내륙 읍성과는 다른 수군진성의 특징적 현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중종대에 수군진에도 내륙의 읍성과 같이 축성을 했다는 것은 이제 수군이 유사시 해상전투뿐 아니라 육상전투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바다와 접하는 곳에 성벽을 구축한 수군진성의 특징은 해상과 육상전투의 기능을 겸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란이후 이설·신설된 곳 중 안흥진을 제외한 평신진과 마량진은 전투용 성벽을 축조하지 아니하고 영사(營舍)만을 건립하고 운영되었는데, 이는 유사시 강도방어를 위한 지원 부대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바다에서 육지로 침입하는 형태의 왜구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오늘날 지명의 흔적

오늘날 각 수군진에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약간의 성벽 유적이 남아 있을 뿐이고, 다른 유적이나 유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단지 서천포와 평신진의 침사비 몇 개와, 보령 오천의 충청수영 본영에 홍예문, 진흙청, 객사, 계급장군청덕비 등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수군진이 설치되었던 곳은 지명을 통해서도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수영이 있었던 곳인 보령시 오천은 조선시대에는 시장(市場) 명칭이 ‘水營場’이라고 불리고 모든 기록에도 수영장으로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지명을 통해서 수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1901년 오천군(鰲川郡)이 설치되면서 수영이라는 공식 명칭이 오늘날은 전혀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명도 없어 현재는 지명만으로는 수영이 있었던 곳이라는 암시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일부의 고로(古老)들은 아직도 오천장을 ‘수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수영 남쪽의 고만

량은 지금도 계속 ‘고만’이라는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량진은 원래 보령 웅천에 있다가 서천으로 이설되고, 진 이설과 함께 명칭까지 이설되어 보령 웅천의 원위치에는 ‘마량’이라는 지명은 없어지고 단지 ‘구진(舊鎭)’으로만 남아 온다. 조선후기 이설되어진 서천군 서면의 마량진은 속지주의 명칭이 아닌, 이설되어 온 명칭에 따라 마량진이 되었고 지금도 ‘마량리’, ‘마량항’, ‘마량포’ 등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서천포영은 지금까지 계속 장항읍 장암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면서 주변은 ‘성박이’, ‘성안’ 등의 지명이 남아 있어 수군진의 흔적을 알 수 있으며, 소근진은 ‘소근진리’, ‘안소근 마을’, ‘성안’ 등의 지명으로 남아있고, 당진포영은 ‘당진포리’, ‘성안’ 등의 지명이 남아 있으며, 대진은 ‘한진’으로 남아 있다.

안흥진은 변함없이 ‘안흥’으로 남아오고, 평신진은 원래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항금산 아래 설치되어 항금진이었으나, 대산읍 화곡리 평신으로 옮겨지면서 속지주의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어 평신진이 되었고, 지금까지 마을 지명이 ‘평신’으로 남아 온다. 평신진의 전신인 망일산 아래의 대산포는 ‘구진(舊鎭)’이라는 지명이 옛 수군진이었다는 지명 흔적을 알려준다.

파지포영은 분병수지였던 ‘고파도리’만 연관된 지명으로 남아올 뿐 구도항으로 지명이 쓰이면서 파지포 지명은 없어지고 ‘성안골’의 지명만이 어렵 뜻한 수군진의 지명 흔적을 보여준다. 마량진이 이설되면서 명칭까지 이설되어 현재도 원위치인 보령 웅천이 아닌 이설되어진 서천 서면에 마량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파지도영은 이설되어진 곳에는 파지도영과는 아무 관계없는 팔봉면 호리라는 지명이 사용되어지고, 처음 설진되었던 파지도만이 그 명칭의 흔적이 남아 올 뿐이다.

수군진이 있었던 곳 중 현재에도 항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수영이 있었던 오천항, 마량진이 있던 비인의 마량항, 안흥진의 안흥항, 소근진의 소근포, 대진의 한진항 등이며, 육지로 변하거나 항구 기능을 상실한 곳은 서천포영, 구마량진, 고만량, 당진포영, 평신진, 파지포 등이다.

〈참 고 문 헌〉

- ◆ 『經國大典』
- ◆ 『高麗史』
- ◆ 『高宗·純宗實錄』
- ◆ 『國朝寶鑑』
- ◆ 『大東地志』
- ◆ 『東國輿地志』
- ◆ 『萬機要覽』
- ◆ 『備邊司謄錄』
- ◆ 『三國史記』
- ◆ 『三國遺事』
- ◆ 『瑞山郡誌』(1926)
- ◆ 『承政院日記』
- ◆ 『新增東國輿地勝覽』
- ◆ 『與志圖書』
- ◆ 『鰲川郡誌』
- ◆ 『日本書紀』
- ◆ 『日省錄』
- ◆ 『朝鮮王朝實錄』
- ◆ 『忠清水營事例集』(필사본)
- ◆ 『擇里志』
- ◆ 『湖山錄』
- ◆ 『湖西邑誌』

- ◆ 가경고고학연구소, 2015, 『보령 충청수영성 내아영역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 ◆ 가경고고학연구소, 2016, 『보령 충청수영성 내아지(2차)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5, 『安興鎮城』.

- ◆ 公州大學校博物館, 1996, 『所斤鎮城』.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전라우수영』.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전라좌수영』.
- ◆ 국사편찬위원회, 1991, 『韓國史』, 탐구당.
- ◆ 규남박물관·전남대·화순군, 2016, 『圭南博物館圖錄』.
- ◆ 김명래, 2015, 「충청수영 동헌·객사의 당호 복원」, 『보령문화 24집』, 보령문화연구회
- ◆ 김명래, 2016, 「영보정 시의 내면과 충청수영 주변의 관념적 배경 고찰」, 『보령문화 25집』, 보령문화연구회.
- ◆ 金良奎, 2004, 『忠元公 崔湖 將軍』, 군산문화원.
- ◆ 김영한, 1994, 「보령에서 발굴된 埋藏文化財」, 『대보문화 3집』, 대보문화연구회.
- ◆ 김진경, 2016, 「한산사 터 답사기」, 『보령문화 25집』, 보령문화연구회.
- ◆ 김학로, 2017, 「내포 동학농민혁명의 해양성」,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자료집 5』.
- ◆ 노승석, 1997, 「各司謄錄에 收錄된 갈매못 聖地 관련 내용」, 『대보문화 6집』, 대보문화연구회.
- ◆ 대천문화원, 2004, 『보령의 봉수대』.
- ◆ 대천문화원, 2010, 『보령의 금석문』.
- ◆ 동방문화재연구원, 2016, 『보령 소성리(933번지) 충청수영성 치성(북동·남동) 및 동문 적대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 동방문화재연구원, 2017, 『보령 소성리(933번지) 충청수영성 치성(북동·남동) 및 동문 적대 문화재 발굴(시굴·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 동방문화재연구원, 2017, 『보령 충청수영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 남서치성 I 및 남서성벽 -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 민병선, 2007, 「충청수영의 설치배경」, 『보령문화 16집』, 보령문화연구회.
- ◆ 민병선, 2012, 『19세기 忠淸水營의 運營과 機能』, 중앙대 석사논문.
- ◆ 閔賢九, 1983, 『朝鮮初期의 水軍制度和 政治』, 韓國史研究院.
- ◆ 박광성, 1973, 「병자란 후의 강화도 방비 구축」, 『기전문화연구』 제3집.
- ◆ 박정현, 1988, 「韓國中世의 漕運과 泰安漕渠」 공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박현규, 2012, 『이순신 파워인맥 33-조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사람들』.
- ◆ 박현규, 2014, 「임란왜란 시기 明 水將 季金의 군사행적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제 21호』.
- ◆ 방상현, 1991, 『조선초기 수군제도』 민족문화사.

- ◆ 보령군, 1990, 새한建築文化研究所, 『鰲川城(忠淸水營城) 地表調査 報告書』.
- ◆ 보령시지편찬위원회, 2010, 『보령시지』.
- ◆ 夫餘博物館, 1997, 『舒川長巖鎮城』.
- ◆ 徐程錫, 1999, 「泰安 安興鎮城에 대한 일 고찰」, 『역사와 역사교육』, 3.4합집, 응진사학회.
- ◆ 송하순, 1991, 「永保亭 重修記」, 『대보문화 창간호』, 대보문화연구회.
- ◆ 신재덕, 1992, 「忠淸水營에 關한 研究」, 『대보문화 2집』, 대보문화연구회.
- ◆ 신재완, 2009, 「계금(季金) 장군을 찾아서」, 『보령문화 18집』, 보령문화연구회.
- ◆ 심정보, 2009, 「충청수영의 축조기법과 보존 방안」, 『忠淸水營의 歷史와 文化』, 충청수영 학술세미나 자료.
- ◆ 양주조씨문화유산보존회, 2015, 『양주조씨 문화유산 총람』.
- ◆ 윤용혁, 1991, 「서산·태안 지방의 漕運관련 유적과 高麗 永豊倉」, 『百濟研究』22, 충남대백제연구소.
- ◆ 이기백, 1987, 『한국사 신문』, 일조각.
- ◆ 이민웅, 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록』34, 서울대.
- ◆ 李載襲, 1984, 『조선초기 사회구조 연구』, 일조각.
- ◆ 이해준, 2009, 「충청수영의 역사문화사적 가치」, 『忠淸水營의 歷史와 文化』, 충청수영 학술세미나 자료.
- ◆ 이호주, 1996, 「충청수영의 기능변천」, 『대보문화 5집』, 대보문화연구회.
- ◆ 장학근, 2009, 「해양 방위정책과 충청수영」, 『忠淸水營의 歷史와 文化』, 충청수영 학술세미나 자료.
- ◆ 鄭淸柱, 1993, 「全羅左水營의 歷史」, 『全羅左水營의 歷史와 文化』, 순천대학교.
- ◆ 趙熙百, 1875, 『乙亥漕行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 車勇杰, 1988, 「高麗末 朝鮮初期 對倭 關防史 研究」,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최근목, 2009, 「충청수영의 위상」, 『忠淸水營의 歷史와 文化』, 충청수영 학술세미나 자료.
- ◆ 충남대학교 박물관, 1999, 『聖住寺』.
-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보령 충청수영성 학술발굴조사보고서』.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충청수영성 종합정비계획』.
- ◆ 한얼문화유산연구원, 2015, 『보령 충청수영성 동문지 및 성벽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 황영주, 1991, 「永保亭 效騰王閣 癸亥懸板」, 『대보문화 1집』, 대보문화연구회.

- ◆ 황영주, 1992, 「遊擊將軍 季公 清德碑」, 『대보문화 2집』, 대보문화연구소.
- ◆ 황의천, 2003, 「다시 보는 천하명승 永保亭」, 『보령문화 12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04, 「임진왜란 칠천량 해전과 충청수사 최호」 『보령문화 13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09, 「충청수영과 오천」, 『보령문화 18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12, 「임진왜란과 보령」, 『보령문화 21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14, 「忠淸水營의 明將軍 季金將軍碑와 國際交流」, 『보령문화 23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15, 「병자호란과 충청수사 강진흔」, 『보령문화 24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천, 2007, 「朝鮮時代 忠淸水營의 屬鎮과 位置에 대한 고찰」, 『보령문화 16집』, 보령문화연구회.
- ◆ 황의호, 1992, 「유격장군비와 관련된 민속」, 『대보문화 2집』, 대보문화연구소.
- ◆ 황의호, 2003, 「문화재의 지정 복원에 관한 몇가지 문제」, 『보령문화 12집』.
- ◆ 황의호, 2017, 「충청수영 영사의 변천」, 『보령문화 26집』.

충청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 황 의 천

보령 지역의 향토사를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발
이 닳도록 답사하면서 항상 가장 우선에 두었던 것이 성주사지와 충청수영이
었다.

특히 충청수영은 전국적 지명도도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유물 유적 및 자료
가 비교적 잘 남아 있어서 그 만큼 관심도가 컸기 때문이었다. 또한 향토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대외적으로 보령의 역사 문화적 자부심을 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충청수영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학계보다는 지역의 향토사 차원에서 연
구된 것이 많은 실정이다. 물론 충청수영이 국가 사적 지정 후에 최근 관계
당국에 의해 지속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도 지역 향토사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이번에 보령문화원에서 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역사 문화 유산인 충청수
영을 정리하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그 원고 집필을 의뢰해 왔기에 그동



안의 여러 성과와 노력을 총정리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연구와 자료 수집의 성과일 뿐이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지속적 연구와 자료 수집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 발간 직전까지도 영보정과 함께 수영의 절승을 이루었던 한산사지와 황학루지를 찾고자 수영 건너편의 천북면 학성리의 온 산속을 온 종일 뒤지며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다.

앞으로도 충청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찾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8년 1월

2017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

충청수영

© 보령문화원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17

발행일 2018. 1.

발행인 김한국

발행처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기획 보령문화원

글/사진 황의호·황의천·민병선

인쇄 한솔에드텍

비매품

ISBN 979-11-962803-8-3 05090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8007627

*이 책은 「한국문화원연합회_2017년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0.5090



9 791196 280383
ISBN 979-11-962803-8-3 (PDF)